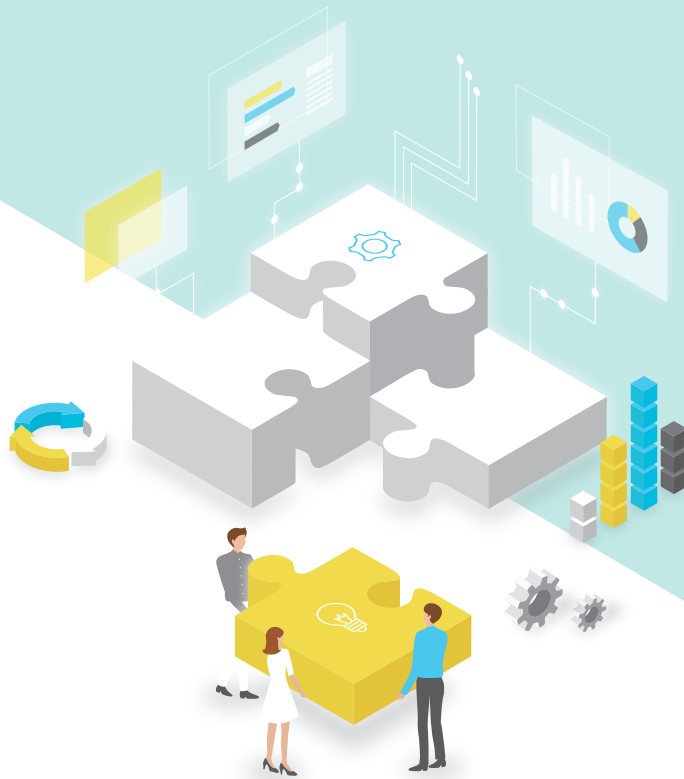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1011-01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분석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대관

연구 요약

1. 연구 개요 및 추진 경과

□ 연구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하며 ‘성평등 문화 실현’을 주요 의제로 선정할 만큼 성인지 관점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여전히 미비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건강한 성평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 공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인지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공공기관, 법인(협·단체), 정부위원회 등의 양성평등 수준을 살펴봄
-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원 체계에서 이뤄진 여성 소외 문제 확인을 위해 심사위원 성비 및 지원 수혜자 성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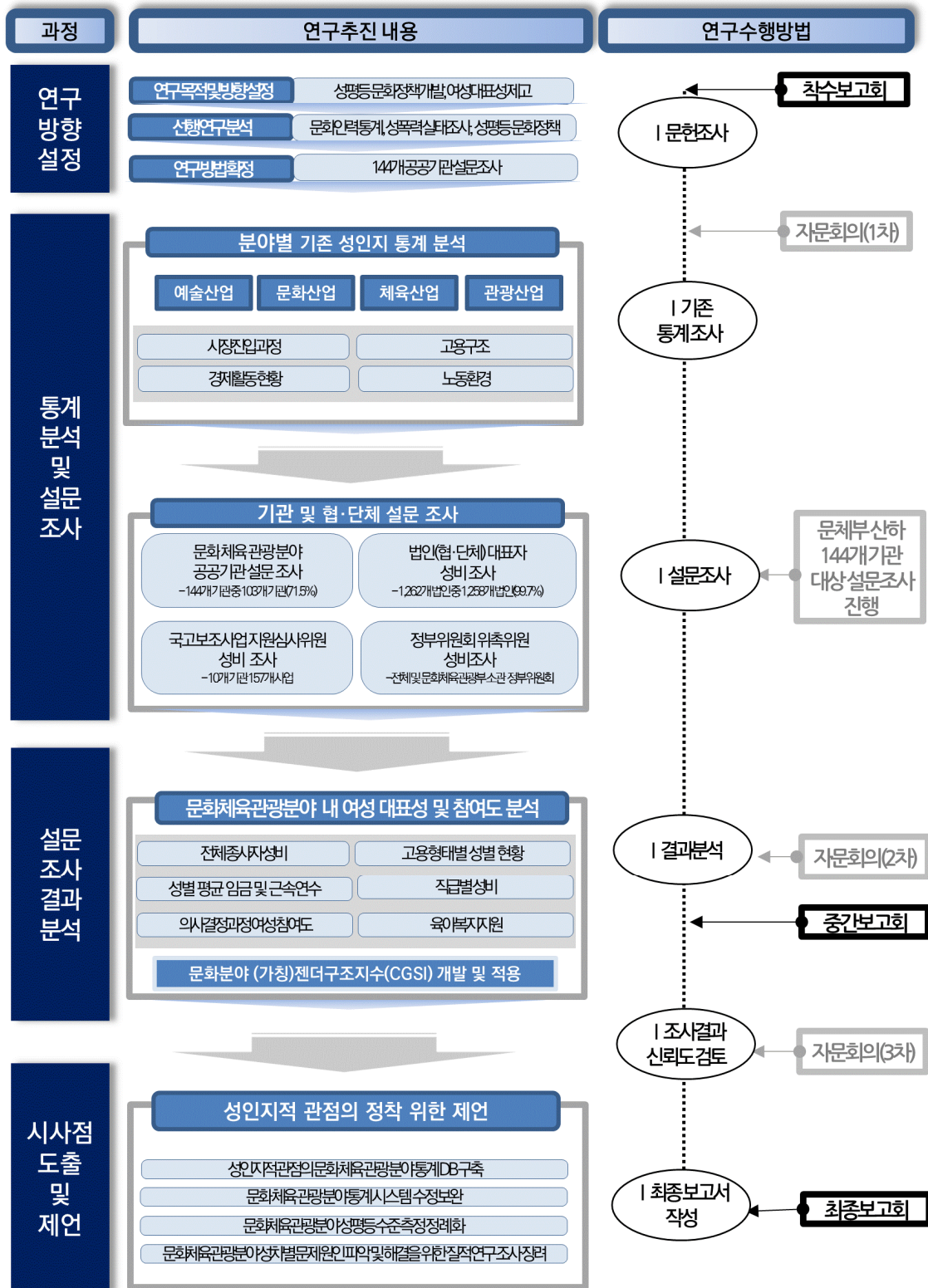
□ 연구 방법

-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행된 포럼,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등에서 기 사용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환경 및 구조를 분석하고 분야별 기존 성인지 통계자료를 검토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기관과 협·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분석 수행
- 본 연구의 목적 및 방향, 현재 문화산업분야 현황, 향후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 및 성과를 정리·분석
-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분야 현실에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한 뒤, 효과적이고 확장적인 적용·응용을 위한 고려점 제언

□ 주요 내용

- 문화 관련 기관 여성 대표성 및 참여도 분석
-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 DB구축 정책 제언
- 성인지적 문화정책 방향성 제언 및 예시 사업 제시
-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GSI) 개발 제언

□ 연구체계도



[그림 1] 연구 추진 방향

2.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성평등 환경

□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는 세계 144개국 중 114위로 저조한 상황

- 특히 성별격차지수의 4개 하위지표(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교육, 건강 및 생존, 정치세력화)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에서 가장 낮은 124위를 차지

〈표 1〉 2018 한국의 성격차지수 순위

전체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교육 성취	건강 및 생존	정치세력화
114	124	100	87	92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수 대비 실질적인 지위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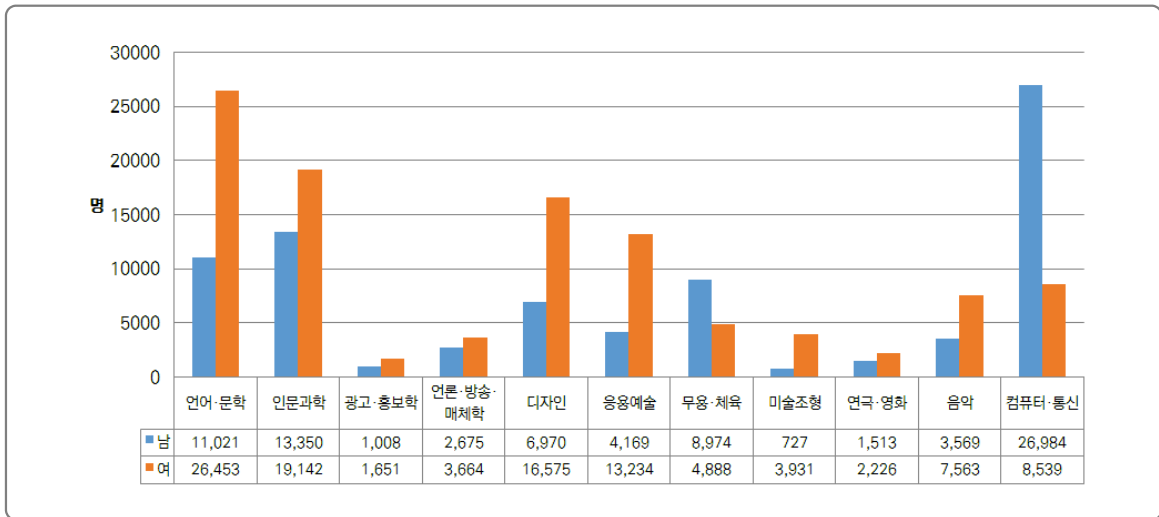
- 문화·예술은 여성이 친밀하게 느끼는 분야로, 직업 선택에 이르는 여성의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나, 문화예술계에 남성화된 예술가의 스테레오타입이 존재하여 여성 예술가 활동에 장애가 됨
- 구체적으로, 남성성을 창조성과 연관시키는 고정관념은 권위가 있는 역할이나 분야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역할을 함

□ 문화예술 분야 노동시장의 특성 및 성별 격차 때문에, 예술과 문화산업 노동시장은 프리랜서, 단기 고용계약 등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많음

- 문화예술계는 한 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여러 직업을 가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개인이 기업가적 노동 특성을 가지도록 압박하는 환경임
- 동시에 여성이 보다 자유롭고 개인화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하여 성차별적 제도나 여성노동의 보호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킴

□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남성 대비 여성인력의 비중은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일반적 고등교육을 받은 성비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님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문화·예술·체육 관련 학과의 입학생과 졸업생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학과별 졸업생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무용·체육, 컴퓨터·통신 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다수이나, 취업률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전공 모든 계열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1~4%p 높음



[그림 2] 문화·예술·체육 관련 세부전공별 졸업생의 성별 분포(201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서비스』 참고 재구성.

〈표 2〉 문화·예술·체육 전공 졸업생의 성별 취업률 현황(2017)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인문계열	59.1	54.5
사회계열_경영·경제	65.7	62.8
사회계열_사회과학	62.0	61.0
예체능계열	65.8	61.6
공학계열_컴퓨터·통신	69.8	66.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참고 재구성

□ 문화예술계는 성별 임금격차가 확연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승진 가능성이 감소하고 경력유지가 어려운 유리천장이 존재함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의 경우 남성 월 급여액이 평균 4,225,000원으로 여성 월 급여액 평균인 3,068,000원보다 1,157,000원 많음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남성 월 급여액이 평균 3,086,000원으로 여성 월 급여액 평균인 2,295,000원보다 791,000원 많음
- 여성은 남성보다 문화예술교육을 더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이 분야의 현장경험을 중시하는 특성,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채용관행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여성이 문화예술분야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승진 및 경력유지의 어려움과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의 불평등을 겪게 됨

〈표 3〉 문화·예술 산업 성별 평균 임금 현황(2018)

(단위: 천 원)

구분		월 급여액	월 임금 총액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남성	4,225	4,775
	여성	3,068	3,33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남성	3,086	3,338
	여성	2,295	2,444

출처: 고용노동부(201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정책 환경

□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전공생은 여성이, 종사자는 남성이 많음

- 문화·예술 관련 전공생은 해마다 남성 8만여 명, 여성 10만 여명으로 2만여 명씩 여성이 더 많으나, 실제 산업 종사자는 남성이 보다 많음
- 대부분 산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급여가 낮고,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일하며, 고위직 비율이 낮고, 종사 연령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 관련 주요 통계

	평균 계약금액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대표자 수	연령대 분포
남성	476.1 만 원	47.2% / 11.0%	98,047명	20~30대: 52.7% 40~50대: 42.9%
여성	351.2 만 원	33.1% / 8.6%	54,868명	20~30대: 65.0% 40~50대: 30.2%
자료	2018예술인실태조사 (예술산업)	2017콘텐츠산업통계 (문화산업)	2016 사업체 대표자 산업별 성별 분포	통계청 제공 2017 종사자 DB

□ 체육·관광 분야 종사자, 대표자,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비율에서 모두 남성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 관광 산업 종사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1.5배 많으며 종사자 월평균 임금 229만 원에 비해 여성 월평균 임금은 201만 원
- 체육 산업 종사자 중 여성 선수의 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남성 선수의 두 배 이상임

〈표 5〉 체육, 관광 분야 관련 주요 통계

	종사자 비율(체육/관광)	성폭력 경험 비율(체육)	대표자 비율(체육/관광)	고용형태별 성비(관광)
남성	58.6% / 38.0%	1.60%	65.2% / 69.8%	자영업자 61.3% 무급가족종사자 39.0% 상용 근로자 57.3% 임시 및 일용 근로자 50.0%
여성	41.3% / 61.9	3.98%	34.8% / 28.7%	자영업자 38.7% 무급가족종사자 61.0% 상용 근로자 42.7% 임시 및 일용 근로자 50.0%
자료	통계청 제공 2017 기업등록부 DB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① 통계청 제공 2017 종사자 DB ② 2017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17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전체 사업체 수는 250만 개, 종사자는 95만여 명으로 남성이 46%, 여성이 53% 비율임

-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사업체수가 종사자 수를 능가하며, 종사자 1명 당 평균 2.6개 사업체에 속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됨
- 산업별로는 문화·예술 산업은 남녀 성비가 비슷한 편이나 관광산업에서는 여성이 61.9%, 스포츠 산업에서는 남성이 58.6%로 나타남
- 각 산업별 통계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남성 종사자가 다수였던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국가통계인 기업등록부 DB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있는 산업이 모두 함께 집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표 6〉 문화·체육·관광 산업 경영활동 총괄(2017년)

(단위: %)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매출액 (백만 원)	비고
		합계(명)	남(%)	여(%)		
문화체육관광산업	2,464,204	970,408	46.4	53.5	317,245,964	중복 제거
문화산업	598,180	201,875	49.1	50.8	68,932,650	
예술산업	480,298	190,369	51.1	48.8	63,846,845	
관광산업	2,739,994	1,191,036	38.0	61.9	374,928,105	
스포츠 산업	455,612	704,499	58.6	41.3	241,524,696	

주석: 문화체육관광산업(중복제거) 지표는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산업에서 중복으로 잡힌 값을 삭제한 값

출처: 기업등록부 DB (제공: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 상용종사자 성비 비중은 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나, 임시종사자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분야가 다수로 나타남

〈표 7〉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 성별 비율(2017년)

(단위: %)

구분	세부 산업	상용 종사자		임시 종사자		구분	세부 산업	상용 종사자		임시 종사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문화 산업	출판산업	50.5	49.5	41.4	58.6	예술 산업	문학 및 출판	50.0	50.0	41.6	58.4
	만화산업	46.3	53.7	38.7	61.3		공연	38.4	61.6	34.8	65.2
	음악산업	45.1	54.9	39.3	60.7		시각예술	56.9	43.1	51.6	48.4
	영화산업	53.0	47.0	47.0	53.0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36.5	63.5	32.0	68.0
	게임산업	63.6	36.4	58.9	41.1	관광 산업	관광 쇼핑업	37.3	62.7	38.8	61.2
	애니메이션산업	44.1	55.9	39.1	60.9		상호의존 관광산업	37.1	62.9	32.7	67.3
	방송산업	44.2	55.8	42.2	57.8		부분적용 관광산업	38.2	61.8	37.7	62.3
	캐릭터산업	47.1	52.9	37.3	62.7		관광 지원산업	48.9	51.1	47.4	52.6
	지식정보산업	46.4	53.6	41.3	58.7	스포츠 산업	스포츠시설업	66.5	33.5	69.7	30.3
	콘텐츠솔루션산업	60.7	39.3	55.8	44.2		스포츠 용품업	53.4	46.6	56.4	43.6
	핵심저작권산업	54.5	45.5	57.0	43.0		스포츠 서비스업	61.8	38.2	52.3	47.7
	핵심광고산업	53.2	46.8	49.0	51.0						

출처: 기업등록부 DB (제공: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4.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및 단체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 문화 분야 성평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가칭)젠더구조지수(Cultural Gender Structure Index, CGSI)를 임시 개발, 적용함
- 조사 결과 세부 분석에 앞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 값을 산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조사된 문화 분야 고용형태, 직제별 종사자 등의 항목에 대해 남성 비율 대비 여성 비율을 지수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ultural Gender Structure Index)를 임시로 개발하고 적용함
 -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GSI)는 1에 가까울수록 종사환경이 양성평등함을 나타냄

〈표 8〉 문화체육관광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GSI) 산출 결과

항목	지표명	산출 근거	산출값
전체종사자	전체 종사자 성비	여성 종사자 수 / 남성 종사자 수	0.96
고용형태	전체 정규직 성비	여성 정규직 수 / 남성 정규직 수	0.88
임금 수준	성별 평균계약금액	여성 평균 계약금액 / 남성 평균 계약금액	0.77
여성 대표성 의사결정기관	고위직 성비	고위직 여성 수 / 고위직 남성 수	0.28
	보직자 성비	여성 보직자 수 / 남성 보직자 수	0.31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	여성 참여율 / 남성 참여율	0.70 ¹⁾
문화체육관광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평균)			0.65

□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① 기관 설문조사 ② 정부위원회 성비 조사
③ 법인 대표자 성비 조사 ④ 지원 사업 심사위원 성비 조사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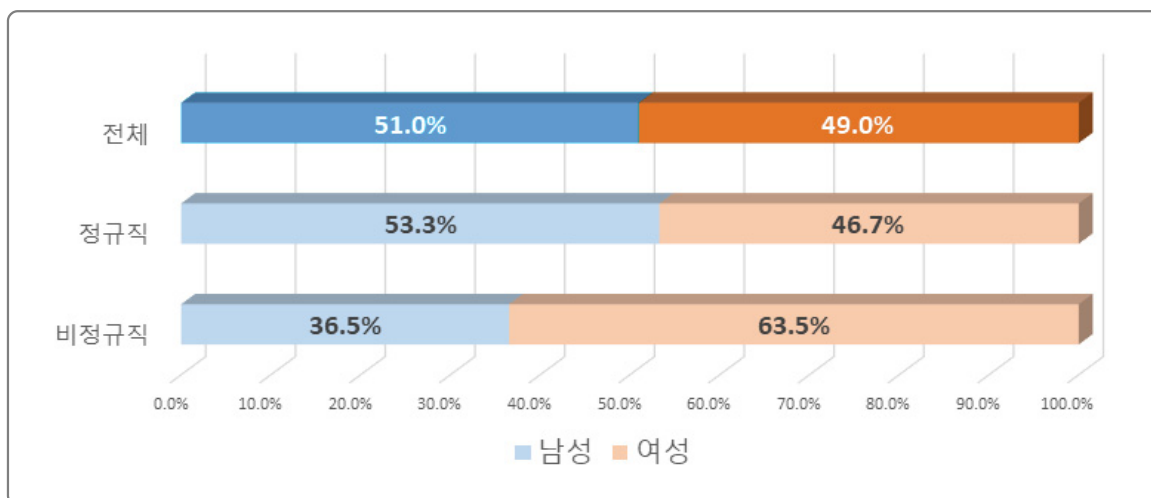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의 성별 직원 수,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의사결정과정 참여자 성비, 육아휴직 신청자 수, 지원 보육제도 현황 등에 대한 조사 진행
 - 문화·체육·관광 분야 144개 공공기관 중 103개 기관이 응답(71.5%)
 - 문항별 응답률은 72.4%~100%로 각각 달라 항목별 표본 수가 다름에 유의
- 의사결정구조 내 여성대표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위원회 및 전체 정부위원회의 성비를 분석함
 - 2017~20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정부위원회 자료
 - 2018 전체 정부위원회 자료(502개)
- 문화·체육·관광 분야 비정부기구의 여성대표성 확인을 위해 법인대표자 성비를 조사
 - 1,262개 법인 중 1,258개 법인의 자료(99.7%)
- 문화 분야 국고지원사업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성비를 살펴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0개 기관의 157개 지원 사업에 대해 조사 진행

1)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정부위원회 평균 참여율 기준으로 산출함.

가. 기관 성인지 설문조사

□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전체 종사자 중 남성은 51.0%, 여성은 49.0%임

- 정규직 종사자 중 남성 비율은 53.3%, 여성 비율은 46.7%로 남성 비율이 6.6%p 높음
- 비정규직 종사자 중 남성 비율은 36.5%, 여성 비율은 63.5%로 여성 비율이 27.0%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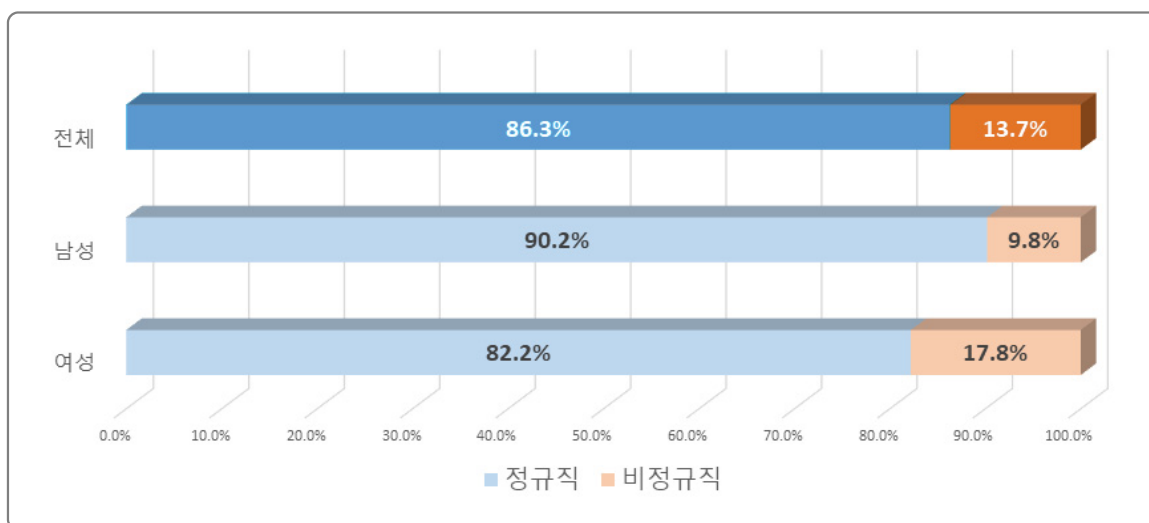
[그림 3] 전체 종사자 및 고용형태별 성비

〈표 9〉 전체 종사자 및 고용형태별 성비

구분		기관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103	51.0%	49.0%	53.3%	46.7%	36.5%	63.5%
설립주체 형태	본부 및 소속기관	17	48.2%	51.8%	50.1%	49.9%	37.7%	62.3%
	공공기관	31	56.9%	43.1%	57.8%	42.2%	47.1%	52.9%
	협회 및 단체	55	44.6%	55.4%	49.2%	50.8%	27.8%	72.2%
장르	문화예술	74	44.6%	55.4%	47.3%	52.7%	31.8%	68.2%
	문화산업	11	57.6%	42.4%	58.9%	41.1%	45.2%	54.8%
	체육	8	65.9%	34.1%	65.8%	34.2%	66.7%	33.3%
	관광	2	51.8%	48.2%	52.5%	47.5%	26.3%	73.7%
	복합장르	8	51.1%	48.9%	54.5%	45.5%	29.9%	70.1%

□ 남성 종사자에 비해 여성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남성 정규직 종사자는 90.2%인데 반해 여성 정규직 종사자는 82.2%임
- 남성 비정규직 종사자는 9.8%인데 반해 여성 비정규직 종사자는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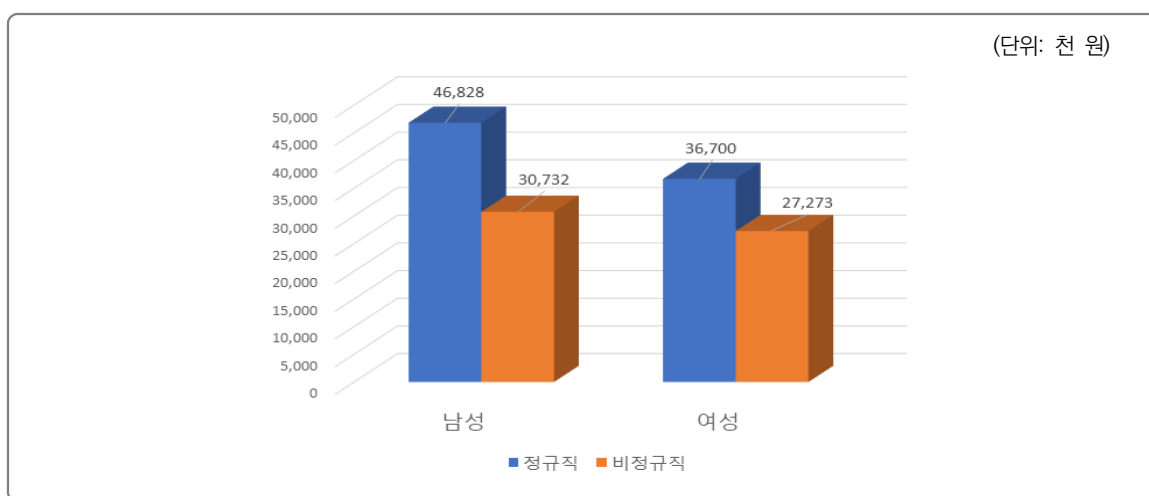
[그림 4] 성별 고용형태 현황

〈표 10〉 성별 고용형태 현황

구분		기관수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03	86.3%	13.7%	90.2%	9.8%	82.2%	17.8%
설립주체 형태	본부 및 소속기관	17	84.7%	15.3%	88.1%	11.9%	81.6%	18.4%
	공공기관	31	91.9%	8.1%	93.3%	6.7%	90.0%	10.0%
	협회 및 단체	55	78.4%	21.6%	86.6%	13.4%	71.9%	28.1%
장르	문화예술	74	82.7%	17.3%	87.7%	12.3%	78.7%	21.3%
	문화산업	11	91.0%	9.0%	93.0%	7.0%	88.4%	11.6%
	체육	8	91.9%	8.1%	91.9%	8.1%	92.1%	7.9%
	관광	2	97.4%	2.6%	98.7%	1.3%	96.1%	3.9%
	복합장르	8	86.4%	13.6%	92.1%	7.9%	80.5%	19.5%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남성 종사자의 임금이 여성 종사자의 임금보다 높고, 정규직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보다 크게 나타남

- 남성 정규직의 평균 연임금은 46,828,000원인데 비해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임금은 36,700,000원으로 1,0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남
- 남성 비정규직의 평균 연임금은 30,732,000원인데 비해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 연임금은 27,273,000원으로 34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남



[그림 5] 성별 평균 연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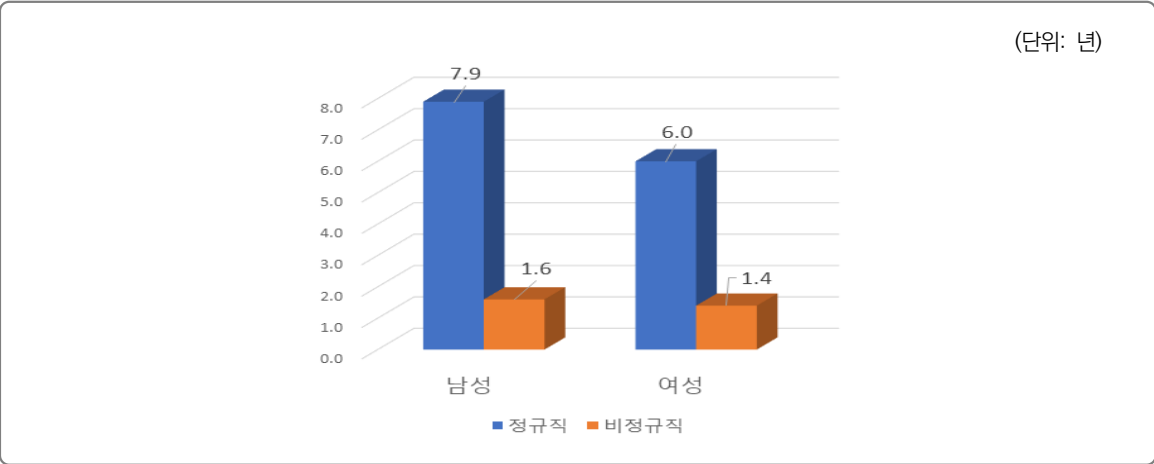
〈표 11〉 성별 평균 연임금

(단위: 천원, %)

구분		기관수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	남성	여성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
전체		100	46,828	36,700	78.4%	30,732	27,273	88.7%
설립주체 형태	본부 및 소속기관	17	54,638	42,958	78.6%	26,887	25,973	96.6%
	공공기관	31	54,640	40,978	75.0%	35,334	31,769	89.9%
	협회 및 단체	52	39,618	32,014	80.8%	29,032	24,581	84.7%
장르	문화예술	72	44,563	35,256	79.1%	28,247	25,779	91.3%
	문화산업	11	54,670	39,542	72.3%	37,956	30,755	81.0%
	체육	8	52,554	40,913	77.8%	36,248	32,293	89.1%
	관광	2	49,415	38,709	78.3%	35,335	29,223	82.7%
	복합장르	7	50,531	41,493	82.1%	36,281	30,816	84.9%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남성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여성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보다 길

- 남성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7.9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6.0년으로 남성이 1.9년 더 길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6년,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4년으로 남성이 0.2년 더 길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성별 평균 근속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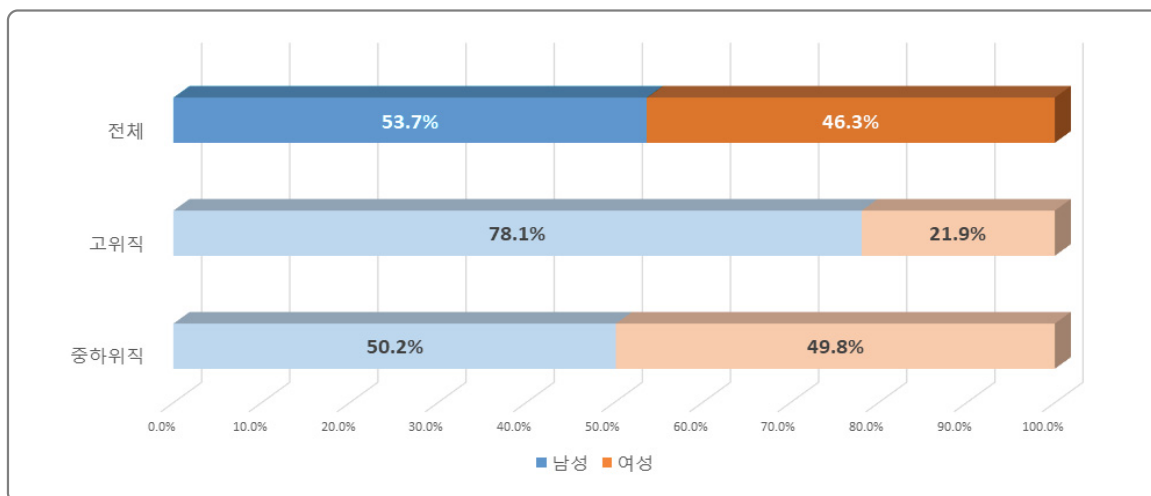
〈표 12〉 성별 평균 근속연수

(단위: 년)

구분		기관수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여성-남성 Gap	남성	여성	여성-남성 Gap
전체		96	7.9	6.0	-1.9	1.6	1.4	-0.2
설립주체 형태	본부 및 소속기관	16	13.7	11.0	-2.7	2.7	2.7	0.0
	공공기관	31	9.7	6.5	-3.2	1.5	1.2	-0.3
	협회 및 단체	49	5.0	4.1	-0.9	1.2	1.1	-0.1
장르	문화예술	69	7.1	5.7	-1.4	1.4	1.4	0.0
	문화산업	11	10.7	6.8	-3.9	1.8	1.1	-0.7
	체육	8	9.7	7.8	-1.9	2.2	1.6	-0.6
	관광	2	10.5	7.6	-2.9	1.9	0.7	-1.2
	복합장르	6	9.6	5.9	-3.7	2.3	2.0	-0.3

□ 의사결정권이 있는 고위직 성비에서 젠더 불평등이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위직 중 남성은 78.1%, 여성은 21.9%로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조사됨
- 중하위직에서는 남성이 50.2%, 여성이 49.8%로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7] 직급별 성비

〈표 13〉 직급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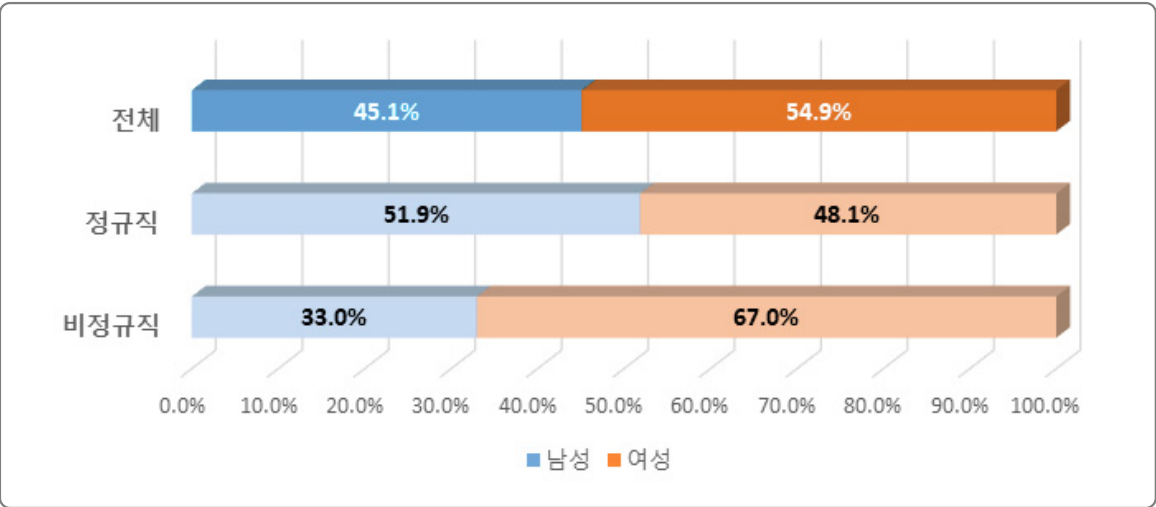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고위직		중하위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²⁾		85	78.1%	21.9%	50.2%	49.8%
설립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9	85.7%	14.3%	47.9%	52.1%
	공공기관	30	79.0%	21.0%	53.0%	47.0%
	협회 및 단체	46	73.4%	26.6%	45.6%	54.4%
장르	문화예술	60	68.8%	31.2%	43.1%	56.9%
	문화산업	10	83.9%	16.1%	51.2%	48.8%
	체육	8	90.1%	9.9%	62.3%	37.7%
	관광	2	71.4%	28.6%	37.1%	62.9%
	복합장르	5	90.2%	9.8%	52.2%	47.8%

2) 조사에 참여한 103개 기관 중 18개 기관의 경우 직급정보를 기입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견돼 이를 제외한 85개 기관의 자료만을 각각 비교·분석하였음.

□ 신입직원 전체의 비율에서 정규직은 45.1%, 비정규직은 54.9%

- 정규직 신입직원 중 남성 비율은 51.9%, 여성 비율은 48.1%
- 비정규직 신입직원 중 남성은 33.0%, 여성은 67.0%로 여성 신입직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신입직원 고용형태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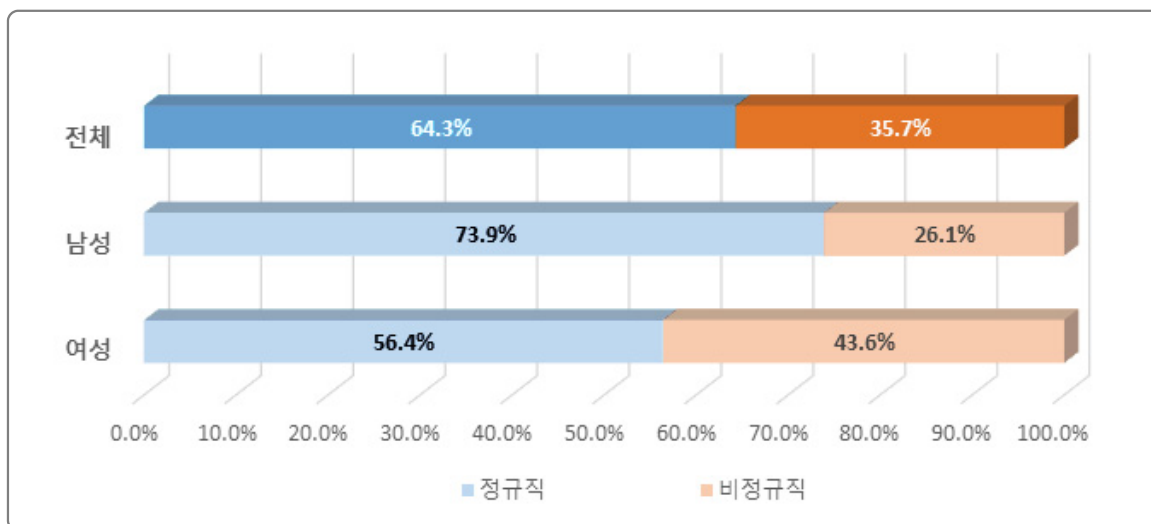
〈표 14〉 신입직원 고용형태별 성비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103	45.1%	54.9%	51.9%	48.1%	33.0%	67.0%
설립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17	49.0%	54.9%	53.0%	47.7%	37.7%	62.3%
	공공기관	31	50.1%	49.9%	57.7%	42.3%	34.8%	65.2%
	협회 및 단체	55	34.3%	65.7%	41.3%	58.7%	28.7%	71.3%
장르	문화예술	74	42.1%	57.9%	48.9%	51.1%	31.3%	68.9%
	문화산업	11	38.1%	61.9%	41.7%	58.3%	29.5%	70.5%
	체육	8	68.1%	31.9%	69.1%	30.9%	62.3%	37.7%
	관광	2	34.0%	66.0%	27.3%	72.7%	45.0%	55.0%
	복합장르	8	36.6%	62.4%	48.8%	51.3%	29.2%	70.8%

□ 신입직원 중 남성 비율은 64.3%, 여성 비율은 35.7%

- 남성 신입직원 중 73.9%가 정규직이지만, 여성 신입직원은 56.4%만 정규직으로, 남성 신입직원의 정규직 비율이 약 17.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신입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6.1%인데 비해 여성 신입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3.6%에 달함



[그림 9] 신입직원 성별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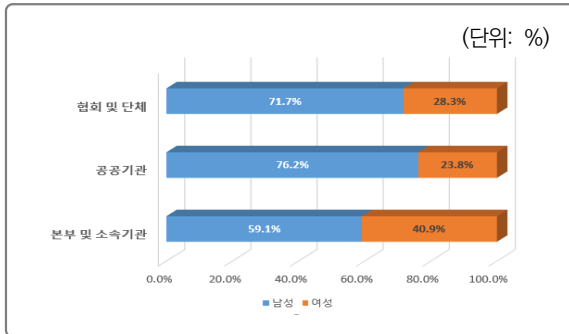
〈표 15〉 신입직원 성별 고용형태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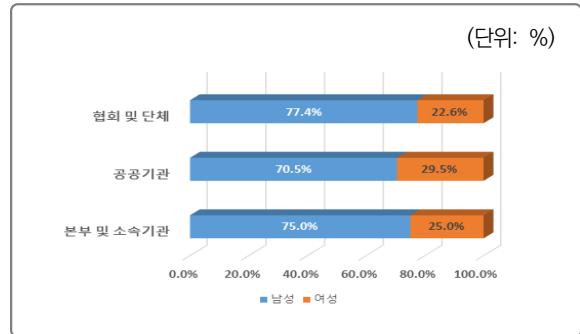
구분		기관수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03	64.3%	35.7%	73.9%	26.1%	56.4%	43.6%
설립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17	75.5%	24.5%	81.1%	18.9%	70.1%	29.9%
	공공기관	31	66.8%	33.2%	77.0%	23.0%	56.6%	43.4%
	협회 및 단체	55	44.4%	55.6%	53.5%	46.5%	39.7%	6.03%
장르	문화예술	74	61.9%	38.1%	71.9%	28.1%	54.6%	45.4%
	문화산업	11	70.1%	29.9%	76.8%	23.2%	65.9%	34.1%
	체육	8	84.5%	15.5%	85.8%	14.2%	81.7%	18.3%
	관광	2	62.3%	37.7%	50.0%	50.0%	68.6%	31.4%
	복합장르	8	43.0%	57.0%	55.7%	44.3%	35.6%	64.7%

□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여성 참여율은 모든 유형에서 남성 참여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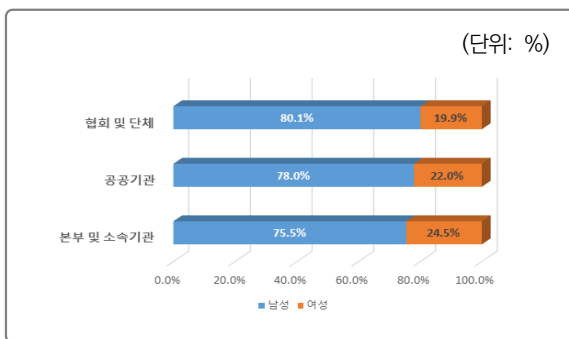
- 보직자 회의와 인사/징계위원회, 이사회 임원과 노동/노사위원회 모두 여성 참여 비율이 남성 참여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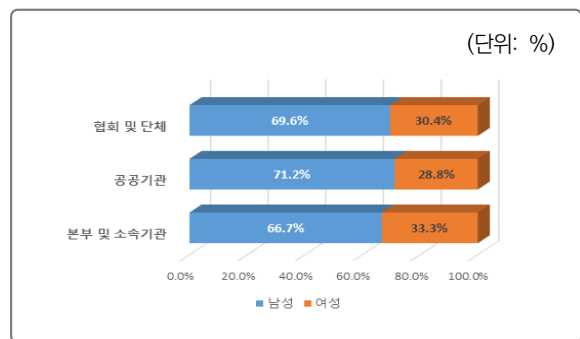
[그림 10] 설립주체 유형별 보직자 회의 성비



[그림 11] 설립주체 유형별 인사/징계위원회 성비



[그림 12] 설립주체 유형별 이사회 임원 성비



[그림 13] 설립주체 유형별 노동/노사위원회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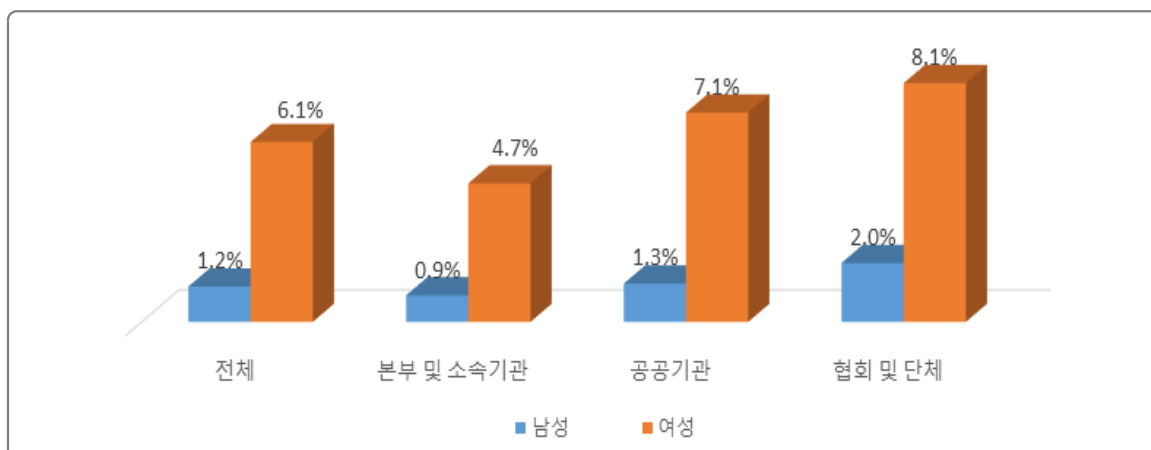
〈표 16〉 의사결정기관별 남녀 성비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보직자 회의		이사회 임원		인사/징계위원회		노동/노사위원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103	72.9%	27.1%	75.3%	24.7%	78.6%	21.4%	69.8%	30.2%
설립 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17	59.1%	40.9%	75.0%	25.0%	75.5%	24.5%	66.7%	33.3%
	공공기관	31	76.2%	23.8%	70.5%	29.5%	78.0%	22.0%	71.2%	28.8%
	협회 및 단체	55	71.7%	28.3%	77.4%	22.6%	80.1%	19.9%	69.6%	30.4%
장르	문화예술	74	64.4%	35.6%	74.9%	25.1%	76.7%	23.3%	65.4%	34.6%
	문화산업	11	80.9%	19.1%	72.1%	27.9%	83.7%	16.3%	80.4%	19.6%
	체육	8	82.0%	18.0%	78.3%	21.7%	79.7%	20.3%	81.7%	18.3%
	관광	2	84.6%	15.4%	73.7%	26.3%	87.5%	12.5%	75.0%	25.0%
	복합장르	8	75.4%	24.6%	73.5%	26.5%	74.7%	25.3%	82.5%	17.5%

□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 신청자의 1/5 수준에 그침

- 2018년 기준 전체 남성 근로자 중 육아휴직 신청자 비율은 약 1.2%, 여성 근로자 중 신청자 비율은 약 6.1%로 나타남



[그림 14] 설립주체 유형별 육아휴직 신청자 비율(전체 인원 대비 성별 비율)

〈표 17〉 성별 육아휴직제도 신청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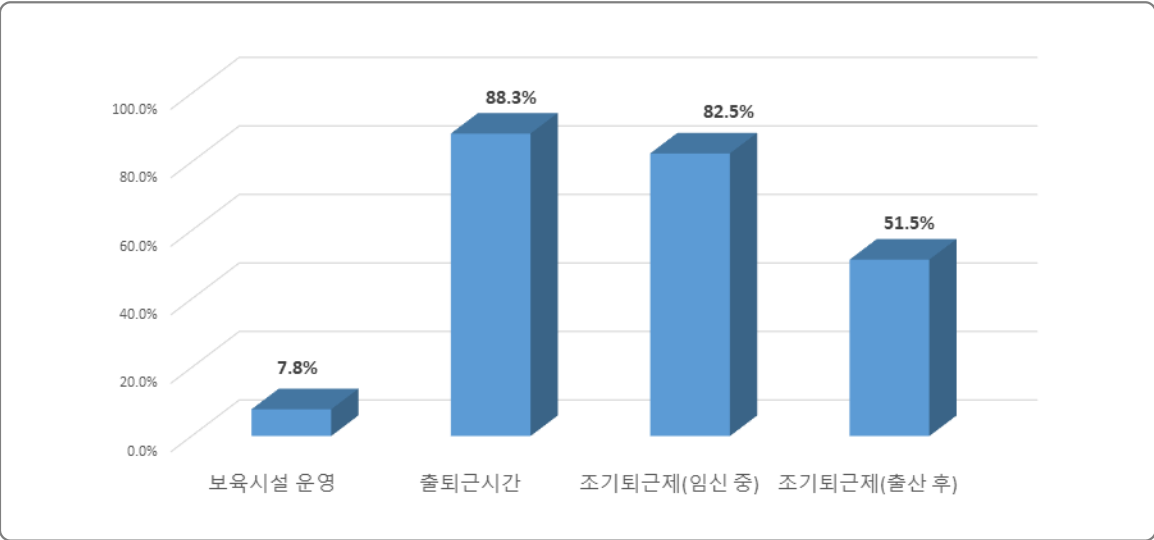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수	남성			여성			남성-여성 신청자 비율 차
			2018 전체 근로자 수	2018 육아휴직 신청자 수	육아휴직 신청자 비율	2018 전체 근로자 수	2018 육아휴직 신청자 수	육아휴직 신청자 비율	
전체		103	73.38	0.89	1.2%	65.29	3.97	6.1%	-4.9%p
설립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17	153.88	1.35	0.9%	173.94	8.11	4.7%	-3.8%p
	공공기관	31	123.41	1.58	1.3%	84.25	5.96	7.1%	-5.8%p
	협회 및 단체	55	18.30	0.36	2.0%	19.35	1.56	8.1%	-6.1%p
장르	문화예술	74	45.31	0.59	1.3%	55.28	3.21	5.8%	-4.5%p
	문화산업	11	76.45	0.91	1.2%	51.73	2.91	5.6%	-4.4%p
	체육	8	284.75	2.88	1.0%	149.25	8.50	5.7%	-4.7%p
	관광	2	186.50	1.50	0.8%	159.50	13.00	8.2%	-7.3%p
	복합장르	8	87.42	1.50	1.7%	68.14	5.62	8.2%	-6.5%p

주석: 설립주체별 형태 중 민간기관의 경우 사례수가 1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관에서 운영하는 주 보육지원제도로는 출퇴근시간 조정지원제도와 임신 중 조기퇴근제도가 있음

- 출퇴근시간 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비율은 88.3%, 임신 중 조기퇴근제를 운영하는 기관 비율은 82.5%
- 반면 보육시설 운영 비율은 전체의 7.8%에 불과함



[그림 15] 보육지원제도 유형별 운영현황

〈표 18〉 보육지원제도 운영현황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보육시설 운영	출퇴근시간 조정	조기퇴근제	
					임신 중	출산 후
전체		103	7.8%	88.3%	82.5%	51.5%
설립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17	11.8%	100%	100%	94.1%
	공공기관	31	16.1%	93.5%	96.8%	54.8%
	협회 및 단체	55	1.8%	81.8%	69.1%	36.4%
장르	문화예술	74	4.1%	87.8%	79.7%	52.7%
	문화산업	11	9.1%	90.9%	90.9%	63.6%
	체육	8	25.0%	100.0%	100.0%	50.0%
	관광	2	50.0%	100.0%	50.0%	0.0%
	복합장르	8	12.5%	75.0%	87.5%	37.5%

나. 정부위원회 성비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정부위원회의 경우 여성 참여율은 약 35~41% 범위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정부위원회 모두 여성대표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위원의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표 19〉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2017~2019)

연도	주관기관	전체 위원회 수(개)	40%이상 위원회 수 (개)	40%이상 위원회 비율(%)	위촉직 위원 (명)	위촉직 여성위원(명)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2019	문화체육관광부	24	16	66.7	295	121	39.4
	문화재청	4	4	100.0	114	48	41.8
2018	문화체육관광부	23	17	73.9	286	116	38.7
	문화재청	4	3	75.0	115	29	35.4
2017	문화체육관광부	13	-	-	173	71	38.3
	문화재청	4	-	-	123	31	35.4

주석: 각 연도별 상반기 자료를 기준으로 함

- 2018년 기준 전체 정부위원회(502개)를 살펴보면 평균 여성참여율은 41.9%로 법정기준 (40%) 초과 달성
- 하지만 여전히 특정 성의 참여율이 법정기준에 미달한 위원회 수는 133개 곳에 달함

〈표 20〉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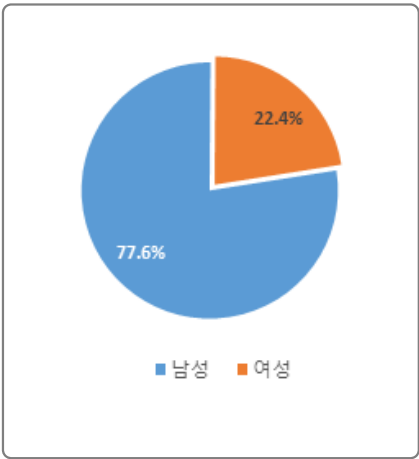
(단위: 명,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여성 참여율	전체	6,873	8,305	7,632	7,725	7,901	9,056
	여성	1,902	2,630	2,633	2,805	3,028	3,546
	비율	27.7	31.7	34.5	37.8	40.2	41.9
여성참여율 40%이상 위원회	전체	429	457	437	442	436	502
	40%이상	113	148	182	227	289	377
	비율	26.3	32.4	41.6	51.4	66.3	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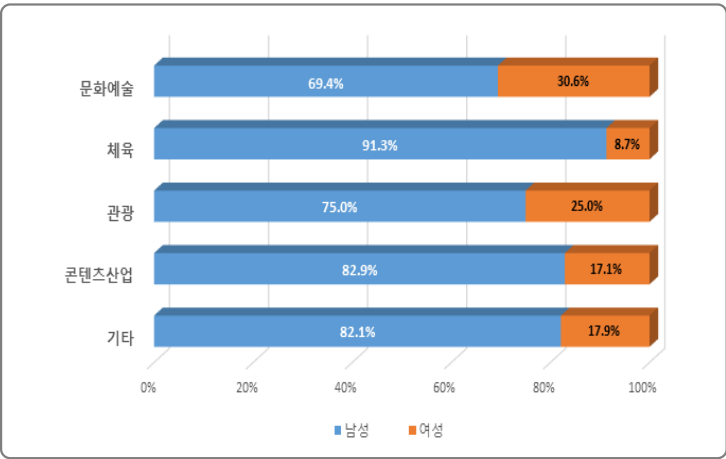
다. 법인 대표자 성비 조사

□ 법인(협·단체 포함) 대표자 성비 조사 결과 남성이 대표자인 비율은 77.6%임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262개 법인 중 1,258개 법인을 조사(99.7%)한 결과, 법인 전체의 대표자 성비는 남성 77.6%, 여성 22.4%로 나타남
- 여성 대표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로 30.6%이며, 체육 부문은 8.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그림 16] 법인 전체 대표자 성비



[그림 17] 분야별 법인 대표자 성비

〈표 21〉 법인형태별/분야별 법인 대표자 성비(2019)

(단위: 명, %)

구분	대표자 성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1,258	976	77.6%	282	22.4%
문화예술	500	347	69.4%	153	30.6%
체육	103	94	91.3%	9	8.7%
관광	68	51	75.0%	17	25.0%
콘텐츠산업	257	213	82.9%	44	17.1%
기타	330	271	82.1%	59	17.9%

라. 지원 사업 심사위원 성비 조사

□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 심의 심사위원 성비 분석결과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나 최근 3년간 개선되고 있음

- 2017~2019년 국고 보조 사업 리스트 상 22개 기관 204개 사업 중 10개 기관 157개 사업에 대해 심사위원 성비 조사가 이뤄졌음(사업 기준 응답률 77.1%)
- 최근 3년간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은 2017년도에는 31.9%, 2018년도에는 34.0%, 2019년도에는 39.1%로 점차 상승하고 있음

〈표 22〉 연도별 여성 심의위원 평균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체 사업 수	사업별 심의위원 수 (평균)	사업별 여성 심의위원 수 (평균)	사업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평균)
2019	134	9.54	3.77	39.1%
2018	117	10.37	3.99	34.0%
2017	101	12.14	3.82	31.9%

□ 기존사업의 여성심의위원 비율 대비 신진 사업의 경우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점진적으로 여성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변화의 수준은 미미함

- 신진 지원대상을 제외한 기존, 신진+기존, 기타 모든 집단에서 2019년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이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됨

〈표 23〉 지원대상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단위: 개, %)

구분	지원대상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전체	신진※	기존	신진+기존	기타※※
2019	157	41.0%	28.3%	32.3%	26.2%
2018	151	31.8%	31.8%	37.9%	25.2%
2017	98	46.1%	35.7%	39.8%	40.5%

※신진: 신진, 차세대 포함

※※기타: 출판사, 개인+출판사, 중소출판사, 예비 및 관광벤처기업

□ 모든 분야에서 여성 심의위원 비율은 50%를 넘지 않으며, 특히 애니메이션과 콘텐츠, 영화 산업의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타 분야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비교적 높은 분야로는 공연(35.0%), 시각(48.3%), 출판(42.0%), 복합(34.5%) 분야가 있음
-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낮은 분야로는 영화(28.0%), 방송(25.0%), 애니메이션(17.0%), 콘텐츠(20.2%) 분야가 있음

〈표 24〉 지원분야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단위: 개, %)

구분	지원분야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전체	공연	시각	영화	방송	애니	출판	콘텐츠	복합	기타
2019	157	35.0%	48.3%	28.0%	25.0%	17.0%	42.0%	20.2%	34.5%	37.3%
2018	151	46.2%	44.0%	43.3%	24.5%	17.5%	40.0%	15.3%	41.1%	37.5%
2017	98	49.3%	66.9%	48.6%	22.5%	21.9%	45.0%	24.3%	38.8%	51.7%

□ 지원유형별로는 교류산업에서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원유형별로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은 33.6%~35.8%였으며(2019년 기준), 교류 사업의 여성심사위원 비율은 19.8%(2019년 기준)에 불과

〈표 25〉 지원유형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단위: 개, %)

구분	지원유형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전체	자금	교육	교류	기타
2019	157	33.6%	35.8%	19.8%	28.9%
2018	151	36.5%	33.9%	30.3%	25.7%
2017	98	39.2%	46.3%	32.5%	41.1%

※ 자금 : 창작지원금, 원고료, 사업운영비, 도서구입 포함

기타 : 전시, 연구, 공간, 공연, 플랫폼, 간접, 복합 포함)

□ 사업추진 연차가 많을수록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사업추진 연차별로 1년 이하의 사업과 3~5년 이하 사업의 경우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은 28% 대에 불과. 추진 연차 10년 이상의 사업의 경우 여성 심사위원 참여율이 39.5%(2019년 기준)로 타 사업보다 다소 높아짐

〈표 26〉 사업추진연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단위: 개, %)

구분	사업 추진연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전체	1년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3년 이상 5년 이하	6년 이상 9년 이하	10년 이상
2019	157	28.0%	36.3%	28.3%	33.0%	39.5%
2018	151	36.0%	26.2%	32.2%	36.5%	42.0%
2017	98	40.0%	33.4%	43.5%	39.1%	41.3%

□ 지원규모가 적을수록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예산 규모별로는 1억~5억 원 미만 지원 규모일 때 여성 비율이 39.4%(2019년 기준)로 가장 높았으며, 40~50억 원 규모 예산 사업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10억 이상의 사업에서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이 모두 20%대에 불과

〈표 27〉 사업예산 규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단위: 개, %)

구분	사업예산 규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전체	1억원 미만	1억 ~ 5억 미만	5억 ~ 10억 미만	10억 ~ 20억 미만	20억 ~ 30억 미만	30억 ~ 40억 미만	40억 ~ 50억 미만	50억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2019	157	34.6%	39.4%	37.4%	22.2%	23.4%	21.3%	33.3%	27.3%	23.8%
2018	151	42.8%	41.6%	35.2%	24.7%	25.9%	17.2%	42.9%	26.6%	37.9%
2017	98	52.4%	43.4%	40.2%	38.4%	22.9%	44.3%	0.05%	29.3%	20.5%

5.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적 관점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및 과제

□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향후 적용 가능한 성인지 정책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성인지 통계 DB 구축과 시스템 개선, 향후 연구 확대, 성평등 수준 측정 지표 개발 등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시
- 통계 DB 구축을 위해선 통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고, 각 영역에서 다르게 쓰이고 있는 통계 기준을 통일해야 함
- DB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유관부처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임
-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정부 부처 등의 성인지 환경에 대한 평가로 활용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통계 연구 이후 성 불평등 구조에 대한 심층분석, 여성 문화인력 활동 기반 강화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한 질적 연구가 이어져야 함

〈표 28〉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안)

정책 방향	정책 과제
I. 성인지적 관점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DB 구축	1) 통계 DB 종류 및 내용의 다양화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통계 기준의 세분화 및 통일
II.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DB 구축 방법 및 시스템 수정 보완	1) 생산 데이터의 분류 기준·범주 표준화 및 호환성 제고 2) 문화체육관광부·통계청·정보생산기관 및 단체 협업 제고
III.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평등 수준 측정	1) 문화체육관광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 (CGSI) 개발 및 적용 2) (가칭)CGSI를 바탕으로 한 성인지 정책 성과 평가
VI.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차별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질적 연구 조사	1) 공공·협단체의 성 불평등 구조 심층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2) 여성 문화인력 활동 기반 강화 방안 제시

제1장 연구개요 / 1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5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8
제4절 연구방법	10
1. 문헌연구	10
2. 설문 조사	11
3. 전문가 자문회의	12
4. 연구과정 보고회	14
제5절 기존 조사 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15
1. 문화 분야 기존 조사연구 현황 및 주요내용	15
2. 체육 분야 기존 조사 연구 현황 및 주요내용	17
3. 관광 분야 기존 조사통계 현황 및 주요내용	17
4. 기존 연구의 시사점	18
제6절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움직임	19
1. 문화체육관광계의 미투(#me too) 운동	19
2. 환경 변화를 위한 문화체육계의 움직임	20

제2장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성평등 환경 분석 / 23

제1절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성 격차 현황	25
1.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환경	25
2. 문화예술계의 성차별적 환경	29
제2절 문화예술산업계 성별 권력 구조	32
1. 문화예술계 성별 고정관념	32
2. 문화예술계 노동과 시장의 특성	34
3. 문화예술계 인력 성별 비율과 임금 격차	36
4. 문화예술산업계 성 의식과 여성의 인권	43
제3절 소결	49

제3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고용 및 노동 환경 개요 / 51

제1절 문화예술 분야 고용 및 노동 환경 개요	53
1. 시장진입 과정 및 현황	54
2. 경제활동 현황	58
3. 고용구조 및 고용현황	61
4. 노동환경	65
제2절 문화산업 분야 고용 및 노동 환경 개요	68
1. 시장진입 과정 및 현황	69
2. 경제활동 현황	73
3. 고용구조 및 고용현황	79
4. 노동 환경	86
제3절 체육분야 성인지 정책환경	89
1. 시장진입 과정 및 현황	90
2. 경제활동 현황	93
3. 고용구조 및 고용현황	97
4. 노동환경	104
제4절 관광분야 성인지 정책환경	108
1. 시장진입 과정 및 현황	109
2. 경제활동 현황	111
3. 고용구조 및 고용현황	113
4. 노동환경	116
제5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 통계 DB	118
1.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DB 개요	118
2. 통계 DB 분석 결과	123
제6절 소결	131

제4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및 단체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 133

제1절 조사개요	135
1.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성인지 설문조사	135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위원회 성비 조사	140
3. 문화·체육·관광 분야 협·단체(법인) 대표자 성별조사	141
4.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사업 심의 심사위원 성비 조사	142

제2절 조사결과 분석	145
1.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관 설문조사 결과	146
2. 정부위원회 성비구성 현황	159
3. 법인(협·단체 포함) 대표자 성비 구성 현황	176
4.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사업 심의 심사위원 성비 분석	181

제5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적 관점의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및 과제 / 191

제1절 성인지적 관점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DB 구축	193
1. 통계 DB 종류 및 내용의 다양화	193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통계 기준의 세분화 및 통일	194
제2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DB 구축 방법 및 시스템 보완	197
1. 생산 데이터의 분류 기준·범주 표준화 및 호환성 제고	197
2. 문화체육관광부·통계청·정보생산기관 및 단체 협업 제고	198
제3절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평등 수준 측정 정례화	201
1.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ultural Gender Structure Index) 개발 및 적용	201
2.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GSI)를 바탕으로 한 성인지 정책 성과 평가	201
제4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차별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질적 연구 조사	202
1. 공공·협·단체의 성 불평등 구조 심층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202
2. 여성 문화 인력의 활동 기반 강화	203

• 참고문헌	205
--------------	-----

• 부록	209
1. 기관 대상 설문지	211
2. 설문조사 응답 기관 리스트	214
3. 문화체육관광분야 법인(협, 단체) 대표자 성비 조사	215
4. 국고보조사업 심사위원 성비 조사 설문지	251
5. 국고보조사업 심사위원 성비 조사 대상 기관 및 지원 사업 리스트	252

〈표 1〉 전문가 자문회의	13
〈표 2〉 착수보고회 개최 개요	14
〈표 3〉 중간보고회 개최 개요	14
〈표 4〉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 자료 현황	15
〈표 5〉 체육 분야 성인지 조사 연구 사례	17
〈표 6〉 관광 분야 성인지 연구 및 조사통계 사례	17
〈표 7〉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 정책 목록	21
〈표 8〉 2018 한국의 성격차지수 순위	25
〈표 9〉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한국과 상위 5개국(2018)	26
〈표 10〉 여성의원 비율: 1~8순위 국가와 한국(2019)	28
〈표 11〉 유럽문화행동 상 여성의 문화권 보장 장애 요소	30
〈표 12〉 고등교육기관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세부전공별 졸업생의 성별 분포(2018)	37
〈표 13〉 문화·예술·체육 전공 졸업생의 성별 취업률 현황	38
〈표 14〉 고등교육기관별 문화·예술·체육 전공 졸업생의 성별 취업률 현황(2017)	38
〈표 15〉 산업분류별 연고용통계 현황(2018)	39
〈표 16〉 예술체육 계열 성별·연령별 취업률	39
〈표 17〉 문화 예술 산업, 성별 임금 (2018)	40
〈표 18〉 Oaxaca 임금분해 세부적 결과	43
〈표 19〉 예술분야 입문경로(2018)	55
〈표 20〉 분야별-주 활동 예술분야의 입문 연도(활동경력)	57
〈표 21〉 예술인 성별 평균 계약금액(2018)	60
〈표 22〉 프리랜서 종사 여부(2018)	63
〈표 23〉 예술분야별 프리랜서 종사 현황(2018)	63
〈표 24〉 주요 문화예술기관 직원 성비(2018)	64
〈표 25〉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 입문경로의 성별 현황(2017)	70
〈표 26〉 콘텐츠산업 종사자 연령분포 현황(2016)	71
〈표 27〉 분야별 - 주 활동 예술분야의 활동경력(입문연도 기준)의 성별 현황	71
〈표 28〉 산업별 종사자 연령 분포의 성별 현황(2017)	72
〈표 29〉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총 활동 경력 및 계약 체결 기간의 성별 현황 (2016)	73
〈표 30〉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연간 예술 활동 수입 분포(2017)	73
〈표 31〉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건별 계약 금액 (2017)	74
〈표 32〉 세부산업별 연/월 평균 수입(2017~2018)	75
〈표 33〉 영화산업-성별 월 급여액 및 급여총액과 시간급 현황(2018)	76
〈표 34〉 콘텐츠산업 성별 종사자 현황(2016)	79
〈표 35〉 문화산업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2016)	80
〈표 36〉 콘텐츠산업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2016)	81
〈표 37〉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예술인 종사 형태 및 프리랜서 경험 여부(2017)	82
〈표 38〉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성별 4대 보험 가입률(2017)	83

〈표 39〉 문화산업 관련 사업체 대표자 산업별 성별 분포 (연도별)	84
〈표 40〉 문화산업 관련 여성경영인 사업체수 산업별 성별 분포 (연도별)	84
〈표 41〉 신문·잡지 산업-고위급·관리자급 성별 분포(2017)	85
〈표 42〉 게임산업-직무에 따른 성별 분포(2016)	85
〈표 43〉 영화산업-한국 상업영화 핵심 창작인력 여성 참여율(2014~2018)	85
〈표 44〉 문화산업 포함 직군 종사자의 성별 월 평균 근로 시간 (2018)	86
〈표 45〉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성별 계약체결 경험 여부 및 평균 체결 계약 건수(2017)	87
〈표 46〉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 - 지난 1년간 부적절·부당한 계약 여부(2017)	87
〈표 47〉 스포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2018)	90
〈표 48〉 체육관련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 현황(2017)	92
〈표 49〉 체육인력 학위수준별 졸업생 수(2016~2018)	92
〈표 50〉 체육전공자 취업 현황(2017)	93
〈표 51〉 스포츠 산업 대분류 기준 업종별 매출액(2015~2017)	94
〈표 52〉 매출구간별 사업체 현황(2015~2017)	94
〈표 53〉 스포츠 산업 최저임금 미만율(2017)	95
〈표 54〉 체육분야 공공기관의 평균보수액(2018)	96
〈표 55〉 체육분야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보수액 증감률(2017~2018)	96
〈표 56〉 체육분야 공공기관의 무기계약 보수액 증감률(2017~2018)	97
〈표 57〉 스포츠산업의 업종별 일자리 특성(2015)	97
〈표 58〉 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업종별 성비(2015)	98
〈표 59〉 연령별 등록선수 수(2017)	98
〈표 60〉 올림픽 대회 및 동계올림픽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현황(2017)	99
〈표 61〉 종목별 후보선수 현황(2017)	100
〈표 62〉 체육분야 공공기관 직급별 인원수(2019년 2/4분기 기준)	101
〈표 63〉 체육분야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수(2017~2018)	101
〈표 64〉 체육분야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2017~2018)	102
〈표 65〉 체육분야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현황(2017~2018)	102
〈표 66〉 체육분야 6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2016~2018)	102
〈표 67〉 체육분야 전문대학교 교원수(2015~2017)	103
〈표 68〉 체육분야 대학교 교원수(2015~2017)	103
〈표 69〉 체육분야 대학원 교원수(2015~2017)	104
〈표 70〉 체육 관련 사업 월평균 총 근로시간(2017)	104
〈표 71〉 체육분야 공공기관 종사자의 평균근속연수(2017~2018)	105
〈표 72〉 체육분야 공공기관 육아휴직제도사용자 수(2017~2018)	105
〈표 73〉 일반선수 유형별 성폭력 피해(2018)	106
〈표 74〉 국가대표 선수 유형별 성폭력 피해(2018)	106
〈표 75〉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사건처리 현황(2017.12 기준)	107
〈표 76〉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2015~2017)	110

〈표 77〉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관광전공자 취업현황(2017)	111
〈표 78〉 관광산업 전체 상용 근로자 임금구간별 분포(2018)	112
〈표 79〉 관광 관련 산업 최저임금 미만율(2017)	112
〈표 80〉 관광사업체 고용형태별 성비(2015~2017)	113
〈표 81〉 관광사업체 신규 채용자 수(2015~2017)	114
〈표 82〉 관광사업체 대표자 성별 현황(2015~2017)	117
〈표 8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체육관광 산업 분류	119
〈표 8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체육관광 산업 분류를 통계청 종사자 DB에 적용한 산업 분류	120
〈표 85〉 ①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산업	121
〈표 86〉 ②과대 대표된 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 사례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22
〈표 87〉 문화·체육·관광 산업 경영활동 총괄(2017년)	123
〈표 88〉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 성별 비율(2017년)	124
〈표 89〉 문화·체육·관광산업 대표자 성별 현황(2017)	125
〈표 90〉 문화·체육·관광산업 성별 연령대별 현황(2017)	127
〈표 91〉 조사개요	135
〈표 92〉 대상 기관 목록	136
〈표 93〉 설문조사지 구성	139
〈표 94〉 조사개요	141
〈표 95〉 조사개요	143
〈표 96〉 문화체육관광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GSI) 산출 결과	145
〈표 97〉 조사대상 기관 현황	146
〈표 98〉 조사대상 기관 종사자 현황	146
〈표 99〉 고용형태별 성비	147
〈표 100〉 성별 고용형태	148
〈표 101〉 성별 평균 연임금	149
〈표 102〉 성별 평균 근속연수	150
〈표 103〉 직급별 성비	151
〈표 104〉 신입직원 고용형태별 성비	152
〈표 105〉 신입직원 성별 고용형태	153
〈표 106〉 의사결정기관별 남녀 성비	155
〈표 107〉 성별 육아휴직제도 신청자 수	156
〈표 108〉 보육지원제도 운영현황	157
〈표 109〉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현황	159
〈표 110〉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2017~2019)	160
〈표 111〉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2013~2018)	161
〈표 112〉 '18. 12월말 기관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순위 順)	164
〈표 113〉 여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115개)	165
〈표 114〉 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18개)	168

〈표 115〉 여성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연내 임기 미도래 (불인정) 목록	169
〈표 116〉 여성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여성인력 부족 (불인정) 목록	171
〈표 117〉 여성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추천 권한 외부 (불인정) 목록	172
〈표 118〉 여성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사실상 당연직 (인정·불인정) 목록	174
〈표 119〉 여성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기타 사유 (불인정) 목록	175
〈표 120〉 조사대상 유형별 분포	176
〈표 121〉 법인 형태별 대표자 성별 분포	177
〈표 122〉 권역별 법인 대표자 성비	178
〈표 123〉 17개 광역시·도별 법인 대표자 성비	178
〈표 124〉 분야별 법인 대표자 성비	179
〈표 125〉 설립연도별 법인 대표자 성비	180
〈표 126〉 조사 대상 사업 일반현황	181
〈표 127〉 연도별 여성 심의위원 평균 비율	182
〈표 128〉 지원대상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183
〈표 129〉 지원분야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184
〈표 130〉 지원유형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185
〈표 131〉 사업추진연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185
〈표 132〉 사업예산 규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186
〈표 133〉 기 구축된 성별 문화예술 문화산업인력 통계 DB 구조	195
〈표 134〉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안)	204

[그림 1]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 세부점수	6
[그림 2] 연구 추진 방향	9
[그림 3] 설문조사 세부 계획	12
[그림 4] 문화예술·체육 분야 미투 관련 키워드	19
[그림 5] 프레임의 성평등 모델	26
[그림 6] 세계의 성별 임금격차(2014~2018)	27
[그림 7] 문화·예술·체육 분야 졸업생의 성별 분포(2018)	36
[그림 8] 문화·예술·체육 관련 세부전공별 졸업생의 성별 분포(2018)	37
[그림 9] 입문경로별 예술종사자 분포(2018)	55
[그림 10] 입문경로별 성별 예술종사자 분포(2018)	56
[그림 11] 예술분야 활동 경력(2018)	57
[그림 12] 예술인의 연간 예술활동 수입(2018)	59
[그림 13] 예술활동 및 예술관련 활동의 연간 평균 수입(2018)	59
[그림 14] 예술인 중 예술활동 외 겸업 이유(2018)	60
[그림 15] 예술인 성별 평균 계약 금액(2018)	60
[그림 16] 문화 분야에서의 성 격차	61
[그림 17] 예술인 고용 근로 형태(2018)	62
[그림 18] 예술인 성별 고용·근로 형태(2018)	63
[그림 19] 성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	65
[그림 20] 성폭력 근절 방안	67
[그림 21]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연간 예술 관련 활동 평균 수입(2018)	74
[그림 22] 겸업 예술인 분야별 예술 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2017)	78
[그림 23] 콘텐츠산업 성별 종사자 비율(2016)	79
[그림 24] 문화산업 고용형태별 및 성별 종사자 비율(2016)	81
[그림 25] 장르별 성폭력 범죄 피해율(2018)	88
[그림 26] 성폭력 피해 당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응답	88
[그림 27] 스포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2015~2017)	91
[그림 28] 관광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	110
[그림 29] 관광사업체 업종별 종사자 수	110
[그림 30] 관광사업체 이직자 성별 구성비 추이(2015~2017)	115
[그림 31] 관광사업체 업종별 이직자 성별 구성비(2017)	115
[그림 32] 조사대상 추출 프로세스	143
[그림 33] 고용형태별 성비	147
[그림 34] 성별 고용형태	148
[그림 35] 성별 평균 연임금	149
[그림 36] 설립주체 형태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	149
[그림 37] 성별 근속연수	150
[그림 38] 설립주체 형태별 '여성-남성 근속연수 격차'	150

[그림 39] 직급별 성비	151
[그림 40] 신입직원 고용형태별 성비	152
[그림 41] 신입직원 성별 고용형태	153
[그림 42] 설립주체 유형별 보직자 회의 성비	154
[그림 43] 설립주체 유형별 인사/징계위원회 성비	154
[그림 44] 설립주체 유형별 이사회 임원 성비	154
[그림 45] 설립주체 유형별 노동/노사위원회 성비	154
[그림 46] 설립주체 유형별 육아휴직 신청자 비율(전체 인원 대비 성별 비율)	156
[그림 47] 보육지원제도 유형별 운영현황	157
[그림 48]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160
[그림 49] 전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161
[그림 50]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2013~2018)	162
[그림 51] 법인 전체 대표자 성비	177
[그림 52] 법인 형태별 대표자 성별 현황	177
[그림 53] 권역별 법인 대표자 성비	178
[그림 54] 분야별 법인 대표자 성비	179
[그림 55] 설립연도별 법인 대표자 성비	180
[그림 56] 연도별 여성 심의위원 평균 비율	182
[그림 57] 2019 지원대상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183
[그림 58] 2019 지원분야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184
[그림 59] 2019 지원유형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184
[그림 60] 2019 사업추진연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185
[그림 61] 2019 사업예산 규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186
[그림 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신청자·선정자 성별 현황(2016~2019)	188
[그림 6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개인·단체 성별 현황(2019)	188
[그림 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개인·단체 성별 현황(2019)	189
[그림 65] 현재 통계청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계 분류 수준	197
[그림 66] 통계빅데이터 센터 이용 절차	199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16일 『문화비전 2030_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하면서 9대 의제 중 하나로 ‘성평등 문화 실현’을 선정하였음

-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은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의 실현임. 다시 말해 성차별로 인하여 각종 제도나 정책에서 특정 성에 유리한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관점¹⁾을 기반으로 성별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광 등 전 분야에서 성평등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인지 정책의 기반이 될 것임

□ 일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직접 수행하는 참여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 되어야 함²⁾

- 제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에 의해서 좋은 정책이나 사업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입안과 사업 개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함
- 특히 공공 부문의 성별 대표성은 양성평등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측면과 민간으로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여성참여자의 양적확대가 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으로의 진입, 영향력 행사 정도가 훨씬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함³⁾
- 이미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성 주류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측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⁴⁾는 여전히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었음⁵⁾

1)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 황은정(2018).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 자치구 내 성 주류화와 성 평등 의식 수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쪽.

3) 김혜인(2018). “양성평등문화정책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 격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논총』, 32집 3호, 39쪽.

4) UNDP에서 발표하는 GEM과 관련하여 대표성의 문제와 정치에서의 여성 참여,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들로 인해 GEE(Gender Equity and Empowerment), GII(Gender Inequality Index) 등 다양한 대안들이 나타났고, 2010년부터 UNDP는 GII를 활용하여 국가 간 성별 불평등 지수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음

5) 김미경(2015). “젠더질서의 변화와 ‘유연한 젠더레짐’: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고”, 『사회사상과 문화』, 19권 4호, 397쪽.

□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 수치와 수준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음⁶⁾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은 단순히 인원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을 가진 여성의 비율(critical mass)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음
- 그 예로 비례대표 의원 중 여성의 비율을 50%로 할당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한 것이 여성 국회의원의 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문화 분야는 성비 특수성(여성 비중 70% 이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교육과정에서는 남성중심의 위계구조와 문화가 만연해 있음⁷⁾
- 체육 분야는 더욱이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구조로 인하여 구조적이고 위계적인 성폭력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관광 분야 역시 여성 종사자의 수가 높으며, 현장업무의 특성 상 성적보호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음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건강한 성 평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함

-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는 남녀 간의 정치적·정책적·사회적·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화적 지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타 분야보다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월등히 앞서는 문화 분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연구』

7) 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2018).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149쪽

제2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미투 운동 등 현장의 성평등 문화정책에 대한 수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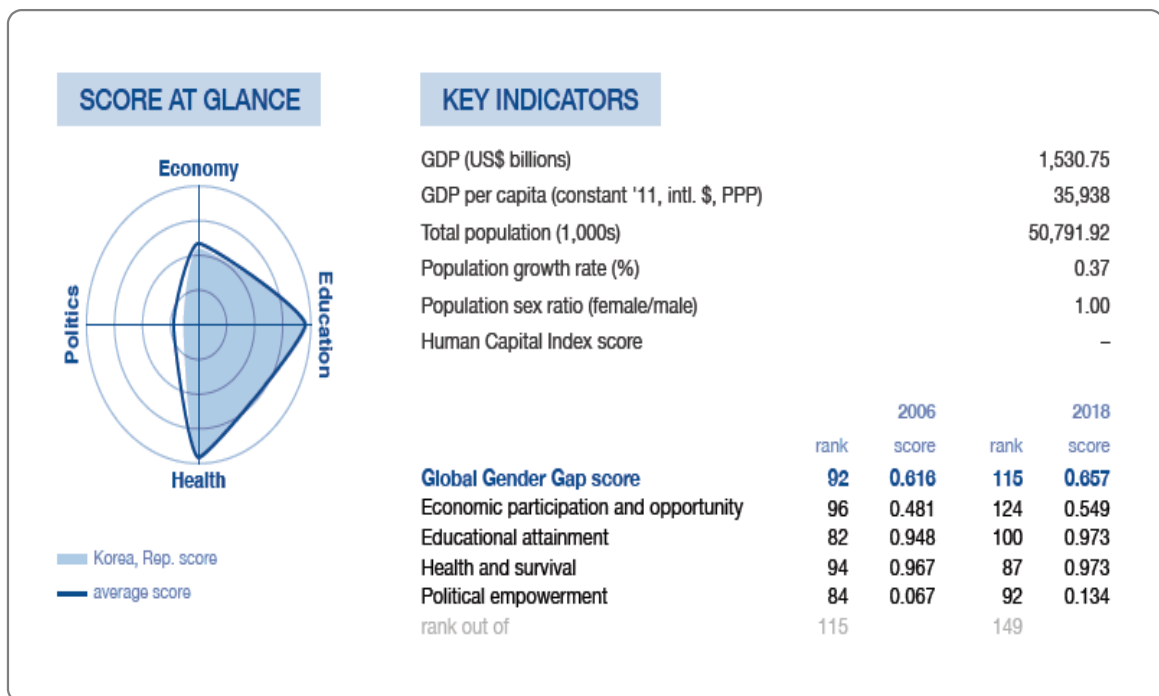
- 문화계 전반에서 드러나는 성폭력 문제, 성불평등 문제, 여성/남성 혐오 문제 등이 일회적 사회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방안 수립이 시급함
-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성폭력과 같은 이슈화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문제의 본질에 다다르려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지 못하였음
- 관련 분야 정책연구가 거의 10여 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 제시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시급함

□ 성평등 문화정책 수립과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현황 통계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이러한 최근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임

- 최근 10여 년 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성인지 통계조사가 수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인지 관점에서의 조사는 전무한 실정
-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관통하는 일관된 관점의 통계조사결과가 부재한 것은 물론이고,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성인지 연구조사나 통계분석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않아서 대외적인 정책신뢰도는 물론이고 문체부 내부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성인지 통계데이터를 동일한 시점과 동일한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문화 분야 전반의 성평등 현황, 문제점, 구조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92위(115개국 중)에서 2018년에 115위(149개국 중)로, 국제적인 수준의 순위가 충격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과거 10여 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시급한 상황임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로 활용

-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성인지 통계조사 연구를 위해, 기존에 실시된 분야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구 범위인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분야 종사자들이 현장에 진입하게 되는 경로와 방법, 그리고 현황 등을 파악할 것임
- 성별의 차이가 각각의 직종과 직무유형에 따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즉, 분야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방식과 노동구조의 차이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현상에 대해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기술할 예정임
- 기관 설문조사와 협·단체 조사를 통해 성인지 통계 데이터를 축적하고, 주요 지원심의 심사 위원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문화산업·체육·관광 분야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성별 참여도를 파악하며, 노동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성평등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에 활용할 예정임



[그림 1]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 세부점수

출처: WEF(2018).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p.147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 환경과 제도에는 아직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신규 사업 또는 연구를 진행할 때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음. 문체부의 성인지 정책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전반적 성인지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됨
- 구체적으로 분야별 종사자들의 시장진입, 경제활동, 고용현황, 노동환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조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성평등 문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확보를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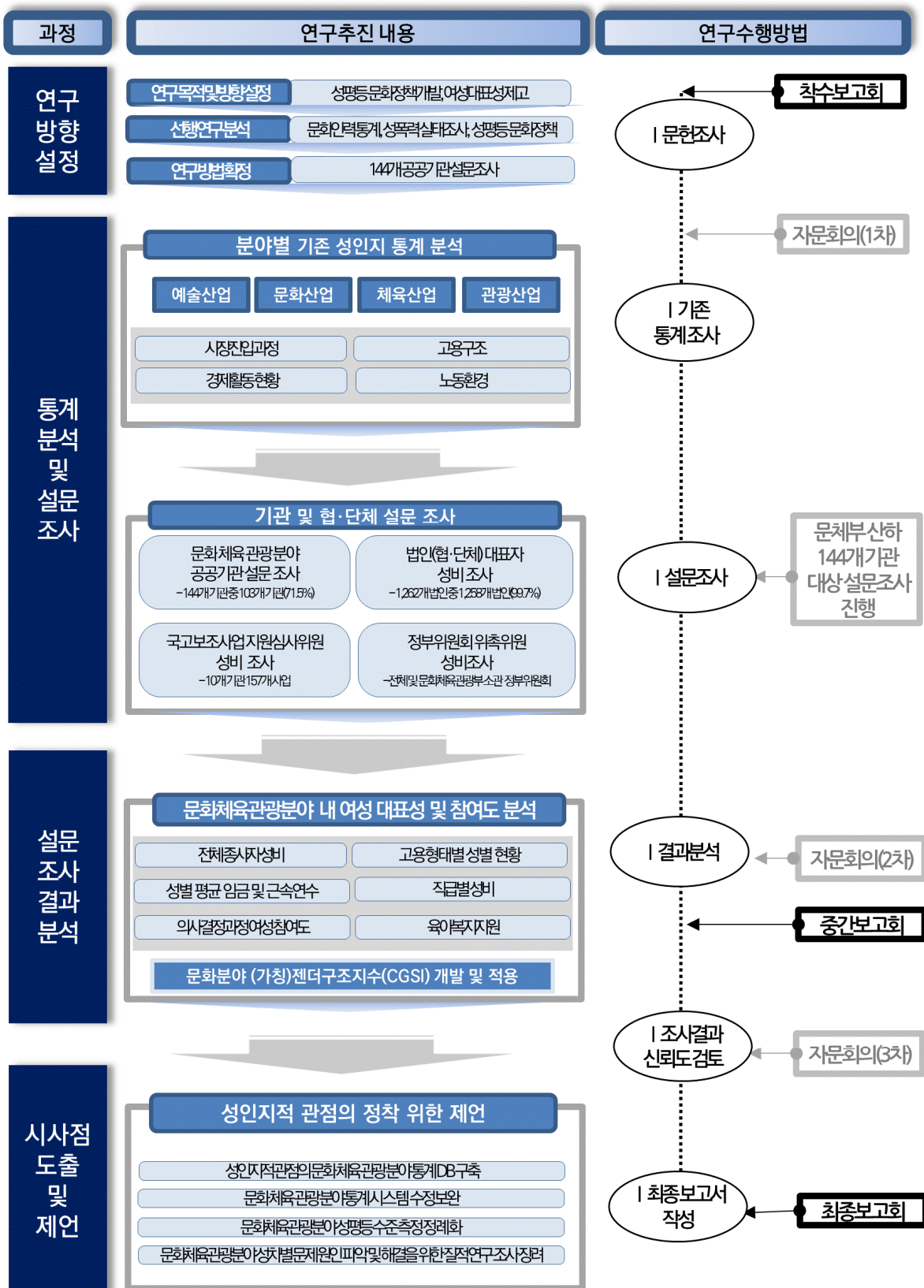
-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된 2017~2018년 이전,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해 체육, 관광 산업에서는 위계적이고 남성중심적 구조로 인하여 성인지 정책에 대한 요구가 없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음.
- 때문에 최근 성평등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성인지 관점을 적용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 실태조사 등이 미흡한 상태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기관/협·단체 등에 동일한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조사를 진행하여, 분야별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9년을 기준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성인지 정책 환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 연구에 활용된 통계자료는 각 분야 관련 기관에서 현재까지 발간된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가 주를 이룸
- 본 연구 중 수행한 기관 및 법인(협·단체) 설문조사는 2019년 6월부터 3개월여 간 시행되었으며, 각 응답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최신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
- 심사위원 성비 조사에 활용한 국고보조 지원사업 리스트는 2017, 2018, 2019년 3개년 사업을 바탕으로 수집
- 정부위원회 성비 조사에 활용한 자료 또한 2017, 2018, 2019년 3개년의 성별참여현황 점검 결과를 활용

□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성 격차 현황을 중심으로 고용 및 노동환경을 살펴보았으며, 공공기관 및 법인(협·단체)의 성인지 현황을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함

-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기관에서 발간된 기존 통계자료 및 국가통계를 바탕으로 산업 종사자의 고용, 노동환경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함
- 또한 공공기관, 법인(협·단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기관 및 단체의 양성평등 수준을 살펴보고 여성 대표성 현황에 대해 확인함
- 통계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정착을 위한 제언을 다룸



[그림 2] 연구 추진 방향

제4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행된 포럼, 연구 논문, 정책보고서 등에서 기 사용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 환경, 구조 분석과 시사점 도출

- 교육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 예술인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성별 시장진입 현황, 고용형태 등 관련 통계자료 분석 및 재가공
- 구체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산업분야의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현재까지의 정책과 영향평가, 이를 객관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및 분석 등을 포괄하고 있는 여러 포럼 자료, 연구논문과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 이러한 정책 연구 보고서들을 크게 산업별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로 각각 분류한 뒤 각 산업별 연구 자료들을 다시 정책 및 영향평가, 성별 인력 구조, 지표개발, 실태 및 현황조사 관련 내용 등으로 세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내용 및 흐름을 구조화하고 분석함

□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행된 문화분야의 연구는 크게 정책, 문화자원, 지표개발, 인력실태조사 연구로 구성

- 국가 및 지자체의 문화정책의 현황 및 영향 평가, 실효성제고방안 마련, 정책과제 수립 등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2004), 「서울시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 연구」(2005),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2006),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07),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2018) 등이 있음
- 문화자원 및 콘텐츠로서의 여성 및 여성문화, 여성의 문화 활동과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에 관해서는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활성화 방안」(2004),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 분석」(2005), 「양성평등 문화활동 및 콘텐츠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2007) 등의 주요 연구들이 진행되어 옴
- 성인지 관점에서의 문화관련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문화정책의 성인지 분석평가지표 개발과 적용」(2005), 「양성평등 문화지표 개발연구」(2008) 등이 존재
- 문화분야에서의 성별 인력 구조에 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문화인력 실태조사 및 DB구축방안 연구」(2008), 「2009 성별 문화인력 통계DB I-통계편, II-구축방안」(2009), 「2010년 성별 문화인력 통계DB: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2010) 등이 존재

□ 체육 및 관광 분야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인력통계, 현황조사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옴

- 체육 분야의 경우 성인지 관점에서 기반시설의 성별영향평가, 인력 통계, 성폭력 현황조사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성별영향 분석평가」(2004), 「성별 문화인력 통계 DB: 관광 체육분야」(2009),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2019) 등이 존재
- 관광분야의 경우 축제와 같은 관광상품이 미치는 효과를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해당 산업분야의 인력 통계, 관련 공공 사업에 대한 분석 등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문화관광축제의 성별영향평가」(2007), 「성별 문화인력 통계DB: 관광 체육 분야」(2009), 「정부부처의 문화·관광 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효율성 제고방안: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중심으로」(2018) 등이 연구되어옴

2. 설문 조사

□ 기관, 시설 등의 근무환경, 인력구조, 조사 지표 선정 및 설계

-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성평등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성인지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조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한 조사표 작성과 조사표 완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할 것임
- 기관의 경우에는 조사표 배포 및 회수가 필요하고,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유, 분석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자료 작성이 필요함

□ 의사결정 과정의 성별 참여도 조사 실시

- 설문조사 조사대상 기관들 중 지원기관의 지원 사업을 선정해 인터넷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의사결정 과정의 성별 참여도를 조사함



[그림 3] 설문조사 세부 계획

3. 전문가 자문회의

- 설계·조사·시행 단계별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성인지 통계조사를 위한 항목 구성 및 실태에 대한 논의 진행 예정
-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에 적합한 대상 집단을 선정하고 성인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요구되는 정책과제 방향성 공유

〈표 1〉 전문가 자문회의

구분	개요
1차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19.05.22. (수)/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통일회의실 • 주요 안건: 성인지 통계조사 추진계획 검토 <div data-bbox="396 534 883 904">  </div> <div data-bbox="899 534 1386 904">  </div>
2차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19.10.17. (목)/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새마을회의실 • 주요 안건: 성인지 통계 기관 설문조사, 지원 사업 심사위원 조사 결과 검토 <div data-bbox="396 1037 883 1418">  </div> <div data-bbox="899 1037 1386 1418">  </div>
3차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19.11.06. (수)/ 서울 서계동 국립극단 6회의실 • 주요 안건: 조사 분석결과 및 통계 신뢰도 검토 및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표(CGSI) 개발 논의 <div data-bbox="396 1542 883 1907">  </div> <div data-bbox="899 1542 1386 1907">  </div>

4. 연구과정 보고회

□ 착수보고회 개최

- 공공기관 협·단체 대상 조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 산하 위원회도 조사 대상에 포함, 협·단체의 경우 단체장(대표) 성별, 이사회(임원) 성비, 사무국장 성비 등 추가 조사 사항 논의
- 주요 지원 사업 심의 심사위원 성비 분석 관련,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대상 기관과 지원 사업 목록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 예정

〈표 2〉 착수보고회 개최 개요

구분	개요
일시	2019.05.02.(목)
장소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
참석자	총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장수경 사무관, 곽노현 주무관 • (자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류정아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위촉책임연구원, 김희정 위촉연구원

□ 중간보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성인지 통계 설문조사 결과, 협·단체 성비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 국고보조사업 주요 지원심의 심사위원 현황 및 성비 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표 3〉 중간보고회 개최 개요

구분	개요
일시	2019.10.17.(목)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새마을회의실
참석자	총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수경 사무관, 곽노현 주무관, 임승규 주무관 • (자문) 최혜자 문화디자인리 대표,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변재란 순천향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박사, • (연구진) 류정아 선임연구위원, 변영건 위촉연구원

제5절 기존 조사 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1. 문화 분야 기존 조사연구 현황 및 주요내용

〈표 4〉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 자료 현황

구분	내용	비고
류정아(2004),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여성 문화와 여성문화활동, 성인지적 정책과정, 여성문화정책의 동향, 문화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여성문화정책의 비전과 목표, 여성문화정책의 추진전략과 사업제안(기반조성, 평가관리와 통계체계 구축, 여성문화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 지원,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여성문화정책의 출발점으로 문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제시
한국여성개발원(2004),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 자원으로서의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진: 양애경 외 3인	여성문화유산과 관련 정책, 여성문화유산의 현황 및 사례, 지역문화유산으로서 활용 활성화 방안	여성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주체이자 문화적 생산자로서 여성의 존재 강조
류정아(2005), 『문화정책의 성인지 분석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책과정과 성분석, 문화정책의 성분석 평가지표 개발, 문화정책의 성분석 적용, 정책과정별 성분석 평가지표의 적용과 시사점	성 인지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한 정책도구로 성 인지 분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신경희(2005), 『서울시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 연구』 서울시정책개발연구원	성별영향평가 발전과정, 수행의 문제점, 성인지적 문화정책 현황과 사례, 문화정책 분야의 성인지적 관점, 서울시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지표 및 지침 개발, 서울시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성인지적 문화정책 기반조성 방안	서울시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를 토대로 성인지적 문화정책을 추진, 문화도시 서울을 목표로 함
문화관광부(2005), 『한국여성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책임: 이수연)	문화권리와 젠더, 성인지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향수 결정요인, 한국여성의 문화향수 및 활동의 특성	여성과 남성, 여성 내부 집단 사이 문화향수의 차이와 원인을 파악해 여성 및 전 국민의 문화향수 수준을 높이는 정책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문화관광부(2005),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 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	여성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지위인식 정도, 여성의 문화예술창조활동 현황 및 실태조사(전문종사자와 잠재적 종사자의 비교), 문화예술활동 분야별 특성과 장르별 특성,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장애와 불이익 경험, 남녀차별 견해, 정부지원 현황, 창작활동가·기획 및 제작/스텝 활동 종사자·강의/연구인력 활동 현황,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여성의 문화예술창조 욕구를 읽어내는 한편, 여성 문화예술창조활동 현황·제약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창조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구분	내용	비고
문화관광부(2006),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책임: 김영옥)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맥락과 현황, 양성평등 관점 에서 본 문화정책 평가,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실험적·대안적 여성문화 창조를 위해 국민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복합문화공간 설립 제안
문화관광부(2007), 『양성평등 문화활동 및 콘텐츠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	문화콘텐츠로서의 여성문화,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사례,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활용의 정 책적 지원현황 및 정책 제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 고자 함
문화관광부(2007),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박선영)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방향, 제도적 개선방향, 양성 평등문화정책 법령 현황 및 한계, 법률 제정방향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 추진 및 양성평등문화진흥 육성을 위한 독립 된 추진체계·구조 마련과 함께 법적 근거 제안
류정아, 홍기원, 우주희,(2008), 『미래사회의 인구구조와 문화수요』, 대왕사	문화적 수요의 변화분석, 인구집단별 사회적 특성, 양성평등 지향적 문화수요 증대 가능성 등	국가전체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다 문화성에 대한 수요의 관점 동시 조망
문화관광부(2008), 『양성평등 문화지표 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장미혜)	국내 및 해외의 문화지표체계의 구성 및 특성, 양 성평등문화지표의 구성체계, 양성평등문화지표의 개발	문화지표체계는 ▲문화생산 ▲문화향 수유형 ▲문화향수자원 ▲문화정책 등 크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됨
문화체육관광부(2008), 『여성문화인력 실태조사 및 DB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	여성문화인력 활동의 사회문화적 기반, 여성문화인 력 디비의 내용과 구성, 여성문화인력 양성 및 활 동 현황, 여성문화인력 실태조사 및 사례, 관련 분 야 정책제언	DB자료체계 기본틀: 인력양성현황, 노동시장진입, 경제활동상태, 고용현 황, 단체, 전문인력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9 성별 문화인력 통계DB-Ⅰ 통계편, Ⅱ-구축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	성별문화인력 통계디비 구축을 위한 조사과정 및 개요, 성별문화인력의 현황/노동시장 진입/경제활 동 상태/취업자 고용특성/문화전문인력, 문화단체 현황	기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분류 체계 재정리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 범주화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년 성별 문화인력 통계 DB: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	기초문화인력 통계자료 분석, 성별문화인력 통계, 성별문화산업인력 통계, 효율적 문화인력 통계DB 구축 방안	인력양성 및 노동시장 진입,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의 고용특성, 문화전문 인력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책임: 류정아)	성평등문화정책의 지향점, 성과와 한계 분석, 최근 10년간 문체부 차원의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 현황, 젠더갈등의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성평등 문화정 책 인식조사	성평등 문화정책의 의미와 가치, 기반 조성 및 제도개선방안, 젠더문화정책 전문인력 양성방안, 감수성 프로그램 개발, 여성문화인력 고용 및 입직안정 화 방안 수립

2. 체육 분야 기존 조사 연구 현황 및 주요내용

〈표 5〉 체육 분야 성인지 조사 연구 사례

구분	내용	비고
여성부·문화관광부(2004),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정정숙)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와 관련한 성 별 특성, 통계 현황, 성인지적 분석, 이용자 측면에 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외국 문화기반시설 및 생 활체육시설 정책과 프로그램 사례, 문화기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별영향분 석평가 지표에 대한 제안	성인지적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 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평가 대 상으로 국민이 문화예술·체육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및 생활 체육시설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2009), 『성별 문화인력 통계DB: 관광 체육 분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	성별 관광인력의 특성과 DB체계 및 통계, 성별 체 육인력 통계 DB, 성별문화인력 통계DB 구축방안	인력양성 및 노동시장 진입,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의 고용특성, 관광/체육 전문인력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2019)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김동식)	스포츠계 성폭력 발생과 예방 및 처벌의 어려움 등 의 문제가 스포츠계의 특수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 는지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살펴봄. 그리고 해외 스포츠 성폭력 정책 사례 분석 및 국내 프로스포츠 종목별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	스포츠계의 특수성과 성폭력 분석, 해 외 스포츠 성폭력 정책 사례 분석, 프 로스포츠 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및 개선방향,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 사 분석

3. 관광 분야 기존 조사통계 현황 및 주요내용

〈표 6〉 관광 분야 성인지 연구 및 조사통계 사례

구분	내용	비고
여성가족부(2007), 『문화관광축제의 성별영향평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	문화관광축제의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기본구조, 분석, 정책의 성별관련성, 정책홍보방식의 양성평 등성,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일 환으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2009), 『성별 문화인력 통계DB: 관광 체육 분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	성별 관광인력의 특성과 DB체계 및 통계, 성별 체 육인력 통계 DB, 성별문화인력 통계DB 구축방안	인력양성 및 노동시장 진입,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의 고용특성, 관광/체육 전문인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정부부처의 문화·관광 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효율성 제고방안: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김영숙, 김효주, 홍기원, 김병권, 정주연)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 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전문가 조사를 통해 문화관광 분야 사 업예산 중에 성인지예산의 작성이 필 요한 사업들을 제시함. 문화관광 분야 재정사업에서 성인지 예산 도입의 필 요성을 환기시킴

4. 기존 연구의 시사점

□ **최근 10여 년 간 체계적인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통계조사가 수행되지 않아서 정확한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음**

-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더 이상 조사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음
- 체육 분야는 10여 년 전에도 1~2건을 제외하고는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현황이나 과정을 분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많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관광 분야는 체육 분야보다 더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연구조사에 관심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성인지 예산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성인지 정책연구가 전무함

제6절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움직임

1. 문화체육관광계의 미투(#me too) 운동

□ 2017년부터 미국 영화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옴

-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한국에서의 미투 운동은 그동안 남성들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문화예술, 체육계로 전파되어 다양한 분야의 남성 문화권력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특히 집단 창작활동이 보편화되었고, 일상적인 예술활동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연극분야에서의 미투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많이 발생되었고, 이어 문학, 전통예술, 무용, 게임산업, 스포츠계 등에서 그동안 침묵하며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함

□ 문화, 체육 분야에서 등장하는 관련 키워드는 미투, 성폭력, 침묵, 성범죄 등임

-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발생한 미투 운동에 관한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성폭력, 미투, 침묵, 성범죄, 징계 등의 키워드가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엘리트 예술인, 체육인을 육성·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를 비롯하여 선수촌과 같은 교육과 연습 공간에서도 성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그 심각성을 더하면서 문화체육계에서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평등 환경을 위한 다양한 대안마련과 예방장치들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게 됨



[그림 4] 문화예술·체육 분야 미투 관련 키워드

출처: 워드클라우드 사이트 wordcloud.kr 2019.11.1. 검색

2. 환경 변화를 위한 문화체육계의 움직임

□ 법률의 제정 및 예방 캠페인, 행동강령 제작 등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과 방법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통과됨. 이는 체육계에서 촉발된 미투 운동 관련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과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단체장과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게 하고, 체육 선수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의 내용을 담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계 각 장르별로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 사실이 얼마나 되는지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함. 문화 분야로 다루어진 세부 장르는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이고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을 포괄하고 있음. 대중문화에는 방송, 음악, 만화, 패션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2019년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술지원 사업에서도 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민간 여러 지역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활동가들이 연대하고 지역 미투 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자의 현실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기획하는 등 성평등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활동들은 연대를 통해 향후 성평등 환경의 위로부터의 제도적·행정적 개혁과 종사자들의 인식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변화로 확산되어야 함

□ 관광 분야에서의 미투 운동 및 성폭력 관련된 내용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실태조사가 절실히 요구됨

- 관광 분야는 산업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종사자 수도 문화체육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매출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관광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특성과 환경을 볼 수 있는 실태조사가 단 한 번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문화체육 분야와는 달리,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관광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투와 관련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체육 분야보다 더 폐쇄적인 구조로 인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보다

성평등한 환경이라는 현실의 반영인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표 7〉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 정책 목록

정책	2016년 이전	2017~2019 현황
문화예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콘텐츠 국고지원사업 선정자 의무교육 - 예술인들을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문체부+양평원, 영진위 및 든든) 교육콘텐츠 개발중 - 온라인 강의안 개발, 영화표준강의안 개발 - 양평원 문화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2018~2019) - 예술인 성평등교육 지원 (2019)
문화예술계 성차별 성폭력 실태조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출판노조, 사진잡지 보스토크 - 2017. 문체부, 영진위(영화, 문학, 사진, 미술) - 2018. 100일 특별조사단 설문조사 - 2018. 문체부(공연예술, 대중예술, 출판, 체육) - 예술인권리보장법(안)에 매 2년 정기조사 규정
문화예술계 전담 신고상담센터	없음	<p>〈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일 특별신고센터(2018.3.~6.) - 출판문화진흥원 <p>〈상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재단 (2018~) -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2018~) -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2018~) - 지원내용: 법률, 의료, 심리상담 - 대응 안내서 제작
성폭력 성희롱 행위자 배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운영관리지침 개정 - 심사위원, 국고사업 신청 제한 조건 명시
성폭력 성희롱 행위자 징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국회 계류중)에 재정지원 중단 등 징계절차 규정
예방조치: 서약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지원사업 서약서 제출 (아르코, 영진위)
예방조치: 표준계약서 성폭력 금지 및 책임 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방지조항 가이드라인 권고(대책위) - 고시된 표준계약서 중 출판, 미술 등 개정 - 국고지원사업 참여단체 표준계약서 사용 유도
문체부 내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산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인력 8인 - 성폭력과 성평등 정책 담당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자료, 8쪽

제2장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성평등 환경 분석

제1절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성 격차 현황

1.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환경

□ 국가차원에서의 많은 노력에 비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여전히 매우 초라한 수준임

-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순위는 세계 144개국 중 114위임. 이는 2017년 118위로부터 약간 상승한 순위이나 여전히 중앙값(median)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음. 2001년 여성부 설립 이후부터 20년 가까이 성차별 해소에 쏟아 부은 국가적 노력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성별격차지수의 4개 하위지표(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교육 성취, 건강 및 생존, 정치세력화)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에서 가장 낮은 124위를 차지하여 여성 사회 참여의 기본적인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음

〈표 8〉 2018 한국의 성격차지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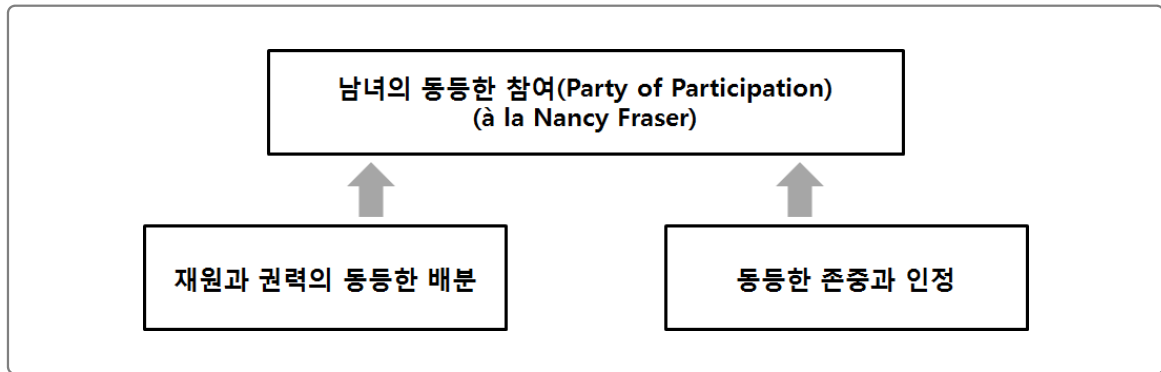
전체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교육 성취	건강 및 생존	정치세력화
114	124	100	87	92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임

- 성평등이란 “남녀의 지위나 권한, 그리고 서로 간 관계에서의 평등을 말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수연 등, 2016, 18)”모두에서 평등을 필요로 함
-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성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참여에 있어서의 동등함”이라고 말하고 있음⁸⁾
-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물질자원과 권력이 남녀 사이에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고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ibid.)

8) Fraser & Honneth(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p.36,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이수연) p.18에서 재인용



[그림 5] 프레이저의 성평등 모델

- 물질자원과 권력의 배분은 동등한 경제 및 정치 참여를, 그리고 남녀 동등한 존중은 “문화적 가치의 제도적 패턴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등하게 존경을 표현해야 하고 이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⁹⁾”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
-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이후로 진전되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임금격차 역시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52.9%로 2012년 50.1%에 도달한 후 아직도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음¹⁰⁾
 - 이는 북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 78.9%, 스웨덴 70.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 4위에 머무르고 있음(2017년 기준)¹¹⁾

〈표 9〉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한국과 상위 5개국(2018)

국가	경제활동참가율
한국	52.9%
아이슬란드	82.9%
스웨덴	70.2%
뉴질랜드	65.4%
스위스	62.6%
캐나다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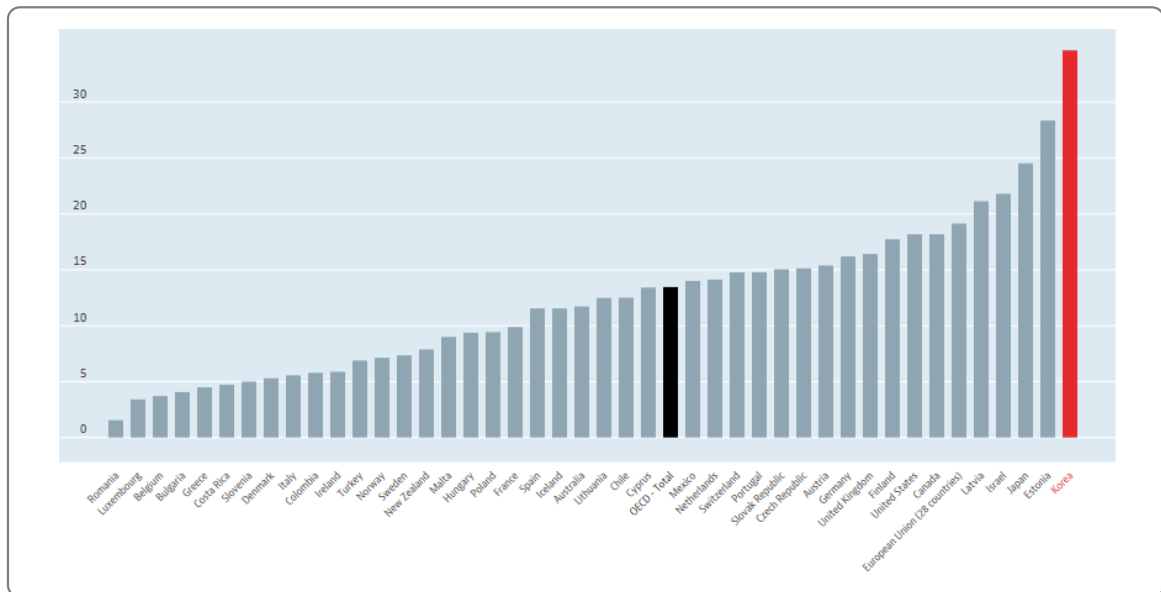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9) Fraser & Honneth(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p.36,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이수연) p.18에서 재인용

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낮추는 요소로는 여성 청년들의 낮은 취업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결혼 여성들의 가사와 양육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임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요인은 경제활동 진입에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의 경력개발 지속을 어렵게 하는 사회환경적 원인임
- 주로 임금이 낮은 산업에 여성들이 몰려있는 성별 직종분리와 경력단절, 그리고 승진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데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8년 3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가장 수치가 낮은 핀란드 21.4%에 비해 17.6% 포인트 높음¹²⁾



[그림 6] 세계의 성별 임금격차(2014~2018)

출처: OECD, Gender Wage Gap.

주석: 국가별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한국 여성의 낮은 정치 참여율도 한국사회의 성평등을 어렵게 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임

- 국제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 Union)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을 여성정치참여의 중요한 지표로서 매년 발표하고 있음. 2019년 9월 현재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16.67%로 189개국 중에서 125위에 위치하고 있음
-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정치 진출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가 여성에게 적합한 활동이 아니라는 고정관념과 함께 정치계에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 때문에 여성의 정치활동은 여전히 장애가 많음

12) OECD(2018).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표 10〉 여성의원 비율: 1~8순위 국가와 한국(2019)

순위	국가	의석 (하원)	여성의원 수	여성의원 비율(%)
1	르완다	80	49	61.25
2	쿠바	605	322	53.22
3	볼리비아	130	69	47.22
4	안도라	28	14	50
5	멕시코	500	63	49.22
6	스페인	350	103	39.46
7	스웨덴	349	165	47.28
8	핀란드	200	94	47
125	한국	300	50	16.67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2019). Percentage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2019.9.17. 검색

주석: 2019년 9월 기준

- 의원 비율뿐만 아니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 비율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한국 정부는 정부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여 「양성 평등기본법」에 정부위원회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을 것을 명시
- 2018년 전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은 41.9%로 2017년 이래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는 위원회 중 125개(24.9%)가 여성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¹³⁾

□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성별 역할의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경제, 정치 활동에 있어 낮은 여성참여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기인. 이는 성별 역할 고정관념으로서 남성은 공적 영역 활동이, 여성은 사적 영역 활동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임
- 이러한 사고는 여성에게는 경제,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고 남성에게는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됨. 또한, 남녀의 활동 선택에 영향을 주어 결국 공사 영역에서 남녀의 성과에 영향을 주어 결국 그 사고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은 더욱 강화되는 것임
- 성별에 따른 공사영역의 배분은 강력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것이지만 이것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전부가 아님

13) 매일경제(2019.3.11.) “정부위원회 4곳 중 3곳 여성비율 40% 넘어”

- 여성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사고도 성별 고정관념인데 이는 앞에서 말한 여성 혹은 여성성을 남성 혹은 남성성과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는 것을 말함. 구체적으로 남성의 가치를 여성보다 높게 매기고 여성을 객체화하거나 비하하며 특히 남성의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성차별적 관념은 일상적인 대면 상황에서의 성차별 언어나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 비하, 혐오표현 등으로 나타남
 - 특히 온라인은 여성 비하나 혐오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여성혐오 표현은 많은 여성들의 활발한 소통 참여를 막고 있음
 - 또 남성 사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나 성행위 동영상을 돌려보고 이렇게 불법 유통 대상이 된 여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됨. 이러한 여성비하적 고정관념은 여성들에게는 물론, 사회전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음
- **문화예술계는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요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차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 문화예술분야는 이처럼 사회전체의 성차별적 구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성차별적 고정관념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이라는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좀 더 여성친화적일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작금의 사태들은 문화예술계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적 감수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문화예술계의 성차별적 환경

- **문화예술산업은 여성이 더 많은 관심과 교육을 받아 여성이 수적으로는 우세한 구조지만, 예술 산업계 내 여성의 지위는 남성보다 낮음**
- 문화와 예술은 여성들이 친밀하게 느끼는 분야로,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대한 교육을 남성들보다 더 많이 받고 어른이 되어서도 문화적 취미를 가지거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문화적 관심과 흥미는 여성들이 직업에 있어서도 이 분야를 선택하게 하는 계기가 됨. 따라서 문화, 예술, 그리고 문화산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인력이 많이 진출

- 영국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영국 ‘창조적 미디어 산업(creative media industry)’ 인력의 42%는 여성이며, 우리나라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콘텐츠 산업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43.8%임¹⁴⁾¹⁵⁾
- 하지만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참여비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동등하지 못함

□ 문화예술산업의 젠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권’의 권리가 충족되어야 함

- 문화예술계에서 젠더 구조는 전체적인 성별 참여 비율 외에도 이 분야 내 직종의 성별 분리, 의사결정직에 있어 성별 비율, 능력의 인정과 평가에 있어 성별 요인, 그리고 인권 존중에 있어 성별 요인 등을 반영해서 분석되어야 함
- 이는 흔히 문화권(cultural rights)이라고 일컫는 “문화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기여¹⁶⁾”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인 권리가 충족되기 위한 것임
- 문화와 예술 영역에 종사한다는 것은 문화적 접근, 참여와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데, 단순히 문화예술분야의 종사자가 된다는 것이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는 않음
- 즉, 문화예술계와 문화산업 내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장이나 활동영역에서 얼마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활동의 선택과 자유에 대해서 만족하고 더불어 문화예술적 산출물에 대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기회的重要组成部分을 차지하기 때문임

〈표 11〉 유럽문화행동의 여성 문화권 보장 장애 요소

여성 문화권 보장 장애요소
문화 관련 직종에서의 의사결정에 불평등한 접근
문화산업과 활동 유형의 성별 불균등한 배분과 직종의 성별 분리(glass wall)
산업 내 분야와 조직 그리고 직종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 여성들의 지도자 위치로의 성공적 경로의 기회
여성 예술가 혹은 영화감독, 작곡가, 혹은 박물관 수집과 문화조직의 프로그래밍
남성 예술가에 비해 여성 예술가 작품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업적 가치
문화적 게이트키퍼나 전문적 네트워크에서 의사결정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여성 수의 과소함

출처: Culture Action Europe(2016), “Gender Inequalities in the Cultural Sector”

14) 정규직 중 여성 비율은 34.9%, 비정규직 중 8.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콘텐츠산업 :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15) Hesmondhalgh, D., & Baker, S. (2015). “Sex, gender and work segregation in the cultural industries”. *The Sociological Review*, 63(2015), p.23

16) Culture Action Europe(2016), “Gender Inequalities in the Cultural Sector”

- 위의 유럽문화행동(Culture Action Europe) 문서에서는 여성들이 이러한 문화권을 보장 받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로써 특수직종에서의 여성 과소 대표성 등을 이야기함¹⁷⁾

□ **문화예술계 성별화된 권력구조로 인하여 여성들이 권력에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예술 산업 분야로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가장 단단한 장애 측면은 권력구조가 성별화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여기서 권력구조란 능력의 평가와 인정, 자원과 네트워크에의 접근, 그리고 활동과 생산의 가능성에 모두 작용함
- 먼저 능력의 평가와 인정은 문화, 예술 분야에 입문하고 생존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문화예술계에서는 공식적인 입문 통로가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한 편임. 즉, 공사 기업에서 문화 관련한 자리가 많지 않을뿐더러 관련된 능력 자체가 입사시험이나 자격증 등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기 보다는 작품이나 활동을 통한 주관적인 평판 등이 중요하게 작용함. 물론 경연이나 대회 등을 통한 등단도 가능하지만 이보다는 관련 분야에서의 입소문, 아니면 소수 대가들의 평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 대가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남성들임. 남성은 평가자, 여성은 평가대상이라는 성별 구조는 한번 형성된 이후 오랜 세월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창조성은 남성적인 것이라는 고정관념과도 관련이 있고, 또한 오랫동안 문화예술계를 남성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역사나 관행의 산물이기도 함. 이러한 관행이 유지되는 데는 이 분야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상부의 네트워크가 남성들의 전유물이고 여성들이 접근 금지 구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됨
- 또한 남성은 공적 지원금, 시설 및 공간 등 활동을 위한 자원을 과점하고 있음. 이는 지원이나 후원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고 이는 역시 앞에서 말한 남성적 네트워크와도 관련됨
- 이처럼 성별 구조와 남성적 문화는 문화예술계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반인권적인 관행을 유발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계는 여성친화적이지 않을뿐더러 여성 고유의 문화예술혼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계의 성차별적 관행과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17) *ibid.*, 18-19.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는 다른 문화 영역에 비해 여성이 의사결정직에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제2절 문화예술산업계 성별 권력 구조

1. 문화예술계 성별 고정관념

□ 남성화된 예술가 원형의 스테레오 타입이 존재하여 여성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데 장애가 발생함

- 문화예술계에는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선입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문화예술계에 적용되는 몇 가지 스테레오 타입이 있음
- 밀러(Miller)는 예술계에서 이상적인 예술가의 원형은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는 예술 작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형성한다고 주장함. “첫째, 창조적 천재를 남성적 주체로 이해하고 둘째, 예술적 평가는 남성을 선호하는 조직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 예술가의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노동(entrepreneurial labor)¹⁸⁾과 자기홍보(self-promotion)가 구조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적합한 행동”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고 언급함¹⁹⁾ 이러한 고정관념은 “상징적으로 남성성과 연관된 실행을 우대”하고 “미학적 평가에 있어 집단적 성별 편견”을 관여시켜 여성 예술가의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음²⁰⁾
- 헤스몬달(Hesmondhalgh)과 베이커(Baker)는 앤커(Anker)의 이론²¹⁾에 따라 문화예술계의 성별 직종분리를 유발하는 것이 성별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주장. 가령 “여성은 돌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사일에 능숙하다, 손섬씨가 있다,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이다” 등의 스테레오 타입은 간호, 교육, 사회복지, 미용, 양재(dressmaking), 회계, 안내, 쇼핑 지원 등의 일을 여성화시키는 기능을 함을 의미²²⁾
- 또한 “여성은 남을 감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신체적으로 강하지 못하다, 과학과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 여행하거나 위험에 직면하거나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을 덜 좋아한다”는 부정적 관념은 “경영·광산·건설노동·기술직·보안노동”을 여성과 먼 것으로 간주케 함²³⁾
- 그런가하면 좀 더 중립적이고 모호한 속성으로 여성을 특징짓기도 하는데 “여성은 불평을 덜 하는 경향이 있고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을 더 기꺼이 하며 집에서 일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임

18) 노동자와 기업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직업 유형을 말함

19) Miller, D(2016). “Gender and the Artist Archetype: Understanding Gender Inequality in Artistic Careers”. *Sociology Compass*, Vol.10, issue 2, p.119-131

20) *ibid.*, 129

21) Anker, R. (1997). “Theories of occupational segregation by sex: An overview”,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136, p.315.

Hesmondhalgh, D., & Baker, S. (2015). “Sex, gender and work segregation in the cultural industries”. *The Sociological Review*, 63(2015), p.29 재인용

22) *ibid.*, 29

23) *ibid.*, 29

- 이러한 관념은 여성을 “소득이 적고 보호받지 못하며 반복적인 직종으로 모는 경향”으로 연결됨²⁴⁾

□ **남성/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은 문화예술산업계 내 직종분리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함²⁵⁾**

- 저자들은 이러한 스테레오 타이핑의 결과로서 문화예술계 중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서 일어나는 직종분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홍보 업무는 “민감한 예술가를 돌보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중재자와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전통적으로 남성보다 여성과 연관되는 기술”로 간주되기도 함
- 같은 맥락으로 여성의 조직과 소통 기술도 여성에게 협력과 조직의 업무를 맡기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음. 반면에 창의력이 남성적인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특정 분야에서 여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장애로 작용함
- 예를 들어 음악산업은 이러한 관념 때문에 성차별적 경향을 가진다고 분석됨. 또한 광고 분야에서 역학(dynamic)은 다분히 성별에 따라 작용할 수 있으며 여성의 역할은 종속적임
- 남성성의 다양한 측면을 창조성과 연관시키는 고정관념은 문화산업 중 좀 더 권위가 있는 창조적 역할이나 분야에서 여성을 제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 동시에 여성들을 소통과 조정(co-ordination)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데 이는 때로 직업 영역에서조차 여성이 돌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음. 한 여성 텔레비전 프로듀서는 “난 때때로 수 백명의 아이를 가진 엄마 같다고 느끼는데 이는 너무 힘들다”고 한탄함
- 또한 여성이 인정받는 “민감성, 돌봄, 정직함, 공정함 혹은 도덕성” 같은 ‘소통의 기술’은 여성들을 이 분야에 처음 진입시키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확신의 결핍, 갈등 관리능력 부족, 그리고 약한 리더십 기술”의 부정적인 면으로 연결되어 장애로 작용
- 이처럼 문화예술산업계에서 작동하는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들의 직업적 성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좀 더 생산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 이러한 성별 구분은 때로는 여성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함
- 예를 들어 돌봄과 지원의 능력은 그 자체로 단점이 아니고 이를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문제이고 남성에게도 이를 동등하게 행사할 기회를 줘야 하며 또한 이러한 속성을 좀 더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된다면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공평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24) ibid., 30

25) ibid., 30-34

2. 문화예술계 노동과 시장의 특성

□ 문화예술계 시장 자체가 가진 불안정성이 존재하며,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임

- 문화예술계 시장에는 오랫동안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안정적 고용과 확실한 조직의 지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음
-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직업과 직업 사이에서의 이동성이 높고 고용계약이 단기적이며 경력 개발을 본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여러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임²⁶⁾
- 이러한 특성은 70년대 이후 전반적인 비정규직의 양산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풀타임 대신 영속적 계약에 의하지 않는 독립적 하청업자(independent contractors)나 영속적 단기직(perma-temps) 등의 확산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음
- 이러한 직업조건은 기업가적 노동(entrepreneurial labor)의 특성을 가지는데 “창조성, 독립성, 평평한 직업 위계, 자기 투자(self-investments), 필수적 네트워킹, 작품모음(portfolio)에 의한 평가, 국제적 경쟁, 그리고 경력의 단축(forshortened careers)”의 8가지 특성을 가짐²⁷⁾
- 때문에 문화예술 노동의 재정적 보상이 근속연수나 전문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성공이나 투자의 유치에 근거하고 이들은 “명백하고, 개별화되고, 이익 추구 성취와 관련된 위험부담²⁸⁾”을 가지게 됨
- 이러한 문화예술 직업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 혹은 문화자본이 요구되고 이러한 기술과 문화자본을 가지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개별적 문화예술 노동자가 지게 되는 위험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짐
-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는데 전술한대로 작품 평가에 있어 남성성을 우선시하는 관행, 네트워킹의 중요성, 그리고 기업가적 노동 같은 것이 남성들에 더 어울리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문화 등이 모두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임

26) 여성가족부(2013).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윤소영), 118쪽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 보고서』(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수연). 17쪽에서 재인용

27) Neff, G., Wissinger, E., & Zukin, S. (2005). “Entrepreneurial labor among cultural producers: “Cool” jobs in “hot” industries”. *Social semiotics*, Vol.15, issue 3, p.308

28) ibid., 310

- 특히 네트워킹은 여성들에게 더 부담을 느끼게 함. 통상적인 직장근무를 하지 않는 문화 노동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얻기 위해서는 일이 끝난 후 사교 모임을 찾게 되고 이는 중요한 생산의 장소가 됨
- 예를 들어 여성 패션모델의 경우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통해 특정한 페르소나를 창조해야 하며 이는 때로 대상화로 연결될 수 있음. 전성기에 커리어를 접은 한 모델은 “자신을 대상화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대상이고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당신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한다”고 표현하기도 함²⁹⁾

□ **문화예술, 문화산업은 여성들이 보다 자유롭게 개인화된 노동이 가능하게 한다는 창조적 분야의 환상이 존재하는 곳임**

- 반면에 문화예술 노동은 “유연성과 창조적 자유라는 담론”에 의해 이상적으로 묘사됨³⁰⁾. 뉴미디어, 음악, 디자인, 패션 등의 창조적, 문화적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new economy)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된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여성이 일가정 양립이나 네트워킹, 연줄(ties)이나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환상을 준다는 것임
-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시나리오는 문화적 노동에서 여전히 존재하거나 새로이 형성되는 전통(re-traditionalization)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지 못함
- 뱅크와 마일스톤은 애드킨(Adkins)을 인용하여 “전통이란 공동적 유토피아 형성에 못지않게 ‘권력, 돈과 지위’를 확보하려는 인간적 동기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 그래서 문화산업에서 유연성과 창조적 자유의 담론을 통해 새로이 형성하고자 하는 전통은 근대화 과정에서의 성별 역할을 분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게 된다고 말함
- 문화 분야의 젠더정치를 연구한 맥로비는 이 새로운 경제(new economy) 체제는 개인의 재능을 강조함으로써 평등기회 관련 법령이나 반차별 정책, 대표성 등 일터에서의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들을 창조성과 창조적 생산과정에 장애가 되는 구경제 시스템의 부적절한 잔여물로 간주하여 여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처럼 유연성, 개인화, 창조성의 구호는 여성을 해방시키기 보다는 반성차별 제도나 여성 노동 보호에 대한 관심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차별을 촉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29) *ibid.*,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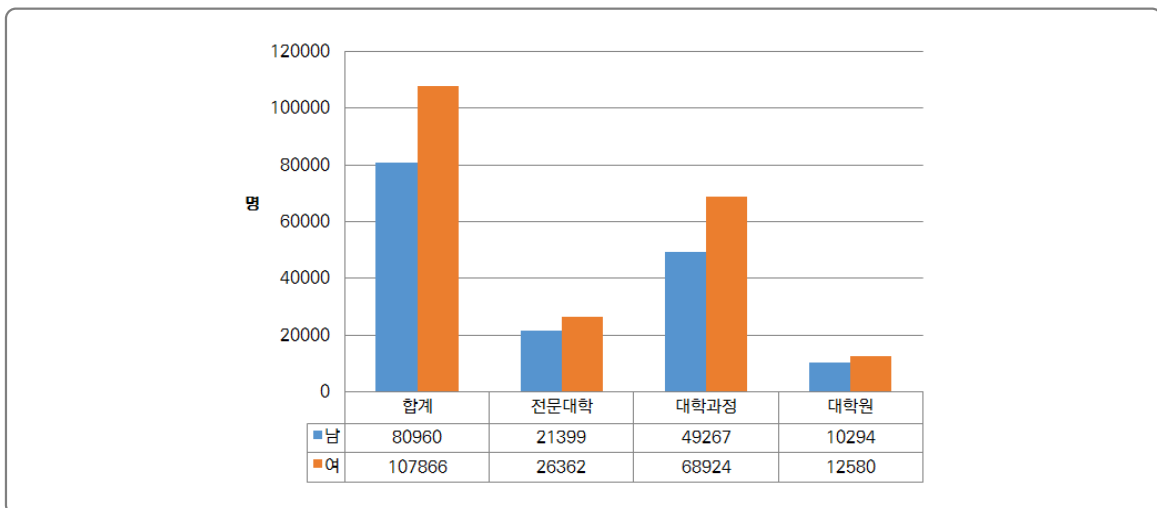
30) Banks, M., & Milestone, K.(2011). “Individualization, gender and cultural work”, *Gender, Work & Organization*, Vol.18, issue 1, p.73

3. 문화예술계 인력 성별 비율과 임금 격차

가.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일치

□ 문화예술계가 여성인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라고 하였지만 이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받는 여성 비율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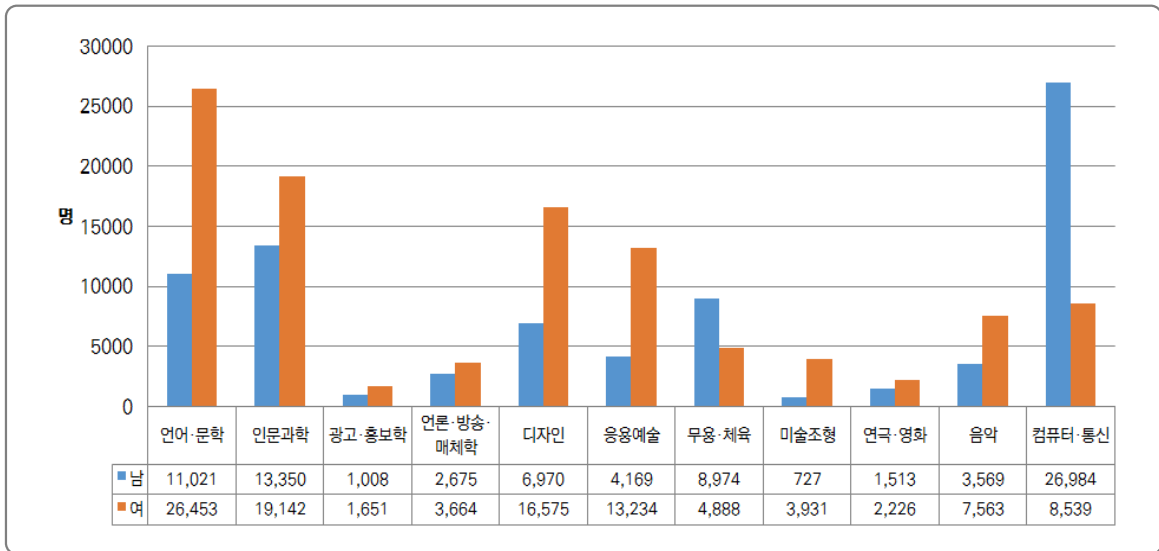
- 문화예술과 관련된 성차별적 고정관념은 결국 문화예술시장 구조에 반영됨. 그 중 하나는 여성에게 있어 문화예술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일치임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문화·예술·체육 관련 학과의 입학생과 졸업생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대에서는 남성 졸업생이 21,399명인데 여성은 26,362명, 일반 대학과정에서는 남성 49,267명인데 여성은 68,924명,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남성이 10,294명인데 여성이 12,580명, 전체적으로 남성이 80,960명, 여성이 107,86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만 명 가량 더 많이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문화·예술·체육 분야 졸업생의 성별 분포(201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서비스』 참고 재구성

- 2018년 세부전공별 졸업생을 보면 무용·체육과 컴퓨터·통신학과를 제외하고 언어·문학, 디자인, 응용예술,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 전공 등에서 졸업하는 남녀 비율을 보면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음



[그림 8] 문화·예술·체육 관련 세부전공별 졸업생의 성별 분포(201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서비스』 참고 재구성

- 고등교육기관별 세부전공으로 살펴보면 전체고등교육기관에서 무용·체육, 컴퓨터 통신을 전공한 졸업생과 대학원에서 언론매체학을 전공한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앞섬

〈표 12〉 고등교육기관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세부전공별 졸업생의 성별 분포(2018)

(단위: 명, %)

학과 계열		전체 졸업생 수	전문대학		대학 과정		대학원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188,826	44.8	55.2	41.7	58.3	40.8	59.2
인문계열	언어·문학	37,474	27.4	72.6	30.4	69.6	20.0	80.0
	인문과학	32,492	34.5	65.5	39.3	60.7	45.9	54.1
사회계열	광고·홍보	2,659	-	-	37.0	63.0	45.1	54.9
	언론·매체학	6,339	37.6	62.4	40.2	59.8	54.4	45.6
예체능 계열	디자인	23,545	34.0	66.0	25.6	74.4	28.9	71.1
	응용예술	17,403	21.5	78.5	27.3	72.7	27.2	72.8
	무용·체육	13,862	68.3	31.7	64.6	35.4	55.2	44.8
	미술조형	4,658	10.6	89.4	15.3	84.7	19.5	80.5
	연극·영화	3,739	42.7	57.3	39.4	60.6	35.0	65.0
	음악	11,132	45.0	55.0	27.1	72.9	24.3	75.7
공학계열	컴퓨터·통신	35,523	75.8	24.2	75.0	25.0	82.7	17.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참고 재구성

주석: 전문대학에는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 및 사이버 학교 등이 포함, 대학과정에는 교육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실제 문화예술분야 직종에 진입하는 비율은 입학생 졸업생 성별 분포에 상응하지 않음**

- 2018년 문화·예술·체육 분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보면 모든 세부전공에서 남성 졸업생의 취업률이 여성 졸업생보다 높으며, 격차는 최소 1%p에서 4.6%p까지 벌어짐

〈표 13〉 문화·예술·체육 전공 졸업생의 성별 취업률 현황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인문계열	59.1	54.5
사회계열_경영·경제	65.7	62.8
사회계열_사회과학	62.0	61.0
예체능계열	65.8	61.6
공학계열_컴퓨터·통신	69.8	66.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참고 재구성

주석: 예술산업, 문화산업(콘텐츠산업), 스포츠산업으로 유입가능성 높은 계열·학과를 선정

- 대학교와 일반대학원 졸업생은 학과를 불문하고 남성의 취업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졸업생 사이에서도 사회계열 사회과학 전공생과 예체능계열 미술조형 전공생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 졸업생의 취업률이 여성보다 높았음

〈표 14〉 고등교육기관별 문화·예술·체육 전공 졸업생의 성별 취업률 현황(2017)

(단위: %)

구분			전문대학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계열	졸업생 수		남	여	남	여	남	여
인문계열	언어·문학	40,450	57.1	56.1	58.7	54.4	60.2	50.2
	인문과학	33,098	65.8	60.9	58.6	52.5	66.8	61.7
사회계열	경영·경제	3,671	65.1	64.1	64.8	61.7	83.0	68.2
	사회과학	5,612	65.8	66.3	59.4	56.5	75.8	71.9
예체능계열	디자인	24,243	66.4	66.2	66.1	61.8	76.1	66.0
	응용예술	17,713	66.7	66.1	67.1	62.9	74.5	69.5
	무용·체육	14,484	61.9	60.2	68.0	64.1	70.4	67.2
	미술조형	4,801	72.2	76.7	60.1	56.4	65.9	49.0
	연극·영화	3,640	62.7	61.0	66.1	61.9	91.7	80.0
	음악	11,604	60.5	56.4	53.0	48.0	64.7	48.1
공학계열	컴퓨터통신	35,923	66.5	63.5	69.3	66.4	86.6	8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참고 재구성

주석: 예술산업, 문화산업(콘텐츠산업), 스포츠산업으로 유입가능성 높은 계열·학과를 선정

- 문화·예술·체육 산업 내 입직 기회가 졸업생 수에 비해 적고, 취업률에서는 성별격차가 명확히 드러나는 환경을 미뤄보았을 때 여성 인력의 문화산업 진출은 남성에 비해 보다 어려울 것으로 유추됨

〈표 15〉 산업분류별 연고용통계 현황(2018)

(단위: 명)

산업분류		입직자	채용 근로자 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체	14,898	12,934
	상용	12,216	10,2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체	14,307	13,150
	상용	5,907	4,819
전체 합계		29,205	26,084

출처: 고용노동부(2018). 『사업체노동력조사』

- 이러한 예술분야 성별 취업률의 패턴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되는데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봐도 전 연령대에서 남성의 취업률이 여성의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6〉 예술체육 계열 성별·연령별 취업률

(단위: %)

연령대	남성	여성
15~29세	77.2	75.8
30~39세	90.3	60.1
40~49세	91.7	61.4
50~59세	88.8	57.7
60세 이상	52.9	31.0

출처: 통계청(2018). 「지역별고용조사」

- 이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언론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여성은 전체의 60%에서 75% 정도를 차지하지만³¹⁾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박물관이나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여성 예술가의 비율은 30% 이하에 그침³²⁾
- 또한 미국에서 미술석사의 반을 여성이 차지하지만 뉴욕에 소재하는 갤러리에서 단독 전시를 하는 여성의 비율은 4분에 1에 불과³³⁾

31) Fard, J.F.(2017). "Women Outnumber Men at Art Schools-So Why Isn't Their Work Being Shown in Galleries once They Graduate?", Bustle(website), 2017.5.17

32) 이는 Fard가 업계 매거진인 Hyperallergic의 편집자인 Jill Steinhauer를 인용한 것임

33) 이는 Fard가 국립여성예술박물관의 보도를 인용한 것임

- 파드(Fard)는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거의 변하고 있지 않으며, 이처럼 여성이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여성들이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말함
- 이러한 미술계의 성차별성은 작품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에 한정되지 않음. 미국 보스톤의 미술관 큐레이터인 젠 메르겔(Jen Maergel)은 큐레이터 커뮤니티의 상위층에서도 여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주장함³⁴⁾
- 미술관 큐레이터협회에서 시행한 회원 서베이에 따르면 전체 여성의 비율은 높지만 부큐레이터에서 정큐레이터, 선임, 최고 큐레이터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줄어들어 최고 큐레이터 중 여성의 비율은 8% 미만이고, 이에 반해 “남성 회원 중 최고 큐레이터의 비율은 22 퍼센트” 라는 것임³⁵⁾

나. 성별 임금 격차

□ 여성들이 유리천장이라고 부르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승진 가능성과 경력유지 어려움이 존재함

- 문화예술 시장의 성별 구조는 종사자의 성별 비율에서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에서도 확인됨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산업 내 성별 임금 수준은 월 급여액과 월 임금총액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표 17〉 문화 예술 산업, 성별 임금 (2018)

(단위: 천 원)

구분		월 급여액	월 임금 총액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남성	4,225	4,775
	여성	3,068	3,33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남성	3,086	3,338
	여성	2,295	2,444

출처: 고용노동부(201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4) ibid.

35) ibid.

- 여성은 남성보다 문화예술교육을 더 받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분야에 일자리를 갖는 것은 더 어려울 뿐 아니라 일단 문화예술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함. 이는 문화예술 노동시장의 고유한 특성과도 관련을 가짐³⁶⁾
- 허식과 사명철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의 전반적 고용특성은 다음과 같음.³⁷⁾ 첫째, 인력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 정규교육보다 현장훈련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쌓는데 있어서도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현장경험이 중요함. 둘째, 정규직의 비중이 낮고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프리랜서, 임시직의 비중이 높으며 프로젝트별 고용이 많음. 셋째, 전문인력의 경우 숙련도와 인지도에 따른 임금차이가 큼. 이러한 특성은 또한 채용에 있어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관행을 높일 수 있음
-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성의 높은 예술 교육을 받더라도 문화예술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데 장애가 있음. 즉, 같은 학력이라도 먼저 현장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기가 유리하고 전문인력 중 비율이 높은 남성의 임금이 높을 확률이 높음

□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종사 분야와 생산성, 그리고 차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음

- 허식 등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성별 임금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분야에 제조업보다 전문직 여성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연한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더 긴 교육을 받는 것도 원인임
- 임금격차의 요인을 생산성의 차이와 차별의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생산성의 차이는 학력이나 경력 같은 생산성을 설명하는 변수 자체의 차이 때문이고 차별은 이러한 설명요인들이 동일한데도 일어나는 차이를 말함
- 생산성 차이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학력, 경력연수, 사업체 규모, 정규직 여부”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예술계는 “연령, 경력연수, 결혼여부, 근속연수”로 나타나고 있음.³⁸⁾

36) 임금이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내적 동일성은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허식과 사명철은 분석대상에 문화산업과 문화직업을 모두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기자나 기술직 같은 전문직, 학예사 같은 관리직, 그리고 디자이너나 음악가 같은 실천예술가가 포함되어 있어 각 영역별로 임금의 성별 격차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결과는 문화예술계의 성별 구조가 임금에 상당히 반영됨을 보여주고 있다.

37) 허식·사명철(2010). 『문화예술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 분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1): 4151-4160

38) 생산성의 차이는 “교육, 경력, 훈련 등과 같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차별은 “특정 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나 관행”을 말한다(ibid., 4152). 전자는 “모든 개인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계수효과를 가진다는 가정 하에 남녀 간 설명변수의 평균벡터차이를 의미하며 흔히 ‘설명되는 부분(explained part)’에 해당한다. 후자는 “여성의 설명변수의 평균치수준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성별 간 임금함수의 계수(coefficient) 차이를 의미한다(ibid., 4155).”

- 즉, 제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는 여성의 학력이나 경력이 남성보다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반면, 문화예술계에 있어서는 여성의 연령과 경력이 모두 낮고 근속 연수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
- 생산성으로 인한 성별 차이는 제조업보다 문화예술계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생산성 격차의 크기는 제조업에서 “약 43~45%, 문화산업 약 58~60%, 문화직업 약 58~70%” 수준임.³⁹⁾ 이는 문화예술계에서는 차별로 인한 임금차이보다 생산성에 따른 임금차이가 제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념적인 성차별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연령, 경력 등의 생산성에 의한 차이가 크다는 것은 여성들은 문화예술계에 오래 종사해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낮다는 것을 의미임. 문화예술계에서는 정규 교육보다는 현장 경험과 경력이 중요하여 여성들은 전공 관련 정규교육을 많이 받고도 실제 경력을 쌓기가 어려우며, 이 때문에 여성들은 학력이 높지만 임금을 남성보다 낮게 받음
- 재미있는 사실은 문화예술계에서 결혼여부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즉, 결혼한 여성들이 임금이 낮아서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문화예술계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남성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차별적 측면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문화예술 분야 모두 연령이 가장 임금격차를 잘 설명해 줌. 즉, 같은 연령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남성이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직접적인 성차별이 존재함을 볼 수 있음
-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같은 경력인데도 남성이 임금을 더 받는데 이는 순수한 차별일수도 있고 또한 남녀가 같은 경력을 가지더라도 직급이나 보직에 있어 남성들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결국 승진이나 중요 업무 할당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
- 한편, 문화산업 분야의 정규직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적고, 비정규직일수록 차별이 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 유형의 중요성을 보여 줌
- 반면 문화직업에 있어서는 같은 경력일 때 오히려 여성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예술가도 오래 활동하면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오래 활동할 경우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줌

39) ibid., 4157

〈표 18〉 Oaxaca 임금분해 세부적 결과

생산성의차이에서 기인된 임금격차 $\hat{\beta}_m(\overline{X_m} - \overline{X_w})$	제조업	문화산업	문화직업
	격차(%)	격차(%)	격차(%)
연령	-0.004(-0.5)	0.280(59.9)	0.409(128.2)
근속연수	0.042(-0.5)	0.040(8.6)	0.025(7.9)
사업체 규모	0.051(6.3)	0.025(5.4)	0.019(5.9)
정규직 더미 (정규직 1)	0.050(6.2)	0.042(8.9)	0.021(6.6)
차별에서 기인된 임금격차 $(\hat{\beta}_m - \hat{\beta}_w)\overline{X_w}$	제조업	문화산업	문화직업
	격차(%)	격차(%)	격차(%)
연령	1.188(48.5)	0.838(178.9)	0.578(181.1)
근속연수	-0.009(-0.12)	-0.065(-13.8)	-0.028(-8.8)
경력연수	-0.050(-0.63)	0.033(7.0)	-0.056(-17.5)
정규직 더미 (정규직 1)	-0.083(-10.3)	-0.009(-2.0)	0.042(13.0)

출처: 허식·사명철(2010), 『문화예술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 분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1): 4518 재구성

4. 문화예술산업계 성 의식과 여성의 인권

□ 미투 운동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에서 여성이 생존하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이 비단 경제적 구조에 한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례들이 여성들의 운신의 폭을 줄이고 있음. 물론 성희롱과 성폭력은 문화예술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님. 2018년 한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어떤 업계에서도 이러한 반인권적인 풍토에서 자유롭지 못함
- 성희롱과 성폭력은 가부장 사회의 반갑지 않은 부산물인 것이 틀림없음. 나아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었음(이수연 등, 2018).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미투 운동이 거세게 불타올랐고 이는 미투 이슈에 있어 문화예술계의 취약한 측면을 짐작케 함
- 2018년 3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미투운동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남성적 문화, 문화예술계의 고유한 성윤리, 그리고 독과점화된 성별화된 권력”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문화예술계 반인권적 성문화의 원인으로 지목함⁴⁰⁾

40)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 및 상담 분석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책임연구원)

- 이는 놀랍게도 해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음. 해외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문화예술계의 이러한 측면을 고발하였고, 원인을 문화예술계의 문화,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와 문화에 연유시키고 있음(ibid., 20)

가. 남성적 문화

□ 해외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문화예술계의 문화는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음

- 이는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술한대로 문화예술계의 권력의 독과점 구조와 예술성의 전형을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 의식, 그리고 전통적인 관행 등이 합하여 문화예술계의 문화를 남성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남성적 문화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음

① 남성이 정하는 거래의 규칙

- 독과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남성들은 자신에 대한 집단적 존경과 의존을 발판삼아 자신의 “성적 욕구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상대를 “의식과 무의식 영역을 지배”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전횡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⁴¹⁾는 것임
- 문화예술계의 업무는 정형적이지 않고 업무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예술가가 사업적 수완을 가지고 창조적 활동부터 자기 홍보까지 수행해야 하는 기업가적 노동(entrepreneurial labor)이라고 불리는 유형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음
- 작품을 판매해야 하거나 프로젝트를 따와야 하는 미술, 미디어 업종, 모델 등의 업종을 예를 들면 이는 예술활동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일을 따내거나 작품을 판매하는 일을 포함함. 미술에서 어떤 그림을 높게 평가하여 전시의 기회를 주느냐 하는 것은 온전히 화랑운영자나 중개자(dealer)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 화랑운영자나 중개자는 대체로 고령의 남성이어서 젊은 여성 아티스트가 그림을 전시하고자 하면 그 거래의 규칙은 대부분 고령의 남성에 의해 정해지게 됨
- 미투 운동 시 여성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공개서한에서는 “큐레이터가 성적 호의를 대가로 전시회나 다른 지원을 제안하거나, 갤러리 운영자가 자신의 갤러리에 속한 예술가의 성추행적 행동을 낭만화하거나, 사소하게 치부하거나 혹은 숨기더라도, 예술품 수집가나 후원자와의 만남이 성적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증언하고 있음⁴²⁾

41)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 및 상담 분석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책임연구원) 64-65쪽

42) Guardian(2018.2.20) "See Change: the Battle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the Art World"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 예술계의 중요한 업무들이 사교모임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이 일을 핑계로 부르는 곳이 식당이든, 술집이든, 혹은 그 사람의 집이든 뛰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일에 관한 얘기가 자신의 성생활 같은 사생활로 전환되더라도 그것이 일의 끝인지, 희롱의 시작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ibid., 23에서 재인용)”고 말함
- “등단이나 배역 결정, 프로젝트 배정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특정 인물이 제안하는 만남이나 술자리 등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고 무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불안정한 계약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위치를 악용해 이 과정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이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ibid., 64)”가 많다고 2018년 가디언(Guardian)보고서는 증언하고 있음

② 여성의 성적 대상화

-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문화예술계에서 전통으로 존재. 성적 대상화란 상대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의 성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한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도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함
- 이는 미술 분야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현상으로 서양 유화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이후 사진, 그리고 영화 매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
- 그런데 작품 안에서만이 아니라 작업관행으로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실제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야기하게 됨. 즉, 예술 활동 시 상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성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 공연예술의 경우 여성의 몸을 관객의 시각적 쾌락을 위해 전시하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시각적으로 소비를 위한 몸의 전시나 활동을 ‘미학적 노동(aesthetic labor)’이라고 부르는데 무용이나 연극, 모델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이 노동에서는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암시적 자세 등을 통해 성적 매력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때 작업현장에서 연출자나 동료들의 성적 대상화가 작용하게 되고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

③ 부성주의(paternalism)로서의 성희롱

- 가부장제도 하에서는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도 가부장적 질서를 따르게 됨. 즉,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권력이 크고 관계를 지배하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임

- 문화예술계에는 연극에서와 같이 집단적인 예술형태를 가질 경우 단원들은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 집단의 대표가 가부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가부장으로서 단원들에 대한 애정과 성적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여성 단원들은 가부장에 대한 공경심과 성적 호의를 구분하기 어렵게 될 수 있음
- 뉴욕의 연극계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작업적 관계’가 “성희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게 하고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⁴³⁾”고 설명한 바 있음

나. 문화예술계의 고유한 성윤리

□ 예술가들 사이에 고유한 성윤리는 교육이나 집단의식을 통해 개인에게 주입되고 권력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예술적 자유분방함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

- 문화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예술혼을 추구하며 일반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은 성윤리에 있어서도 일반인보다 더 자유분방함을 추구하게 할 수 있음
- 이것이 작품을 통해 발현될 때 예술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성윤리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음

① 교육의 역할

- 예술교육 현장에서는 원초적인 감성과 본능에 충실할 것을 강조함. 이러한 예술적 표현방식에 대한 지침은 때로 실제 생활에서 성적 행위에도 적용되기도 하는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상담 분석 보고서』에서는 “성윤리가 자유로운 편인 교수 등 교육자들이 그런 자유로운 성적 표현을 북돋워 주기도” 하고 이는 “선후배, 동료 사이에도 그대로 답습되어 수업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각종 모임과 학과 행사 등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을 담고 있음⁴⁴⁾

② 예술임을 위장한 성희롱

-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내세워 성희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존재함. “성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자세”가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소양인 것처럼

43) “뉴욕의 연극 커뮤니티에서 2018.1.19.에 열린 연극에서의 성희롱으로부터 배워야 할 5가지 사실’ 이란 좌담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 보고서』 (연구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이수연) 24쪽에서 재인용

44)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 보고서』 (연구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이수연) 68-69 쪽

주장하고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함

- 이는 “예술적 동지의식을 통한 성적 경계 허물기”로도 연결되는데 “이성 동료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성생활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요구를 해결해” 달라는 등 농담을 가장한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됨
- 또한 공동 예술적 작업의 일환으로 여성과 성적 관계를 가지거나 영화나 문학 작품을 같이 하는 여성에게 사랑을 가장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함⁴⁵⁾

③ 공동체 의식의 성적 확장

- 연극과 같은 집단 예술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높고 “연습이나 합숙 같은 집단생활을 통해 일종의 대리 가족의 운명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한 집단생활을 통해 친밀한 관계가 성적으로 확장되는 경우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 조직 안에서 “심리적으로 유착된 부분이 크고” 공감과 감동을 통해 성적 관계가 형성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임
- 예술 공동체 안에서 가족적 애정을 근간으로 일어나는 성적 관계는 마치 “친족 간 성폭력” 처럼 해결이 어려워짐. 이는 많은 경우 주변의 침묵을 통해 묵인되거나 합리화 공동체적 정체성은 여성들이 문제제기를 어렵게 하고 성폭력의 관행을 유지시키며 희생자를 재생산 하는 원인이 됨

다. 독과점적 성별화된 권력의 폐해

□ 문화예술 분야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반면에 소수가 명성과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서는 “영향력 있는 소수 집단이나 특정 개인에게 계약과 고용, 인력 선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음
- 소수의 스타 예술가들은 권력을 독과점하고 있어 전시, 배역을 비롯한 고용 및 계약 과정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공공연히 벌어지며, 전권을 쥐고 있는 소수 권력자”에 의한 성희롱과 성폭력의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도제식 교육에서 교육자에 의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문화예술 재능의 인정은 정규교육 못지않게 작품을 통한 평판이 중요한데 이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5)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 보고서』 (연구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이수연) 69쪽

① 절대 권력자나 교육자에 의한 성적 침해의 가능성

- 문화예술계에서 빈번한 교육과 작업 중의 성희롱·성폭력은 “유명작가나 편집자, 교수, 연출가, 업체 대표나 상급생이 예술가 지망생이나 연습생, 학생, 업체 하급자”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음
-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리는데 권력자들의 눈 밖에 나면 이 분야에서의 생존이 더 이상 어렵기 때문임
- 2018년 문체부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가해자가 현직 예술가(시인, 연출가, 감독, 극작가, 화가, 배우 등)이자 대학교수인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측근이 되는 것이 이 분야에 진입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들의 성적 시도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⁴⁶⁾

② 비공식적 인맥 중심의 평판 경제

- 업계 진입이나 취업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부족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인맥이나 연출, 평판”이 큰 영향을 미침
- 보고서에 따르면 “문학 분야의 경우 심사위원의 역할과 권한이 큰 만큼 이를 악용한 성폭력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술계의 경우 상급자가 계약직 큐레이터의 연임을 결정하는 만큼 성희롱·성추행을 당해도 겁먹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고발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해도 증언을 거부하기도 함”⁴⁷⁾으로 볼 때, 인맥중심의 문화예술계 시스템이 피해를 확산하는 지점임을 알 수 있음

46)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 보고서』 (연구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이수연), 72쪽

47)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 보고서』 (연구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이수연), 74쪽

제3절 소결

□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들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일과 삶의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창조성과 유연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경제(new economy)’ 시스템 하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의 유연하고 탈조직적 속성 때문임
- 특히 일과 가정의 이중 의무를 버거워하는 여성인력들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덜 받고 직업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직종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음. 또한 여성의 문화 교육자원과 창의성 등 예술적 소양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빛을 발하리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뼈뺏한 임금과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예술계 환경에 대한 구조적 이해 필요

-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학력은 높지만 근속연수가 짧으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같은 연령이더라도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승진과 보직을 받는데서 차별을 받는 유리천장과 특정 직종에 쏠려있는 유리벽의 한계를 겪고 있음. 무엇보다 남성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 때문에 성희롱과 성폭력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계 환경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은 개별적인 여성 인력의 차원에서 노력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계에 존재하는 고정관념, 편견과 관행 그리고 권력과 자원의 고르지 못한 배분이 바로 성차별적 구조로 기능하는 것임. 따라서 문화예술계를 성평등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함

□ 문화예술계 성별 구조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통계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존재함

- 문화예술산업계의 교육 현황, 취업률, 직종, 승진과 보직, 경력 유지와 개발, 임금 등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 성별 비교가 필요함
- 또한 문화예술 행정에 있어서 성차별성 파악도 중요한데 문화예술 공공기관, 단체, 교육 기관의 성별 인력 구조(기관장, 이사, 직원 등)와 업무의 성인지성을 조사해야 함

-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경력 개발이 이들 기관의 지원 여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성별 비율과 수혜자의 성별 비율도 알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전국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 행사(전시, 축제, 공연 등)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의 성비도 문화예술계의 성인지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제3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고용 및 노동 환경 개요

제1절 문화예술 분야 고용 및 노동 환경 개요

□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정책 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9개의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하여 살펴봄

-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임. 이 중 문화산업에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장르인 응용미술, 영화, 연예, 출판, 만화 등을 제외하고 나면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할 수 있는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어문”으로 볼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 중 순수 예술 분야에 속하는 장르에 대한 지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내 문화예술정책실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하위의 과 단위로 장르 또는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콘텐츠정책국에서는 문화산업·영상콘텐츠·게임콘텐츠·대중문화를 관장하고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가 대표적이며, 아르코에서는 매년 장르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문체부는 문화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책의 수립·시행과 지원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
- 문체부는 그동안 문화 분야 성인지 정책환경에 대한 독자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술인 실태조사』나 『전문예술법인 단체 백서』의 일부 문항에서 남녀 성비를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김영주 의원실에서 대표발의 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평등한 예술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주요 지표는 『예술인 실태조사』가 유일함

- 3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고용형태 및 근로 환경, 생활 및 복지로 구분하여 약 5,000여 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문체부에서 실시하였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 이후 『예술인 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와 방법을 개편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음
- 『예술인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4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으로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로 구분됨. 모집단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아르코 사업 수혜 예술인, 문화예술 협·단체 회원임

- 『예술인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르별로 독자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문화산업분야와 같이 개별적인 장르의 종사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예술인 실태조사』의 모집단 결과 중 문화산업 분야와 중복되는 대중음악, 방송, 영화, 만화 분야의 결과는 2절의 문화산업에서 다룰 예정임⁴⁸⁾. 따라서 본 절에서 나온 『예술인 실태조사』 수치는 원 결과에서 4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100%로 환산하여 측정한 결과라는 것을 밝히는 바임⁴⁹⁾

1. 시장진입 과정 및 현황

□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활동 예술분야로의 입문 경로 비율이 44.8%로 ‘협회/단체/학원/기획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실태조사 항목 중 예술분야 입문경로를 살펴보면, 교육기관으로 취업부터 기타에 이르기까지 총 29가지의 경로⁵⁰⁾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다시 7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표 13>을 보면, 장르별로 입문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문학의 경우 신춘문예를 통한 입문이 70%에 육박하여 신춘문예 당선 여부가 입직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공연분야에 해당하는 음악, 국악, 무용, 연극의 경우에는 단체에 입단하거나 교육기관에 진학, 협·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예술시장에 진입하게 됨을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음

48) 사진·건축은 문화예술진흥법 내 문화예술 범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장르. 사진 장르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예술 분야에 포함될 수 있으며, 건축도 시공을 제외한 작품 활동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로 포함하였음

49)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의 표본 크기는 5,002명으로 이 중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10개의 장르 예술인은 3,738명으로 전체의 75%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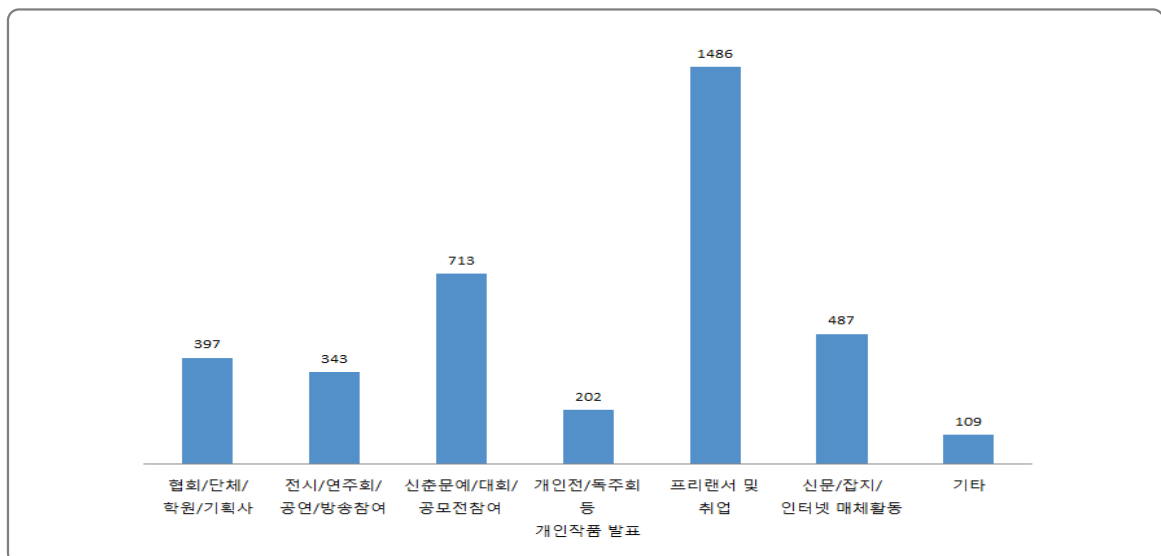
50) 협회/단체/학원/기획사: 교육기관, 단체 입단, 협회 가입, 기획사/매니지먼트사/제작사, 협회/단체 설립/임원
전시/연주회/공연/방송: 단체전/단체공연, 전시회/연주회/공연참가, 연극/영화/방송참여, 축제/행사참여, 제작참여, 기획전/기획공연

신춘문예/대회/공모전: 공모전 출품, 대회참가, 오디션, 수상, 신춘문예 응모, 지원사업
개인전/독주회: 개인전/독주회, 개인창작집/앨범발표, 자격증, 본인의 의지로 작품 제출
취업/프리랜서 활동: 사사/문화생/협업/추천, 관련분야 취업, 공채, 프리랜서 활동
신문/잡지/인터넷: 전문지 작품 발표, 신문/잡지/인터넷 등 연재
기타

〈표 19〉 예술분야 입문경로(2018)

구분	협회/단체/ 학원/기획사	전시/연주회/ 공연/방송 참여	신춘문예/ 대회/공모전 참여	개인전/ 독주회 등 작품발표	사사/협업/ 추천/관련분야 종사	신문/잡지/ 인터넷 등 매체 활동	기타
전체	35.00	20.85	19.40	6.08	11.01	4.95	3.72
분야	문학	3.4	3.5	53.7	0.5	3.2	35.3
	미술	20.9	38.5	17.7	16.7	2.9	0.4
	공예	30.7	33.5	17.5	5.0	7.0	6.3
	사진	38.1	12.4	34.1	3.1	4.2	0.4
	건축	34.2	4.9	9.5	9.6	41.0	0.8
	음악	46.3	17.4	17.1	9.9	6.8	0.5
	국악	42.6	21.5	4.4	10.6	10.7	0.8
	무용	45.7	23.5	9.8	0.8	16.1	0.2
	연극	54.4	13.1	17.1	0.2	12.8	0.6
	기타	33.7	40.2	13.1	4.4	5.4	1.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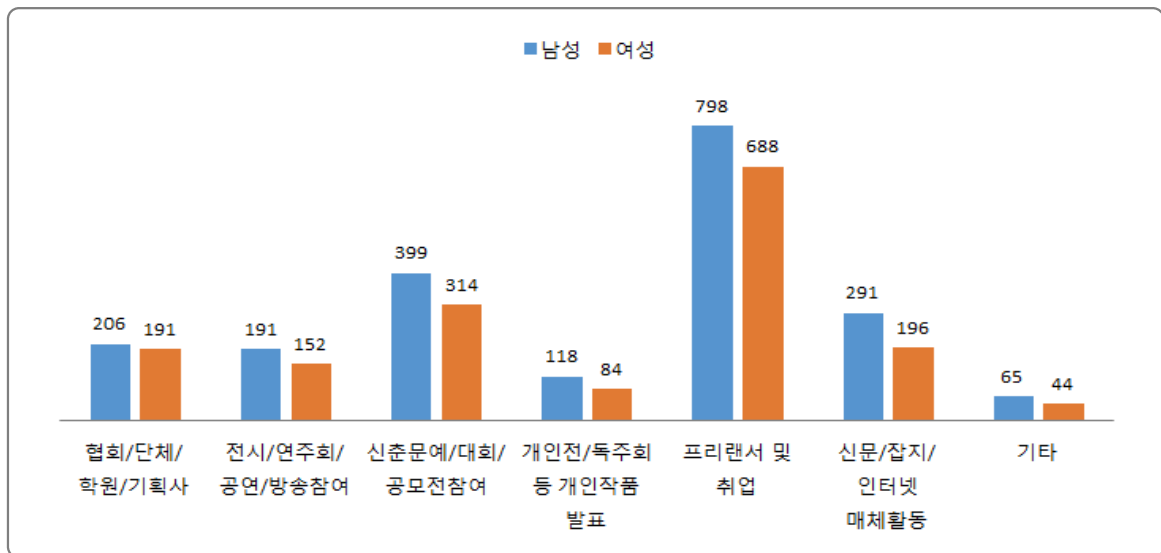


[그림 9] 입문경로별 예술종사자 분포(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 2018년 실태조사 결과를 입문경로별로 다시 구분해서 살펴보면, 프리랜서 활동 및 관련 분야로 취업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프리랜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장르는 미술이었고, 사사/문하생/협연 등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장르는 연극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관련 분야 취업을 한 예술인들의 장르는 공연예술 분야 전반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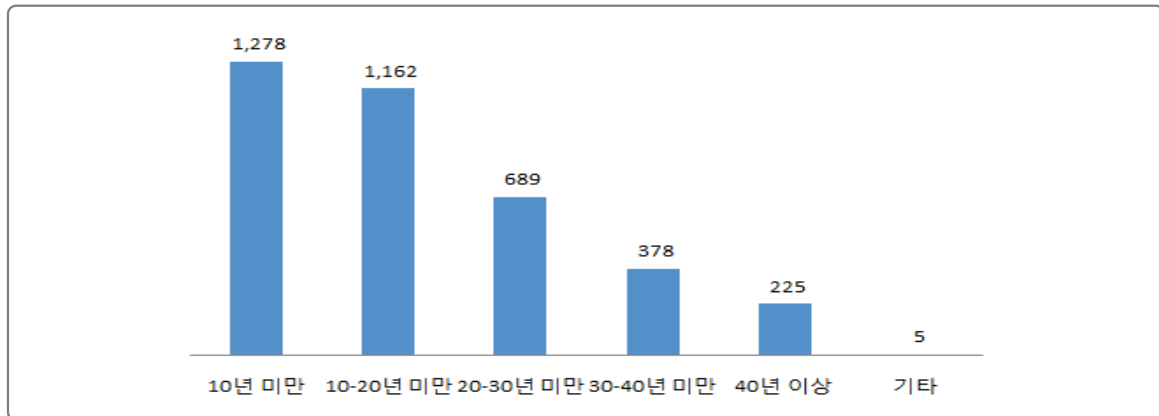
- 입문경로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프리랜서 및 관련 분야로 취업하는 남성의 비율이 38.6%, 여성이 41.2%로 다른 경로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임. 그 다음으로는 신춘문예/대회/공모전 참여와 같은 방식으로의 입문이 남/녀 각각 19.3%, 18.8%로 나타났다



[그림 10] 입문경로별 성별 예술종사자 분포(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 예술인들의 평균 활동경력을 전체 장르로 평균내어 살펴보면 ‘10년 미만’이 34.2%이고, ‘10~20년 미만’이 31.1%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20년 이상으로 갈수록 점차 수가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술분야 활동 경력은 ‘10년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는데, 장르별로 살펴보면 미술, 사진, 음악, 연극, 기타 장르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이 10년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10~20년 미만’이 31.1%로 ‘10년 미만’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 구간은 문학, 공예, 국악, 무용 장르의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됨
 - 20년 이상의 활동경력 예술인들이 절반 이상인 분야는 ‘건축(59.8%)’이 유일했으며, 공예(44.0%)와 사진(42.3%)이 그 뒤를 이음



[그림 11] 예술분야 활동 경력(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표 20〉 분야별-주 활동 예술분야의 입문 연도(활동경력)

(전체 응답자, 단위: %)

구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전체		21.01	28.73	24.09	15.06	11.12
분야	문학	23.3	36.4	22.2	10.5	7.7
	미술	15.7	28.7	19.1	21.7	14.9
	공예	14.8	27.3	21.5	17.1	19.3
	사진	26.8	29.6	21.0	16.3	6.3
	건축	4.4	14.4	34.2	34.7	12.3
	음악	22.4	33.5	21.1	12.3	10.7
	국악	14.0	28.9	35.1	8.5	13.5
	무용	26.4	40.5	19.7	7.5	5.9
	연극	33.0	32.5	25.6	7.7	1.2
	기타	31.6	23.2	19.5	9.7	16.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 활동경력이 여성과 남성 모두 ‘10년 미만’과 ‘10년~20년 미만’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두 구간을 합하면 6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분야 활동 경력에 대한 응답자별 성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활동 경력이 ‘10년 미만’인 예술가는 39.7%였고, ‘10~20년 미만’인 비율도 34.4%로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여성 예술인들이 시장에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음. 여성은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비율이 전체의 약 9%밖에 되지 않아, 남성에 비해 경력단절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음

- 남성들의 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10년 미만’이 28.3%, ‘10~20년 미만’이 30.0%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남성 예술가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됨. 남성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전체의 약 32%인 것으로 보아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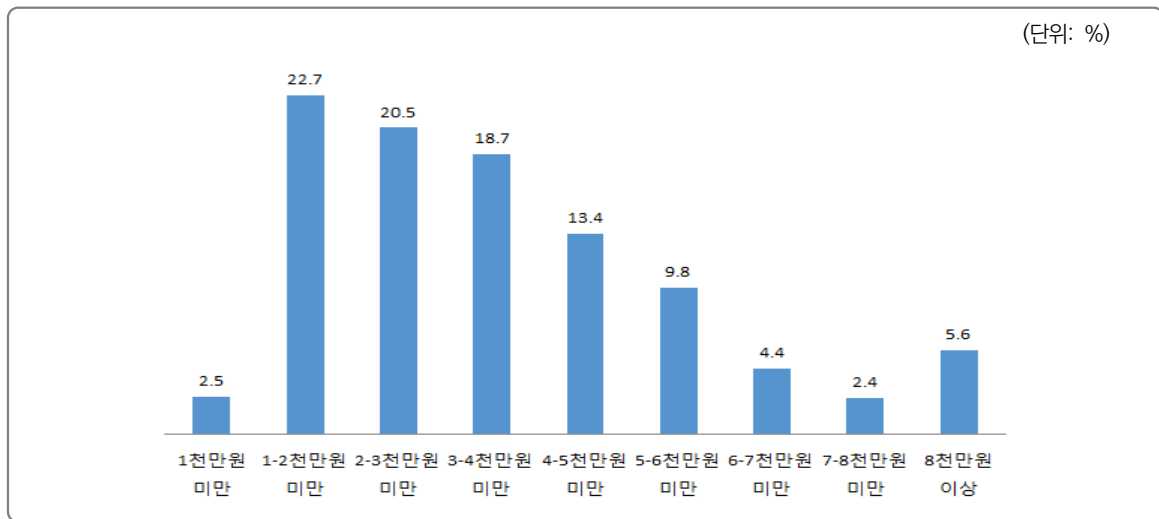
□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2.7%가 예술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금융제도에서도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총 80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자금대출(최대 500만원), 주택자금 대출(최대 4000만원/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⁵¹⁾
- 전업/점업의 예술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예술인들의 경제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술인들이 연간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3,619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예술 장르에 따라 소득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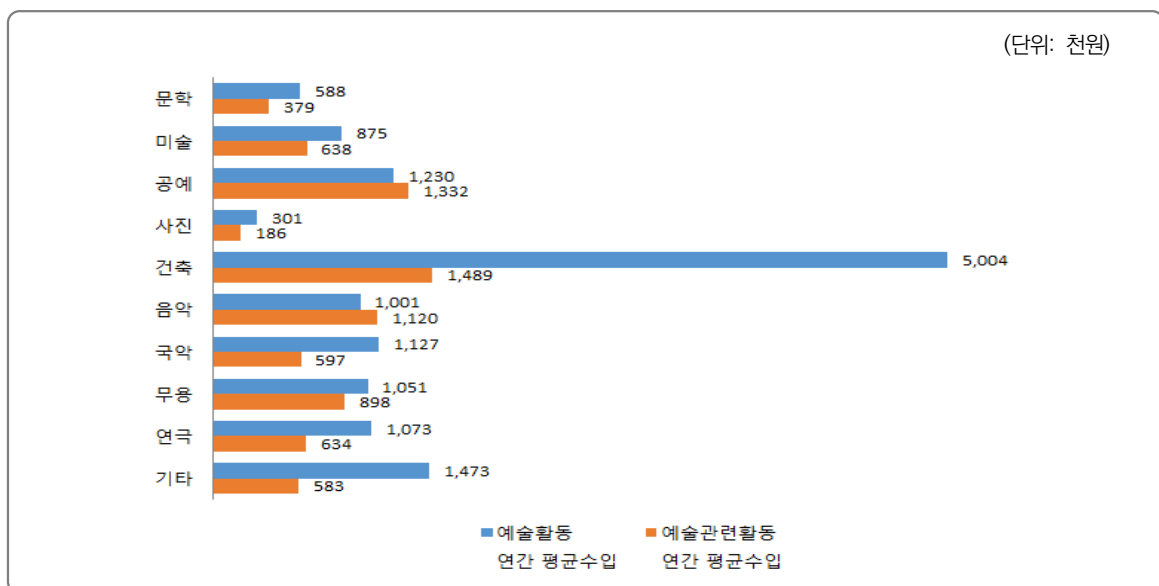
-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확인한 결과, 장르별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건축의 경우에는 연간 예술활동 수입이 평균 5,004만원에 달했지만, 가장 적은 분야는 사진으로 평균 수입이 301만원에 그치고 있었음. 예술인들이 연간 예술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중앙값은 3,000만원임
- 예술 관련 활동을 조사한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평균금액은 건축 분야로 1489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수입을 기록한 분야는 사진으로 186만원에 불과하였음

51)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 『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3쪽.



[그림 12] 예술인의 연간 예술활동 수입(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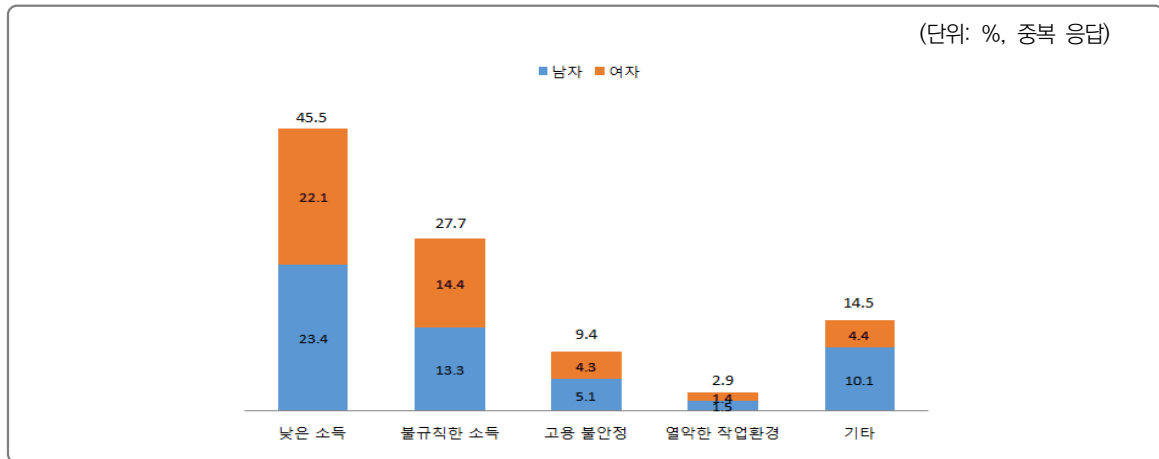


[그림 13] 예술활동 및 예술관련 활동의 연간 평균 수입(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로는 소득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로는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을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3.2%임.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의 응답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기타 응답만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낮은 소득’으로 응답한 분야는 미술(60.9%), 문학(54.8%)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연극이 44.1%, 국악이 42.8%, 무용이 39.6%로 대부분의 장르에서 40% 이상의 응답률을 보임



[그림 14] 예술인 중 예술활동 외 겸업 이유(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 1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4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응답한 계약금액 구간은 '100~3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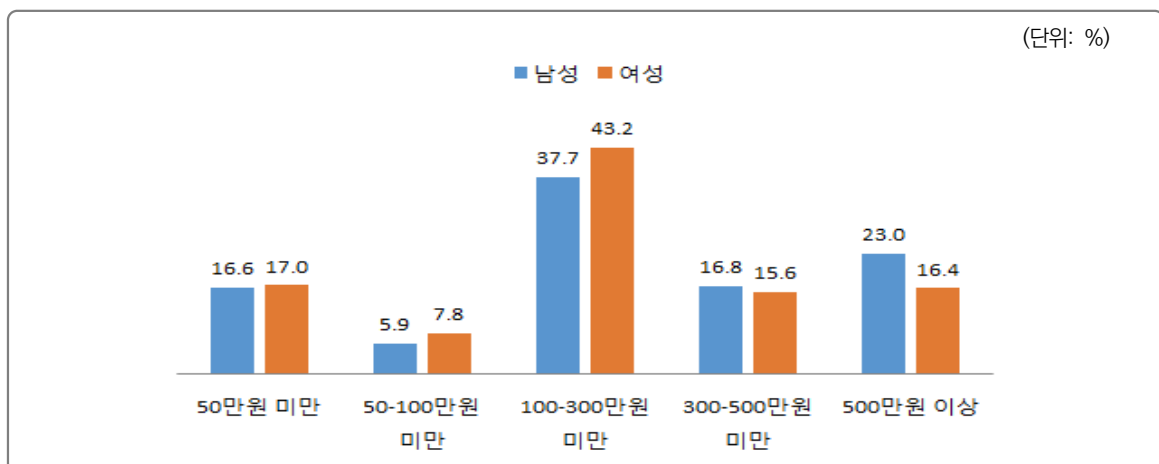
○ 평균 계약금액을 성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에 따라서 평균 계약금액, 표준편차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1〉 예술인 성별 평균 계약금액(2018)

(전체 응답자,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남성	623.5	714.8
여성	583.2	435.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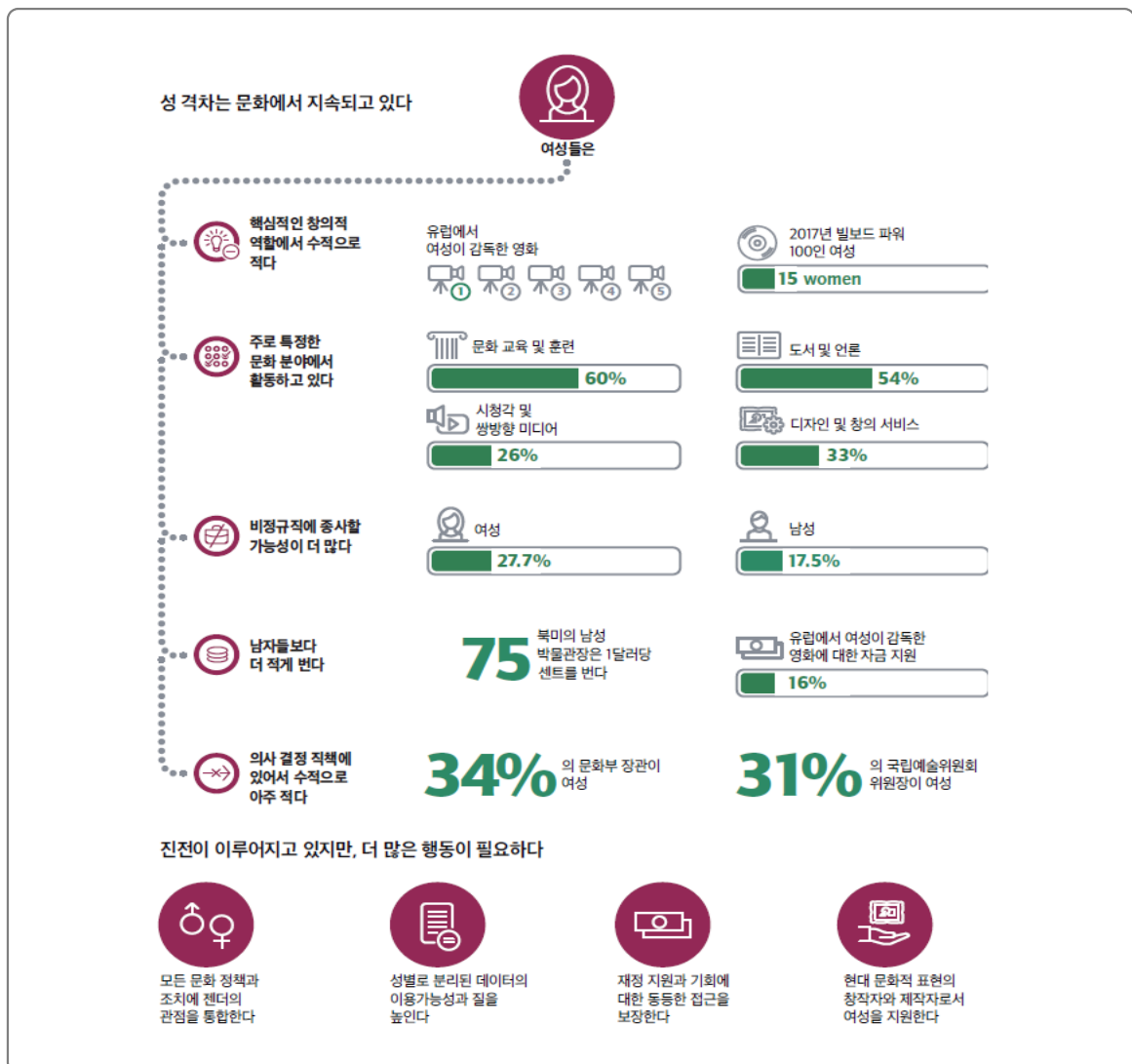
[그림 15] 예술인 성별 평균 계약 금액(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3. 고용구조 및 고용현황

□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양상의 성별 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201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 분야에서 주요한 핵심적인 창의적 역할과 의사결정 직책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남성에 비해 심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들이 창작자와 생산자로서, 그리고 시민과 소비자로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없다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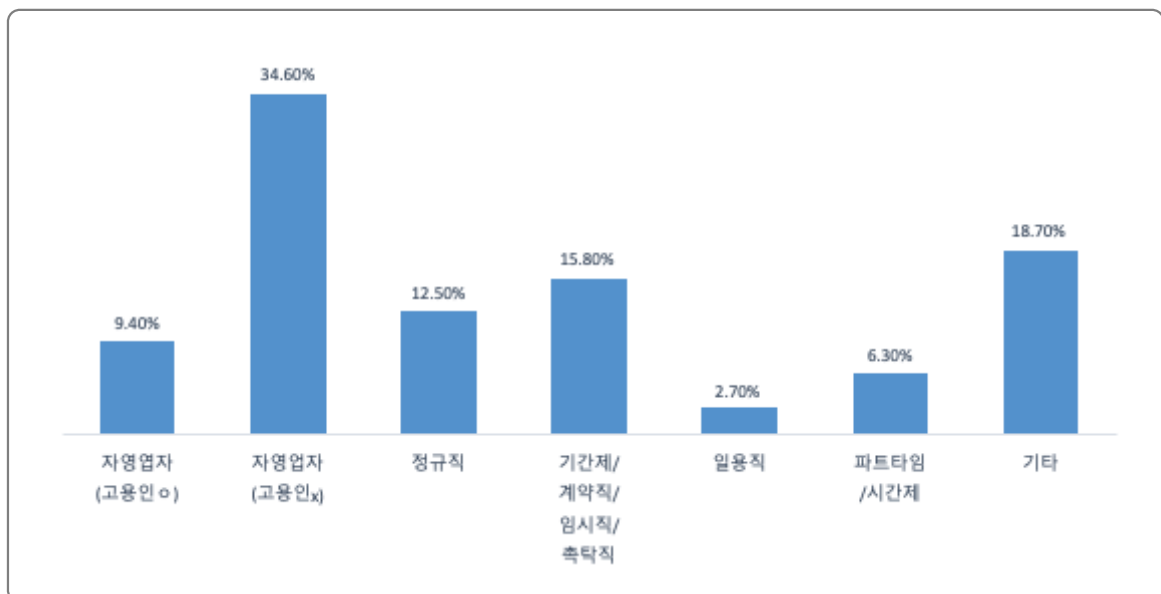


[그림 16] 문화 분야에서의 성 격차

출처: 유네스코(2018). 『문화다양성협약 글로벌리포트』, 22쪽.

□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예술인 가운데 전업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53.9%, 겸업은 46.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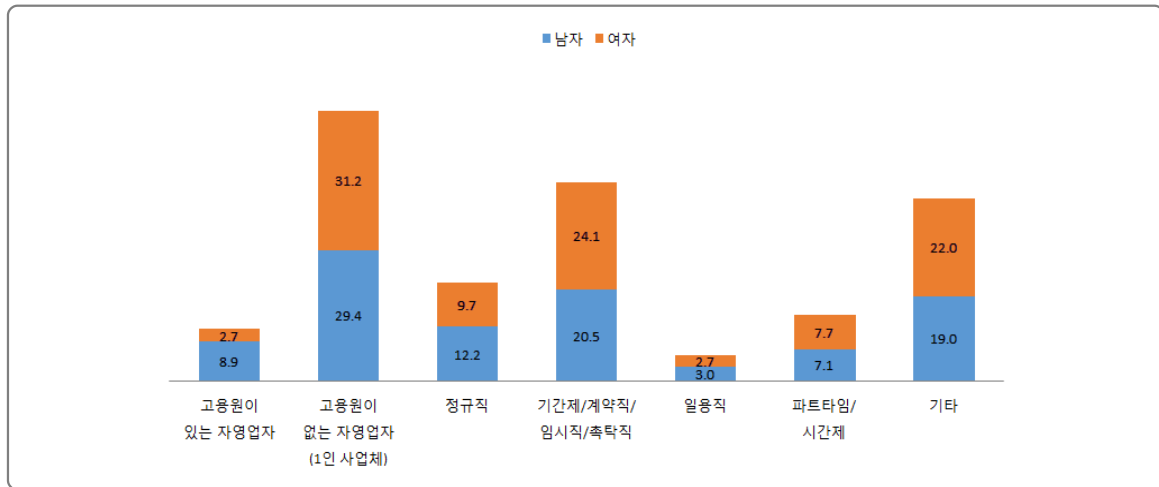
- 전업 예술인이 많이 속해 있는 분야는 건축, 미술, 국악이었으며, 겸업은 사진, 공예, 문학 분야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전업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고용형태도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흔히 프리랜서로 불리는 1인 사업체 형태에 전체 응답자의 34.6%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로 표기한 고용형태가 18.7%로 그 뒤를 이었고,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이 15.8%, 파트타임/시간제 6.3%, 일용직 2.7%로 전체의 30% 이상이 비정규직의 형태임. 정규직은 전체의 12.5%에 불과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9.4%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17] 예술인 고용 근로 형태(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 남녀의 비율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1인 사업체,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 기타, 정규직의 순으로 고용이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8] 예술인 성별 고용·근로 형태(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 국내 예술인의 66.1% 이상이 ‘프리랜서’의 형태로 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 프리랜서로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3,737명 중 2,469명으로 총 66.1%에 달하고 있음. 이 중 남성이 34.4%, 여성이 31.7%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분야별로 보면 프리랜서로 종사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장르 세 가지는 미술(20.0%), 문학(15.1%), 연극(14.5%)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프리랜서 종사자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장르는 사진(19.2%), 문학(14.7%), 건축(11.9%) 순이었음

〈표 22〉 프리랜서 종사 여부(2018)

(단위: 명, %)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286	62.2%	1,183	70.9%
아니오	782	37.8%	486	29.1%
전체	2,068	100%	1,669	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표 23〉 예술분야별 프리랜서 종사 현황(2018)

(단위: 명,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기타	전체
예	373	494	117	227	28	333	246	245	359	47	2,469
아니오	186	131	74	244	151	145	102	100	108	27	1,268
소계	559	625	191	471	179	478	348	345	467	74	3,73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 고위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8 한국여성재단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성평등 문화정책 포럼』 자료를 참고하면 주요 문화예술관련 기관의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한 예술인 비율은 남녀가 거의 반반 수준이며, 특히 여성 문화예술계 인력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문화예술기관들의 총직원 대비 여성 직원의 비율이 대부분 40~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취업활동이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고위직 여성비율을 보면 0%인 기관부터 15~20% 정도인 기관이 대부분. 다수의 문화재단의 경우 전체 직원 중 60% 이상이 여성인데 비해, 임원급 여성은 15~25% 정도임

□ 대부분 문화예술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중 여성 비율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임

- 여성 문화예술인의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비정규직 내 여성의 비율 관련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월등히 높음
- 문화예술계에서 여성은 보수가 높고 위세가 있는 자리에서 배제되고, 계약직 등 보수가 낮고 안정성이 낮은 부문에 집중 고용되는 형태에 있는(수직적 성별 직종 분리) 점을 확인

〈표 24〉 주요 문화예술기관 직원 성비(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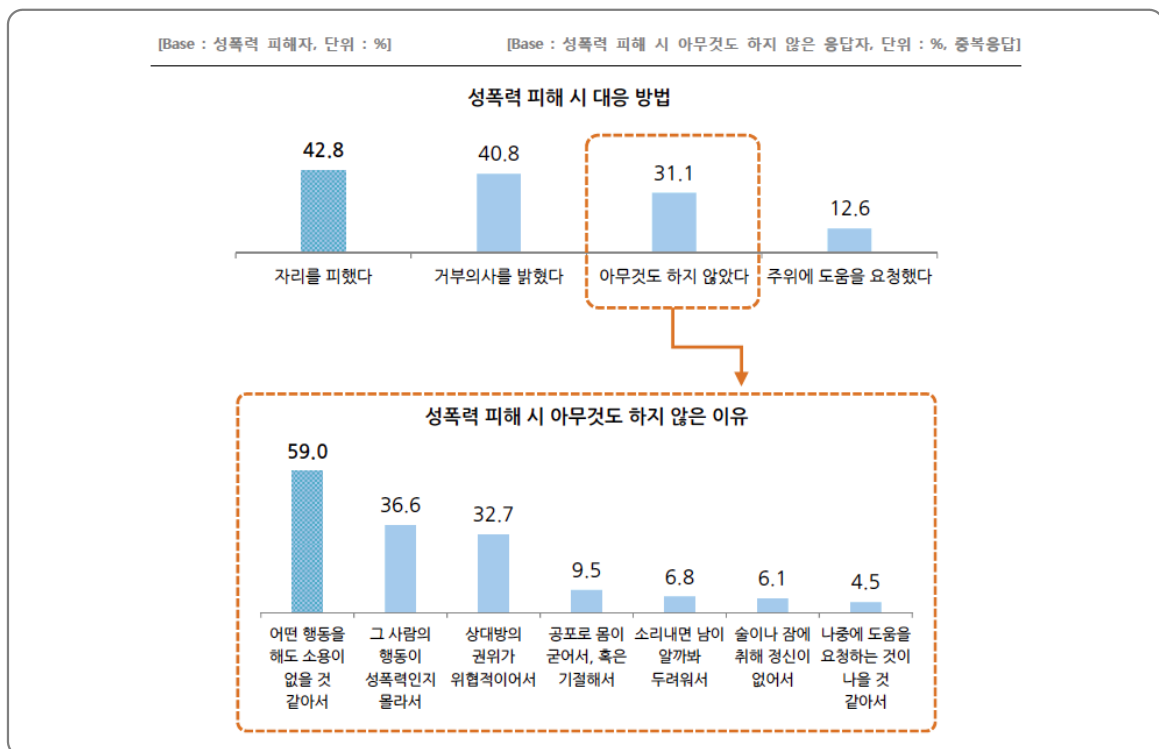
기관명	총원 대비 여성 비율	무기계약직 여성비율	고위직 여성비율 (3급이상, 정무직 등)
문화체육관광부	47%	(파악불가)	0%(정무직) 0%(국장이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9%	58%	0%(3급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45%	54%	0%(2급+위원 이상)
예술인복지재단	56%	(파악불가)	9%(3급 이상)
한국영화진흥위원회	29%	74%	14%
한국콘텐츠진흥원	44%	61%	16%(G2급 이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3%	71%	18%(선임 이상)
예술경영지원센터	78%	(파악불가)	28%(3급 이상)

출처: 인사혁신처 및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 재가공(2018. 4, 7월 공시 기준),
한국여성재단(2018). 『2018 성평등 문화정책 포럼 결과보고서』 자료 참고

4. 노동환경⁵²⁾

□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의 주요 의제 중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은 예술인들이 분야의 노동 특수성을 이유로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문화예술을 둘러싼 경제적·산업적인 접근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생산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음
- 예술인들은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불명확한 노동관계, 자본 중심의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 노동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위계폭력·갑질은 그동안 문화예술계 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권력구조였으나, 최근 미투운동(#ME TOO)으로 대변되는 위계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유형화 되지 않은 보이지 않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예술인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림 19] 성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연예술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42쪽

52) 일반적으로 노동환경은 일을 할 때 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의미함. 즉 작업장의 물리적인 환경 및 인간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됨(두산백과 웹검색, 검색일 2019.07.15.).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노동환경에 대한 논의는 작업환경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문화예술활동이 가지는 작업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노동환경이 악화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좁은 문화예술계 안에서 학연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용되는 인사구조,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문제를 들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는 예술교육이 시작되는 학원·학교에서부터 전문 예술가로 성장한 이후까지 연계되는 소위 라인으로 불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위계에 의한 권력이 공고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예술적 표현이나 예술인으로서의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性)’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적 분방함으로 이를 포장하고자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연예술분야 성폭력 실태분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중 70.1%가 ‘학벌, 지연, 사제 관계 등의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가 여성 예술인들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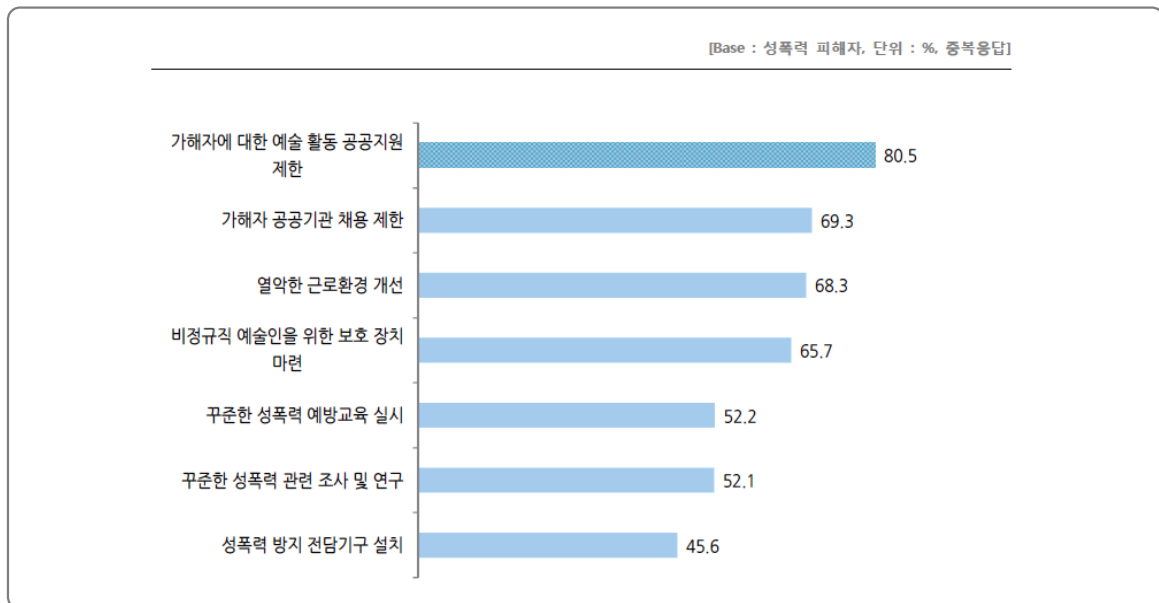
□ 문화예술 분야 노동환경의 개선에는 경제적 사각지대, 갑질 문화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미투(#ME TOO) 운동으로 대변되는 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환경 개선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 볼 수 있음

- 정부는 2019년 6월 24일부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경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금융지원을 시작하였음. 이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임⁵³⁾
- 프리랜서 비율이 전체 전업 예술인의 76.0%에 이르는 분야의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음
- 2015년에 보급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주로 불공정 거래 계약, 수익 배분 지연 행위,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계에 안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9년에 문화예술·프리랜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조정원의 형태를 따서 만든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계약건에 대해 조정하는 창구로 역할을 할 계획임⁵⁴⁾

53)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54) 매일경제(2019.05.30.), “계약서‘갑질’ 당하는 문화예술인 보호한다”

- 2018년 문학계와 연극계에서 터져 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ME TOO)운동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희롱과 성폭력의 문제를 끄집어 냄. 이후 영화, 국악, 무용 등 전 분야에서 미투를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여성 예술가들이 등장함



[그림 20] 성폭력 근절 방안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연예술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45쪽

제2절 문화산업 분야 고용 및 노동 환경 개요

□ 문화산업의 범주는 『콘텐츠산업조사』에서 다루는 11개 분야로 한정함

- 본 보고서에서 문화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해 발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조사』의 산업분류에 따라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총 11개 산업을 다룸
- 2016년 기준 문화 산업 전체 종사자는 59만여 명으로 남성이 34만여 명, 여성이 24만여 명 종사하고 있음⁵⁵⁾

□ 문화산업에 관한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세부 산업별 위원회 등에서 이뤄 지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정기적 조사는 없음

- 성 문화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의 2009~2011년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성별문화관광체육인력 실태조사』와 문화센터 사이트(stat.mcst.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최근 3~5년 내의 자료는 발간되지 않음
- 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산업 전체의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세부산업별 통계는 부재
- 문화산업에 속하는 영화 등 일부 산업에서 최근 성별 근무환경의 차이를 다루었지만,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성별 근무환경에 대한 별도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가장 최근 문화산업 전반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으로 다뤄진 성별 통계는 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2018년에 발간된 『2017콘텐츠산업조사』 중 고용형태별 성별 및 업종별 종사자 현황과 고용형태별 성별 및 연도별 종사자 현황이 전부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진흥원, 통계청, 각 산업별 위원회 등에서 발간한 자료와 더불어 『예술인 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재가공하여 성별 지표를 확인하고자 함

-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통한 문화인력 통계 자료 생산의 발전 방안 연구』의 제언을 따라 여성인력에 대한 경제적 상황, 지원체계, 경력유지와 재취업을 위한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 시장 진입 과정 및 현황과 관련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중 학과계열별 졸업생 수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통계를 활용하며, 예체능계열 졸업자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인문계열(출판, 영화 등 관련), 사회계열(광고, 방송

55)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콘텐츠산업통계』, 79쪽

관련), 공학계열(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관련)의 졸업자 현황 지표를 함께 활용

- 『콘텐츠산업조사』와 각 산업의 위원회, 노동조합 등에서 발표한 세부 산업 현황을 주로 활용함
- 사업체 분류 통계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중 문화산업에 속하는 대중음악, 방송연예, 영화, 만화 4개 산업의 예술인에 대한 원시자료를 추가로 활용하고자 함

1. 시장진입 과정 및 현황

□ **입직경로와 관련해서는 대중음악과 방송연예 산업에서는 성별 차이가 적었지만, 영화·만화산업에서 남성은 개인 친분이 영향을 미치는 사사·협업·추천 등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공모전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입문 비율이 높았음**

- 문화산업 전반의 입직 경로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므로, 『2018 예술인실태조사』 중 대중음악, 방송연예,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만화(웹툰 포함)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보고, 예술인의 문화 산업 입문 경로를 확인⁵⁶⁾
- 산업별로 대중음악은 개인 작품 발표를 통하거나(36.1%) 협·단체나 학원, 기획사(22.9%)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남·여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방송연예 분야 예술인은 사사, 협업, 추천, 관련분야 종사를 통한 입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여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영화, 만화산업에서는 여성의 경우 신춘문예나 공모전 등 공식적인 대회 참여를 통한 입문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남성은 사사, 협업, 추천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입문비율이 높음

56) 예술인 응답자에 대한 수치만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행정 직군 및 연구 직군 등의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표 25〉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 입문경로의 성별 현황(2017)

(단위: %)

활동분야	구분		협회/단체/ 학원/기획사	전시회/연주 회/공연/ 방송 참여	신춘문예/ 대회/공모전 참여	개인전/ 독주회 등 작품 발표	사사/협업/ 추천/ 관련분야중사	신문/잡지/ 인터넷 등 매체 활동	기타
	성별	비율							
대중음악	전체	100	22.9	13.8	9.1	36.1	13.2	1.1	3.8
	남	72.7	23.2	12.3	9.5	34.6	14.4	1.2	4.7
	여	27.3	22.1	17.7	8.1	40.1	10.0	0.8	1.2
방송연예	전체	100	26.6	10.0	12.7	0.4	43.5	1.3	5.6
	남	65.9	29.2	10.9	10.2	0.7	41.3	1.4	6.4
	여	34.1	21.6	8.3	17.3	-	47.7	1.0	4.2
영화	전체	100	21.9	22.6	22.3	0.6	28.3	1.3	3.1
	남	65.9	20.2	22.5	19.4	0.8	32.5	1.6	3.0
	여	30.1	25.8	22.7	29.1	-	18.4	0.6	3.5
만화	전체	100	6.0	1.1	25.9	2.1	28.9	31.3	4.6
	남	60.1	6.5	0.2	17.7	2.4	37.7	30.8	4.7
	여	39.9	5.2	2.6	38.4	1.7	15.8	32.0	4.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원시자료 참고 재구성

참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 및 단체 회원 5002명을 표본조사. 전체 모집단은 178,540명, 대중음악의 모집단은 25,547명, 방송연예 모집단은 10,328명, 영화 분야 모집단은 5,806명, 만화 분야 모집단은 1,934명으로 추정함

□ 문화산업 종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9세 이하⁵⁷⁾

- 현재 콘텐츠산업통계를 통해서는 남성과 여성 인력의 연령 평균을 각각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문화산업 종사자의 30% 이상인 150,897명이 29세 이하(2016년 기준)
- 30~34세 종사자 비율은 25.2%, 35~39세 21.4%로 큰 차이 없지만, 두 지표를 합치면 30대 종사자가 229,638명(46.6%)으로 사실상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볼 수 있음
- 육아 문제 등으로 30세 이상의 여성 문화인력 중 산업 이탈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통계의 성별 데이터가 세부 산업별로 필요함

57)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콘텐츠산업통계』, 82쪽

〈표 26〉 콘텐츠산업 종사자 연령분포 현황(2016)

(단위: 명, %)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합계
전체	150,897	124,236	105,402	112,114	492,649
비중	30.6	25.2	21.4	22.8	100.0
출판	28,705	37,718	35,517	47,117	149,057
만화	2,911	2,013	1,681	3,522	10,127
음악	3,452	3,624	2,779	1,666	11,521
게임	32,532	14,731	13,999	12,731	73,993
영화	15,038	4,420	3,619	5,897	28,974
애니메이션	1,701	1,706	1,197	538	5,142
방송	2,207	1,947	1,680	1,836	7,670
광고	15,605	16,681	14,266	18,520	65,072
캐릭터	13,520	10,247	6,228	3,328	33,323
지식정보	25,623	22,202	18,333	14,238	80,396
콘텐츠 솔루션	9,603	8,947	6,103	2,721	27,37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콘텐츠산업통계』, 82쪽

- 문화산업 내 예술인의 평균 활동경력을 살펴보면 10년 미만이 43.8%로 가장 높으며, 모든 산업에서 남성보다 여성일 경우 10년 미만의 활동 경력을 가진 비율이 높음
- 10년 이상의 경력이 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낮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산업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활동 경력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낮아짐

〈표 27〉 분야별 - 주 활동 예술분야의 활동경력(입문연도 기준)의 성별 현황

(단위: %)

구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활동분야	성별	비율						
전체		전체	100	43.9	19.3	9.1	13.8	13.9
분야	대중음악	남	72.7	47.5	30.7	9.7	6.4	5.6
		여	27.3	54.0	24.1	14.3	2.5	5.0
	방송연예	남	65.8	12.9	34.2	26.1	19.8	7.0
		여	34.2	31.9	34.2	24.5	2.0	7.4
	영화	남	69.9	32.8	43.8	16.0	1.6	5.7
		여	30.1	51.7	44.8	3.4	-	-
	만화	남	60.1	32.5	16.4	5.1	22.9	23.1
		여	39.9	61.2	23.7	15.1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표본 재구성

□ 세부산업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신문, 광고, 웹툰 산업의 경우 역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남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짐

- 신문산업의 경우 29세 이하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정도 많지만, 이후 연령대에서는 모두 남성이 많으며, 특히 50세 이상 종사자 현황을 보면 남성이 6배 이상 많음
- 광고산업의 경우 남성 종사자의 42.3%, 1만4천여 명이 40대 이상이지만, 같은 연령대에 여성 종사자의 22.3%, 6699명만이 계속 현업을 유지하고 있음
- 웹툰산업은 이례적으로 여성종사자의 비율(표본집단 기준)이 남성보다 높지만, 역시 40세 이상의 작가는 남성 작가의 비율이 여성 작가 비율의 2배에 달함

〈표 28〉 산업별 종사자 연령 분포의 성별 현황(2017)

(단위: 명, %)

산업	성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합계
신문	전체	4,971	6,303	6,849	7,224	6,842	10,157	42,346
	남	1,962	3,275	4,224	5,223	5,446	8,750	28,880
	여	3,009	3,028	2,625	2,001	1,396	1,407	13,466
광고	전체	24.7	22.8	19.4	21.9		11.2	65,159
	남	17.3	19.9	20.6	25.7		16.6	35,117
	여	33.4	26.3	18.0	17.4		4.9	30,042
웹툰	남	5.7	24.2		14.0			43.9
	여	20.6	28.0		7.5			56.1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2018 신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68~169쪽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광고산업 통계조사』, 33~34쪽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2018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 15쪽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총 활동 경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길었지만,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보다 길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남성 평균 활동 개월 수는 93.8개월로 여성 71.2개월에 비해 22.6개월 길고, 특히 남성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활동을 했지만, 여성 종사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5년 미만의 활동을 하고 대중문화 산업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함
- 소속사와의 계약기간은 남성이 평균 43.1개월로 여성 평균 52.5개월로 짧은데, 자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이 길수록 종사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역시 여성 종사자에게 보다 불리한 조건임을 유추할 수 있음

〈표 29〉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총 활동 경력 및 계약 체결 기간의 성별 현황 (2016)

(단위: 명, 연, %)

구분		총 활동 경력			소속사 계약 기간		
성별(명)		평균(개월)	5년 미만(%)	5년 이상(%)	평균(개월)	4년 미만(%)	4년 이상(%)
전체	743	84.8	49.1	50.9	47.2	40.3	55.9
남	449	93.8	44.3	55.6	43.1	51.2	46.5
여	294	71.2	56.5	43.5	52.5	26.4	67.6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233쪽, 266쪽 참고 재구성

주석: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응답 소속사의 남성 연예인 4,622명, 여성 연예인 3,437명(연예인 전체 규모는 8,059명)

2. 경제활동 현황

□ 문화산업 분야 예술인의 평균 예술 활동 수입과 계약 금액은 여성이 대체로 적은 편이며, 3,000만 원 이상 수입을 벌어들이는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성별 급여 격차가 보다 크게 나타남

- 문화산업 분야별 예술 활동에 따른 연간 수입은 성별 구분 없이 약 1,000만 원 미만 수준
-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이 3,000만 원 이상인 인원을 합산한 비율은 대중음악 남성 예술인의 11.5% 여성 예술인의 4.4%, 방송연예 남성 21.7% 대 여성 17.9%, 영화분야 남성 12.9% 대 여성 9.8%, 만화분야 남성 20.8%대 여성 20.8%로 모두 남성 예술인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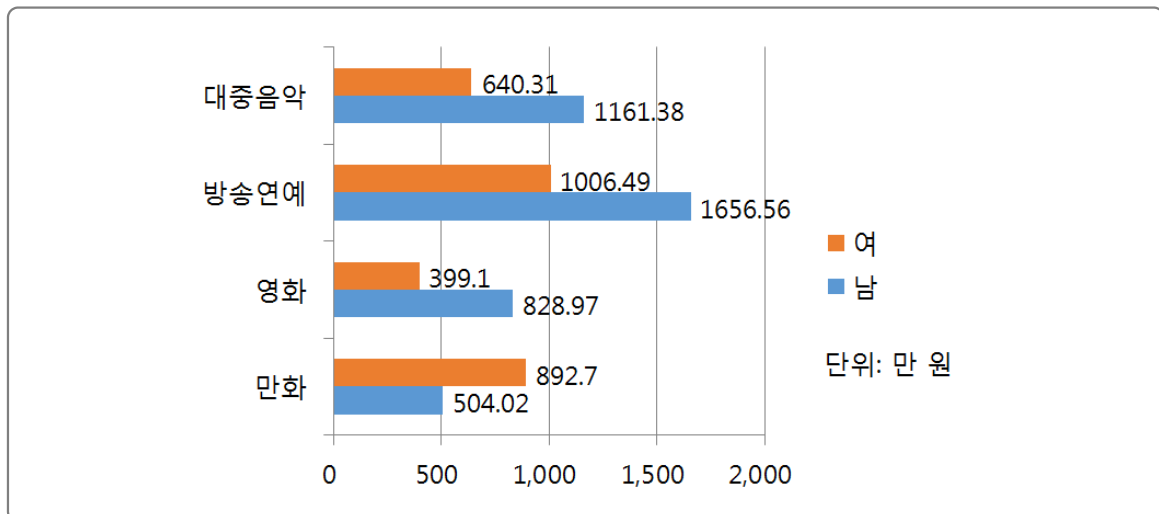
〈표 30〉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연간 예술 활동 수입 분포(2017)

(단위: %, 만 원)

구분			1000 만 원 미만	1000~2000 만 원 미만	2000~3000 만 원 미만	3000~4000 만 원 미만	4000~5000 만 원 미만	5000~6000 만 원 미만	6000~7000 만 원 미만	7000~8000 만 원 미만	8000 만 원 이상
활동 분야	성별	비율									
대중음악	전체	100	70.3	13.4	6.7	1.8	2.3	0.6	1.1	1.7	2.1
	남	74.1	65.8	13.9	8.8	2.3	1.7	0.8	1.4	2.4	2.8
	여	25.9	83.2	11.7	0.7	0.3	4.0	-	-	-	-
방송연예	전체	100	55.9	13.1	10.5	3.5	5.3	1.7	3.3	2.8	3.7
	남	66.3	52.5	14.2	11.6	3.4	5.0	2.5	3.1	4.3	3.4
	여	33.7	62.6	11.0	8.5	3.7	5.9	0.2	3.9	-	4.2
영화	전체	100	62.2	14.6	10.3	8.2	1.6	0.7	1.0	0.1	1.2
	남	70.0	60.2	13.7	11.8	8.1	1.7	1.1	1.5	0.2	1.7
	여	30.0	66.8	16.6	6.8	8.4	1.3	-	-	-	0.1
만화	전체	100	47.7	19.5	12.1	8.9	4.8	1.7	2.0	1.5	1.8
	남	56.0	56.1	14.8	8.3	10.9	1.3	2.1	3.5	0.6	2.3
	여	44.0	37.0	25.3	16.9	6.5	9.2	1.2	-	2.6	1.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원시자료 참고 재구성

- 예술 관련 활동에서 얻는 수입은 만화산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1.5~2배 가량 많으며, 격차는 대중음악 521.07만 원, 방송연예 650.07만 원, 영화 429.8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21]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연간 예술 관련 활동 평균 수입(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원시자료 참고 재구성

- 건별 계약금액은 대체로 100~300만 원 사이에 분포했으며 대중음악과 영화 산업에서는 여성 종사자가 받는 금액이 보다 높았고, 방송연예분야와 만화산업에서는 여성이 받는 금액이 보다 높았음

〈표 31〉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건별 계약 금액 (2017)

(단위: %, 만 원)

활동 분야	구분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 만 원 이상	평균 계약 금액
	성별	비율						
대중음악	남	50.9	9.2	2.8	60.2	24.0	3.8	216.65
	여	49.1	11.4	2.1	56.2	25.1	5.1	245.46
방송연예	남	72.7	6.8	1.9	60.2	25.2	5.9	277.76
	여	27.3	11.1	0.6	59.2	25.7	3.3	256.17
영화	남	64.4	6.6	5.4	49.4	21.0	17.7	332.08
	여	35.6	9.7	6.9	55.2	14.8	13.4	355.66
만화	남	69.9	5.2	1.0	4.4	4.0	85.4	835.49
	여	30.1	2.1	3.4	16.1	7.2	71.2	750.6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원시자료 참고 재구성

□ 산업별 세부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웹툰 산업, 영화 산업,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평균 급여 수준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웹툰산업의 최근 1년 연간 총 수입이 남성 작가의 경우 5,466.5만 원인데 반해 여성 작가 수입의 평균은 4,105.1만 원
- 영화산업의 경우 월 300만 원 이상 수입을 얻는 비율이 남성은 34.6%이지만 여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7%이며, 절반 이상의 여성 영화인이 200만 원 미만의 월급으로 살아감
- 음악과 방송산업등이 포함되는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경우 성별 구분 없이 모두 100~2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얻는 예술인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만 원 이상 수입을 벌어들이는 비율은 남성이 32.6%로 여성에 비해 10% 가량 높았으며, 평균 임금에서도 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

〈표 32〉 세부산업별 연/월 평균 수입(2017~2018)

(단위: %, 만 원)

구분		1,000 만 원 미만	1,000~2,000 만 원 미만	2,000~3,000 만 원 미만	3,000~5,000 미만	5,000 만 원 이상	연 평균
웹툰	남	8.3	12.8	21.1	28.9	28.9	5,466.5
	여	7.4	25.8	23.1	22.3	21.4	4,105.1
	전체	7.8	20.0	22.2	25.2	24.7	4,704.2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 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월 평균
영화	남	11.0	26.0	28.3	34.6		-
	여	15.3	42.7	25.3	16.7		
	전체	14.4	39.2	26.0	20.5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 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월 평균
대중 문화 예술	남	30.8	36.6	32.6			203.3
	여	35	42.7	22.2			153.4
	전체	32.5	39.1	28.4			183.2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2018웹툰작가 실태조사』, 54쪽 참고

- 주석: 최근 3년 이내 작품 활동을 한 웹툰 작가 409명(남 180명, 여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바탕
국가인권위원회(2018). 『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실태 분석』, 73쪽
- 주석: 영화산업 종사자 605명(남 127명, 여 478명)에 대한 설문조사 바탕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251쪽 참고 재구성
- 주석: 대중문화예술산업 회사 소속 연예인 743명(남 442명, 여 301명)에 대한 설문조사 바탕

□ 영화 산업은 월 급여액, 급여총액, 월 평균소득, 시간급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급여액은 남성 평균 3,227,812원으로 여성 평균 2,689,682원 보다 20% 높음
- 월 급여액으로 계약기간동안 받은 급여총액은 남성 평균 12,651,647원으로 여성 평균 12,098,021원보다 4.5%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시간급은 남성 평균 10,397원인데 비해 여성 평균 8,575원으로 역시 남성의 시간급 수준이 여성보다 1,640원 더 높음

〈표 33〉 영화산업-성별 월 급여액 및 급여총액과 시간급 현황(2018)

(단위: 원)

구분	월 급여액	급여총액	시간급
남성	3,227,812	12,651,647	10,397
여성	2,689,682	12,098,021	8,575
전체	3,015,990	12,436,076	9,632

출처: 영화진흥위원회(2019).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136쪽, 142쪽~144쪽

참고: 1) 월급여액 통계 표본 총 1255명(남 761명, 여 494명)

2) 급여총액 통계 표본 총 1,243명(남 759명, 여 48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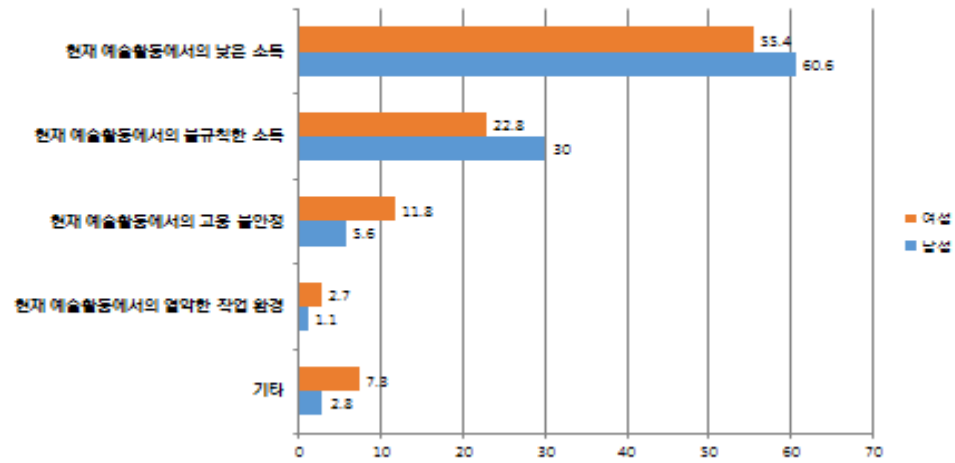
3) 시간급 통계 표본 총 910명(남 528명, 여 382명)

□ 문화산업 종사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 외에 겸업을 많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예술활동 직군으로 겸업을 하는 이유로 대부분이 소득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꼽고 있으며,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드는 경우는 전 직군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음

-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산업 종사 예술인 중 사무직 등 비예술활동 직군에서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공통적으로 절반 이상이 예술 활동에서의 소득이 낮거나 불규칙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
-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겸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4개 산업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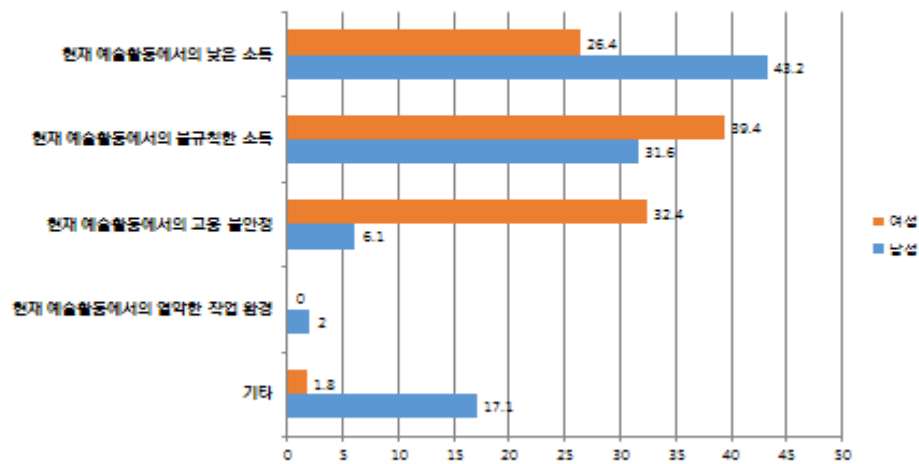
(단위: 원)

대중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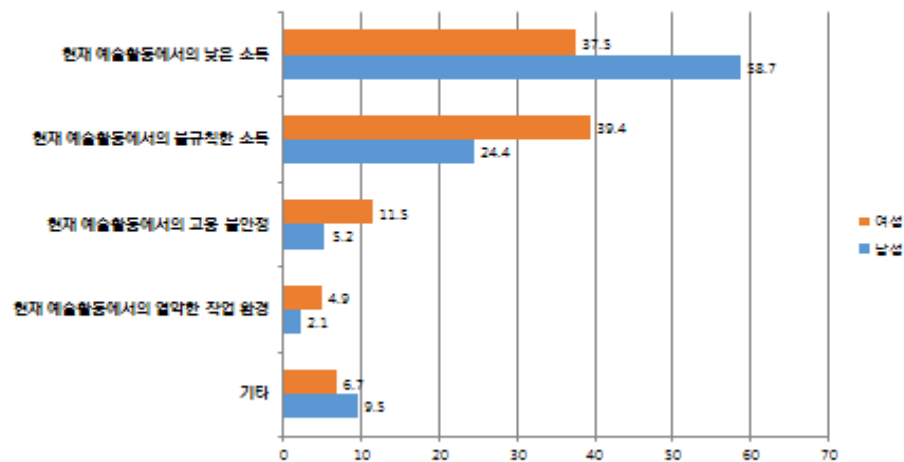
(단위: 원)

방송연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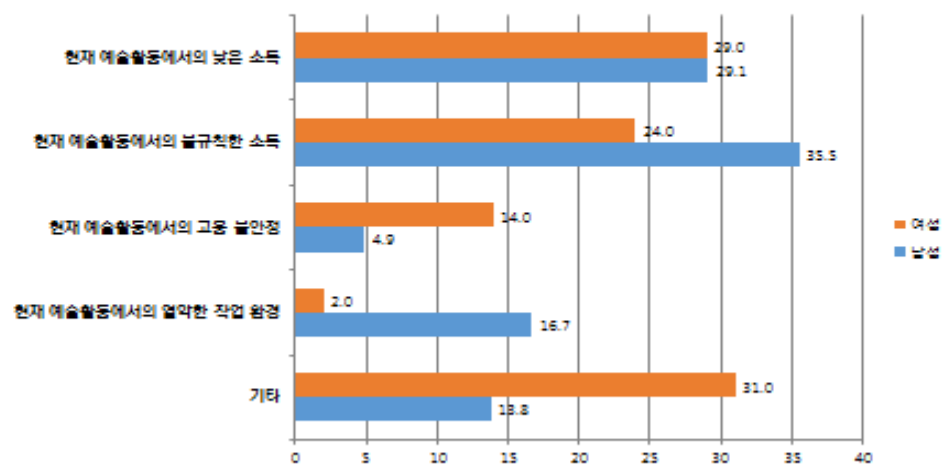
(단위: 원)

영화



(단위: 원)

만화



[그림 22] 겸업 예술인 분야별 예술 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201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원자료 참고 재구성

3. 고용구조 및 고용현황

□ 산업 내 전체 종사자 595,513명 가운데 여성 종사자는 24만 여 명으로 남성 종사자의 2/3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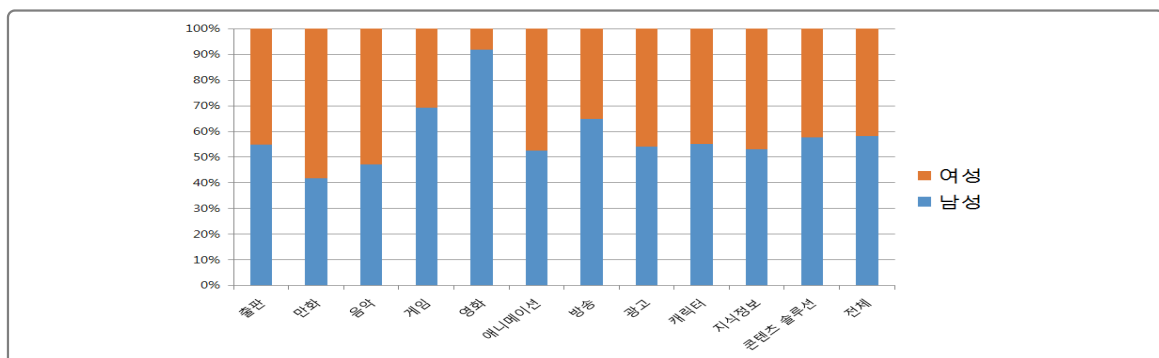
- 『2017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종사자 전체 중 남성 종사자의 비율은 59.2%, 여성 종사자의 비율은 41.8%로 남성 종사자가 98,171명 더 많음
- 특히 영화 산업, 게임 산업, 방송 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 대비 여성 종사자 수의 비율은 각각 7.8%, 30.9%, 35%에 그치며 남성 편향적인 인력구조가 심각한 수준
- 콘텐츠산업 분야 중 여성이 다수인 분야는 만화 산업(58.4%)과 음악 산업(52.8%) 뿐임

〈표 34〉 콘텐츠산업 성별 종사자 현황(2016)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전체	346,842	58.2	248,671	41.8	595,513	100
출판	81,907	55.0	67,150	45.0	149,057	100
만화	4,217	41.6	5,910	58.4	10,127	100
음악	36,965	47.2	41,428	52.8	78,393	100
게임	51,154	69.1	22,839	30.9	73,993	100
영화	26,032	92.0	2,262	8.0	28,294	100
애니메이션	2,698	52.5	2,444	47.5	5,142	100
방송	28,374	65.0	15,288	35.0	43,662	100
광고	14,802	54.1	12,572	45.9	27,374	100
캐릭터	35,910	55.2	29,162	44.8	65,072	100
지식정보	17,655	53.0	15,668	47.0	33,323	100
콘텐츠 솔루션	46,448	57.8	33,948	42.2	80,396	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콘텐츠산업통계』, 79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2018 한국의 성인지 통계』, 495쪽 참고 재구성



[그림 23] 콘텐츠산업 성별 종사자 비율(201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콘텐츠산업통계』, 79쪽,
여성정책연구원(2018). 『2018 한국의 성인지 통계』, 495쪽 참고 재구성

□ **문화산업 정규직·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58.2%가 남성, 41.7%가 여성으로 남성 인력이 비율이 1.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7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 종사자 수는 346,842명, 여성 정규직 종사자 수는 248,671명이며, 비정규직 종사자수는 남성 65,501명, 여성 51,328명으로 모든 종사 형태에서 남성 종사자가 여성 종사자에 비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나누어보면 남성 정규직 인원이 전체 종사자의 47.2%에 해당하고, 여성 정규직은 33.1%를 차지함.
- 남성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은 23.2% 이지만, 여성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26%로 작지만 차이가 있음

〈표 35〉 문화산업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2016)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전체	346,842	58.2	248,671	41.8	595,513	100
정규직	281,341	47.2	197,343	33.1	478,684	80.3
비정규직	65,501	11.0	51,328	8.6	116,829	19.6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79쪽 참고 재구성

□ **만화와 음악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정규직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 출판,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산업은 정규직·비정규직 종사자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다수임
- 방송과 캐릭터산업에서는 정규직 종사자 중에서는 남성이 다수이나 정규직 종사자 중에는 여성이 다수이며, 여성 정규직 비율이 남성 정규직 비율을 앞서는 경우는 음악 산업과 만화산업 두 경우뿐임
- 정규직 비율이 높은 4개 분야 광고와 출판, 캐릭터, 지식정보산업에서 모두 남성 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이 여성을 웃돌았으며, 각각 10% 내외의 차이를 보임

□ **정규직 내 남녀 비율 격차에 비해 비정규직 내 남녀 비율 격차가 작음. 이는 정규직 내 여성의 비율보다 비정규직 내 여성의 비율이 보다 높음을 의미함**

- 정규직 비율이 93.3%인 광고 산업의 경우 남성 정규직이 전체 종사자의 51.7%, 여성 정규직이 전체 종사자의 41.5%로 10% 가까이 차이 남

- 출판, 캐릭터, 지식정보산업은 남성 정규직 비율이 각각 50.4%, 46.1%, 47.9%로 여성 정규직 비율인 40.4%, 39.4%, 3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영화 산업(47.7%)과 게임 산업(34.7%)에서는 남성 편향적인 인력 구조가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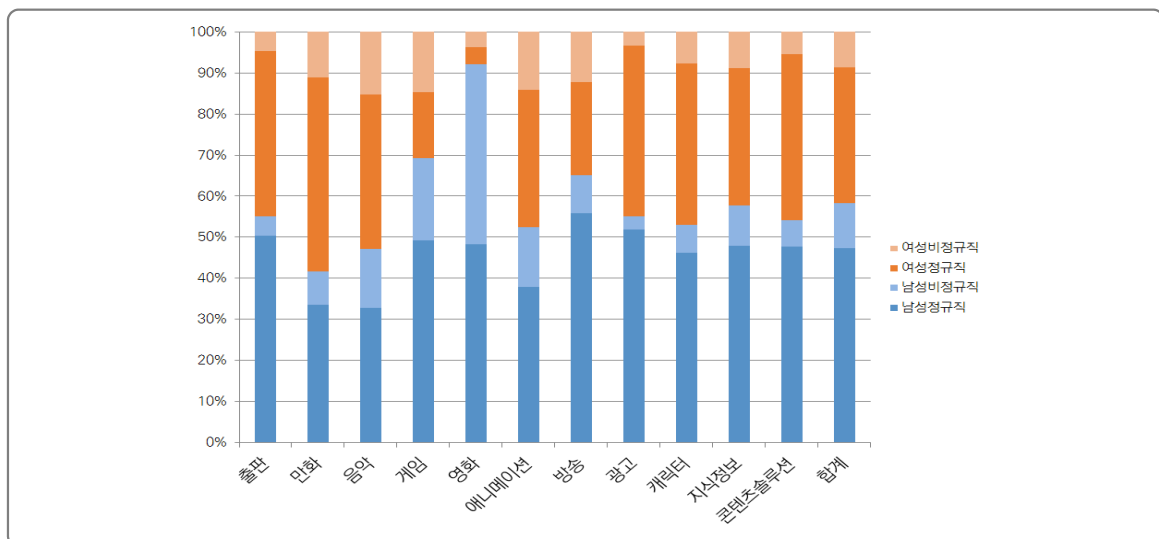
〈표 36〉 콘텐츠산업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2016)

(단위: 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체	281,341	47.2	197,343	33.1	65,501	11.0	51,328	8.6	595,513	100
출판	75,109	50.4	60,226	40.4	6,798	4.6	6,924	4.6	149,057	100
만화	3,394	33.5	4,794	47.3	823	8.1	1,116	11.0	10,127	100
음악	25,633	32.7	29,518	37.7	11,332	14.5	11,910	15.2	78,393	100
게임	36,347	49.1	11,926	16.1	14,807	20.0	10,913	14.7	73,993	100
영화	13,947	48.2	1,182	4.1	12,765	44.0	1,080	3.7	28,974	100
애니메이션	1,951	37.9	1,719	33.4	747	14.5	725	14.1	5,142	100
방송	24,344	55.8	9,909	22.7	4,030	9.2	5,379	12.3	43,662	100
광고	33,672	51.7	27,021	41.5	2,238	3.4	2,141	3.3	65,072	100
캐릭터	15,347	46.1	13,127	39.4	2,308	6.9	2,541	7.6	33,323	100
지식정보	38,512	47.9	26,819	33.4	7,936	9.9	7,129	8.9	80,396	100
콘텐츠솔루션	13,085	47.8	11,102	40.6	1,717	6.3	1,470	5.4	27,374	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79쪽 참고 재구성

주석: 정규직·비정규직 내 다수인 성별에 표시함



[그림 24] 문화산업 고용형태별 및 성별 종사자 비율(201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79쪽 참고 재구성

□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산업 분야 예술인 중 겸업을 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영화산업 제외), 프리랜서 경험 비율은 여성이 다소 높음

- 대중음악, 방송연예, 만화산업에서는 전업 형태로 예술 활동에 종사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5% 안팎으로 높은 반면 영화산업에서는 남성 예술인이 전업 형태로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음
- 프리랜서 경험은 4가지 분야 모두 70~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모든 산업 내에서 여성 예술인의 프리랜서 경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조금 높음

〈표 37〉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예술인 종사 형태 및 프리랜서 경험 여부(2017)

(단위: %.)

구분			종사 형태		프리랜서 경험	
활동분야	성별 비율		전업	겸업	경험	비경험
대중음악	남	72.7	55.1	44.9	87.0	13.0
	여	27.3	59.1	40.9	85.5	14.5
방송연예	남	65.9	65.8	34.2	81.0	19.0
	여	34.1	79.4	20.6	76.4	23.6
영화	남	69.9	70.2	29.8	84.4	15.6
	여	30.1	61.7	38.3	87.9	12.1
만화	남	60.1	82.5	17.5	90.0	10.0
	여	39.9	87.0	13.0	94.8	5.2
합계			100		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원시자료 참고 재구성

참고: 겸업 분야는 예술활동 직업과 예술활동 외 직업이 있으며, 특히 예술활동 외 직업 중 강사/강의 활동을 하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음

□ **문화산업 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률에서 성별 특성은 세부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대체로 건강보험 가입률이 85% 이상으로 높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함**

- 대중음악산업, 영화산업, 만화산업 예술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음
-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대중음악산업과 만화산업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고, 방송연예산업과 만화산업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낮음
- 산재보험 가입률은 대중음악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방송연예·영화산업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음

〈표 38〉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성별 4대 보험 가입률(2017)

(단위: %)

구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활동분야	성별	비율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대중음악	남	72.7	87.8	12.2	26.8	73.2	24.2	75.8	48.7	51.3
	여	27.3	84.6	15.4	20.4	79.6	20.1	79.9	39.9	60.1
방송연예	남	65.9	92.4	7.6	13.8	86.2	23.6	76.4	60.9	39.1
	여	34.1	95.4	4.6	29.5	70.5	35.3	64.7	66.2	33.8
영화	남	69.9	93.4	6.6	20.3	79.7	24.1	75.9	52.2	47.8
	여	30.1	90.3	9.7	29.8	70.2	30.2	69.8	49.9	50.1
만화	남	60.1	94.1	5.9	4.6	95.4	4.0	96.0	33.2	66.8
	여	39.9	93.9	6.1	5.2	94.8	8.0	92.0	37.1	62.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원시자료 참고 재구성

참고: 국민연금 항목은 같은 효과를 내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살펴봄

□ **문화산업 전반적으로 관련 사업체의 대표자, 경영인 등 고위 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여성 대표, 여성 경영인을 둔 사업체의 비율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2014년 이래 계속해서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40%대로 절반에 미치지 못함
- 특히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대표자의 비율이 20%대를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성별 격차가 심함

〈표 39〉 문화산업 관련 사업체 대표자 산업별 성별 분포 (연도별)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총계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20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산업분류 변경으로 해당 지표 없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7,570	56.9	51,227	43.1	118,797
201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253	83.0	7,219	17.0	42,47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2,794	56.9	47,649	43.1	110,443
20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398	83.4	7,027	16.6	42,4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7,338	56.7	43,725	43.3	101,063
20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4,025	83.7	6,639	16.3	40,6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9,239	57.2	44,396	42.8	103,635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사이트

〈표 40〉 문화산업 관련 여성경영인 사업체수 산업별 성별 분포 (연도별)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총계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20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150	84.1	6,100	15.9	38,2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2,117	55.5	41,709	44.5	93,826
20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859	84.2	5,769	15.8	36,6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4,044	55.9	42,564	44.1	96,608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사이트

□ 세부 산업별로 고위급, 관리자급의 성별분포를 살펴보아도 여성 인력의 비중이 남성 인력의 비중보다 현저하게 적음

- 출판산업 내 신문산업의 경우 고위직에 속하는 임원과 논설위원의 여성 비율은 각각 16.2%, 19.5%이며, 잡지 산업의 대표자와 임원 역시 17.3%~21.%에 불과
- 게임개발자연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게임산업에서는 특히 여성 고위관리직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영화산업 역시 2018년 여성 감독의 비율이 13%로 여성의 진입과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표 41〉 신문·잡지 산업-고위급·관리자급 성별 분포(2017)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총계(명)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신문	임원	16.2	598	83.8	3,102	1,281
	논설	19.5	152	80.5	628	4480
잡지	대표자	17.3	222	82.7	1,059	1,281
	임원	21.5	117	78.5	426	543
	경영/관리	48.9	799	51.1	834	1633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2018 신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61~62쪽, 117~118쪽, 162~163쪽 참고 재구성

주석: 잡지산업 모집단 사업체 2,021개 중 1,281개 사업체 응답, 남성·여성 수는 비율 자료를 활용하여 구함

〈표 42〉 게임산업-직무에 따른 성별 분포(2016)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합계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고위관리직	0	0	100.0	8	8
전문직1(개발자)	18.1	32	81.9	145	177
전문직2(아티스트)	50.6	43	49.4	42	85
사무직	17.9	10	82.1	46	56
기타	10.0	1	90.0	9	10
합계	25.6	86	74.4	250	336

출처: 게임개발자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2017). 『2016 게임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주석: 게임 개발자 420명 설문조사 중 당시 재직자 336명에 대한 지표

〈표 43〉 영화산업-한국 상업영화 핵심 창작인력 여성 참여율(2014~2018)

(단위: 편, %)

구분	2016		2017		2018	
	참여 편 수 (전체 82편)	여성 참여 편수 비율	참여 편 수 (전체 83편)	여성 비율	참여 편 수 (전체 77편)	여성비율
감독	8	9.8	7	8.4	10	13
제작	23	28.0	17	20.5	15	19.5
프로듀서	21	25.6	21	25.3	23	29.9
주연	23	28.0	17	20.5	24	31.2
각본	29	35.4	15	18.1	23	29.9
촬영	3	3.7	4	4.8	0	0%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원(2019) 『2018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 69쪽

주석: 통계의 상업영화는 총제작비 10억 원 이상 또는 최대 스크린 수 100개인 영화를 지칭

4. 노동 환경

□ 문화 체육 관광 산업 내 성별 근로시간은 대체로 남성 종사자가 더 길

- 세부산업별 지표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문화산업 분야가 속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의 통계를 살펴봄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의 남성 종사자의 경우 월 평균 159.4시간을 일하지만 여성의 경우 156.9시간을 일하며 2.5시간 차이를 보임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의 경우 남성 종사자는 평균 172.1시간, 여성 종사자는 평균 159.3시간 일하며 12.8시간 격차를 보임

〈표 44〉 문화산업 포함 직군 종사자의 성별 월 평균 근로 시간 (2018)

(단위: 시간, 천 원, 명)

구분		수 (명)	월 평균 근로시간(시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남성	312,973	159.4
	여성	127,668	156.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남성	55,201	172.1
	여성	43,426	159.3

출처: 고용노동부(201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문화산업 내 여성 예술인이 남성 예술인에 비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문화산업 내 예술인 중 계약 경험 여부에 관한 성별 격차는 뚜렷하지 않으나 평균 체결 계약건수를 비교하면 대중음악과 방송연예, 만화산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계약 건수가 남성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는지 여부에 여성 예술인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표 45〉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의 성별 계약체결 경험 여부 및 평균 체결 계약 건수(2017)

(단위: %, 건)

구분			예		아니오
활동분야	성별 비율			평균 체결 계약 건수(건)	
대중음악	남	72.7	42.7	8.71	57.3
	여	27.3	31.8	7.65	68.2%
방송연예	남	65.9	55.1	10.99	44.9
	여	34.1	59.9	6.61	40.1
영화	남	69.9	66.1	2.58	33.9
	여	30.1	76.1	2.64	23.9
만화	남	60.1	67.6	3.08	32.4
	여	39.9	77.4	1.9	22.6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원시자료 참고 재구성

〈표 46〉 주 활동 문화산업 분야-지난 1년간 부적절·부당한 계약 여부(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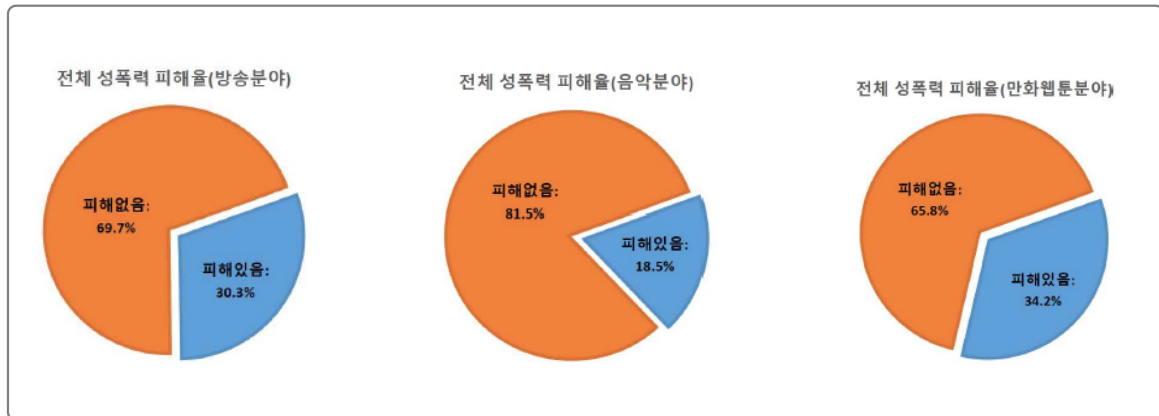
구분			부당계약 경험 여부	
활동분야	성별 비율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대중음악	남	72.7	3.9	96.1
	여	27.3	15.7	84.3
방송연예	남	65.9	17.8	82.2
	여	34.1	27.4	72.6
영화	남	69.9	12.2	87.8
	여	30.1	17.3	82.7
만화	남	60.1	19.0	81.0
	여	39.9	49.7	50.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원시자료 참고 재구성

참고: 계약체결 경험자 2107명에 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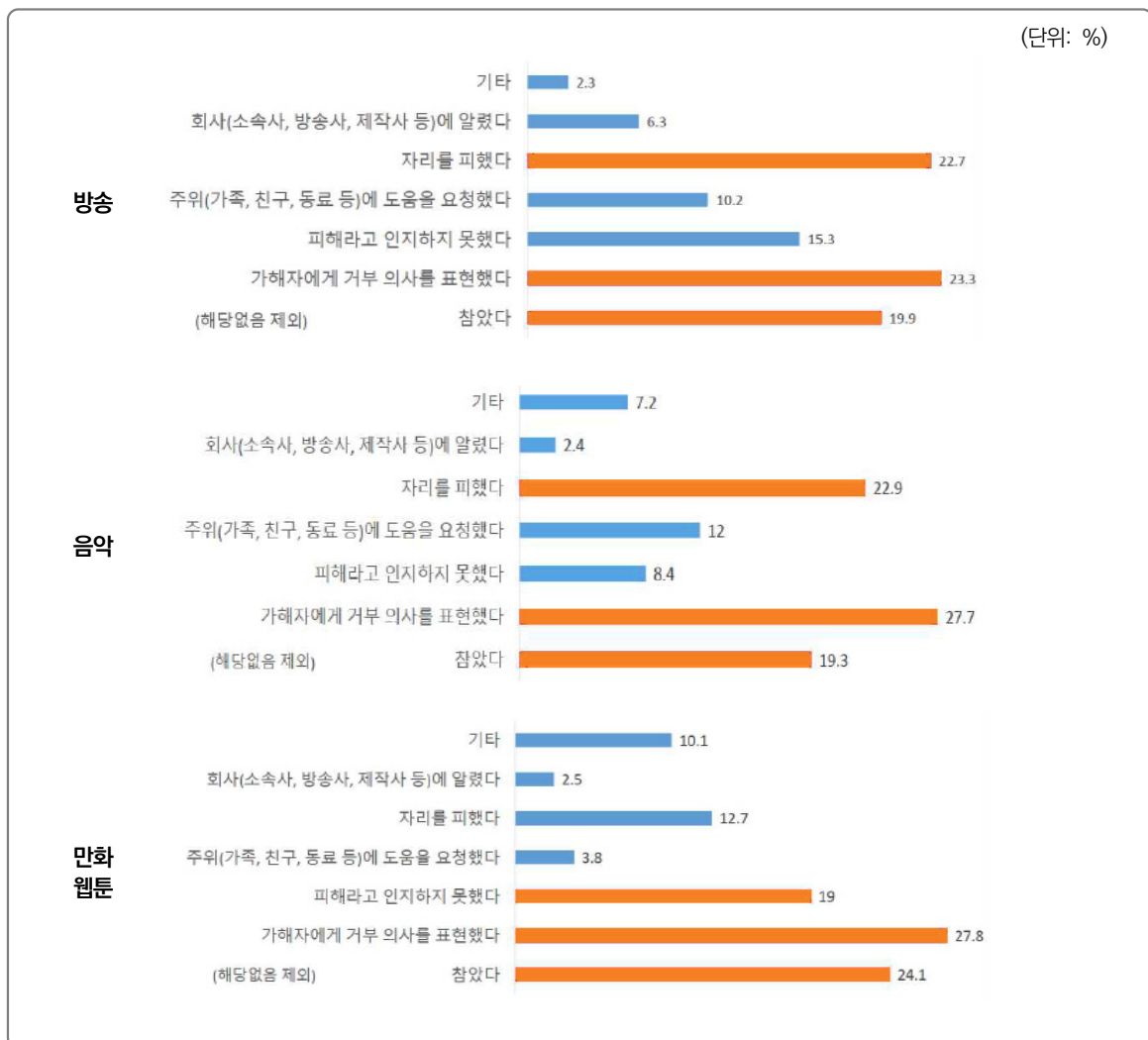
□ 문화산업 분야 중 대중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종사자들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평균 3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해율이 방송 분야 30.3% 대중음악 18.5%, 만화웹툰 34.2%으로 평균 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비율이 압도적인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는 등의 소극적인 행위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여성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다른 분야나 장르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25] 장르별 성폭력 범죄 피해율(2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43, 98, 150쪽



[그림 26] 성폭력 피해 당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응답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68, 120, 172쪽

제3절 체육분야 성인지 정책환경

□ 【체육분야의 개념 및 범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의 개념 및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며,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이고,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의미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간한 「한국의 체육지표」에서는 체육을 ‘운동경기나 야외활동과 같이 건전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신체활동’으로 정의함. 단, 스포츠산업 분야와 경기 대회 관련 분야에서는 영역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이라는 용어 대신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함
- 「체육백서」는 체육을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교류,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함

□ 【체육분야 지원 및 성인지 관련 주요 현황】 성인지 관련 정기 연구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문체부 내 체육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6개 과(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스포츠유산과)에서 분야별 정책을 수립 및 추진 중임
- 체육분야 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표기관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 또한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체육분야 성인지 관련 정기조사 및 연구는 따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체육계 성폭력 이슈가 불거진 이후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2018)가 추진된 바 있음
- 대한체육회는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운동부 관련 성폭력 실태 및 관련 인식·태도 등 스포츠(성)폭력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엘리트 체육 이외의 대상인 스포츠산업 등의 영역에 대한 별도의 연구 및 조사는 진행된 바 없음

□ 【체육분야 관련 자료】 체육관련 공공기업의 데이터를 통해 체육 사업 전반과 인력을 파악함

- 체육계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자료로는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스포츠산업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2017), 「스포츠부문 일자리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등을 활용함
- 체육계 인력에 관한 자료는 교육통계서비스의 「학과계열별 졸업자수 통계」와 교육부의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야의 노동환경 분석을 위해 체육분야 관련 공공기업에 대한 자료를 알리오 경영공시의 각 기업 데이터를 조회하여 파악함

1. 시장진입 과정 및 현황

□ 2017년 기준,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 약 42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에는 약 42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5년(37만명) 대비 약 13.7%p 증가한 수치임
- 업종별 종사자수는 스포츠시설업(18만명), 스포츠용품업(14만명), 스포츠서비스업(10만명) 순으로 많았으며, 2015년 대비 증가율은 스포츠서비스업이 17.8%p로 가장 높고 이어서 스포츠시설업(16.3%p), 스포츠용품업(8.5%p) 순으로 나타남

〈표 47〉 스포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2018)

(단위: 천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합계	373	100%	398	100%	424	100%
스포츠 시설업	153	41.1%	166	41.7%	178	41.9%
스포츠 용품업	129	34.7%	137	34.4%	140	33.0%
스포츠 서비스업	90	24.2%	95	23.9%	106	25.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스포츠산업실태조사」



[그림 27] 스포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2015~2017)

□ 체육 분야와 고용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명확한 취업경로와 취업률을 파악하기 어려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한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스포츠 분야에서는 근로시간과 급여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인 ‘양질의 일자리’가 적으며, 극소수의 엘리트 스포츠 및 공공기관 종사자만이 이 영역에 포함됨
- 운동선수의 경우 실업팀에 소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취업한 체육 전문가들은 체육분야가 아닌 제조업 등에 소속되는 등 취업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운동치료사, 퍼스널트레이너는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아 취업률 산정이 어렵고, ‘팀 닥터’의 경우 높은 이직률로 인해 취업률 조사 기간에 소속팀이 없어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가. 체육분야 전공자 졸업수와 취업수

□ 체육관련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보다 남녀 성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남

- 체육분야 중학교의 경우 남성 학생의 비율이 여성 학생 비율보다 22.0%p 높았음
- 체육분야 고등학교의 경우 남성 학생의 비율이 여성 학생의 비율보다 35.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의 여성 학생의 비율은 중학교의 여성 학생 비율보다 보다 6.5%p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48〉 체육관련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 현황(2017)

(단위: 명, %)

분류	계	비율	남성		여성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중학교	1,226	100.0%	748	61.0%	478	39.0%
고등학교*	1,218	100.0%	822	67.5%	396	32.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 고등학교는 졸업생을 기준으로함

□ 분야 특성상 체육분야 전공자 졸업생수는 모든 학위 수준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8년 체육인력의 학위수준별 졸업생 수를 살펴보면, 2018년 전체 졸업생(12,643명) 중 남성이 8,835명, 여성이 3,808명으로 남성의 졸업률이 여성보다 약 40%p 높았음
- 학위 수준별 남녀 졸업자 수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석사과정에서 남성은 59.2%, 여성은 40.8%로 나타나 성비 격차가 18.4%p로 가장 낮았음. 반면 박사과정은 남성 71.9%, 여성 28.1%로 가장 큰 격차(43.8%p)를 보임(2018년 기준)
- 대학과정과 석사과정은 2016년부터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박사과정은 여성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49〉 체육인력 학위수준별 졸업생 수(2016~2018)

(단위: 명)

구분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석사			박사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계	4,335	3,946	3,639	8,536	8,288	7,984	675	686	696	361	307	32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남성	2,973	2,749	2,506	6,234	5,954	5,684	437	440	412	243	208	233
	68.6%	69.7%	68.9%	73.0%	71.8%	71.2%	64.7%	64.1%	59.2%	67.3%	67.8%	71.9%
여성	1,362	1,362	1,133	2,302	2,334	2,300	238	246	284	118	99	91
	31.4%	34.5%	31.1%	27.0%	28.2%	28.8%	35.3%	35.9%	40.8%	32.7%	32.2%	28.1%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학과계열별 졸업자수 통계 자료 재구성 (무용전공을 제외한 체육학과 수치)

□ **체육전공자의 취업률은 40.6%이며, 이중 남성 취업률은 40.7%, 여성 취업률은 40.4%로 유사한 수준임**

- 2017년 기준 체육전공자 중 취업자 수는 5,137명으로 졸업자(12,663명)의 40.6% 수준임
- 남성 졸업자의 취업률과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은 각 40.7%, 40.4%의 근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50〉 체육전공자 취업 현황(2017)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취업자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총계	12,663	9,035	71.4%	3,628	28.7%	5,137	3,673	71.5%	1,464	28.5%
전문대학	3,891	2,704	69.5%	1,187	30.5%	1,262	802	63.6%	460	36.5%
대학교	7,819	5,639	72.1%	2,180	27.9%	3,482	2,521	72.4%	961	27.4%
산업대학	263	234	89.0%	29	11.0%	147	133	90.5%	14	9.5%
각정학교	0	0	0	0	0	0	0	0	0	0
기능대학	26	26	100%	0	0	19	19	100%	0	0
일반대학원	664	432	65.0%	232	35.0%	227	198	87.0%	79	40.0%

출처: 교육부,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자료 재구성 (무용전공을 제외한 체육학과)

참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조사 제외 대상: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특수 대학원 및 졸업자가 없는 신설 학교

2. 경제활동 현황

가. 스포츠산업

□ **매출은 전년 대비 2.0% 상승과 전 업종의 매출 증가세로, 산업 전반이 확대되는 추세임**

- 2017년 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은 2016년 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스포츠산업 내 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임
-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사업체들이 전체 사업체의 54.8%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1~5억 미만 사업체 31.1%, 5~10억 미만 사업체 8.0%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51〉 스포츠 산업 대분류 기준 업종별 매출액(2015~2017)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6년 대비 증감률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스포츠 시설업		16,216	23.7%	17,201	23.7%	17,544	23.5%	2.0%
스포츠 용품업		35,617	47.7%	33,547	46.2%	34,011	45.5%	1.4%
스포츠 서비스업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19,516	28.6%	21,859	30.1%	23,141	31.0%	5.9%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16,312	-	17,684	-	19,190	-	8.5%
합계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68,350	100.0%	72,608	100.0%	74,696	100.0%	2.9%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65,145	-	68,432	-	70,745	-	3.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표 52〉 매출구간별 사업체 현황(2015~2017)

(단위: 개, %)

구분	모집단 현황	1억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사업체 수	비중 (%)	사업체 수	비중 (%)	사업체 수	비중 (%)	사업체 수	비중 (%)	사업체 수	비중 (%)	사업체 수	비중 (%)
2017	101,207	55,448	54.8	31,459	31.1	8,098	8.0	4,831	4.8	572	0.6	798	0.8
2016	95,387	53,262	55.8	28,922	30.3	6,302	6.6	5,340	5.6	687	0.7	874	0.9
2015	93,350	53,740	57.6	26,857	28.8	5,830	6.2	5,325	5.7	705	0.8	893	1.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활동 현황의 도출은 어려움이 따름

-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은 5인 미만 사업체가 85% 이상이고,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아 산업의 임금수준을 포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파악이 가능하나, 역시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만 대상으로 분석

□ 스포츠산업 종사자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약 223만원 수준임

- 스포츠산업의 전체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약 223만원 수준이며, 분야별 임금은 스포츠 서비스업(229만 원), 스포츠시설업(226만원), 스포츠용품업(210만원) 순으로 나타남
-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통틀어 전체 근로자 중 3.1%인 약 1천 3백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음. 최저임금 미만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스포츠용품업(4.0%)이며, 스포츠시설업(3.2%), 스포츠서비스업(2.0%) 순임

-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9.3%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야별 최저임금 미만자 수의 비율은 스포츠용품업(10.3%), 스포츠서비스업(9.6%), 스포츠시설업(8.9%) 순임

〈표 53〉 스포츠 산업 최저임금 미만율(2017)

(단위: 천원, 천명, %)

분류	전체 1인당 월 평균 임금	전체(상용+임시·일용)		임시·일용	
		최저임금 미만자수	비율	최저임금 미만자수	비율
스포츠산업 소계	2,225	13,857	3.1%	7,130	9.3%
스포츠시설업	2,259	6,467	3.2%	4,187	8.9%
스포츠용품업	2,122	5,250	4.0%	1,544	10.3%
스포츠서비스업	2,287	2,140	2.0%	1,399	9.6%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최저임금미만율 지표 산출 방법

(1단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 문화체육관광 일자리조사 원자료 입수

(2단계) 시간당임금 산출(평상 월 평균임금 ÷ 월 평균 근로시간)

(3단계) 최저임금미만율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100

(4-1단계) 측정(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수준으로 측정 가능)

(4-2단계) 측정(일자리조사는 표준산업분류 4개대분류, 19개 중분류로 측정 가능)

* 일자리조사 원자료는 소득구간별(150~180만원) 근로자수 조사기 때문에, 실제 결과보다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 문화체육관광 주요 산업별 저임금자수, 최저임금 미만율 (2017년 기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항목 발췌

〈저임금자수〉

분류	2015		2016		B-A
	근로자수	비중(A)	근로자수	비중(B)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5명	2.39%	105명	2.16%	-0.23%p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분류	2015	2016	20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5%	15.7%	13.2%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나. 체육분야 6개 공공기관

□ 남성근로자의 평균 보수액이 여성근로자 보다 약 19% 높은 수준임

- 체육분야 6개 공공기관 근로자의 보수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평균 보수액 차이는 약 1,267만원으로 여성의 보수액은 남성에 비해 19.3%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성별 간 차이가 더 큰 편으로, 남성의 평균보수액은 6,600만원, 여성은 5,300만원으로 여성의 보수액이 남성보다 약 19.6%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4〉 체육분야 공공기관의 평균보수액(2018)

(단위: 천 원)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체육분야 6개 공공기관 평균 보수액	1인당 평균 보수액 (A)	62,406	35,186
	남성 (B)	65,580	39,369
	여성 (C)	52,909	31,664
	남성과 여성 평균 보수액 차 (B-C)	12,671	7,705
	평균 보수액과 여성 평균 보수액 차 (A-C)	9,497	3,522

출처: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를 연구자 재구성

□ 근로자들의 보수액 증가율은 정규직의 경우 여성이 1.2%p 높고, 무기계약직은 남성이 1.2%p 높음

- 2017년 대비 2018년 체육분야 6개 공공기관의 보수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남성은 0.7%, 여성은 1.9% 상승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의 경우 남성은 2.9%, 여성은 1.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은 남성의 평균 보수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실제 2017년과 2018년의 성별 보수액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방증함

〈표 55〉 체육분야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보수액 증감률(2017-2018)

(단위: 천 원)

구분		남성	여성	성별 보수액 차이 (남성 보수액 - 여성 보수액)	
평균	2017(A)	390,566	311,518	79,048	20.2%
	2018(B)	393,479	317,454	76,025	19.3%
	증감액(B-A)	2,913(0.7%)	5,936(1.9%)	-	-

출처: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 재구성

〈표 56〉 체육분야 공공기관의 무기계약 보수액 증감률(2017-2018)

(단위: 천 원)

구분		남성	여성	성별 보수액 차이 (남성 보수액 - 여성 보수액)	
평균	2017(A)	229,457	186,722	42,735	18.6%
	2018(B)	236,216	189,983	46,233	19.6%
	증감액(B-A)	6,759(2.9%)	3,261(1.7%)	-	-

출처: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 재구성

3. 고용구조 및 고용현황

가. 스포츠 산업

□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의 특성상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 스포츠산업은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42%로, 5인 이상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도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용하기 어려움
- 스포츠산업 내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67.0%)이며,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47.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과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35.0%) 순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분야 인력의 평균 연령은 44.0세로 전 산업 평균인 49.9세에 비해 5.9년이 낮음

〈표 57〉 스포츠산업의 업종별 일자리 특성(2015)

	전 산업 취업자 전체	스포츠 산업 전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임시일용직 비중(%)*	34.9	41.6	35.1	47.2	35.0	66.7
계약직 비중 (%)*	14.3	12.2	7.5	17.5	10.6	18.3
근속년수 (년)*	6.3	5.1	5.9	4.5	4.0	3.2
월평균임금 (만원)*	216.4	187.2	182.5	195.8	202.5	150.8
주당노동시간 (시간)	43.5	45.1	46.8	44.4	49.2	38.4
평균연령 (세)	49.9	44.0	47.1	41.8	44.6	38.2

주: *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비율임

자료: 한국스포츠개발원(2017), 「스포츠부문 일자리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스포츠산업 중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65.0%)임

- 2015년 기준, 스포츠 산업 전체에서 남성의 비중은 51.0%이며,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표 58〉 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업종별 성비(2015)

구분	전 산업 취업자 전체	스포츠 산업 전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남성 비중	54.0%	51.0%	4.0%	56.0%	65.0%	62.0%

자료: 한국스포츠개발원(2017), 「스포츠부문 일자리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나. 체육전문인력

□ 연령별 등록선수는 일반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 전체 등록선수의 비율이 여성보다 50%p 높음

- 2017년 기준 총 등록선수(124,891명) 중 남성의 비율은 75.0%, 여성의 비율은 25.0%로 남성 등록선수의 비율이 여성보다 50%p 더 높았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등록선수의 여성 비율을 초등학교에서 27.9%로 가장 높았던 반면 대학교에서는 21.7%로 가장 낮은 여성 비율을 보임

〈표 59〉 연령별 등록선수 수(2017)

(단위: 명, %)

비고	계	비율	남성		여성	
			등록선수 수	비율	등록선수 수	비율
초등학교	26,253	21.0%	18,937	72.1%	7,316	27.9%
중학교	29,169	23.4%	22,062	75.6%	7,107	24.4%
고등학교	25,890	20.7%	19,553	75.5%	6,337	24.5%
대학교	14,090	11.3%	11,031	78.3%	3,059	21.7%
일반부	29,489	23.6%	22,132	75.1%	7,357	24.9%
총계	124,891	100.0%	93,715	75.0%	31,176	2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 국가대표선수의 엔트리 성비는 51:49이나, 실제 훈련인원은 남성 55.5%, 여성 44.5%의 비율임

- 2017년 기준 올림픽 대회 및 동계올림픽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현황에서 엔트리 국가대표의 수는 920명이며 훈련을 받는 국가대표 선수는 921명임
- 전체 국가대표선수 엔트리는 남성 51.0%, 여성 49.0%이며, 종목별로는 여성의 비율은 체조에서 70.0%로 가장 높았고, 남성 비율은 복싱에서 76.9%로 가장 높았음
- 엔트리 성비가 51:49인데 비해 실제 훈련인원 현황은 남성 55.5%, 여성 44.5%으로 나타나, 실제 훈련 선수 중 여성일 경우 엔트리에 포함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60〉 올림픽 대회 및 동계올림픽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현황(2017)

(단위: 명, %)

종목	엔트리						훈련인원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선수 수	비율	선수 수	비율			선수 수	비율	선수 수	비율		
육상	80	50.0%	80	50.0%	160	17.4%	21	72.4%	8	27.6%	29	3.1%
수영	49	45.8%	58	54.2%	107	11.6%	34	60.7%	22	39.3%	56	6.1%
체조	6	30.0%	14	70.0%	20	2.2%	14	41.2%	20	58.8%	34	3.7%
레슬링	12	66.7%	6	33.3%	18	2.0%	32	72.7%	12	27.3%	44	4.8%
복싱	10	76.9%	3	23.1%	13	1.4%	20	76.9%	6	23.1%	26	2.8%
역도	6	60.0%	4	40.0%	10	1.1%	14	53.8%	12	46.2%	26	2.8%
유도	12	50.0%	12	50.0%	24	2.6%	18	50.0%	18	50.0%	36	3.9%
양궁	3	50.0%	3	50.0%	6	0.7%	12	50.0%	12	50.0%	24	2.6%
사격	18	60.0%	12	40.0%	30	3.3%	39	60.9%	25	39.1%	64	6.9%
배구	16	50.0%	16	50.0%	32	3.5%	16	50.0%	16	50.0%	32	3.5%
핸드볼	14	50.0%	14	50.0%	28	3.0%	22	50.0%	22	50.0%	44	4.8%
하키	16	50.0%	16	50.0%	32	3.5%	24	50.0%	24	50.0%	48	5.2%
탁구	3	50.0%	3	50.0%	6	0.7%	10	50.0%	10	50.0%	20	2.2%
펜싱	8	50.0%	8	50.0%	16	1.7%	24	50.0%	24	50.0%	48	5.2%
테니스	6	50.0%	6	50.0%	12	1.3%	6	50.0%	6	50.0%	12	1.3%
사이클	19	51.4%	18	48.6%	37	4.0%	19	61.3%	12	38.7%	31	3.4%
조정	26	56.5%	20	43.5%	46	5.0%	10	50.0%	10	50.0%	20	2.2%
요트	8	53.3%	7	46.7%	15	1.6%	16	69.6%	7	30.4%	23	2.5%
배드민턴	8	50.0%	8	50.0%	16	1.7%	20	50.0%	20	50.0%	40	4.3%
태권도	4	50.0%	4	50.0%	8	0.9%	16	50.0%	16	50.0%	32	3.5%
근대5종	2	50.0%	2	50.0%	4	0.4%	8	50.0%	8	50.0%	16	1.7%
축구	18	50.0%	18	50.0%	36	3.9%	18	50.0%	18	50.0%	36	3.9%
아이스하키	25	52.1%	23	47.9%	48	5.2%	25	52.1%	23	47.9%	48	5.2%
빙상	24	50.0%	24	50.0%	48	5.2%	26	48.1%	28	51.9%	54	5.9%
바이애슬론	6	50.0%	6	50.0%	12	1.3%	8	50.0%	8	50.0%	16	1.7%
스키	64	51.6%	60	48.4%	124	13.5%	33	66.0%	17	34.0%	50	5.4%
컬링	6	50.0%	6	50.0%	12	1.3%	6	50.0%	6	50.0%	12	1.3%
합계	469	51.0%	451	49.0%	920	100%	511	55.5%	410	44.5%	921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 **종목별 후보선수의 전체 성비는 남성이 11.8%p 높으나 종목에 따라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종목도 있음**

- 전체 후보선수 현황(1,267명)에서 남성 후보선수는 전체의 55.9%, 여성 후보선수는 전체의 44.1%로 남성 후보선수 비율이 여성 후보선수보다 11.8%p 더 높았음
- 남성 후보선수의 비율과 여성 후보선수의 비율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요트(1.70%p)이며, 남성과 여성 후보선수가 모두 존재하는 종목에서 여성 후보선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 후보선수의 비율보다 더 높은 종목은 체조(0.5%p)인 것으로 나타남

〈표 61〉 종목별 후보선수 현황(2017)

(단위: 명, %)

종목	합계	비율	남성		여성	
			후보선수 수	비율	후보선수 수	비율
육상	135	10.7%	77	57.0%	58	43.0%
수영	118	9.3%	62	52.5%	56	47.5%
체조	60	4.7%	27	45.0%	33	55.0%
레슬링	50	3.9%	42	84.0%	8	16.0%
복싱	32	2.5%	26	81.3%	6	18.8%
역도	30	2.4%	18	60.0%	12	40.0%
유도	48	3.8%	24	50.0%	24	50.0%
양궁	40	3.2%	20	50.0%	20	50.0%
사격	84	6.6%	49	58.3%	35	41.7%
배구	36	2.8%	18	50.0%	18	50.0%
핸드볼	48	3.8%	24	50.0%	24	50.0%
하키	48	3.8%	24	50.0%	24	50.0%
탁구	32	2.5%	16	50.0%	16	50.0%
펜싱	48	3.8%	24	50.0%	24	50.0%
테니스	24	1.9%	12	50.0%	12	50.0%
사이클	40	3.2%	25	62.5%	15	37.5%
조정	30	2.4%	16	53.3%	14	46.7%
요트	29	2.3%	25	86.2%	4	13.8%
배드민턴	60	4.7%	30	50.0%	30	50.0%
태권도	48	3.8%	24	50.0%	24	50.0%
근대5종	15	1.2%	10	66.7%	5	33.3%
축구	30	2.4%	0	0.0%	30	100.0%
아이스하키	23	1.8%	23	100.0%	0	0.0%
빙상	78	6.2%	42	53.8%	36	46.2%
바이애슬론	18	1.4%	9	50.0%	9	50.0%
스키	53	4.2%	36	67.9%	17	32.1%
컬링	10	0.8%	5	50.0%	5	50.0%
합계	1,267	100.0%	708	55.9%	559	4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다. 체육분야 6개 공공기관

□ 고위직일수록 남성이, 불안정한 고용형태(계약직 등)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체육분야 6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직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임원 및 1급~4급까지의 고위직은 남성의 비율이 평균 80.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여성의 경우 무기계약직 비율(55.0%)이 정규직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여성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무기계약직 중 여성의 비율이 2017년과 2018년은 60.0%에서 2019년 2/4분기에는 55.0%로 나타나,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2〉 체육분야 공공기관 직급별 인원수(2019년 2/4분기 기준)

(단위: 명, %)

구분	직급 구분	직제상 정원	현원					
			현원 계		남성		여성	
종합	임원	13	13	100%	10	77.0%	3	23.0%
	1급	32	33	100%	30	91.0%	3	9.0%
	2급	89	89	100%	83	93.0%	6	7.0%
	3급	217	208	100%	174	84.0%	34	16.0%
	4급	433	428.87	100%	253	59.0%	175.87	41.0%
	5급	1032	1055.93	100%	459	43.0%	596.93	57.0%
	6급	531	394.75	100%	253	64.0%	141.75	36.0%
	무기계약	2,345	2,056.16	100%	929.73	45.0%	1,126.43	55.0%
인원수 총합계		4,692	4,278.71	100%	2,191.73	51.0%	2,086.98	49.0%

자료: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 재구성

〈표 63〉 체육분야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수(2017~2018)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7년과 2018년 정규직수	5,621	100%	3,362	60.0%	2,254	40.0%
2017년과 2018년 무기계약직수	2,622.46	100%	1,055.92	40.0%	1,565.55	60.0%

자료: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 재구성

□ 체육분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청년인턴 채용현황 성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68.0%p 높음

- 2017년과 2018년 신규채용 현황에 따르면 남성(84.0%)의 비율이 여성(16.0%) 보다 68.0%p 높게 나타남. 또한, 청년인턴 채용현황 역시 모든 채용유형(체험형, 채용형)에서 남성인턴의 비중이 70%이상으로, 여성보다 높았음

〈표 64〉 체육분야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2017~2018)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7년과 2018년 신규채용자수	989	100%	827	84.0%	162	16.0%

자료: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 재구성

〈표 65〉 체육분야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현황(2017~2018)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체험형		채용형		체험형		채용형		체험형		채용형	
2017년과 2018년 청년인턴 채용수	1,866	100%	17	100%	1,310	70.0%	13	76.0%	556	30.0%	4	24.0%

자료: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를 연구자 재구성

□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여성 임직원의 비율은 44.7%로 남성 임직원 수와 유사한 비율로 상승함

- 체육분야의 대표적 6개 공공기관 임직원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5,474명으로 2016년 (4,541명) 대비 20.5% 증가하였음
- 그에 따라 여성 임직원의 수도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18년 여성 임직원의 비율은 3.9%p 증가함. 2016년 남성 59.2%, 여성 40.8%였던 것이 2018년에는 남성 55.3%, 여성 44.7% 수준으로 확인됨

〈표 66〉 체육분야 6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2016~2018)

(단위: 명)

구분		계		남성		여성	
체육분야 6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	2016	4,541	100%	2,690	59.2%	1,851	40.8%
	2017	5,269	100%	3,364	63.9%	1,905	36.2%
	2018	5,474	100%	3,027	55.3%	2,447	44.7%

자료: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를 연구자 재구성

라. 체육분야 교원인력

□ 교원 수의 경우 교육기관 전반에서 남성교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등교육 남성교원과 여성교원의 비율은 80:2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15년부터 3년간 평균 교원수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여성 교원수는 53명으로 남성 교원수(240명)보다 64.0%p 낮은 것으로, 대학교의 여성 교원수는 312명으로 남성 교원수(1,249명)보다 60.0%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 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대학원의 여성 교원수(26명)는 36.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67〉 체육분야 전문대학교 교원수(2015~2017)

(단위: 명, %)

년도	학과수	교원수					
		합계		남		여	
2015	238	286	100%	233	81.0%	53	19.0%
2016	254	291	100%	237	81.0%	54	19.0%
2017	245	300	100%	249	83.0%	51	17.0%
평균 고용수	246	293	100%	240	82.0%	53	1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체육계열 전문대학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참조

※ 주: 교육대학,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 각종대학(대학), 원격대학(대학), 사내대학(대학), 사이버대학(대학)이 포함됨

〈표 68〉 체육분야 대학교 교원수(2015~2017)

(단위: 명, %)

년도	학과수	교원수					
		합계		남		여	
2015	473	1,489	100%	1,190	80.0%	299	20.0%
2016	501	1,548	100%	1,239	80.0%	309	20.0%
2017	579	1,639	100%	1,310	80.0%	329	20.0%
평균 고용수	518	1,559	100%	1,246	80.0%	312	2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체육계열 대학교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참조

※ 주: 교육대학,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 각종대학(대학), 원격대학(대학), 사내대학(대학), 사이버대학(대학)이 포함됨

〈표 69〉 체육분야 대학원 교원수(2015~2017)

(단위: 명, %)

년도	학과수		교원수					
	석사	박사	합계		남		여	
2015	276	114	73	100%	47	64.0%	26	36.0%
2016	337	122	82	100%	52	63.0%	30	37.0%
2017	337	121	78	100%	50	64.0%	28	36.0%
평균 고용수	317	119	77	100%	50	63.7%	26	36.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체육계열 대학원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참조

※ 주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 스포츠계의 여성 지도자와 선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⁵⁸⁾

- 2011년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의 실태’를 파악한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56개 가맹경기 단체에 등록된 감독과 코치 중 남녀 성비는 84:16으로 남자코치가 5.25배 많음. 선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남성 코치의 비중이 높아져, 여성 지도자 1명 당 남성 지도자 수는 고등부에서 6.37배, 일반부에서 9.31배로 높아짐
-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등을 수상한 사람은 총 1,122명이었으며, 남녀 성비는 80:20로 남성비율이 여성비율보다 현저히 높아 스포츠분야의 여성지도자와 선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임

4. 노동환경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서 상용근로자는 임시·일용근로자보다 월평균 약 79시간 더 근무함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인력의 전체 월 평균 근로시간인 160.3시간과 비교해, 상용근로자는 10%p(16시간) 더 많이, 임시·일용근로자는 49%p(62.6시간) 더 적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0〉 체육 관련 사업 월평균 총 근로시간(2017)

(단위: 시간)

분류	전체 (상시, 임시·일용, 기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60.3	176.3	97.7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58) 대한체육회 체육모델 스포츠원(2017.08.04.). “‘양성평등과 젠더밸런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가. 체육관련 6개 공공기관 평균 근속연수 및 육아휴직제도

□ 전체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3년인데 비해 여성은 10.4년 수준을 보임

- 2017년~2018년 기준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3년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12.7년, 여성은 10.4년 근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71〉 체육분야 공공기관 종사자의 평균근속연수(2017~2018)

(단위: 년,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7·2018년 평균 근속연수	12.3	100%	12.7	104.0%	10.4	85.0%

자료: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 재구성

□ 육아휴직제도의 사용률은 여성이 85.0%로 남성보다 사용 비율이 높은 편임

- 2016년~2018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5.0%로 남성의 사용률(15.0%)보다 70.0%p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제도의 주 사용자는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72〉 체육분야 공공기관 육아휴직제도사용자 수(2017~2018)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7·2018년 사용자수 총합	925	100%	143	15.0%	781	85.0%

자료: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 재구성

나. 성폭력실태

□ 일반 선수의 성폭력 피해 조사 결과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11.3%p 높게 나타남

- 일반 선수의 유형별 성폭력 피해조사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 중 남성의 비율(55.7%)이 여성의 비율(44.3%)보다 11.3%p 더 높았음
- 성폭력 경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성희롱 피해(70.0%)이며, 이 중 남성의 피해가 59.2% 여성의 피해가 40.8%로 나타남
- 가장 높은 성비차이를 나타낸 유형은 강간 피해로, 전체 강간 피해 중 남성이 75.0%로 여성 25.0% 보다 50.0%p 더 높았음, 다만 강간 피해의 경우 다른 유형 대비 외부로 알리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움

〈표 73〉 일반선수 유형별 성폭력 피해(2018)

(단위: 명, %)

구분	유						무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합	39	55.7%	31	44.3%	70	100.0%	2385	76.2%	746	23.8%	3131	100.0%
성희롱피해	29	59.2%	20	40.8%	49	70.0%	779	76.4%	241	23.6%	1020	32.6%
성추행피해	7	41.2%	10	58.8%	17	24.3%	801	76.6%	245	23.4%	1046	33.4%
강간 피해	3	75.0%	1	25.0%	4	5.7%	805	75.6%	260	24.4%	1065	34.0%

자료: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일반선수는 초·중·고·대·실업팀 소속으로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선수를 기준

□ 국가대표 선수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약 91%가 여성임

-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한 유형별 성폭력 피해조사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 중 여성의 비율(90.9%)이 남성의 비율(9.1%)보다 81.8%p 더 높음
- 성희롱, 성추행 피해 역시 모두 여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성희롱의 경우 여성(85.7%)이 남성(14.3%) 보다 71.4%p 많았으며,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응답자 전수가 여성으로 나타남
- 일반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수의 차이로 인해 두 집단 간 성폭력 피해자 수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선수의 성비차(11.3%p)보다 국가대표 선수의 성비차(81.8%p)가 더 높았으며, 특히 국가대표 여성 선수의 피해비율(90.9%)은 일반 여성 선수의 피해비율(44.3%) 보다 50.6%p 더 높았음

〈표 74〉 국가대표 선수 유형별 성폭력 피해(2018)

(단위: 명, %)

구분	유						무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총합	1	9.1%	10	90.9%	11	100.0%	968	54.4%	811	45.6%	1779	100.0%
성희롱피해	1	14.3%	6	85.7%	7	63.6%	322	54.5%	269	45.5%	591	33.2%
성추행피해	0	0.0%	4	100.0%	4	36.4%	323	54.4%	271	45.6%	594	33.4%
강간 피해	0	0.0%	0	0.0%	0	0.0%	323	54.4%	271	45.6%	594	33.4%

자료: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국가대표 선수는 2018년 아시안게임 및 각종 국제대회 준비를 위해 입촌한 강화훈련 대상 전체를 기준

다. 스포츠관련 비리

□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신고 건 중 조직사유화(33%)에 관한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음

-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는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학비리, 승부조작)을 중심으로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사유가 명시된 비리 신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조직사유화(33%)인 것으로 나타남
- 입학비리(3.0%), (성)폭력(4.0%)과 같은 권력형 폭력(power harassment)이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유형의 신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신고 건들에 대한 수사 후 검찰송치는 모두 미확정임

〈표 75〉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사건처리 현황(2017.12 기준)

(단위: 건)

구분	조직사유화	(성)폭력	입학비리	승부조작	기타	합계
조사 중	51	3	8	20	94	176
종결	170	17	13	43	211	454
종결(수사의뢰)	1	-	1	1	13	16
종결(처분요구)	26	10	-	22	45	103
종결 (수사 후 검찰송치)	1	-	-	1	4	6
합계	249	30	22	87	367	755
	33%	4%	3%	12%	48%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주: 조직사유화는 횡령·배임, 승부조작은 편파판정 포함

제4절 관광분야 성인지 정책환경

□ [관광분야의 개념 및 범위]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를 분류 및 정의하고 있음

- 세계관광기구(WTO : World Travel Organization)(1982)는 관광을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사업·업무, 친구·친지방문,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목적(이주, 취업 제외)으로 자국을 떠나 24시간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관광 목적지를 방문·체재하는 행위로 정의함
-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함.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나누어짐

□ [관광분야 지원 및 성인지 관련 주요 현황] 성인지 관련 조사 및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은 문체부 내 관광정책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하위의 과 단위(관광정책과, 국내관광진흥과, 국제관광과, 관광기반과, 관광산업정책과, 융합관광산업과, 관광개발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관광분야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대표적이며, 공사에서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 문화센터에 따르면 현재 관광 관련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현황은 문체부 관광정책과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체로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외래 관광객 조사」, 그리고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등 총 3개의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가 있음. 이 중 매년 실시하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관광분야 7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일반현황, 영업현황,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하였고, 일부 문항에서 성별을 구분한 통계자료를 다루고 있음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관광·레저산업계의 인력수급 실태분석을 위한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산업의 업종별 종사자들의 고용형태, 종사자 분포 등의 문항에서 남녀 성비를 다루고 있으나, 직급별·임금수준별 분포에 따라 성비를 구분한 조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1. 시장진입 과정 및 현황

□ [관광산업 종사자 수]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약 53만 명,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는 28만 명으로 집계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시행한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 일자리조사」에 따르면, 2018년 관광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총 529,013명이며 이 중 여성 종사자 수는 265,848명(47.6%)로 나타남⁵⁹⁾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관광산업 종사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은 280,27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015년 대비 19.5%, 2016년 대비 7% 증가한 수치임
- 업종별 종사자수는 여행업(10만명), 관광숙박업(7만명), 관광편의시설업(3만명), 유원시설업(3만명), 관광객 이용시설업(2만명), 국제회의업(1만명), 카지노업(7천명) 순이며, 2015년 대비 증가율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130.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유원시설업(60.0%), 여행업(26.7%) 순으로 높았음
- 전 업종 종사자 280,270명 중 남성은 155,323명으로 55.4%이었으며, 여성은 24,948명으로 44.6%의 비율을 보여 두 성별 간 10.8%p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 관광사업체 종사자 280,270명 중 여행업 종사자의 비율이 37.9%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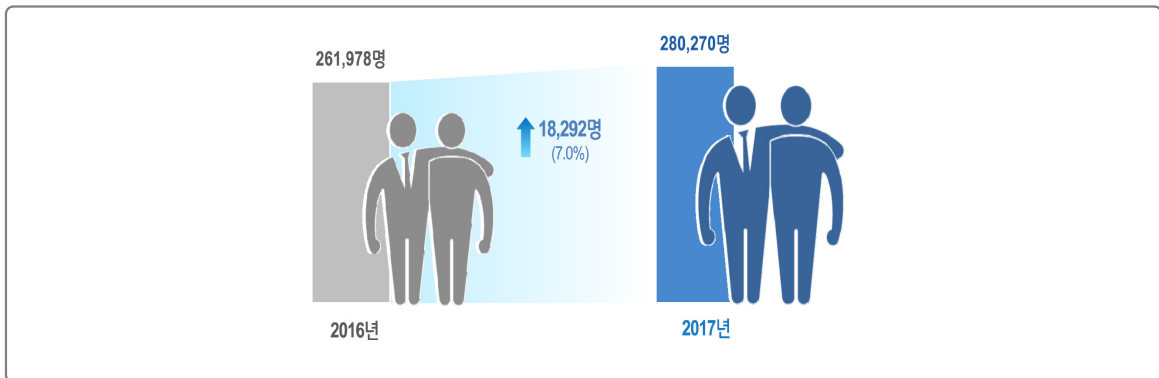
-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 종사자의 규모는 2015년 약 24만 명에서 2017년 약 28만 명으로 증가하여 7.0%p의 증가율을 보임
-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관광산업 종사자 중에서 여행업 종사자는 37.9%, 관광 숙박업 25.4%, 관광편의시설업 10.3%, 유원시설업 9.8%, 관광객 이용시설업 9.0%, 국제회의업 5.1%, 카지노업 2.5% 구성을 보임

59) 송철재(2019),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 일자리조사 결과”, 웹진 문화관광, 2019년 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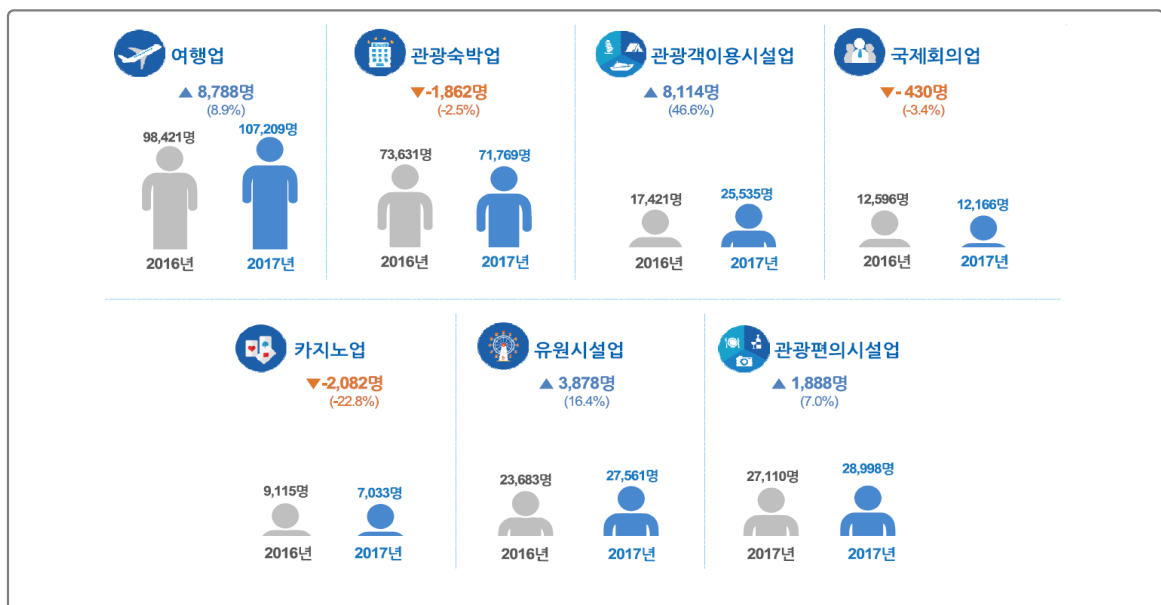
〈표 76〉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2015~2017)

구분	종사자 수				구성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전체	235,604	261,978	280,270	7.0	100.0	100.0	100.0	-
여행업	84,558	98,421	107,209	8.9	35.9	37.6	37.9	0.4
관광숙박업	70,305	73,631	71,769	-2.5	29.8	28.1	25.4	-2.7
관광객 이용시설업	11,065	17,421	25,535	46.6	4.7	6.6	9.0	2.4
국제회의업	15,131	12,596	12,166	-3.4	6.4	4.8	5.1	0.3
카지노업	9,418	9,115	7,033	-22.8	4.0	3.5	2.5	-1.0
유원시설업	17,224	23,683	27,561	16.4	7.3	9.0	9.8	0.7
관광편의시설업	27,902	27,110	28,998	7.0	11.8	10.3	10.3	-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28] 관광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



[그림 29] 관광사업체 업종별 종사자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전공자 전체 취업률이 51.4%인데 비해,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은 77.8%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2017년 기준 관광분야 전공 졸업자 8,483명 중 취업자는 4,362명으로, 취업률은 약 51.4%인 것으로 나타남. 이 중 남성은 약 22%, 여성은 약 78%로, 여성의 취업률이 더 높았음
- 교육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자 6,077명 중 51.1%(3,103명)가 취업자이며, 이 중 여성 취업자는 79.8%(2,476명)을 차지함. 대학교 졸업자 2,239명 중의 취업자는 52.7%(1,180명)이며, 그 중 여성 취업자가 73.7%(870명), 산업대학 졸업자 27명 중 취업자는 17명이며, 이 중 여성 취업자는 76.5%(13명)의 비중임

〈표 77〉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관광전공자 취업현황(2017)

(단위: 명, %)

	졸업자						취업자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총계	8,483	100	1,877	22	6,606	78	4,362	100	969	22	3,393	78
전문대학	6,077	100	1,280	21	4,797	79	3,103	100	627	20	2,476	80
대학교	2,239	100	544	24	1,695	76	1,180	100	310	26	870	74
산업대학	27	100	5	19	22	81	17	100	4	24	13	76
각종학교	-	-	-	-	-	-	-	-	-	-	-	-
기능대학	-	-	-	-	-	-	-	-	-	-	-	-
일반대학원	140	100	48	34	92	66	62	100	28	45	34	55

자료: 교육부,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2. 경제활동 현황

□ **관광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29만 원이며, 여성 종사자는 20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⁶⁰⁾**

- 관광산업 전체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29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타 산업(문화예술 산업,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대비 낮았으며, 관광산업 여성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만원 수준임
- 2018년 6월 기준 상용 근로자의 임금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180만원~210만 원 미만이 25.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210만 원~240만 원 미만(20.6%), 300만 원 이상(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60) 송철재(2019),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 일자리조사 결과”, 웹진 문화관광, 2019년 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78〉 관광산업 전체 상용 근로자 임금구간별 분포(2018)

구분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180만 원 미만	180만 원~ 210만 원 미만	210만 원~ 240만 원 미만	240만 원~ 270만 원 미만	270만 원~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관광산업	1.2%	12.6%	25.0%	20.6%	13.7%	10.0%	16.9%

자료: 송철재(2019),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 일자리조사 결과”, 웹진 문화관광, 2019년 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광산업 안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의 차이가 큼

- 관광산업분야 전체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약 230만 원이었고, 분야별 임금은 국제회의 및 전시업(약 280만원)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여행사업 및 관광운수업(약 270만원), 관광쇼핑업(약 260만원), 문화오락 및 레저산업(약 240만원), 관광숙박업 및 식당업(약 210만원) 순으로 나타남
-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합한 전체 근로자 중 2.4%의 비율인 약 2천 3백만 명이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음. 최저임금 미만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관광숙박업 및 식당업(6.1%)이며, 이어서 문화오락 및 레저산업(3.2%), 여행사업 및 관광운수업(1.8%), 관광쇼핑업(0.9%), 국제회의 및 전시업(0.2%)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임시·일용직의 근로자의 13.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야별 최저임금 미만자 수의 비율은 관광숙박업 및 식당업(17.2%), 관광쇼핑업(16.5%), 여행사업 및 관광운수업(12.3%), 문화오락 및 레저산업(8.2%), 국제회의 및 전시업(0.3%) 순으로 높았음

〈표 79〉 관광 관련 산업 최저임금 미만율(2017)

(단위: 천원, 천명, %)

분류	전체 1인당 월 평균 임금	전체(상용+임시·일용)		임시·일용	
		최저임금미만자수	비율	미만자수	비율
관광산업 소계	2,298	22,911	4.3%	15,020	13.8%
관광숙박업 및 식당업	2,100	16,778	6.1%	11,188	17.2%
여행사업 및 관광운수업	2,654	1,976	1.8%	43.4	12.3%
문화오락 및 레저산업	2,364	3,999	3.2%	3,264	8.2%
관광쇼핑업	2,607	147	0.9%	13	16.5%
국제회의 및 전시업	2,808	11	0.2%	1	0.3%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3. 고용구조 및 고용현황

□ 관광사업체 전반 남성 비율이 높으며,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7년 전체 관광사업체의 고용형태별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은 자영업자(61.30%)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의 비율은 무급가족종사자(61.0%) 집단에서 가장 높았음

〈표 80〉 관광사업체 고용형태별 성비(2015~2017)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남성	135,928	57.7%	149,637	57.1%	155,323	55.4%
	여성	99,676	42.3%	112,340	42.9%	124,948	44.6%
	전체	137,943	100.0%	151,653	100.0%	157,340	100.0%
자영업자	남성	6,699	63.4%	7,557	60.5%	8,465	61.3%
	여성	3,862	36.6%	4,929	39.5%	5,334	38.7%
	전체	144,642	100.0%	165,922	100.0%	165,805	100.0%
무급가족종사자	남성	1,478	40.9%	1,558	36.1%	1,977	39.0%
	여성	2,140	59.1%	2,752	63.9%	3,098	61.0%
	전체	146,120	100.0%	167,480	100.0%	167,782	100.0%
상용근로자	남성	104,268	58.4%	113,322	58.3%	115,180	57.3%
	여성	74,288	41.6%	81,112	41.7%	85,847	42.7%
	전체	250,388	100.0%	280,802	100.0%	282,962	100.0%
임시 및 일용근로자	남성	20,862	55.0%	22,301	50.8%	26,651	50.0%
	여성	17,068	45.0%	21,583	49.2%	26,639	50.0%
	전체	271,250	100.0%	303,103	100.0%	309,613	100.0%
기타종사자	남성	2,621	53.1%	4,899	71.4%	3,050	43.1%
	여성	2,317	46.9%	1,965	28.6%	4,030	56.9%
	전체	273,871	100.0%	308,002	100.0%	312,663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관광사업체의 여성의 신규채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성비 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임

- 관광사업체의 신규 채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에는 약 41,571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는 2015년 대비 16.6% 증가한 수치임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광사업체 전체 신규 채용자 수 중 여성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 기준 남성의 비율은 53.3%, 여성은 46.7%임
- 신규 채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64.3%),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제회의업(56.4%)으로 나타남

〈표 81〉 관광사업체 신규 채용자 수(201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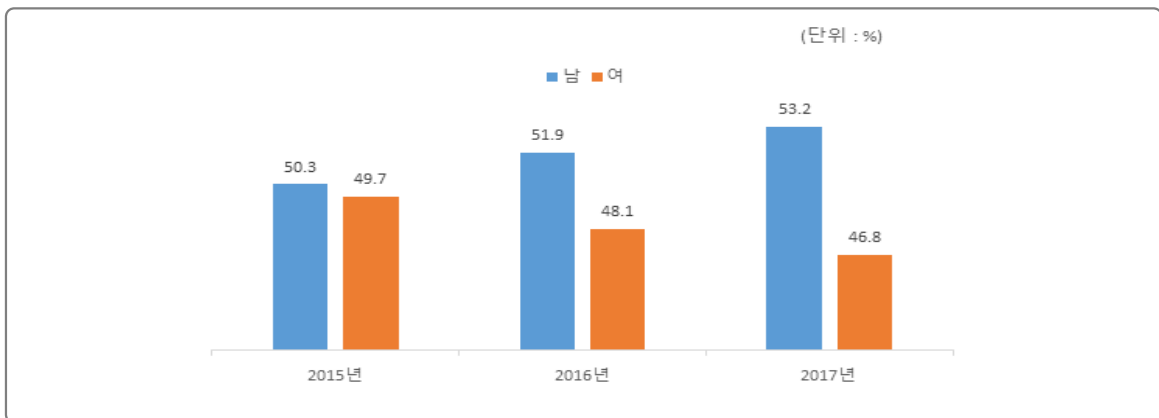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신규 채용자 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017년	41,571	22,149	53.3%	19,422	46.7%
	2016년	40,033	21,087	52.7%	18,947	47.3%
	2015년	35,641	18,603	52.2%	17,037	47.8%
전체 총합		117,245	61,839	53%	55,406	47%
여행업	2017년	15,492	8,586	55.4%	6,906	44.6%
	2016년	13,314	7,234	54.3%	6,080	45.7%
	2015년	10,442	5,227	50.1%	5,215	49.9%
관광 숙박업	2017년	15,235	7,853	51.5%	7,382	48.5%
	2016년	13,293	7,106	53.5%	6,187	46.5%
	2015년	11,934	6,553	54.9%	5,381	45.1%
관광객 이용 시설업	2017년	2,038	1,310	64.3%	728	35.7%
	2016년	1,188	688	57.9%	500	42.1%
	2015년	1,669	937	56.1%	732	43.9%
국제 회의업	2017년	2,336	1,019	43.6%	1,317	56.4%
	2016년	2,307	1,138	49.3%	1,170	50.7%
	2015년	2,380	1,213	51.0%	1,167	49.0%
카지노업	2017년	775	392	50.6%	383	49.4%
	2016년	753	398	52.9%	355	47.1%
	2015년	1,144	638	55.8%	506	44.2%
유원 시설업	2017년	2,318	1,324	57.1%	995	42.9%
	2016년	2,532	1,200	47.4%	1,331	52.6%
	2015년	2,514	1,393	55.4%	1,121	44.6%
관광편의 시설업	2017년	3,377	1,664	49.3%	1,712	50.7%
	2016년	6,646	3,322	50.0%	3,324	50.0%
	2015년	5,557	2,642	47.5%	2,915	5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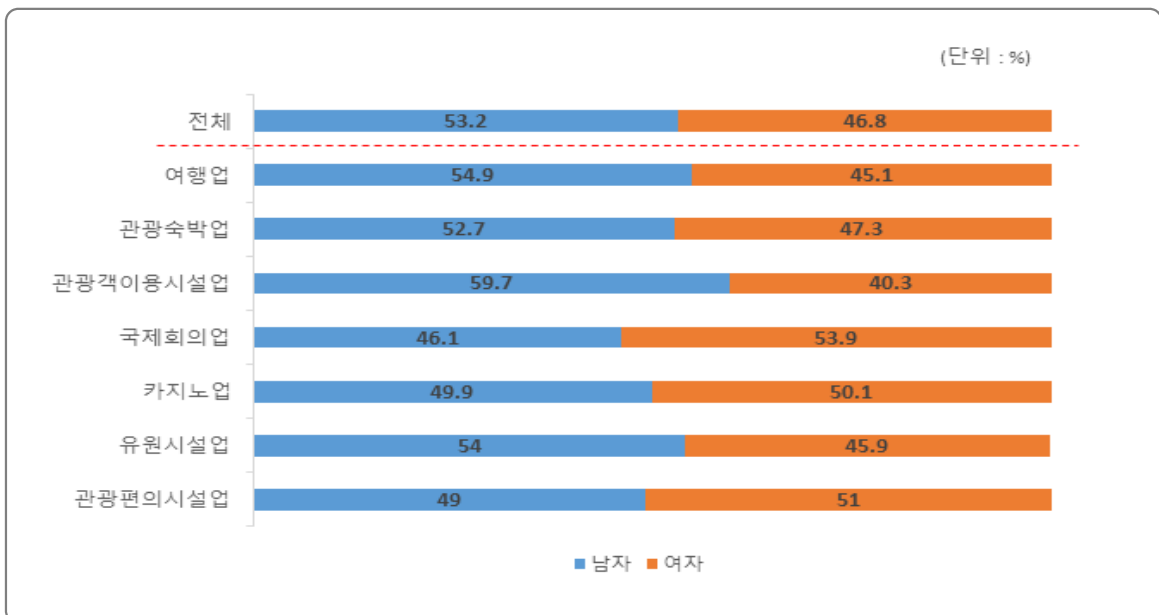
□ 관광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중 이직자 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함

-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중 이직자 수는 33,302명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이 중 남자는 17,711명(53.2%), 여자는 15,591명(46.8%)로 조사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편의시설업과 유원시설업의 이직자 수 감소율이 각 56.4%, 25.6%로 다소 높았고, 카지노업 및 국제회의업의 이직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여행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의 이직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함



[그림 30] 관광사업체 이직자 성별 구성비 추이(2015~20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1] 관광사업체 업종별 이직자 성별 구성비(20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4. 노동환경

□ 관광산업 분야 전체 종사자는 1인당 월평균 19.9일, 152.8시간을 근무함

- 2018년 6월 기준 소정근로일수 19일(주5일제) 및 소정 근로시간 8시간과 비교했을 때, 관광산업 종사자의 1인당 월평균 실제 근로일수는 19.9일,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2.8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이 타 업종 대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광사업체 중 남성 대표자 사업체(69.8%) 비율이 여성 대표자 사업체(28.7%)보다 41.1%p 높음

- 2017년 관광사업체 33,089개의 대표자의 성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69.8%,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28.7%(9,507개)이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1.5%(494개)임
- 여성 대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유원시설업’(40.3%)이었으며, 이어서 ‘관광편의 시설업’ (33.8%), ‘관광객 이용시설업’(29.5%), ‘여행업’(27.3%)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2017년 기준)

□ 관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공식적인 불공정 거래 조사는 부족한 상황임

- 공공기관의 경우 각 지방관광공사, 공공기업 개별 신고센터 혹은 문체부를 주체로 채용비리를 조사 감시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체의 행정적 불공정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심결법 위반사실 조치가 가능하나 2015년 이후의 관광 관련 등록 건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82〉 관광사업체 대표자 성별 현황(2015~2017)

(단위: 명, %)

구분		관광사업체 수						
		전체	남성 대표자		여성 대표자		공동대표 사업체	
전체	2017년	33,089	23,087	69.8%	9,507	28.7%	494	1.5%
	2016년	27,696	19,275	69.6%	8,083	29.2%	339	1.2%
	2015년	23,874	17,058	71.5%	6,568	27.5%	248	1.0%
여행업	2017년	19,944	14,252	71.5%	56,447	27.3%	245	1.2%
	2016년	16,605	11,961	72.0%	4,557	27.3%	87	1.2%
	2015년	14,607	10,865	74.4%	3,652	25.0%	90	0.6%
관광 숙박업	2017년	1,843	1,399	75.9%	351	19.0%	93	5.0%
	2016년	1,716	1,339	78.0%	299	17.4%	78	4.5%
	2015년	1,503	1,161	77.2%	276	18.4%	66	4.4%
관광객 이용 시설업	2017년	3,963	2,759	69.6%	1,168	29.5%	36	0.9%
	2016년	3,168	2,095	66.1%	1,039	32.8%	35	1.1%
	2015년	1,213	962	79.3%	242	20.0%	8	0.7%
국제 회의업	2017년	890	677	76.1%	202	22.7%	11	1.2%
	2016년	700	530	75.7%	163	23.3%	7	1.0%
	2015년	619	477	77.1%	136	22.0%	5	0.8%
카지노업	2017년	17	17	100.0%	0	0.0%	0	0.0%
	2016년	17	17	100.0%	0	0.0%	0	0.0%
	2015년	17	17	100.0%	0	0.0%	0	0.0%
유원 시설업	2017년	2,548	1,496	58.7%	1,028	40.3%	24	0.9%
	2016년	1,782	1,100	61.7%	676	37.9%	6	0.3%
	2015년	1,060	659	62.2%	395	37.3%	6	0.6%
관광편의 시설업	2017년	3,884	2,487	64.0%	1,311	33.8%	86	2.2%
	2016년	3,708	2,233	60.2%	1,348	36.4%	126	3.4%
	2015년	4,855	2,916	60.1%	1,866	38.4%	73	1.5%

자료: 2015~2017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연구자 재구성

제5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 통계 DB

1.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DB 개요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만으로는 이 분야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통계청 빅데이터센터의 자료를 조사함

-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유관기관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의 종사자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체육이나 관광 분야는 종사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조사 자체가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종사자의 산업 분류를 통해 종사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통계청 빅데이터센터의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실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통계청 빅데이터센터의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개정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의 통계를 확인함

- 현재 문화, 체육, 관광 산업에 대한 세부 산업 분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어느 곳을 통해서도 공표된 바가 없음
- 통계청의 통계빅데이터센터로부터 데이터베이스(기업등록부 DB, 종사자 DB)를 제공받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산업분류를 적용하여 통계를 분석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활용하는 통계 분류에서 표준산업분류상 ‘출판업’이 예술산업과 문화산업에 동시에 포함되거나, 문화산업 내 ‘저작권 산업’이 예술산업 내 몇몇 산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산업 특성상 분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다음의 표와 같이 데이터를 살펴봄

〈표 8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체육관광 산업 분류

산업	세부 분류	
예술산업	문학 및 출판 산업	문학, 출판
	공연 산업	연극, 무용, 음악, 기타 공연, 공연 관련 산업
	시각예술 산업	미술, 디자인, 사진, 공예, 전시 서비스업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	출판산업	출판업, 인쇄업, 출판 도소매업, 온라인 출판 유통업, 출판 임대업
	만화산업	만화출판업,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음악산업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 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 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영화산업	영화 제작, 지원, 및 유통업, DVD/VHS 제작 및 유통업
	게임산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게임 유통업, 게임 도소매 및 임대업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방송산업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 방 송영상물제작업,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방송영상물 배급 및 중개업, 방송관련 단체
	캐릭터산업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 상품 유통업, 캐릭터 놀이시설 운영업, 캐릭터 상품 온라인 유통업
	지식정보산업	E-Learning 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콘텐츠솔루션산업	콘텐츠솔루션산업,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광고산업	광고 창작업, 광고 유통업, 광고 관련 서비스업, 광고 인프라업
	저작권	사진, 시각과 그래픽아트
스포츠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관광	핵심 관광산업	관광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오락 및 레저 스포츠 산업, 카지노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관광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레저장비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자동차 제외 소매업), 부분관광 운송업(철도, 버 스, 택시 등), 부분관광 수상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 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관광지원산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 단체

주석: 기업등록부 DB를 활용한 통계에 동일한 분류 적용

〈표 8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체육관광 산업 분류를 통계청 종사자 DB에 적용한 산업 분류

산업	세부 분류	산업	세부 분류
문화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스포츠 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기타 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출판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기타 제품 제조업
	방송업		종합 건설업
	우편 및 통신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방송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관광산업	종합 건설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수상 운송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항공 운송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숙박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출판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정보서비스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보험 및 연금업
	가구 제조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기타 제품 제조업		연구개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사업 지원 서비스업
	출판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정보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주석: 종사자 DB를 활용한 통계에 위의 분류 적용

□ 산업 종사인력에 대한 통계인 ‘종사자 DB’는 현재 데이터 집계 수준에 비해 공공에 제공 가능한 분류 수준이 높지 않아 문화·체육·관광 산업 간 중복 값이 다수 존재함

- 문화·체육·관광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있는 특성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른 산업의 세부 분류로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다수임. 하지만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종사자DB는 중분류~소분류 수준이므로 세분류~세세분류 수준에서 확인 가능한 문화·체육·관광산업 데이터는 분리해서 보기 어려움
- 때문에 ① 출판업 등의 세부산업이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지표에 모두 포함되어 있거나 (중복 집계의 문제), ②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관련 세분류 산업을 포함한 소분류, 대분류 산업 지표를 확인해야 하는(과대 대표된 지표를 활용해야하는 문제) 어려움이 발생함

〈표 85〉 ①중복 집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군	좌측 산업군을 포함하여 집계하는 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문화	예술		
기타 제품 제조업	문화	예술	스포츠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문화	예술	스포츠	
소매업; 자동차 제외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출판업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문화	예술		
방송업	문화		스포츠	
우편 및 통신업	문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문화			
정보서비스업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전문 서비스업	문화		스포츠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사업 지원 서비스업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임대업; 부동산 제외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교육 서비스업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문화		스포츠	관광
협회 및 단체	문화			관광
기타 개인 서비스업	문화			관광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예술	스포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예술	스포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예술	스포츠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예술	스포츠	
종합 건설업			스포츠	관광

제공: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표 86〉 ②과대 대표된 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 사례-도매 및 상품 중개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1	상품 중개업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464	생활용품 도매업	4641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4642	신발 도매업
				4643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4644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4645	생활용 포장·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4646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9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6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467	기타 전문 도매업		
		468	상품 종합 도매업		

주석: 현재 공예산업에 속하는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4641)'과 음악·스포츠 산업에 포함되는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4646)'에 대한 지표를 분리해서 확인할 수 없고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으로만 확인 가능함

제공: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계청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종사자 DB는 통계청에서 2019년 9월 처음 공공에 개방한 자료로, 산업을 구성하는 전체 종사자에 관한 데이터임. 예술인, 운동선수 등 핵심 실연자 이외에 해당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로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통계를 모두 포함
- 지표별로 집계 인원에서 과대 대표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전체 종사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이번 분석연구에서 살펴본 것임

2. 통계 DB 분석 결과

□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전체 사업체 수는 250만 개, 종사자는 95만여 명으로 남성이 46%, 여성이 53% 비율임

-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사업체수가 종사자 수를 능가하며, 종사자 1명 당 평균 2.6개 사업체에 속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됨. 문화·체육·관광 산업 전체 종사자는 남성이 46% 여성이 53%로 여성의 비율이 7%p 가량 높음
- 산업별로는 문화산업과 예술산업에서의 남녀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며 관광산업은 여성이, 스포츠 산업은 남성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나, ‘3장 성인지 정책환경’의 통계값에서 모든 산업에서 남성 종사자가 다수였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국가 통계인 기업등록부 DB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있는 산업이 모두 함께 집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표 87〉 문화·체육·관광 산업 경영활동 총괄(2017년)

(단위: %)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매출액 (백만 원)	비고
		합계(명)	남(%)	여(%)		
문화체육관광산업	2,464,204	970,408	46.4	53.5	317,245,964	중복 제거
문화산업	598,180	201,875	49.1	50.8	68,932,650	
예술산업	480,298	190,369	51.1	48.8	63,846,845	
관광산업	2,739,994	1,191,036	38.0	61.9	374,928,105	
스포츠 산업	455,612	704,499	58.6	41.3	241,524,696	

주석: 문화체육관광산업(중복제거) 지표는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산업에서 중복으로 잡힌 값을 삭제한 값

제공: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기준: 기업등록부 DB

□ 문화·체육·관광 산업 전반적으로 근로형태가 불안정한 임시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음

- 문화산업 중 출판산업과 영화산업, 핵심광고산업에서 상용 종사자는 남성 비율이 높는데 임시 종사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예술 산업 중 공연분야는 상용·임시 상관없이 여성의 비율이,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고, 문학 및 출판 산업의 경우 상용종사자의 성비는 같지만, 임시종사자는 여성이 17% 가량 많음
- 관광산업 전체에서 상용·임시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대체로 안정성이 낮은 임시 종사자로 근무한 여성의 비율이 상용 종사자 여성의 비율보다 높음
- 스포츠산업 전체적으로 남성 종사자가 여성 종사자보다 많았으며 최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임시종사자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스포츠 서비스업의 경우 임시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다른 산업보다도 높게 나타남

〈표 88〉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 성별 비율(2017년)

(단위: %)

구분	세부 산업	상용 종사자		임시 종사자		구분	세부 산업	상용 종사자		임시 종사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문화 산업	출판산업	50.5	49.5	41.4	58.6	예술 산업	문학 및 출판	50.0	50.0	41.6	58.4
	만화산업	46.3	53.7	38.7	61.3		공연	38.4	61.6	34.8	65.2
	음악산업	45.1	54.9	39.3	60.7		시각예술	56.9	43.1	51.6	48.4
	영화산업	53.0	47.0	47.0	53.0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36.5	63.5	32.0	68.0
	게임산업	63.6	36.4	58.9	41.1	관광 산업	관광 쇼핑업	37.3	62.7	38.8	61.2
	애니메이션산업	44.1	55.9	39.1	60.9		상호의존 관광산업	37.1	62.9	32.7	67.3
	방송산업	44.2	55.8	42.2	57.8		부분적용 관광산업	38.2	61.8	37.7	62.3
	캐릭터산업	47.1	52.9	37.3	62.7		관광 지원산업	48.9	51.1	47.4	52.6
	지식정보산업	46.4	53.6	41.3	58.7	스포츠 산업	스포츠시설업	66.5	33.5	69.7	30.3
	콘텐츠솔루션산업	60.7	39.3	55.8	44.2		스포츠 용품업	53.4	46.6	56.4	43.6
	핵심저작권산업	54.5	45.5	57.0	43.0		스포츠 서비스업	61.8	38.2	52.3	47.7
	핵심광고산업	53.2	46.8	49.0	51.0						

제공: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기준: 기업등록부 DB

□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대표자 성별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음

- 문화산업 및 연관 산업 대표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66.5%, 여성이 33.5%로 두 배 가량 차이이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표자의 과반수가 남성임
- 예술산업과 스포츠산업 및 연관 산업의 대표자 성별은 예외없이 남성이 다수임
- 관광산업 역시 성비가 비슷한 음식점 및 주점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 대표자가 다수임

〈표 89〉 문화·체육·관광산업 대표자 성별 현황(2017)

(단위: %)

구분	세부 산업	대표자		구분	세부 산업	대표자	
		남	여			남	여
문화 산업	합계	66.5	33.5	스포츠 산업	합계	69.4	30.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8.7	2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75.5	24.5
	기타 제품 제조업	80.4	19.6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6.5	33.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73.6	26.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6.3	23.7
	소매업; 자동차 제외	59.4	40.6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4.9	15.1
	출판업	78.1	21.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3.9	16.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1.2	18.8		기타 제품 제조업	80.4	19.6
	방송업	84.3	15.7		종합 건설업	77.3	22.7
	우편 및 통신업	53.0	47.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73.6	26.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9.9	20.1		소매업; 자동차 제외	59.4	40.6
	정보서비스업	76.4	23.6		출판업	78.1	21.9
	전문 서비스업	87.2	12.8		방송업	84.3	15.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3	23.7		정보서비스업	76.4	23.6
	사업 지원 서비스업	72.2	27.8		전문 서비스업	87.2	12.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6	30.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3	23.7
	교육 서비스업	51.3	48.7		사업 지원 서비스업	72.2	27.8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1	39.9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6	30.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65.2	34.8		교육 서비스업	51.3	48.7
	협회 및 단체	72.7	27.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65.2	34.8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7	63.3				

구분	세부 산업	대표자		구분	세부 산업	대표자	
		남	여			남	여
예술 산업	합계	70.4	29.6	관광 산업	합계	55.6	44.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75.5	24.5		종합 건설업	77.3	22.7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6.5	33.5		소매업; 자동차 제외	59.4	40.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6.3	23.7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9.0	2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78.8	21.2		수상 운송업	72.2	27.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7.2	22.8		항공 운송업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8.7	21.3		숙박업	59.6	40.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6.3	23.7		음식점 및 주점업	49.4	50.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0.0	20.0		출판업	78.1	21.9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4.9	15.1		정보서비스업	76.4	23.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89.7	10.3		보험 및 연금업	66.7	33.3
	가구 제조업	79.0	21.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5.2	34.8
	기타 제품 제조업	80.4	19.6		연구개발업	74.3	25.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73.6	26.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3	23.7
	소매업; 자동차 제외	59.4	40.6		사업 지원 서비스업	72.2	27.8
	출판업	78.1	21.9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6	30.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1.2	18.8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정보서비스업	76.4	23.6		교육 서비스업	51.3	48.7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9.1	10.9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1	39.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3	23.7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65.2	34.8
	사업 지원 서비스업	72.2	27.8		협회 및 단체	72.7	27.3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6	30.4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7	63.3
	교육 서비스업	51.3	48.7		국제 및 외국기관	77.7	22.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1	39.9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88.7	11.3				

주석: 통계청 반출규정에 따라 항공운송업과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성별 대표자 인원은 미공개

제공: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기준: 종사자 DB

□ 문화체육관광산업 여성 종사자는 대체적으로 20~30대 인구 비율에 비해 40~50대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낮음

-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분야의 모든 산업에서 집계되고 있는 출판업을 살펴보면 남성 종사자의 비율은 20대부터 40대까지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성 종사자의 경우 20대와 30대에 77% 이상이 밀집되고, 40대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료됨
- 40대 이상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급감하는 현상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항공·수상 운송업 등 대부분의 유관 산업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성별의 영향을 덜 받고 종사자의 연령별 분포가 비슷한 수준
- 다른 산업과 달리 섬유·의복·금속가공 제조업 등에서는 여성 종사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사자 비율이 높아짐

〈표 90〉 문화·체육·관광산업 성별 연령대별 현황(2017)

(단위: %)

구분	세부 산업	남성 종사자						여성 종사자					
		~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문화 산업	합계	4.5	25.7	22.9	20.8	15.8	10.2	4.4	28.4	20.3	21.7	17.4	7.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13.6	20.6	30.3	24.9	9.1	1.6	18.6	19.6	27.5	24.9	7.9
	기타 제품 제조업	1.7	18.2	23.0	25.8	21.1	10.1	2.1	18.4	19.2	28.9	24.1	7.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7	16.7	24.3	26.4	20.7	10.2	2.6	22.8	20.8	23.9	20.6	9.2
	소매업; 자동차 제외	8.3	33.9	20.6	17.4	12.3	7.5	7.4	32.3	16.0	21.5	17.2	5.7
	출판업	2.2	22.4	36.6	26.9	9.2	2.7	3.5	36.8	30.9	19.2	7.4	2.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3	44.1	26.7	16.8	5.9	3.2	5.4	59.7	19.3	8.7	3.8	3.1
	방송업	0.7	11.9	28.1	36.4	20.2	2.6	1.4	35.8	37.7	16.4	7.1	1.6
	우편 및 통신업	1.2	13.1	26.0	34.9	22.7	2.0	1.0	16.9	26.2	31.4	21.1	3.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9	20.3	35.2	31.6	9.3	2.7	1.5	35.5	32.9	22.3	5.9	1.9
	정보서비스업	3.3	25.3	38.1	22.4	8.0	2.9	6.0	44.9	30.4	11.8	5.0	1.9
	전문 서비스업	2.3	21.1	26.1	24.4	16.1	10.1	2.9	35.9	27.0	19.6	10.8	3.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21.1	24.3	23.8	18.6	10.2	3.7	44.2	24.5	15.1	8.3	4.1
	사업 지원 서비스업	6.3	34.3	20.2	14.1	11.7	13.4	5.7	31.3	18.2	19.2	16.2	9.4
	임대업; 부동산 제외	2.4	25.2	22.3	21.7	18.0	10.3	4.0	27.3	21.8	24.8	15.4	6.8

구분	세부 산업	남성 종사자						여성 종사자					
		~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교육 서비스업	1.6	17.8	21.4	23.8	24.3	11.0	1.3	22.4	26.4	27.6	18.3	3.9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	32.1	20.6	16.6	13.2	13.1	4.9	43.7	21.3	14.4	9.2	6.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8.3	36.3	19.7	15.6	11.4	8.9	11.0	37.7	14.9	15.2	12.9	8.4
	협회 및 단체	0.7	11.2	21.8	24.4	21.4	20.5	0.8	20.0	20.6	20.6	16.0	22.1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3	21.7	13.7	15.6	15.4	13.4	5.7	13.5	8.5	17.3	32.4	22.5
예 술 산 업	합계	3.5	23.2	22.7	21.8	18.2	10.6	4.0	27.3	20.4	22.7	18.3	7.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	15.4	19.5	24.9	26.7	12.4	0.8	11.8	14.7	28.5	33.6	10.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20.9	22.9	22.1	22.3	10.0	1.5	20.0	16.1	21.9	30.9	9.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3	17.4	18.2	20.5	29.7	12.9	1.2	17.1	15.1	22.5	32.5	11.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9	12.9	18.5	23.7	28.2	15.8	0.6	11.7	17.2	26.7	30.0	13.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	17.1	23.0	25.5	22.8	10.0	1.8	14.5	17.9	27.2	26.2	1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13.6	20.6	30.3	24.9	9.1	1.6	18.6	19.6	27.5	24.9	7.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	18.5	29.7	24.9	19.0	7.0	1.9	28.8	25.5	20.8	16.0	7.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9	11.8	20.0	25.1	27.8	14.4	1.0	13.8	19.2	26.0	27.4	1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14.3	22.0	25.7	26.6	10.0	0.9	12.0	17.7	30.0	30.8	8.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4	21.4	32.5	23.8	14.4	5.6	1.7	23.7	24.3	30.6	15.9	3.8
	가구 제조업	1.7	18.3	20.8	24.7	25.2	9.4	0.8	16.0	17.2	26.6	29.5	9.8
	기타 제품 제조업	1.7	18.2	23.0	25.8	21.1	10.1	2.1	18.4	19.2	28.9	24.1	7.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7	16.7	24.3	26.4	20.7	10.2	2.6	22.8	20.8	23.9	20.6	9.2
	소매업; 자동차 제외	8.3	33.9	20.6	17.4	12.3	7.5	7.4	32.3	16.0	21.5	17.2	5.7
	출판업	2.2	22.4	36.6	26.9	9.2	2.7	3.5	36.8	30.9	19.2	7.4	2.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3	44.1	26.7	16.8	5.9	3.2	5.4	59.7	19.3	8.7	3.8	3.1
	정보서비스업	3.3	25.3	38.1	22.4	8.0	2.9	6.0	44.9	30.4	11.8	5.0	1.9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8	13.7	21.2	24.5	23.0	16.7	1.2	30.0	28.4	23.3	11.5	5.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21.1	24.3	23.8	18.6	10.2	3.7	44.2	24.5	15.1	8.3	4.1
	사업 지원 서비스업	6.3	34.3	20.2	14.1	11.7	13.4	5.7	31.3	18.2	19.2	16.2	9.4

구분	세부 산업	남성 종사자						여성 종사자					
		~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임대업; 부동산 제외	2.4	25.2	22.3	21.7	18.0	10.3	4.0	27.3	21.8	24.8	15.4	6.8
	교육 서비스업	1.6	17.8	21.4	23.8	24.3	11.0	1.3	22.4	26.4	27.6	18.3	3.9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	32.1	20.6	16.6	13.2	13.1	4.9	43.7	21.3	14.4	9.2	6.6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6	13.5	24.7	35.0	18.4	6.9	1.8	13.4	20.4	32.7	19.9	11.7
스포츠 산업	합계	2.6	17.4	18.1	22.1	24.6	15.2	3.9	26.3	19.8	22.3	19.0	8.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	15.4	19.5	24.9	26.7	12.4	0.8	11.8	14.7	28.5	33.6	10.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20.9	22.9	22.1	22.3	10.0	1.5	20.0	16.1	21.9	30.9	9.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3	17.4	18.2	20.5	29.7	12.9	1.2	17.1	15.1	22.5	32.5	11.7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14.3	22.0	25.7	26.6	10.0	0.9	12.0	17.7	30.0	30.8	8.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13.8	31.6	27.8	19.9	5.7	1.0	18.5	21.3	26.7	24.6	8.0
	기타 제품 제조업	1.7	18.2	23.0	25.8	21.1	10.1	2.1	18.4	19.2	28.9	24.1	7.3
	종합 건설업	0.4	6.4	10.6	23.3	36.2	23.1	0.5	6.5	11.8	21.3	31.6	28.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7	16.7	24.3	26.4	20.7	10.2	2.6	22.8	20.8	23.9	20.6	9.2
	소매업; 자동차 제외	8.3	33.9	20.6	17.4	12.3	7.5	7.4	32.3	16.0	21.5	17.2	5.7
	출판업	2.2	22.4	36.6	26.9	9.2	2.7	3.5	36.8	30.9	19.2	7.4	2.2
	방송업	0.7	11.9	28.1	36.4	20.2	2.6	1.4	35.8	37.7	16.4	7.1	1.6
	정보서비스업	3.3	25.3	38.1	22.4	8.0	2.9	6.0	44.9	30.4	11.8	5.0	1.9
	전문 서비스업	2.3	21.1	26.1	24.4	16.1	10.1	2.9	35.9	27.0	19.6	10.8	3.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21.1	24.3	23.8	18.6	10.2	3.7	44.2	24.5	15.1	8.3	4.1
	사업 지원 서비스업	6.3	34.3	20.2	14.1	11.7	13.4	5.7	31.3	18.2	19.2	16.2	9.4
	임대업; 부동산 제외	2.4	25.2	22.3	21.7	18.0	10.3	4.0	27.3	21.8	24.8	15.4	6.8
	교육 서비스업	1.6	17.8	21.4	23.8	24.3	11.0	1.3	22.4	26.4	27.6	18.3	3.9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8.3	36.3	19.7	15.6	11.4	8.9	11.0	37.7	14.9	15.2	12.9	8.4
	합계	4.5	19.8	16.5	20.4	23.5	15.3	6.3	24.4	16.4	20.2	20.8	11.8
관광 산업	종합 건설업	0.4	6.4	10.6	23.3	36.2	23.1	0.5	6.5	11.8	21.3	31.6	28.3
	소매업; 자동차 제외	8.3	33.9	20.6	17.4	12.3	7.5	7.4	32.3	16.0	21.5	17.2	5.7
	육상 운송 및 파이프 라인 운송업	1.1	6.3	11.9	25.5	34.8	20.4	3.4	15.8	18.6	27.1	22.1	13.0
	수상 운송업	1.6	14.9	18.4	17.4	20.9	26.9	5.1	31.9	27.9	14.8	11.6	8.7
	항공 운송업	0.1	12.1	28.7	31.8	22.1	5.2	0.3	43.8	38.2	16.0	1.7	0.1
	숙박업	10.8	34.8	17.9	15.5	12.6	8.5	12.7	33.0	10.9	11.9	18.6	12.9
	합계	12.3	39.4	24.2	21.9	18.1	12.1	16.8	49.4	24.6	24.6	20.2	12.7

구분	세부 산업	남성 종사자						여성 종사자					
		~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음식점 및 주점업	19.3	41.9	15.2	11.8	8.1	3.7	12.4	23.4	8.0	15.6	26.6	14.0
	출판업	2.2	22.4	36.6	26.9	9.2	2.7	3.5	36.8	30.9	19.2	7.4	2.2
	정보서비스업	3.3	25.3	38.1	22.4	8.0	2.9	6.0	44.9	30.4	11.8	5.0	1.9
	보험 및 연금업	0.1	12.7	28.3	31.8	22.5	4.5	0.4	9.3	23.4	35.7	25.2	5.9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0.2	11.6	30.5	30.5	20.2	7.0	0.8	13.6	24.1	28.7	23.0	9.8
	연구개발업	0.8	20.5	31.1	24.0	16.0	7.6	1.0	37.9	34.4	16.4	7.2	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21.1	24.3	23.8	18.6	10.2	3.7	44.2	24.5	15.1	8.3	4.1
	사업 지원 서비스업	6.3	34.3	20.2	14.1	11.7	13.4	5.7	31.3	18.2	19.2	16.2	9.4
	임대업; 부동산 제외	2.4	25.2	22.3	21.7	18.0	10.3	4.0	27.3	21.8	24.8	15.4	6.8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6	16.4	20.3	24.5	23.4	14.9	0.8	14.4	22.6	22.9	15.3	23.9
	교육 서비스업	1.6	17.8	21.4	23.8	24.3	11.0	1.3	22.4	26.4	27.6	18.3	3.9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	32.1	20.6	16.6	13.2	13.1	4.9	43.7	21.3	14.4	9.2	6.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8.3	36.3	19.7	15.6	11.4	8.9	11.0	37.7	14.9	15.2	12.9	8.4
	협회 및 단체	0.7	11.2	21.8	24.4	21.4	20.5	0.8	20.0	20.6	20.6	16.0	22.1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3	21.7	13.7	15.6	15.4	13.4	5.7	13.5	8.5	17.3	32.4	22.5
	국제 및 외국기관	3.4	36.0	23.8	17.9	13.2	5.7	4.4	34.9	24.5	22.0	11.9	2.3

제공: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기준: 종사자 DB

제6절 소결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성인지 정책 환경을 살펴본 결과,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예술인 실태조사』나 『문화산업백서』를 토대로 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이나 근로환경, 성인지 실태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체육이나 관광분야는 연도별로 종사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

□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시장진입 과정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문화예술의 경우 대체적으로 협회/단체/학원/기획사 등의 경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었으며, 입문연도는 10년 미만이 가장 많고, 10~20년 미만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음
- 문화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남성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입문의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은 공모전 등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체육의 경우에는 분야의 특성상 남성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당연하게도 졸업생의 비율에서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관광분야의 경우에는 여행업이라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 여성 취업률이 77.8%에 달하며, 이는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임

□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체적으로 여성의 수입이 남성의 수입보다 적음

- 문화예술 분야는 예술활동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1~2천만 원 사이인 종사자가 2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낮은 연간 소득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은 남성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여성에 비해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웹툰은 25%, 영화 20%, 대중예술 10% 이상의 소득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
- 체육 분야는 구체적으로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들의 보수의 약 8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관광 분야 역시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여성의 소득 수준은 남성의 87%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의사결정직에는 남성이 다수이며 여성 종사자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보다 노출되어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구조에서는 창의적 역할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은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기계약직은 여성의 비중이 높았음. 특히 프리랜서의 비중은 여성이 66%로 남성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산업 분야에 속하는 영화/게임/방송 장르는 남성 편향적인 구조였으며, 광고/출판/캐릭터/지식정보 분야는 남성 정규직 비중이 더 높았음
- 체육 분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등록인구가 50% 이상 높았으며 관광 분야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환경이 여성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다수 발견됨

- 학연 및 지연과 같은 위계관계에 의한 구조와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인식 구조, 그리고 예술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여성이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음
- 문화산업 분야는 여성 대표자의 비율이 20% 정도 수준으로, 여전히 남성 지배적인 구조 하에 산업이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체육 분야는 남성이 지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관광 분야의 사업체 대표 70%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남

제4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및 단체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성인지 설문조사

가. 조사 개요

- 본 설문조사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기관·협회 및 교육기관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파악하고, 의사결정과정 내의 성평등을 모색하여 향후 정책 및 현장 환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됨
- 정부, 공공기관, 국공립 시설·단체, 교육기관과 문화재단 총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조 공문 및 설문 안내 이메일을 발송 후 총 103개 기관의 응답지를 취합 및 검수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음
- 조사내용은 각 기관의 일반현황, 운영현황, 의사결정과정, 육아복지지원 등 크게 네 가지 대분류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전체 응답 결과에 대해 기초통계분석, 기관특성별 비교분석 등을 진행함

〈표 91〉 조사개요

조 사 명	문화·체육·관광분야 기관 성인지 통계조사
조사목적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관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파악, 의사결정과정 내의 성평등을 모색하여 향후 정책 및 현장 환류의 기초자료를 마련
조사대상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협회 및 교육기관 144곳
표 본 수	103개(응답률 71.5%)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
조사기간	2019년 6월 22일 ~ 8월 31일
조사내용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관 일반현황, 운영현황, 의사결정과정, 육아복지지원

□ 공공기관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103개 기관의 응답을 받음

-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공립 시설·단체, 교육기관 및 광역시도·기초 문화재단 등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 실시
- 이 가운데 103개 기관의 표본으로 전체기관 중 71.5%에 대한 성인지 설문 조사를 진행함

구분	대상		방법
기관 설문조사	문체부, 공공기관, 국공립 시설·단체, 교육기관, 광역시도 문화재단	144개 기관 (응답률 71.5%)	이메일 조사

〈표 92〉 대상 기관 목록

유형	분야	기관명	유형	분야	기관명
공공 기관 (33)	문화 예술 (29)	영화진흥위원회	기초문화재단 (73)	서울 (16)	구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금천문화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진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봉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동대문문화재단
		아시아문화원			동작문화재단
		한국관광공사			마포문화재단
		국악방송			서초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성동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성북문화재단
		정동극장			영등포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은평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종로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세종학당재단		경기 (15)	고양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군포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김포문화재단
		태권도진흥재단			광명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천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성남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수원문화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안양문화예술문화재단
		한국문화진흥			여주세종문화재단
		한국영상자료원			오산문화재단

유형	분야	기관명	유형	분야	기관명
국공립 시설 / 단체 (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용인문화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의정부문화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하남문화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화성문화재단
	체육 (4)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 (2)	부평구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서구문화재단
		대한체육회		강원 (9)	강릉문화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원주문화재단
	문화 예술 (13)	국립중앙박물관			영월문화재단
		국립국어원			인제군문화재단
		국립중앙도서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해외문화홍보원			춘천시문화재단
		국립국악원			평창문화예술문화재단
		국립민속박물관			홍천문화재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횡성문화재단
		국립한글박물관		충북 (4)	청주시문화산업진흥문화재단
		국립중앙극장			충주중원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			당진문화재단
		한국정책방송원			아산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남(1)	천안문화재단
		대한민국예술원		울산(1)	고래(남구)문화재단
	체육 (2)	진천선수촌		부산(1)	금정문화재단
		이천장애인선수촌		대구 (6)	달서문화재단
	국공립 교육 기관 (6)	한국예술종합학교			달성문화재단
		국립국악고등학교			도심재생(중구)문화재단
		국립국악중등학교			동구문화재단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행복북구문화재단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수성문화재단
		한국체육대학교		경북 (5)	경주문화재단
광역 시도 문화재단 (16)		서울문화재단			영주문화관광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청송문화관광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경남 (6)	거제문화예술재단
		대전문화재단			거창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유형	분야	기관명	유형	분야	기관명
		세종시문화재단			밀양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사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전북 (3)	익산문화관광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남 (4)	영암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목포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담양문화재단
					강진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73)	서울 (16)	강남문화재단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강북문화재단				
총 144개 기관					

□ 설문조사에 더해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성인지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성대표성을 확인함

- 정부기관 내 여성 대표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부처 합동자료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상반기 이행점검결과」를 분석
- 문화체육관광분야 주관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본부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공공기관 관리자의 여성 비율을 분석 대상으로 삼음

나. 조사내용

□ 설문조사의 문항은 기관 일반 현황, 운영 현황, 의사결정 과정, 육아복지지원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됨

- 일반현황, 운영현황, 의사결정과정, 육아복지지원 등 4개 영역에 대해 다음의 24개 문항으로 구성

〈표 93〉 설문조사지 구성

대분류	세분류	비고
Ⅰ. 일반현황	기관명	
	개원 연도	
	홈페이지 주소	
	주소	
	대표자명	
	설립주체명	
	설립주체 유형	
	장르	
	응답자 정보	이름, 부서, 직위, 연락처
Ⅱ. 운영현황	직원 수	성비, 고용형태
	상시 근로자 수	성비, 고용형태
	평균 임금	성비, 고용형태
	평균 근속년수	성비, 고용형태
	직급 구성	정원, 현원, 성비 구분
	2018년 신입직원 수	성비, 고용형태
Ⅲ. 의사결정과정	보직자 회의 참여 성비	
	이사회 임원 성비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성비	
	노동/노사위원회 성비	
Ⅳ. 육아복지지원	2018년 육아휴직제도 신청자 성비	
	보육시설 지원 여부	
	보육 관련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여부	
	임신 중 조기퇴근제 신청 가능 여부	
	출산 후 조기퇴근제 신청 가능 여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상반기 이행점검결과」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의사 결정구조 내 여성대표성 확인 가능 항목을 검토

- 각 기관의 고위 공무원, 본부장과장급, 임원, 관리자의 남성과 여성 수를 확인
- 또한 2019년 여성 비율 목표(%), 여성비율실적(여성 인원수/전체 인원수*100), 목표 대비 달성률(여성비율실적/19년실적목표*100)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함

대상 부처	직급	검토 항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직 고위공무원	2019년 여성 비율 목표 / 실적 / 목표 달성을 여성 수 / 남성 수 / 전체 수
	국가직 여성 본부장급	
	공공기관 여성 임원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다. 조사 수행 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추진
- 기관별 컨택포인트 확정 → 협조공문 및 설문지 이메일 발송 → 설문지 취합 및 검수
- 정부 발간 보고서 검토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위원회 성비 조사

가. 조사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비 구성 조사 실시

- 2017년~2019년 여성가족부, 정부 합동부처 발간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참여 현황 파악 예정

구분	대상		방법
2017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조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정부위원회	28개 (24/4)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활용
2018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조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정부위원회	27개 (23/4)	2018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활용
2019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조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정부위원회	17개 (13/4)	2019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활용

□ 502개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비 구성 조사 실시

- 2019년 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를 활용해 502개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할 예정

구분	대상		방법
2018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조사	정부위원회	502개	2018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활용

나. 조사내용

-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비롯한 전체 정부위원회의 성별 참여도 파악
- 정부위원회 중 특정 성별 참여율의 법정 기준 40% 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다. 조사 수행 방법

- [1단계] 웹 조사: 온라인상에서 정보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점검 결과 활용
- [2단계] 전화 조사: 위원회 연락처 확보 → 유선 연락 및 성별 조사

3. 문화·체육·관광 분야 협·단체(법인) 대표자 성별조사

가. 조사개요

- 본 조사는 2019년 현재 관련 분야의 법인의 기업 대표자 성비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법인의 소재지, 형태, 분야, 규모 등에 따른 대표자의 성비를 확인하고자 함
- 문체부가 제공한 총 1,262개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웹 조사와 전화 조사를 시행하여 1,258개 법인(협·단체 포함)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

〈표 94〉 조사개요

조 사 명	문화·체육·관광분야 법인 대표자 성비조사
조사목적	문화·체육·관광분야 법인의 소재지, 형태, 분야, 규모 등에 따른 대표자의 성비를 파악하여 분석
조사대상	문체부가 리스트를 제공한 문화·체육·관광분야 법인 1,262개
표 본 수	1,258개(응답률 99.7%)
조사방법	웹 조사 및 전화 조사
조사기간	2019년 6월 22일 ~ 8월 9일
조사내용	소재지, 형태, 분야, 연혁, 자본금, 대표자 성비 등

나. 조사 내용

- 소재지, 형태, 분야, 연혁, 자본금, 대표자 성비 등 크게 여섯 가지 분류
- 이에 더해 전체현황 분석, 법인별 비교분석, 법인유형별 비교 분석

다. 조사 수행 방법

- 기관별 컨택포인트 확정 → 협조공문 및 설문지 이메일 발송 → 설문지 취합 및 검수
- [1단계] 웹 조사: 온라인상에서 대표자 성별 확인 가능한 법인 우선 조사
- [2단계] 전화 조사: 법인 연락처 확보 → 우선 연락 및 대표자 성별 조사

4.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사업 심의 심사위원 성비 조사

가. 조사개요

- 본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의 남녀 성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됨
- 국고 보조 사업과 사업별 심의위원 성비, 지원사업 세부정보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원대상에 심의위원의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함
-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국공립 시설 및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등 총 55개 기관에서 추진하는 204개 보조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웹, 이메일, 전화 조사를 활용해 6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조사 실시함
- 조사 항목은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유형, 추진연차와 예산을 포함한 사업정보와 사업별 심의위원 명단 및 최종 단계 심의의 심의위원 성비로 구성됨

〈표 95〉 조사개요

조 사 명	문화·체육·관광분야 보조사업별 심의위원 성비조사
조사목적	국고 보조 사업과 사업별 심의위원 성비, 지원사업 세부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지원 대상에 심의위원 성별이 영향을 끼치는가를 검증
조사대상	총 세 단계에 걸쳐 추출된 204개의 국고 보조 사업 리스트
표 본 수	총 204개 사업 중 157개 사업 (77.1%)
조사방법	웹, 이메일, 전화 조사 병행
조사기간	2019년 6월 22일 ~ 8월 9일
조사내용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유형, 추진연차와 예산을 포함한 사업정보, 사업별 심의위원 명단 및 최종 단계 심의의 심의위원 성비

구분	판단 주체	추출 기준
[기초 리스트]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국공립 시설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등 55개 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전체		
1차 리스트 추출	연구진 추출	지원 대상 성별 특정성이 없는 대상을 지원하는 경우 제외 (지자체 지원사업 등)
		지원 내용 재정 지원과 같이 수혜 대상 그룹의 선호도가 높은 지원사업만 포함 (단순 공간 이용자 모집, 교육참가자 모집, 행사 참여자 모집 경우는 제외)
		심의 방식 심의위원과 사업 간 명확히 1:1 매칭되는 사업만 추출 (여러 명의 심의위원이 각자 다른 사업들을 평가한 뒤 합산하는 방식 등은 제외)
2차 리스트 추출	연구진 추출	사업 가치 해당 사업의 기관 내 중요성, 장르 내 중요성, 분야 내 중요도가 낮은 사업 제외 (수혜집단의 반응도가 낮은 사업 등)
		심의 과정 심의위원의 속성이 대상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사업 제외 (심의과정 특성상 심의위원의 성별이 크게 의미 없는 경우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선정절차에서 심의위원의 주관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낮은 사업 제외 (일정 자격조건 갖출 경우 무조건 지원하는 사업 등)
최종 리스트 추출	분야별 전문가 평가	관계성 심의위원의 속성이 대상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사업 제외
		중요도 해당 사업의 기관 내 중요성, 장르 내 중요성, 분야 내 중요도가 낮은 사업 제외

[그림 32] 조사대상 추출 프로세스

나. 조사내용

□ 사업별 세부 정보 및 심의위원의 성비 조사 및 관련 자료 취합

- 사업유형별 성비 분석을 위해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유형, 추진연차, 지원예산 등을 조사함
- 2017년, 2018년, 2019년 등 3개 년도의 심의위원 성비 및 심의위원 전체 리스트를 수집함

다. 조사수행 방법

- [1단계] 웹 조사: 온라인상에서 심사위원 성별 확인 가능한 사업 우선 조사
- [2단계] 이메일 설문 조사: 기관 설문조사 응답 기관 사업 중심 심사위원 성별 조사
- [3단계] 전화 조사: 법인 연락처 확보 → 유선 연락 및 심사위원 성비 조사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조사결과 세부 분석에 앞서 문화분야 성평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가칭)젠더구조지수(Cultural Gender Structure Index, CGSI)를 개발, 임시 적용함

- 문화분야의 고용형태, 직제별 종사자 등의 항목에 대해 남성의 비율 대비 여성의 비율을 지수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ultural Gender Structure Index)를 개발하고 본 연구에 적용해보고자 함
-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GSI)는 1에 가까울수록 종사환경이 양성평등함을 나타내며, 값이 1보다 작을 경우 남성 편향적인 환경, 1보다 클 경우에는 여성 편향적인 환경임을 의미함
-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GSI)는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표 항목,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의 측정방법과 유사하나 문화 분야 지표 값에 대해서는 적용한 적 없는 새로운 접근임
- 본 연구에서는 기관 설문조사 등의 문항별 결과값에 대해 일괄적으로 값을 산출하고 이를 평균 낸 (가칭)젠더구조지수(CGSI) 값을 도출하여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고자 함

〈표 96〉 문화체육관광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GSI) 산출 결과

항목	지표명	산출 근거	산출값
전체종사자	전체 종사자 성비	여성 종사자 수 / 남성 종사자 수	0.96
고용형태	전체 정규직 성비	여성 정규직 수 / 남성 정규직 수	0.88
임금 수준	성별 평균계약금액	여성 평균 계약금액 / 남성 평균 계약금액	0.77
여성 대표성 의사결정기관	고위직 성비	고위직 여성 수 / 고위직 남성 수	0.28
	보직자 성비	여성 보직자 수 / 남성 보직자 수	0.31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	여성 참여율 / 남성 참여율	0.70 ⁶¹⁾
문화체육관광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평균)			0.65

61)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정부위원회 평균 참여율 기준으로 산출함.

1.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관 설문조사 결과⁶²⁾

가. 일반현황

〈표 97〉 조사대상 기관 현황

구분		기관수	비율
전체		103	100.0%
소재지	서울특별시	43	41.7%
	부산광역시	3	2.9%
	대구광역시	6	5.8%
	인천광역시	1	1.0%
	광주광역시	2	1.9%
	대전광역시	1	1.0%
	울산광역시	1	1.0%
	세종특별자치시	4	3.9%
	경기도	13	12.6%
	강원도	8	7.8%
	충청북도	1	1.0%
	충청남도	2	1.9%
	전라북도	4	3.9%
	전라남도	5	4.9%
	경상북도	5	4.9%
	경상남도	4	3.9%
종사자 수	10인 미만	10	9.7%
	10~49인	31	30.1%
	50~99인	29	28.2%
	100인 이상	33	32.0%
설립연도	1969년 이전	12	11.7%
	1970~1979년	6	5.8%
	1980~1989년	4	3.9%
	1990~1999년	7	6.8%
	2000~2009년	30	29.1%
	2010년 이후	44	42.7%
설립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17	16.5%
	공공기관	31	30.1%
	협회 및 단체	55	53.4%
장르	문화예술	74	71.8%
	문화산업	11	10.7%
	체육	8	7.8%
	관광	2	1.9%
	복합장르	8	7.8%

〈표 98〉 조사대상 기관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종사자 수	평균 종사자 수	최대 종사자 수	최소 종사자 수
전체(103개 기관)		18,086	176	1,831	3
성별	남성	9,219	90	1,019	2
	여성	8,867	86	857	0
(103개 기관) 고용형태	정규직	15,601	152	1,598	3
	비정규직	2,485	24	233	0
(103개 기관) 직급 ⁶³⁾⁶⁴⁾	고위직	1,419	17	289	1
	중하위직	11,234	112	1,464	2

62) 본 설문결과 분석은 각 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항목 무응답은 배제한 채 응답한 문항만을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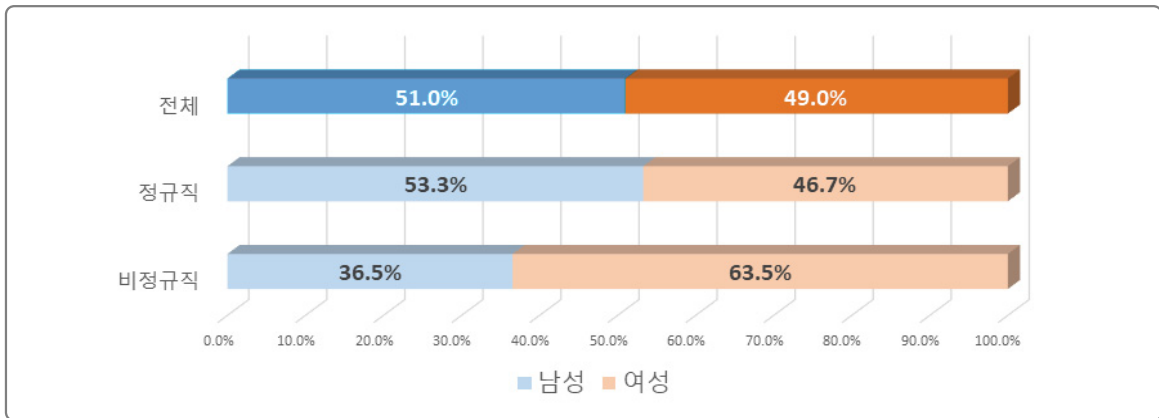
63) 기관별 직급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직급을 지칭하지 않고, 각 기관 내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국·과장급 이상을 고위직으로, 그 외 직급을 중하위직으로 분류하였음.

64) 전체 103개 응답기관 중 직급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견된 18개 기관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여기서 오류란

나. 성별 종사자 수, 연임금 및 근속연수

□ 전체 종사자 중 정규직의 경우 남성이 더 많고, 비정규직의 경우 여성이 더 많음

-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관의 종사자 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남성의 비율이 51.0%로 여성 49.0% 대비 높게 나타남
- 정규직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53.3%로 더 높았던 반면 비정규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63.5%로 더 높게 조사됨



[그림 33] 고용형태별 성비

〈표 99〉 고용형태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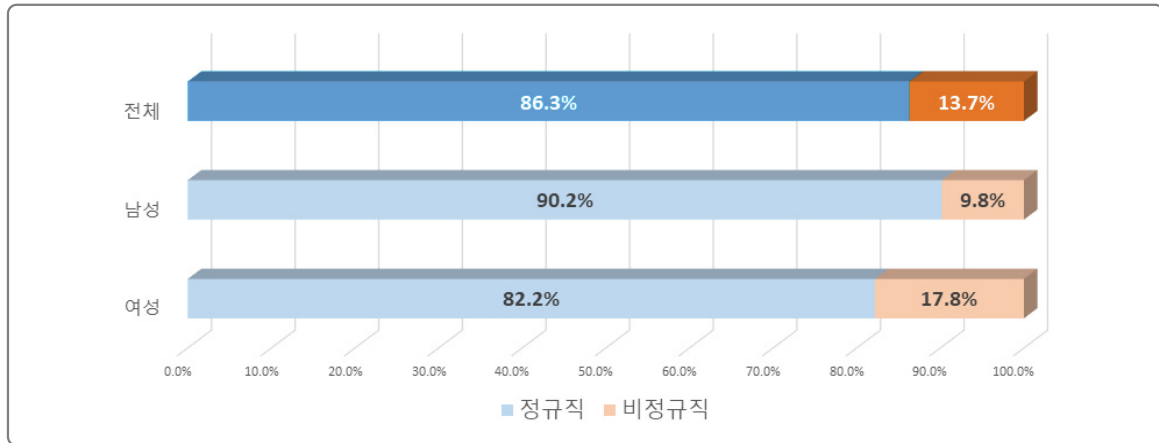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103	51.0%	49.0%	53.3%	46.7%	36.5%	63.5%
설립주체 형태	본부 및 소속기관	17	48.2%	51.8%	50.1%	49.9%	37.7%
	공공기관	31	56.9%	43.1%	57.8%	42.2%	47.1%
	협회 및 단체	55	44.6%	55.4%	49.2%	50.8%	27.8%
장르	문화예술	74	44.6%	55.4%	47.3%	52.7%	31.8%
	문화산업	11	57.6%	42.4%	58.9%	41.1%	45.2%
	체육	8	65.9%	34.1%	65.8%	34.2%	66.7%
	관광	2	51.8%	48.2%	52.5%	47.5%	26.3%
	복합장르	8	51.1%	48.9%	54.5%	45.5%	29.9%
종사자 수	10인 미만	10	54.8%	45.2%	60.9%	39.1%	45.0%
	10~49인	31	44.7%	55.3%	49.7%	50.3%	32.1%
	50~99인	29	44.4%	55.6%	48.3%	51.7%	35.5%
	100인 이상	33	52.9%	47.1%	54.3%	45.7%	38.3%
설립연도	1969년 이전	12	50.0%	50.0%	51.3%	48.7%	41.8%
	1970~1979년	6	54.9%	45.1%	56.8%	43.2%	30.6%
	1980~1989년	4	59.1%	40.9%	59.9%	40.1%	46.8%
	1990~1999년	7	58.3%	41.7%	59.8%	40.2%	44.8%
	2000~2009년	30	45.5%	54.5%	50.2%	49.8%	25.1%
	2010년 이후	44	46.0%	54.0%	48.2%	51.8%	36.1%

고위직 혹은 중하위직 중 한 그룹의 인원이 0명으로 집계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본 설문이 명확한 응답을 위해 '고위직/중하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급수별 인원을 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즉 정부 소속기관의 경우 공무원 급수를 그대로 반영해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해당 기관의 위상에 따라 고위직(3급 이상)이 0명으로 집계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남성의 정규직 비율에 비해 8.0%p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 전체 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은 약 86.3% 수준이며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90.2%,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82.2%로 조사됨
- 설립주체 유형, 장르, 종사자수 및 설립연도에 따른 대부분의 집단에서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여성의 정규직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34] 성별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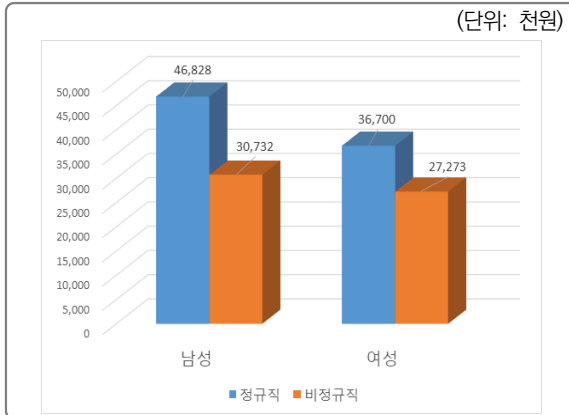
〈표 100〉 성별 고용형태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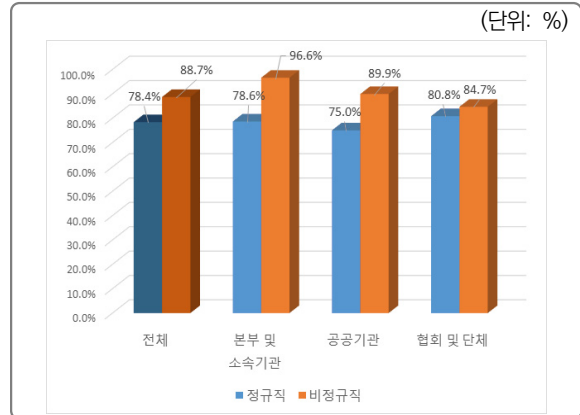
구분		기관수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03	86.3%	13.7%	90.2%	9.8%	82.2%	17.8%
설립주체 형태	본부 및 소속기관	17	84.7%	15.3%	88.1%	11.9%	81.6%	18.4%
	공공기관	31	91.9%	8.1%	93.3%	6.7%	90.0%	10.0%
	협회 및 단체	55	78.4%	21.6%	86.6%	13.4%	71.9%	28.1%
장르	문화예술	74	82.7%	17.3%	87.7%	12.3%	78.7%	21.3%
	문화산업	11	91.0%	9.0%	93.0%	7.0%	88.4%	11.6%
	체육	8	91.9%	8.1%	91.9%	8.1%	92.1%	7.9%
	관광	2	97.4%	2.6%	98.7%	1.3%	96.1%	3.9%
	복합장르	8	86.4%	13.6%	92.1%	7.9%	80.5%	19.5%
종사자 수	10인 미만	10	61.5%	38.5%	68.4%	31.6%	53.2%	46.8%
	10~49인	31	72.0%	28.0%	79.9%	20.1%	65.5%	34.5%
	50~99인	29	69.9%	30.1%	75.9%	24.1%	65.0%	35.0%
	100인 이상	33	91.3%	8.7%	93.7%	6.3%	88.6%	11.4%
설립연도	1969년 이전	12	86.3%	13.7%	88.6%	11.4%	84.1%	15.9%
	1970~1979년	6	92.7%	7.3%	95.9%	4.1%	88.8%	11.2%
	1980~1989년	4	93.8%	6.2%	95.1%	4.9%	91.9%	8.1%
	1990~1999년	7	89.5%	10.5%	92.0%	8.0%	86.2%	13.8%
	2000~2009년	30	81.6%	18.4%	89.9%	10.1%	74.6%	25.4%
	2010년 이후	44	81.6%	18.4%	85.5%	14.5%	78.2%	21.8%

□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으며 임금 격차는 정규직에서 더 큼

-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단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의 약 78.4% 수준이며,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비정규직 남성의 약 88.7% 수준으로 정규직에서의 성 불균형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성별 평균 연임금



[그림 36] 설립주체 형태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

〈표 101〉 성별 평균 연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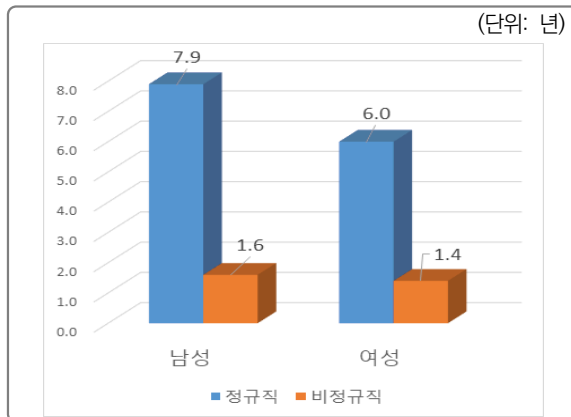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기관수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	남성	여성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
전체 ⁶⁵⁾		100	46,828	36,700	78.4%	30,732	27,273	88.7%
설립주체 형태	본부 및 소속기관	17	54,638	42,958	78.6%	26,887	25,973	96.6%
	공공기관	31	54,640	40,978	75.0%	35,334	31,769	89.9%
	협회 및 단체	52	39,618	32,014	80.8%	29,032	24,581	84.7%
장르	문화예술	72	44,563	35,256	79.1%	28,247	25,779	91.3%
	문화산업	11	54,670	39,542	72.3%	37,956	30,755	81.0%
	체육	8	52,554	40,913	77.8%	36,248	32,293	89.1%
	관광	2	49,415	38,709	78.3%	35,335	29,223	82.7%
	복합장르	7	50,531	41,493	82.1%	36,281	30,816	84.9%
종사자 수	10인 미만	9	34,590	30,839	89.2%	33,364	22,069	66.1%
	10~49인	31	43,993	33,917	77.1%	30,371	26,458	87.1%
	50~99인	29	47,865	37,096	77.5%	27,940	26,513	94.9%
	100인 이상	31	52,248	40,626	77.8%	33,657	29,694	88.2%
설립연도	1969년 이전	12	57,264	45,763	79.9%	30,171	27,838	92.3%
	1970~1979년	6	57,563	42,273	73.4%	36,320	33,182	91.4%
	1980~1989년	4	49,115	38,821	79.0%	33,727	30,906	91.6%
	1990~1999년	7	52,181	37,757	72.4%	28,186	25,104	89.1%
	2000~2009년	28	48,870	38,301	78.4%	32,379	29,707	91.7%
	2010년 이후	43	40,005	31,870	79.7%	28,778	24,115	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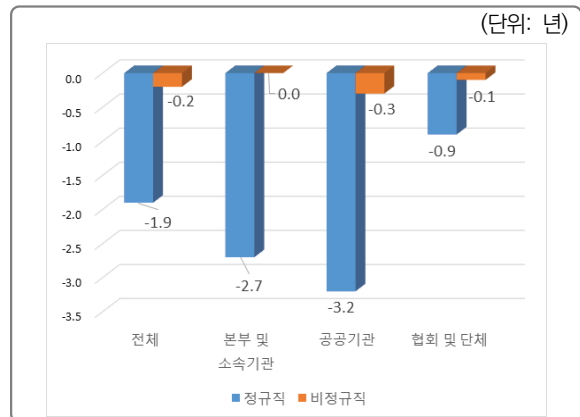
65) 조사에 참여한 103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경우 임금정보를 기입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100개 기관의 성별 임금수준을 각각 비교·분석하였음. (임금정보 미응답 기관: 성북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화성문화재단)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근속연수가 긴 것으로 조사됨

- 성별 평균 근속연수를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속연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의 경우 남성이 7.9년, 여성이 6.0년,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이 1.6년, 여성이 1.4년으로, 정규직의 경우 남녀 격차가 더 크게 조사됨



[그림 37] 성별 근속연수



[그림 38] 설립주체 형태별 '여성-남성 근속연수 격차'

〈표 102〉 성별 평균 근속연수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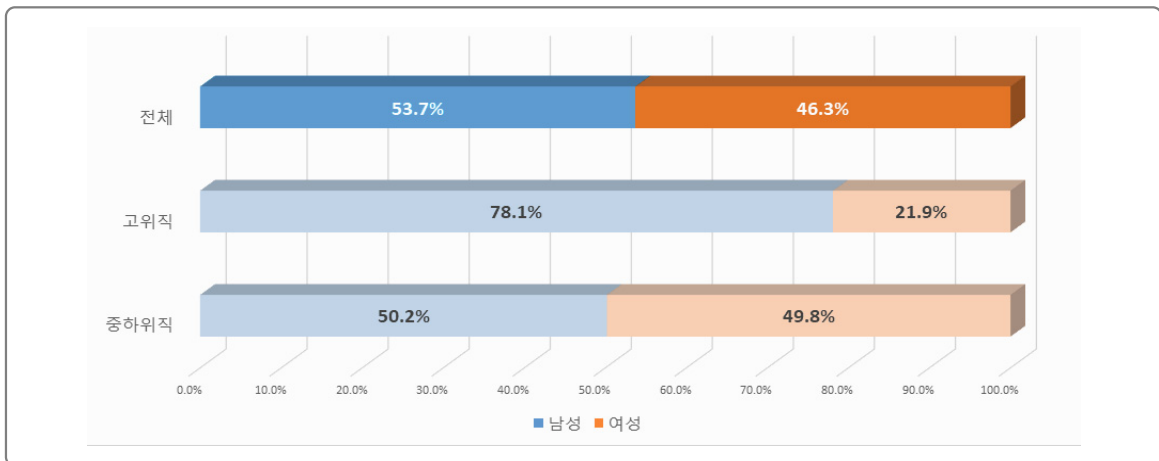
구분		기관수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여성-남성 Gap	남성	여성	여성-남성 Gap
전체 ⁶⁶⁾		96	7.9	6.0	-1.9	1.6	1.4	-0.2
설립주체 형태	본부 및 소속기관	16	13.7	11.0	-2.7	2.7	2.7	0.0
	공공기관	31	9.7	6.5	-3.2	1.5	1.2	-0.3
	협회 및 단체	49	5.0	4.1	-0.9	1.2	1.1	-0.1
장르	문화예술	69	7.1	5.7	-1.4	1.4	1.4	0.0
	문화산업	11	10.7	6.8	-3.9	1.8	1.1	-0.7
	체육	8	9.7	7.8	-1.9	2.2	1.6	-0.6
	관광	2	10.5	7.6	-2.9	1.9	0.7	-1.2
	복합장르	6	9.6	5.9	-3.7	2.3	2.0	-0.3
종사자 수	10인 미만	10	2.4	2.4	0.0	0.9	1.1	0.2
	10~49인	29	6.1	4.7	-1.4	1.2	1.1	-0.1
	50~99인	26	8.8	6.6	-2.2	1.8	1.7	-0.1
	100인 이상	31	10.8	7.9	-2.9	1.9	1.4	-0.5
설립연도	1969년 이전	12	14.3	11.8	-2.5	3.4	2.8	-0.6
	1970~1979년	5	13.7	9.2	-4.5	1.5	1.7	0.2
	1980~1989년	4	10.1	8.1	-2.0	1.6	1.3	-0.3
	1990~1999년	7	12.9	8.0	-4.9	1.3	1.8	0.5
	2000~2009년	27	7.8	5.9	-1.9	1.5	1.1	-0.4
	2010년 이후	41	4.4	3.5	-0.9	1.0	1.0	0.0

66) 조사에 참여한 103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경우 근속연수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96개 기관의 자료만 각각 비교·분석하였음.(임금정보 미응답 기관: 동작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인천서구문화재단, 해외문화홍보원, 대전문화재단, 화성문화재단)

다. 직급별 성비

□ 의사결정권이 있는 고위직의 경우 젠더 불평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임직원의 경우 남성이 53.7%, 여성 46.3%, 중하위직의 경우 남성 50.2%, 여성이 49.8%로 나타남
- 반면 고위직의 경우 남성이 78.1%, 여성이 21.9%로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조사됨



[그림 39] 직급별 성비

〈표 103〉 직급별 성비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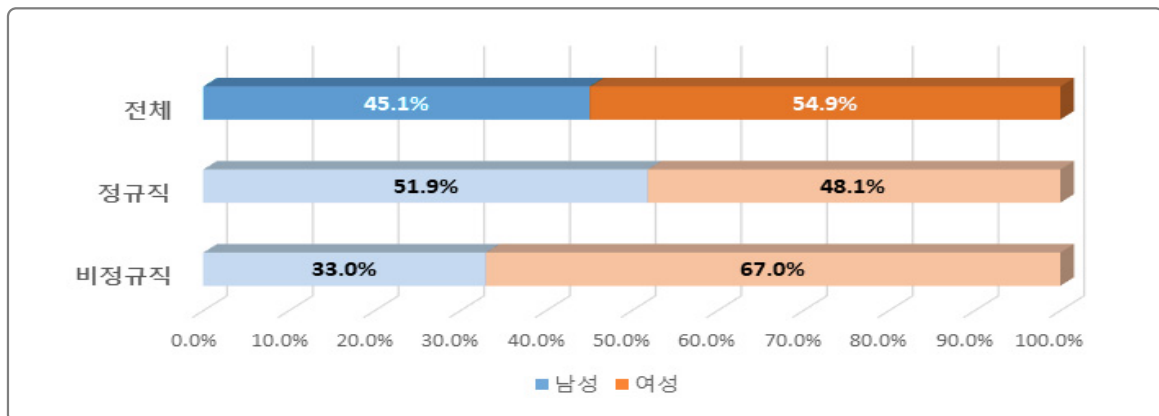
구분		기관수	고위직		중하위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67)		85	78.1%	21.9%	50.2%	49.8%
설립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9	85.7%	14.3%	47.9%	52.1%
	공공기관	30	79.0%	21.0%	53.0%	47.0%
	협회 및 단체	46	73.4%	26.6%	45.6%	54.4%
장르	문화예술	60	68.8%	31.2%	43.1%	56.9%
	문화산업	10	83.9%	16.1%	51.2%	48.8%
	체육	8	90.1%	9.9%	62.3%	37.7%
	관광	2	71.4%	28.6%	37.1%	62.9%
	복합장르	5	90.2%	9.8%	52.2%	47.8%
	10인 미만	5	66.7%	33.3%	47.1%	52.9%
종사자 수	10~49인	26	74.2%	25.8%	41.3%	58.7%
	50~99인	25	71.3%	28.7%	42.9%	57.1%
	100인 이상	29	80.9%	19.1%	52.4%	47.6%
설립연도	1969년 이전	6	74.9%	25.1%	48.6%	51.4%
	1970~1979년	6	83.1%	16.9%	45.4%	54.6%
	1980~1989년	3	90.4%	9.6%	61.6%	38.4%
	1990~1999년	7	82.2%	17.8%	59.6%	40.4%
	2000~2009년	24	73.2%	26.8%	45.4%	54.6%
	2010년 이후	39	77.0%	23.0%	42.9%	57.1%

67) 조사에 참여한 103개 기관 중 18개 기관의 경우 직급정보를 기입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견돼 이를 제외한 85개 기관의 자료만을 각각 비교·분석하였음.

라. 신입직원 성별 및 고용형태

□ 전체 신입직원 수는 여성이 더 많은 반면, 정규직 수는 남성이 더 많음

- 신입직원 전체의 비율은 여성이 54.9%로 남성(45.1%) 대비 더 많았으나, 정규직의 경우 남성이 51.9%로 조사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여성이 67.0%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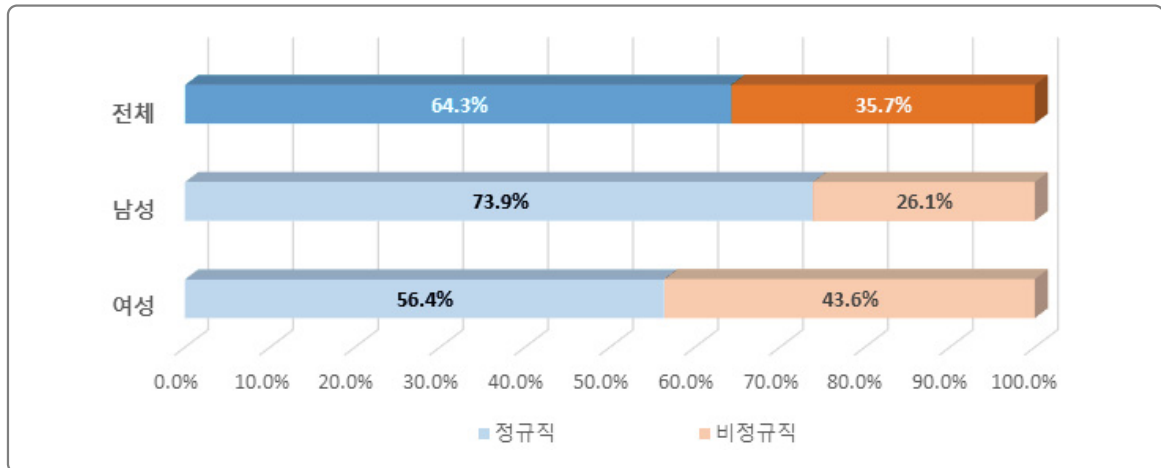
[그림 40] 신입직원 고용형태별 성비

〈표 104〉 신입직원 고용형태별 성비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설립주체 유형	전체	103	45.1%	54.9%	51.9%	48.1%	33.0%	67.0%
	본부 및 소속기관	17	49.0%	54.9%	53.0%	47.7%	37.7%	62.3%
	공공기관	31	50.1%	49.9%	57.7%	42.3%	34.8%	65.2%
	협회 및 단체	55	34.3%	65.7%	41.3%	58.7%	28.7%	71.3%
장르	문화예술	74	42.1%	57.9%	48.9%	51.1%	31.3%	68.9%
	문화산업	11	38.1%	61.9%	41.7%	58.3%	29.5%	70.5%
	체육	8	68.1%	31.9%	69.1%	30.9%	62.3%	37.7%
	관광	2	34.0%	66.0%	27.3%	72.7%	45.0%	55.0%
	복합장르	8	36.6%	62.4%	48.8%	51.3%	29.2%	70.8%
종사자 수	10인 미만	10	44.8%	55.2%	54.5%	45.5%	43.2%	67.9%
	10~49인	31	38.0%	62.0%	41.6%	58.4%	34.9%	65.1%
	50~99인	29	34.5%	65.5%	41.6%	58.4%	30.3%	69.7%
	100인 이상	33	48.5%	51.5%	53.9%	46.1%	34.6%	66.4%
설립연도	1969년 이전	12	49.6%	50.4%	51.6%	48.4%	45.8%	58.0%
	1970~1979년	6	52.6%	47.4%	62.1%	37.9%	32.3%	67.7%
	1980~1989년	4	46.7%	53.3%	54.7%	45.3%	31.6%	68.4%
	1990~1999년	7	63.9%	36.1%	65.8%	34.2%	52.8%	47.2%
	2000~2009년	30	30.4%	69.6%	40.4%	59.6%	24.6%	75.4%
	2010년 이후	44	37.4%	62.6%	40.0%	60.0%	35.4%	67.0%

-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신입직원의 73.9%가 정규직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신입직원의 56.4%가 정규직으로, 남성 집단의 정규직 비율이 약 17.5%p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41] 신입직원 성별 고용형태

〈표 105〉 신입직원 성별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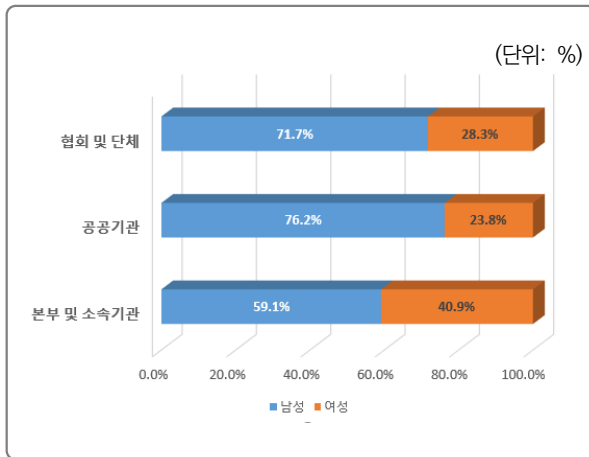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03	64.3%	35.7%	73.9%	26.1%	56.4%	43.6%
설립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17	75.5%	24.5%	81.1%	18.9%	70.1%	29.9%
	공공기관	31	66.8%	33.2%	77.0%	23.0%	56.6%	43.4%
	협회 및 단체	55	44.4%	55.6%	53.5%	46.5%	39.7%	6.03%
장르	문화예술	74	61.9%	38.1%	71.9%	28.1%	54.6%	45.4%
	문화산업	11	70.1%	29.9%	76.8%	23.2%	65.9%	34.1%
	체육	8	84.5%	15.5%	85.8%	14.2%	81.7%	18.3%
	관광	2	62.3%	37.7%	50.0%	50.0%	68.6%	31.4%
	복합장르	8	43.0%	57.0%	55.7%	44.3%	35.6%	64.7%
종사자 수	10인 미만	10	37.9%	62.1%	46.2%	59.8%	31.3%	76.4%
	10~49인	31	46.0%	54.0%	50.4%	49.6%	43.3%	56.7%
	50~99인	29	37.3%	62.7%	44.9%	55.1%	33.2%	66.8%
	100인 이상	33	73.2%	26.8%	81.4%	19.2%	65.4%	34.6%
설립연도	1969년 이전	12	79.5%	20.5%	82.6%	19.0%	76.4%	23.6%
	1970~1979년	6	68.0%	32.0%	80.4%	19.6%	54.3%	45.7%
	1980~1989년	4	65.6%	34.4%	76.7%	23.3%	55.8%	44.2%
	1990~1999년	7	85.2%	14.8%	87.8%	12.2%	80.7%	19.3%
	2000~2009년	30	37.0%	63.0%	49.1%	50.9%	31.7%	68.3%
	2010년 이후	44	51.4%	48.6%	55.0%	46.0%	49.2%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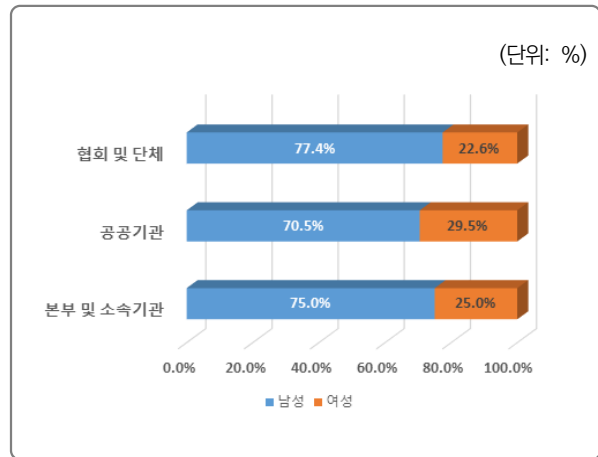
마. 의사결정기관별 남녀 성비

□ 모든 의사결정기관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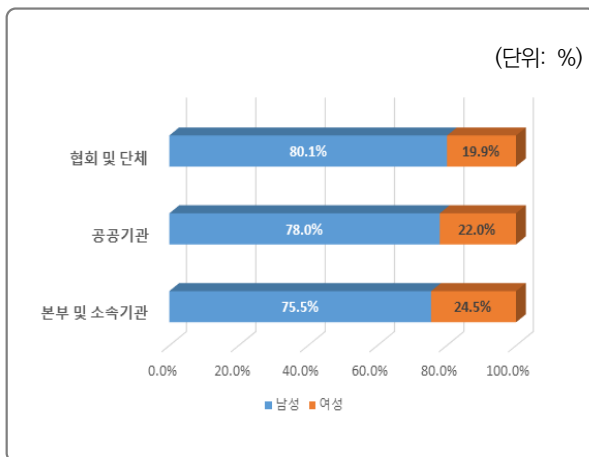
- 의사결정기관의 성비를 조사한 결과 보직자 회의의 여성 비율은 27.1%, 이사회 임원의 여성 비율은 24.7%, 인사/징계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1.4%, 노동/노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30.2%로, 모든 기관에서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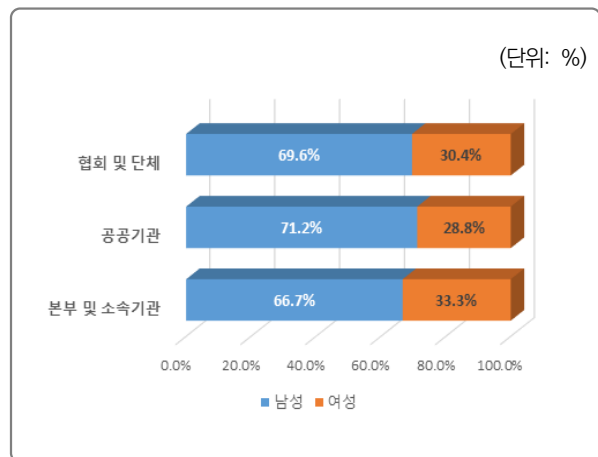
[그림 42] 설립주체 유형별 보직자 회의 성비



[그림 43] 설립주체 유형별 인사/징계위원회 성비



[그림 44] 설립주체 유형별 이사회 임원 성비



[그림 45] 설립주체 유형별 노동/노사위원회 성비

〈표 106〉 의사결정기관별 남녀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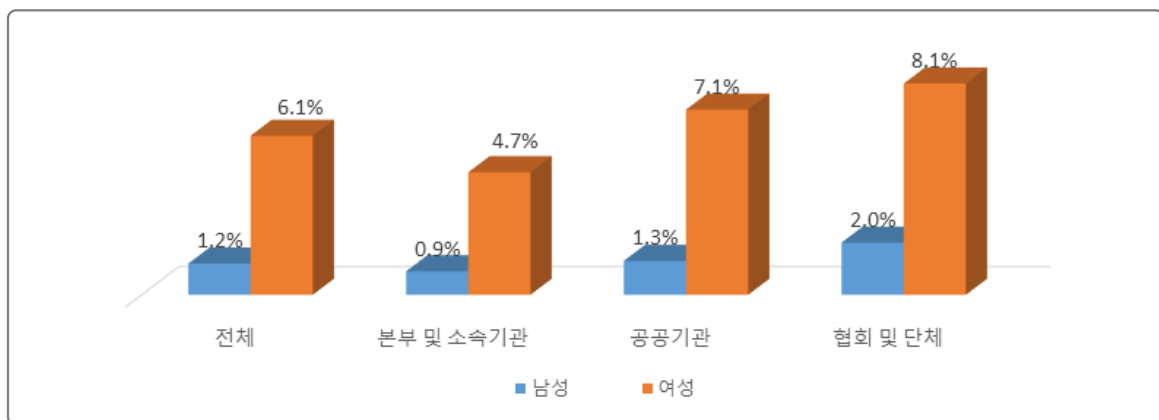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보직자 회의		이사회 임원		인사/징계위원회		노동/노사위원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103	72.9%	27.1%	75.3%	24.7%	78.6%	21.4%	69.8%	30.2%
설립 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17	59.1%	40.9%	75.0%	25.0%	75.5%	24.5%	66.7%	33.3%
	공공기관	31	76.2%	23.8%	70.5%	29.5%	78.0%	22.0%	71.2%	28.8%
	협회 및 단체	55	71.7%	28.3%	77.4%	22.6%	80.1%	19.9%	69.6%	30.4%
장르	문화예술	74	64.4%	35.6%	74.9%	25.1%	76.7%	23.3%	65.4%	34.6%
	문화산업	11	80.9%	19.1%	72.1%	27.9%	83.7%	16.3%	80.4%	19.6%
	체육	8	82.0%	18.0%	78.3%	21.7%	79.7%	20.3%	81.7%	18.3%
	관광	2	84.6%	15.4%	73.7%	26.3%	87.5%	12.5%	75.0%	25.0%
	복합장르	8	75.4%	24.6%	73.5%	26.5%	74.7%	25.3%	82.5%	17.5%
종사자 수	10인 미만	10	70.0%	30.0%	83.7%	16.3%	96.6%	3.4%	-	-
	10~49인	31	74.6%	25.4%	75.2%	24.8%	75.2%	24.8%	63.9%	36.1%
	50~99인	29	63.9%	36.1%	70.4%	29.6%	74.1%	25.9%	68.3%	31.7%
	100인 이상	33	76.2%	23.8%	75.2%	24.8%	80.1%	19.9%	73.0%	27.0%
설립 연도	1969년 이전	12	76.1%	23.9%	82.1%	17.9%	86.8%	13.2%	80.0%	20.0%
	1970~1979년	6	71.5%	28.5%	55.3%	44.7%	79.1%	20.9%	69.7%	30.3%
	1980~1989년	4	67.2%	32.8%	62.1%	37.9%	46.2%	53.8%	58.8%	41.2%
	1990~1999년	7	84.4%	15.6%	71.7%	28.3%	83.7%	16.3%	79.2%	20.8%
	2000~2009년	30	67.0%	33.0%	71.8%	28.2%	75.5%	24.5%	63.5%	36.5%
	2010년 이후	44	75.6%	24.4%	78.9%	21.1%	82.7%	17.3%	74.1%	25.9%

바. 육아 복지지원

□ 육아휴직제도 신청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성-여성 신청자 비율은 약 4.9%p 차이남

- 2018년 기준 전체 남성 근로자 중 육아휴직 신청자 비율은 약 1.2%, 여성 근로자 중 신청자 비율은 약 6.1%로 나타남
-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여성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남성 대비 월등히 높게 조사됨



[그림 46] 설립주체 유형별 육아휴직 신청자 비율(전체 인원 대비 성별 비율)

〈표 107〉 성별 육아휴직제도 신청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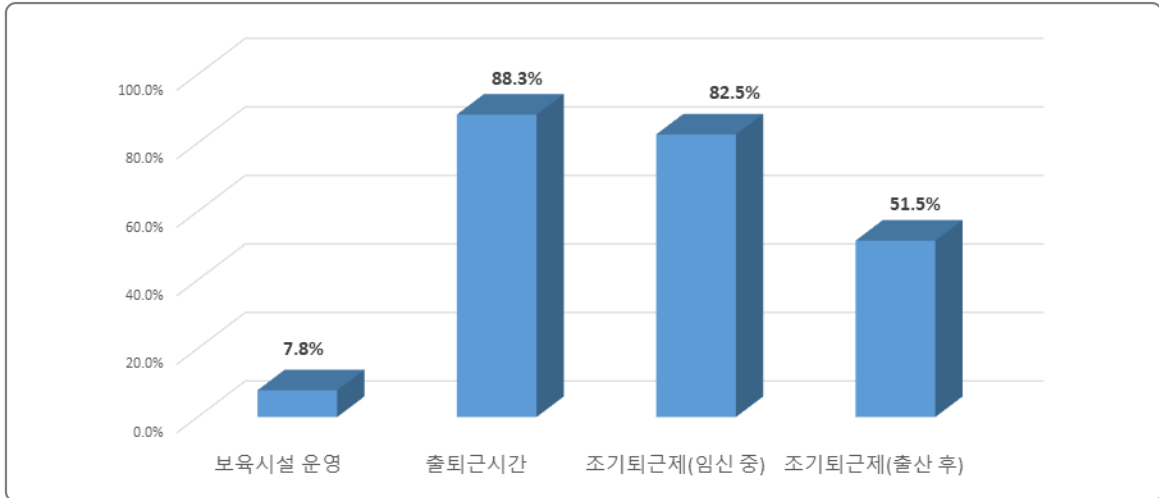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수	남성			여성			남성-여성 신청자 비율 차
			2018 전체 근로자 수	2018 육아휴직 신청자 수	육아휴직 신청자 비율	2018 전체 근로자 수	2018 육아휴직 신청자 수	육아휴직 신청자 비율	
전체		103	73.38	0.89	1.2%	65.29	3.97	6.1%	-4.9%p
설립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17	153.88	1.35	0.9%	173.94	8.11	4.7%	-3.8%p
	공공기관	31	123.41	1.58	1.3%	84.25	5.96	7.1%	-5.8%p
	협회 및 단체	55	18.30	0.36	2.0%	19.35	1.56	8.1%	-6.1%p
장르	문화예술	74	45.31	0.59	1.3%	55.28	3.21	5.8%	-4.5%p
	문화산업	11	76.45	0.91	1.2%	51.73	2.91	5.6%	-4.4%p
	체육	8	284.75	2.88	1.0%	149.25	8.50	5.7%	-4.7%p
	관광	2	186.50	1.50	0.8%	159.50	13.00	8.2%	-7.3%p
	복합장르	8	87.42	1.50	1.7%	68.14	5.62	8.2%	-6.5%p
종사자 수	10인 미만	10	2.90	0.00	0.0%	1.80	0.30	16.7%	-16.7%p
	10~49인	31	10.53	0.26	2.4%	13.33	1.00	7.5%	-5.1%p
	50~99인	29	38.34	0.69	1.8%	43.34	2.83	6.5%	-4.7%p
	100인 이상	33	186.09	1.94	1.0%	153.75	8.88	5.8%	-4.7%p
설립연도	1969년 이전	12	202.58	1.92	0.9%	204.50	11.33	5.5%	-4.6%p
	1970~1979년	6	87.67	1.50	1.7%	62.33	4.67	7.5%	-5.8%p
	1980~1989년	4	274.00	3.75	1.4%	186.25	15.00	8.1%	-6.7%p
	1990~1999년	7	219.42	1.28	0.6%	155.14	4.14	2.7%	-2.1%p
	2000~2009년	30	40.55	0.76	1.9%	42.93	3.10	7.2%	-5.3%p
	2010년 이후	44	15.05	0.30	2.0%	16.07	1.43	8.9%	-6.9%p

*설립주체별 형태 중 민간기관의 경우 사례수가 1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 4가지 지원 유형 중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4가지 유형의 보육지원제도 중 출퇴근시간 조정을 시행하는 비율이 전체의 88.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조기퇴근제(임신 중) 시행 비율이 82.5%로 두 번째 높았음
- 반면 보육시설 운영 비율은 전체의 7.8%로 4개 유형의 보육지원제도 중 가장 낮았음



[그림 47] 보육지원제도 유형별 운영현황

〈표 108〉 보육지원제도 운영현황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보육시설 운영	출퇴근시간 조정	조기퇴근제	
					임신 중	출산 후
전체		103	7.8%	88.3%	82.5%	51.5%
설립주체 유형	본부 및 소속기관	17	11.8%	100%	100%	94.1%
	공공기관	31	16.1%	93.5%	96.8%	54.8%
	협회 및 단체	55	1.8%	81.8%	69.1%	36.4%
장르	문화예술	74	4.1%	87.8%	79.7%	52.7%
	문화산업	11	9.1%	90.9%	90.9%	63.6%
	체육	8	25.0%	100.0%	100.0%	50.0%
	관광	2	50.0%	100.0%	50.0%	0.0%
	복합장르	8	12.5%	75.0%	87.5%	37.5%
종사자 수	10인 미만	10	0.0%	50.0%	40.0%	20.0%
	10~49인	31	3.2%	80.6%	67.7%	45.2%
	50~99인	29	3.4%	96.6%	96.6%	62.1%
	100인 이상	33	18.2%	100.0%	97.0%	57.6%
설립연도	1969년 이전	12	16.7%	100.0%	100.0%	75.0%
	1970~1979년	6	16.7%	100.0%	100.0%	66.7%
	1980~1989년	4	25.0%	100.0%	100.0%	75.0%
	1990~1999년	7	28.6%	71.4%	85.7%	71.4%
	2000~2009년	30	3.3%	96.7%	80.0%	46.7%
	2010년 이후	44	2.3%	79.5%	75.0%	40.9%

사.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평균 7.1%, 여성 본부과장급 공무원 비율은 평균 19.5%,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19.9%,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은 평균 22.7%임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상반기 이행점검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고위직 여성비율실적(여성 인원수/전체 인원수*100), '19년 실적 목표(%), 달성률(여성비율실적/19년실적목표*100) 세 가지 지표를 도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음
-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49개 중앙행정기관 기준)의 경우 문체부는 여성 3명, 남성 50명으로 여성비율실적은 5.7%이며, 2019년 목표(12.1%) 대비 달성률은 47.1%임. 문화재청의 경우 여성 1명, 남성 10명으로 여성비율 실적은 9.1%이며 2019년 목표(10%)대비 달성율은 91%임
- 국가직 여성 본부과장급(4급 이상)(47개 중앙행정기관 기준)의 경우 문체부는 여성 13명, 남성 42명으로 여성비율실적 23.6%이며 목표(27.8%)대비 달성률은 84.9%임. 문화재청의 경우 여성 2명, 남성 16명으로 여성비율이 11.1%였고 2019년 목표(9.5%)대비 달성률은 116.8%임
- 공공기관 여성임원(35개 중앙행정기관 기준)의 경우, 문체부의 경우 여성 118명, 남성 307명, 공석 9명으로 여성비율은 27.2%이며 문화재청은 여성 2명, 남성 14명으로 여성비율이 12.5%임. 공공기관의 경우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전체 목표('19년 목표 18.4%, 여성임원 최소 1명 이상 선임 추진)로 관리하여, 달성률을 따로 도출하지 않음.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35개 중앙행정기관 기준)의 경우 문체부는 여성 427명, 남성 1,312명, 결원 95명으로 여성비율은 27.3%이며 목표(31.3%)대비 달성률은 87.8%임. 문화재청의 경우 여성 61명, 남성 88명으로 여성비율은 40.9%이며, 목표(42.8%)대비 달성률은 95.6%임

〈표 109〉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현황

직급	기관명(약칭)	'19년 목표(%)	여성비율 실적(%) (a/b*100)	달성률(%)	여성 (명) (a)	남성 (명)	전체 (명) (b)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12.1	5.7	47.1	3	50	53
	문화재청	10.0	9.1	91.0	1	10	11
	분야 합계	7.2	7.1	98.6	109	1,430	1,539
국가직 여성 본부과장급	문화체육관광부	27.8	23.6	84.9	13	42	55
	문화재청	9.5	11.1	116.8	2	16	18
	분야 합계	18.4	19.5	106.0	339	1,400	1,739
공공기관 여성 임원	문화체육관광부	-	27.2	-	118	307	434 (공석 9명 포함)
	문화재청	-	12.5	-	2	14	16
	분야 합계	-	19.9	-	723	2,811	3,638 (공석 104명 포함)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문화체육관광부	31.1	27.3	87.8	427	1,312	1,834 (결원 95명 포함)
	문화재청	42.8	40.9	95.6	61	88	149
	분야 합계	24.1	22.7	94.2	14,806	71,810	88,774 (결원 2,158명 포함)

출처: 정부부처 합동(2019).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9 상반기 이행점검결과」 보고서 참고 재구성

2. 정부위원회 성비구성 현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위원회 성비구성⁶⁸⁾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의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현재 40% 안팎

-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2019년 상반기 기준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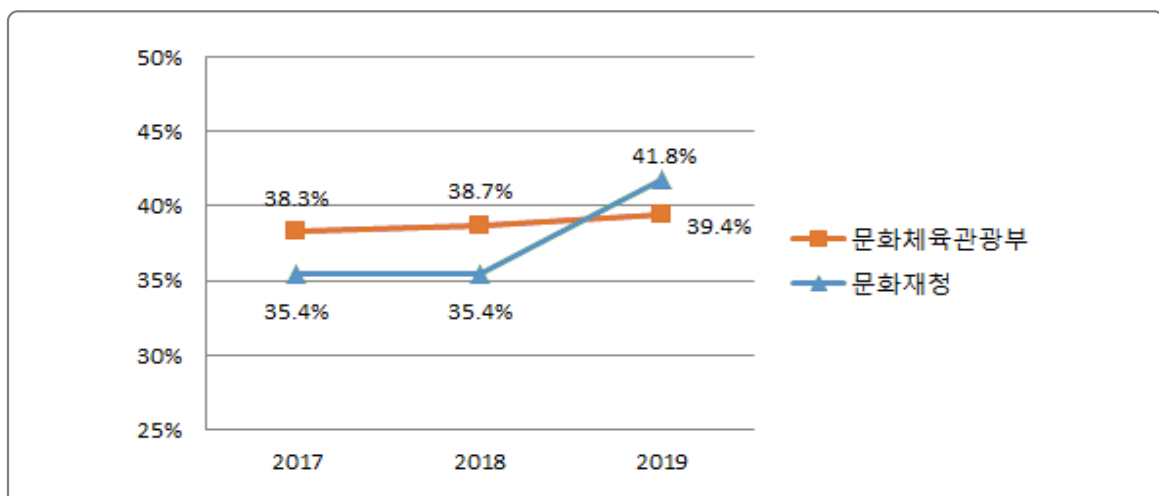
68)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 이행사항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
 관계부처 합동(2019).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9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반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여성참여율 법정기준인 40%를 초과달성한 위원회의 비율이 감소함
- 문화재청 정부위원회는 4곳 모두 2019년 상반기부터 위원회 여성참여율 법정기준인 40%를 초과 달성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정부위원회 모두 여성대표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위원의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표 110〉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2017~2019)

연도	주관기관	전체 위원회 수(개)	40%이상 위원회 수 (개)	40%이상 위원회 비율(%)	위촉직 위원(명)	위촉직 여성위원(명)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2019	문화체육관광부	24	16	66.7	295	121	39.4
	문화재청	4	4	100.0	114	48	41.8
2018	문화체육관광부	23	17	73.9	286	116	38.7
	문화재청	4	3	75.0	115	29	35.4
2017	문화체육관광부	13	-	-	173	71	38.3
	문화재청	4	-	-	123	31	35.4

주석: 각 연도별 상반기 자료를 기준으로 함



[그림 48]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나. 전체 정부위원회 성비구성 69)

□ 2018년 12월말 정부위원회(502개)의 평균 여성참여율은 41.9%로 법정기준(40%) 초과 달성, '17년(40.2%) 대비 1.7%p 상승

○ 전체(502개) 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 위원회는 377개(75.1%)로 '17년 289개(66.3%) 대비 8.8%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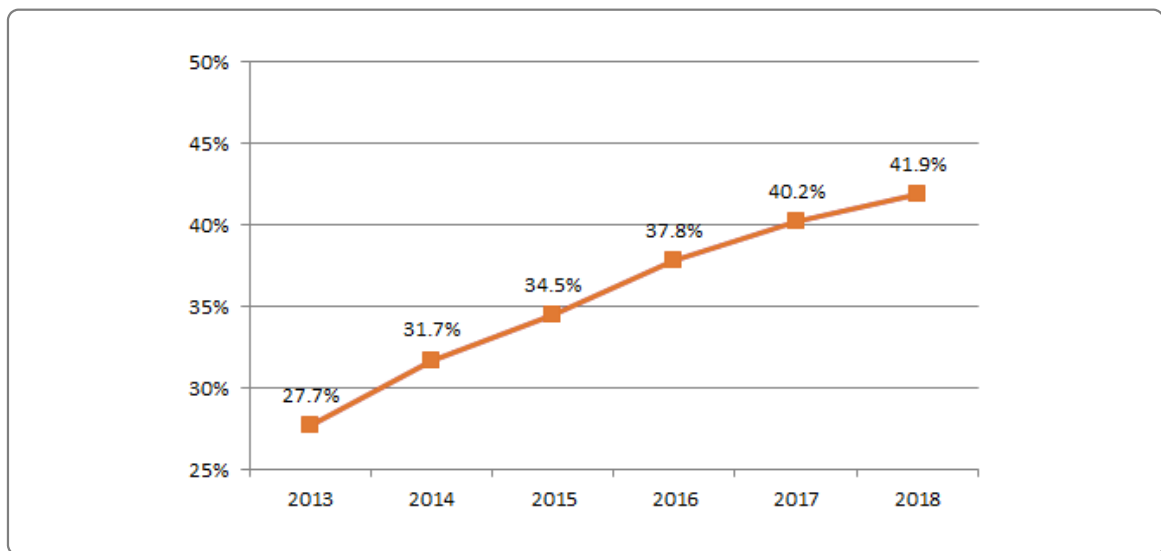
* 여성참여율: (2013년) 27.7% → (2015년) 34.5% → (2017년) 40.2% → (2018년) 41.9%

* 40% 이상 위원회: (2013년) 26.3% → (2015년) 41.6% → (2017년) 66.3% → (2018년) 75.1%

〈표 111〉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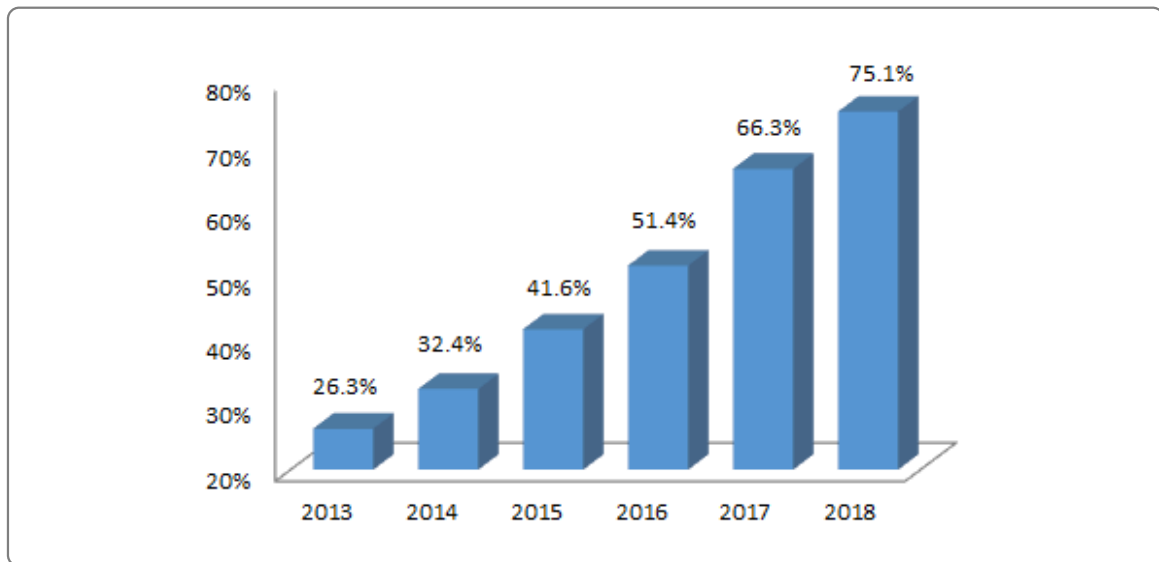
(단위: 명,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여성 참여율	전체	6,873	8,305	7,632	7,725	7,901	9,056
	여성	1,902	2,630	2,633	2,805	3,028	3,546
	비율	27.7	31.7	34.5	37.8	40.2	41.9
여성참여율 40%이상 위원회	전체	429	457	437	442	436	502
	40%이상	113	148	182	227	289	377
	비율	26.3	32.4	41.6	51.4	66.3	75.1



[그림 49] 전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69) 여성가족부(2019.02), “2018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그림 50]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2013~2018)

□ 특정 성의 참여율이 법정기준(40%)에 미달한 133개* 위원회에 개선권고

○ 여성참여율 40% 미만 위원회 115개, 남성참여율이 40% 미만 위원회 18개(최초)

* (여성참여율 40% 미만) 전체 125개 중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미달성 사유를 인정받아 달성 기한이 연장된 10개 위원회 제외

* (남성참여율 40% 미만) 전체 19개 중 모수가 1명인 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 여성100%) 제외

□ 성별 참여율 40% 미달성 시 사유 유형별 별도의 인정 기준 마련

미달성사유	인정기준
임기 미도래	• 조사시점 기준 단순 임기 미도래는 불인정
여성인력 부족	• 단순 '인력부족'은 사유 인정 불가 • 위촉자격을 보유한 후보군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는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고 향후 2~3년 내에 상황 변동이 어려운 경우 인정
추천권한 외부	• 외부기관·단체가 위촉직 위원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추천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도 법정기준 준수 필요
사실상 당연직	• 근거법령은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관련 직위를 지칭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위원에 '3회 이상 연속으로' 특정 '직위'(공직 및 공공기관 한정)가 위촉된 경우 인정
위촉직 3명	• 특정 성을 1명(33.3%) 위촉한 경우 법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기타	• 위원회 통폐합 계획 등 근거자료 제출시 인정 가능, 이외는 불인정

□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115개 위원회가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114개 위원회는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불인정

미달성 사유		계	임기미도래	여성인력 부족	외부추천 권한	사실상 당연직	기타
신청	건수(건)	115	64	29	11	5	6
	비율(%)	100	55.7	25.2	9.6	4.3	5.2
심의결과	인정(건)	1	0	0	0	1	0

○ 1개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사실상 당연직)는 인정하였고, 이외 114개 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인력통계 등) 부족으로 불인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인정, 복지부)

□ 개별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2019년 정부혁신평가에(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개별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여부가 지표로 추가 반영

【당초 지표】

① 위촉직 여성 참여율(100점)

$$\text{① 산식} : \left\{ \frac{\text{정부위원회1 여성참여율} + \text{정부위원회2 여성참여율} + \dots + \text{정부위원회}n\text{여성참여율}}{\text{전체 위원회 수}(n)} \right\} / 40\% \times 100$$

【수정 지표】

① 위촉직 여성 참여율(70점) + ②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0%이상인 위원회 비율(30점)

$$\text{① 산식} : \left\{ \frac{\text{정부위원회1 여성참여율} + \text{정부위원회2 여성참여율} + \dots + \text{정부위원회}n\text{여성참여율}}{\text{전체 위원회 수}(n)} \right\} / 40\% \times 100 \times 0.70$$

$$\text{② 산식(추가)} : \left\{ \frac{\text{여성참여율 40\% 이상인 위원회 수}}{\text{전체 위원회 수}(n)} \right\} \times 100 \times 0.30$$

※ (참고) '19. 6월말 기준 위촉직 위원 모수가 1명인 위원회 관리대상 제외 예정

〈표 112〉 '18. 12월말 기관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순위 順)

(2018.12.31.기준, 각 위원회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

순번	주관기관	위촉직 위원(명)			위원회 현황(개)		
		전체위원	여성위원	여성참여율 (위원회평균)	전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이상	비율(%)
	합계	9,056	3,546	41.8%	502	377	75.1%
1	여성가족부	65	35	53.8%	9	9	100.0%
2	농림축산식품부	312	128	50.8%	23	21	91.3%
3	국가인권위원회	26	13	50.0%	1	1	100.0%
4	기상청	4	2	50.0%	1	1	100.0%
5	교육부	1,050	474	48.5%	27	25	92.6%
6	산림청	94	41	45.6%	6	6	100.0%
7	법무부	137	65	45.5%	19	18	94.7%
8	특허청	57	24	45.2%	3	3	100.0%
9	해양경찰청	14	6	45.0%	2	2	100.0%
10	방송통신위원회	84	37	44.4%	9	8	88.9%
11	식품의약품안전처	462	197	43.9%	9	9	100.0%
12	공정거래위원회	18	9	43.3%	2	2	100%
13	국토교통부	1,306	532	43.3%	52	45	86.5%
14	중소벤처기업부	133	52	43.2%	9	6	66.7%
15	농촌진흥청	33	14	42.9%	3	2	66.7%
16	행정안전부	766	300	42.8%	39	31	79.5%
17	국세청	65	26	42.1%	5	3	60.0%
18	해양수산부	223	92	42.1%	19	14	73.7%
19	관세청	160	53	41.9%	5	3	60.0%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5	137	41.8%	28	22	78.6%
21	기획재정부	251	96	41.8%	24	14	58.3%
22	통계청	12	5	41.7%	1	1	100.0%
23	금융위원회	42	17	41.6%	8	7	87.5%
24	국민권익위원회	69	29	41.1%	2	2	100.0%
25	법제처	129	53	41.1%	1	1	100.0%
26	국가보훈처	146	45	41.0%	4	3	75.0%
27	환경부	376	154	40.8%	20	16	80.0%
28	고용노동부	342	80	40.6%	13	6	46.2%
29	인사혁신처	199	61	40.4%	11	9	81.8%
30	소방청	96	23	40.2%	4	3	75.0%
31	병무청	5	2	40.0%	1	1	100.0%
32	외교부	10	4	40.0%	2	1	50.0%
33	국무조정실	109	44	39.8%	9	6	66.7%
34	문화체육관광부	292	118	38.6%	24	17	70.8%
35	산업통상자원부	387	148	38.5%	32	20	62.5%
36	보건복지부	617	227	36.6%	46	26	56.5%
37	문화재청	114	29	36.5%	4	3	75.0%
38	국방부	452	148	35.6%	14	6	42.9%
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	10	35.0%	2	1	50.0%
40	경찰청	12	4	34.3%	2	1	50.0%
41	통일부	24	7	29.6%	3	1	33.3%
42	대검찰청, 경찰청	7	2	28.6%	1	0	0.0%
43	방위사업청	12	3	20.0%	3	1	33.3%

〈표 113〉 여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115개)

(단위: 명, 위촉직 여성비율 역순)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2018.12.31. 위촉직 현황		
			전체	여성	비율
1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3	9	39.1%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13	5	38.5%
3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13	5	38.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8	3	37.5%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위원회	8	3	37.5%
6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24	9	37.5%
7	기획재정부	배출권할당위원회	8	3	37.5%
8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8	3	37.5%
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발전위원회	8	3	37.5%
10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16	6	37.5%
11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9	7	36.8%
12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19	7	36.8%
1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19	7	36.8%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11	4	36.4%
15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	4	36.4%
16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11	4	36.4%
17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11	4	36.4%
18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	4	36.4%
19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11	4	36.4%
20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	11	4	36.4%
21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11	4	36.4%
22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14	5	35.7%
23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14	5	35.7%
24	행정안전부	정책기획위원회	96	34	35.4%
25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17	6	35.3%
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20	7	35.0%
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50	17	34.0%
2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59	20	33.9%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9	3	33.3%
30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6	2	33.3%
3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15	5	33.3%
32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9	3	33.3%
33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	6	2	33.3%
34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6	2	33.3%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2018.12.31.위촉직 현황		
			전체	여성	비율
35	산업통상자원부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9	3	33.3%
36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6	2	33.3%
37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15	5	33.3%
3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9	3	33.3%
39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21	7	33.3%
40	해양수산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12	4	33.3%
4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6	2	33.3%
42	행정안전부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	9	3	33.3%
43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9	3	33.3%
44	환경부	할당결정심의위원회	9	3	33.3%
45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2	83	32.9%
46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34	11	32.4%
4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9	6	31.6%
48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13	4	30.8%
49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73	22	30.1%
50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10	3	30.0%
51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	6	30.0%
52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20	6	30.0%
53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10	3	30.0%
54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10	3	30.0%
55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10	3	30.0%
56	경찰청	경찰위원회	7	2	28.6%
57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	7	2	28.6%
58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7	2	28.6%
59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4	4	28.6%
60	대검찰청, 경찰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7	2	28.6%
61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7	2	28.6%
62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98	27	27.6%
63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6	7	26.9%
64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113	30	26.5%
65	국토교통부	항공보안협의회	4	1	25.0%
66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8	2	25.0%
67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8	2	25.0%
6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8	2	25.0%
69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4	1	25.0%
7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2	3	25.0%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2018.12.31.위촉직 현황		
			전체	여성	비율
71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전문위원회	8	2	25.0%
72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심의회	4	1	25.0%
73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24	6	25.0%
74	행정안전부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49	12	24.5%
7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21	5	23.8%
76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13	3	23.1%
77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74	17	23.0%
78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9	2	22.2%
79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9	2	22.2%
80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82	18	22.0%
8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14	3	21.4%
82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98	21	21.4%
8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	3	20.0%
8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5	1	20.0%
85	보건복지부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5	1	20.0%
86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5	1	20.0%
87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11	2	18.2%
8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11	2	18.2%
89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6	1	16.7%
90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6	1	16.7%
91	보건복지부	국가노후준비위원회	6	1	16.7%
9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정책협의회	6	1	16.7%
9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6	1	16.7%
9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76	12	15.8%
95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19	3	15.8%
96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3	2	15.4%
97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13	2	15.4%
98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13	2	15.4%
9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	3	15.0%
100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84	12	14.3%
101	보건복지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지원위원회	8	1	12.5%
102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8	1	12.5%
103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8	1	12.5%
104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심의회	9	1	11.1%
105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	9	1	11.1%
10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11	1	9.1%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2018.12.31.위촉직 현황		
			전체	여성	비율
107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2	1	8.3%
10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3	1	7.7%
109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15	1	6.7%
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7	0	0.0%
111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12	0	0.0%
112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5	0	0.0%
113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4	0	0.0%
114	방위사업청	감항인증심의위원회	2	0	0.0%
11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6	0	0.0%

〈표 114〉 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18개)

(단위: 명, 위촉직 남성비율 역순)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2018.12.31.위촉직 현황		
			전체	남성	비율
1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13	5	38.5%
2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8	3	37.5%
3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8	3	37.5%
4	해양수산부	해수욕장평가위원회	8	3	37.5%
5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8	3	37.5%
6	교육부	국가산학협력위원회	11	4	36.4%
7	국토교통부	건축사징계위원회	6	2	33.3%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10	3	30.0%
9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	3	30.0%
10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	1	25.0%
11	중소벤처기업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5	1	20.0%
12	교육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14	2	14.3%
13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16	2	12.5%
14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9	1	11.1%
15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4	0	0.0%
16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2	0	0.0%
17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3	0	0.0%
18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9	0	0.0%

※ 교육부(3개), 법무부(2개), 복지부(2개), 해수부(2개), 행안부(1개), 국토부(1개), 과기정통부(1개), 고용부(2개), 중벤처(1개), 농식품부(2개), 기재부(1개)

□ 특정 성의 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검토 결과, 「연내임기 미도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40%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해 결원발생 시 여성 우선 위촉, 여성 1명 이상 추가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 필요
- 대상: 64개 위원회 (불인정 64개)

〈표 115〉 여성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연내 임기 미도래 (불인정) 목록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명	'18.12.31. 위촉직 위원 현황			사유 인정 여부	조치 사항
			전체 (명)	여성 (명)	비율		
1	경찰청	경찰위원회	7	2	28.6%	불인정	40%이상 달성
2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13	3	23.1%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8	3	37.5%	"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위원회	8	3	37.5%	"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9	3	33.3%	"	"
6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6	2	33.3%	"	"
7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	4	36.4%	"	"
8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6	1	16.7%	"	"
9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11	4	36.4%	"	"
10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	7	2	28.6%	"	"
11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24	9	37.5%	"	"
12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13	5	38.5%	"	"
13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82	18	22.0%	"	"
14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6	7	26.9%	"	"
15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4	4	28.6%	"	"
16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3	2	15.4%	"	"
17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11	4	36.4%	"	"
18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8	2	25.0%	"	"
19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6	1	16.7%	"	"
20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20	6	30.0%	"	"
21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74	17	23.0%	"	"
22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14	5	35.7%	"	"
2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76	12	15.8%	"	"
2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8	2	25.0%	"	"
2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4	0	0.0%	"	"
26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13	2	15.4%	"	"
2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9	2	22.2%	"	"
2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규형발전위원회	11	2	18.2%	"	"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명	'18.12.31. 위촉직 위원 현황			사유 인정 여부	조치 사항
			전체 (명)	여성 (명)	비율		
29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5	1	20.0%	"	"
30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13	2	15.4%	"	"
31	보건복지부	국가노후준비위원회	6	1	16.7%	"	"
32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14	5	35.7%	"	"
3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3	1	7.7%	"	"
3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14	3	21.4%	"	"
35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10	3	30.0%	"	"
36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2	1	8.3%	"	"
37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19	7	36.8%	"	"
3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21	5	23.8%	"	"
39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	11	4	36.4%	"	"
40	보건복지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8	1	12.5%	"	"
41	산업통상자원부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9	3	33.3%	"	"
42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10	3	30.0%	"	"
43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전문위원회	8	2	25.0%	"	"
4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6	2	33.3%	"	"
45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15	5	33.3%	"	"
4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9	3	33.3%	"	"
4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19	7	36.8%	"	"
48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21	7	33.3%	"	"
49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9	2	22.2%	"	"
50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5	1	20.0%	"	"
51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7	2	28.6%	"	"
5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50	17	34.0%	"	"
5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20	7	35.0%	"	"
54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11	4	36.4%	"	"
55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심의회	4	1	25.0%	"	"
56	해양수산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12	4	33.3%	"	"
57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15	1	6.7%	"	"
58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17	6	35.3%	"	"
59	행정안전부	정책기획위원회	96	34	35.4%	"	"
6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6	1	16.7%	"	"
61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16	6	37.5%	"	"
6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6	2	33.3%	"	"
63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8	1	12.5%	"	"
64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9	3	33.3%	"	"

□ 「여성인력 부족」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인정

○ 여성 인력이 부족한 객관적인 근거(통계 등) 부족으로 불인정

* 여성인력부족 판단 예시

- (미달성 사유 및 근거) 여성 정형외과 의사 부족 통계 제출
- (미달성 사유 판단) 근거 법률상 위촉 기준에 정형외과 의사를 명시하지 않고 의료인으로 표현되었거나, 의료인 이외에 변호사, 00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포함되어 규정된 경우는 통계를 제출하여도 불인정

○ 대상: 29개 위원회 (불인정 29개)

〈표 116〉 여성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여성인력 부족 (불인정) 목록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2018.12.31. 위촉직 위원현황			사유 인정 여부	조치 사항
			전체 (명)	여성 (명)	비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11	4	36.4%	불인정	40%이상 달성
2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3	9	39.1%	"	"
3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98	27	27.6%	"	"
4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113	30	26.6%	"	"
5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10	3	30.0%	"	"
6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73	22	30.1%	"	"
7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2	83	32.9%	"	"
8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7	2	28.6%	"	"
9	국토교통부	항공보안협의회	4	1	25.0%	"	"
10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9	3	33.3%	"	"
11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34	11	32.4%	"	"
12	기획재정부	배출권할당위원회	8	3	37.5%	"	"
13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	6	2	33.3%	"	"
14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6	2	33.3%	"	"
15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	6	30.0%	"	"
16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8	2	25.0%	"	"
17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	4	36.4%	"	"
18	방위사업청	감행인증심의위원회	2	0	0.0%	"	"
1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59	20	33.9%	"	"
20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11	4	36.4%	"	"
21	보건복지부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5	1	20.0%	"	"
2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9	6	31.6%	"	"
2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11	1	9.1%	"	"
24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84	12	14.3%	"	"
25	행정안전부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49	12	24.5%	"	"
26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98	21	21.4%	"	"
27	행정안전부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	9	3	33.3%	"	"
28	환경부	할당결정심의위원회	9	3	33.3%	"	"
29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10	3	30.0%	"	"

□ 「추천 권한 외부」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추천권한이 외부기관에 있는 경우라도 후보자를 법정기준에 맞도록 여유 있게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 개선을 통해 여성비율 40% 달성
- 대상: 11개 위원회(불인정 11개)

〈표 117〉 여성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추천 권한 외부 (불인정) 목록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현원 (명)	추천 권한 외부 근거	사유 인정 여부	조치사항
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15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항 • 국회 선출 5인, 대법원장 지명 5인	불인정	40% 이상 달성
2	교육부	사학분쟁조정 위원회	11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불인정	40% 이상 달성
3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2항 •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불인정	40% 이상 달성
4	국세청	납세자보호 위원회	15	「국제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납세자보호위원회) 제2항 제3호 •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5명 •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2명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2명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	불인정	40% 이상 달성
5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19	「건축기본법」 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 제2호 •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불인정	40% 이상 달성
6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명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명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1명	불인정	40% 이상 달성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현원 (명)	추천 권한 외부 근거	사유 인정 여부	조치사항
7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위원회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 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불인정	40% 이상 달성
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 의위원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불인정	40% 이상 달성
9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19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학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불인정	40% 이상 달성
10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 문위원회	8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교섭단체 추천 	불인정	40% 이상 달성
1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2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불인정	40% 이상 달성

□ 「사실상 당연직」은 법적 근거 및 위촉 근거가 충족될 경우 인정

- 법령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명시되고, 동일한 직위를 3회 이상 위촉한 경우 인정

* '사실상 당연직'으로 인정된 경우 위촉직 위원 수 모수에서 인정된 인원을 제외

- 대상: 5개 위원회 (인정 1개, 불인정 4개)

〈표 118〉 여성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사실상 당연직 (인정·불인정) 목록

연번	주관 기관	위원회명	위촉직 전체	사실상당연직 요구인원	근거 법률	사유 인정 여부	제외 인정 인원	최종 인원	조치사항
1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7명	7명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 (시행령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의4 제2항	불인정	-	7명	40% 이상 달성
2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24명	4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 하는 각 1명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4항	인정	4명	20명	모수에서 4명 제외 하고 40% 이상 달성 *12.5% →15%
3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	12명	6명 •공급자(의약 대표단체) 대표 6명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 제3항	불인정	-	12명	40% 이상 달성
4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융합 발전위원회	8명	1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명	「산업융합촉진법」 제8조 제4항	불인정	-	8명	40% 이상 달성
5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지원 정책협의회	6명	6명 •벤처기업협회장,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창업진흥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KOTRA 본부장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 의2 제3항	불인정	-	6명	40% 이상 달성

□ 기타 사유, 원칙적으로 예외 인정 불가

- 위원회 통폐합 계획 또는 실적 증빙 가능 시 인정이 가능하나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대상: 6개 위원회 (불인정 6개)

〈표 119〉 여성참여율 40% 미이행 사유: 기타 사유 (불인정) 목록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2018년 하반기 여성참여 40% 미달성 사유	사유 인정 여부	조치사항
1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도 사퇴(남1, 여1)에 따라 보궐 위촉 추진 과정에서 여성 위원 고사로 인해 남성위원 1인만 최종 위촉됨	불인정	40% 이상 달성
2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심의회	위원회 특성 상 여성위원 위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법상 신청서 접수기간이 '17.4.15.로 완료되었고, 신청서 처리율도 98%로 여성 위원 추가 위촉은 실익이 없으며, 현재 신청기간 연장을 포함한 법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에 있음.	불인정	40% 이상 달성
3	대검찰청, 경찰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경찰, 검찰이 각각 여성위원 1명씩 총리실에 추가로 추천한 상황으로, 국무총리 위촉 결정 시 위원 9명 중 여성위원 4명으로 40% 이상 비율로 확대	불인정	40% 이상 달성
4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5명 중 현재 4명이 위촉(남3, 여1). 임기 만료된 공석 1명을 추가 위촉 시 여성위원으로 위촉 진행 중에 있고, 통상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시 위촉하므로 40% 달성 가능	불인정	40% 이상 달성
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임기 만료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위촉 과정 진행중으로, 위촉과정이 완료되면 여성비율 40% 달성 예정(19.1월말 예상)	불인정	40% 이상 달성
6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배상 및 보상심의회위원회	위원회 특성 상 임기 연속성 보장 필요	불인정	40% 이상 달성

3. 법인(협·단체 포함) 대표자 성비 구성 현황

□ 문화·체육·관광분야 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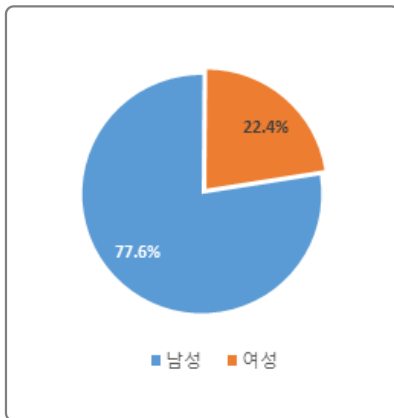
- 본 조사에 응답한 총 1,258개 법인의 유형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소재(83.8%), 사단법인(80.9%), 공공기관(83.8%), 문화예술 분야(39.7%), 설립년도 2001~2010년(43.6%)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0〉 조사대상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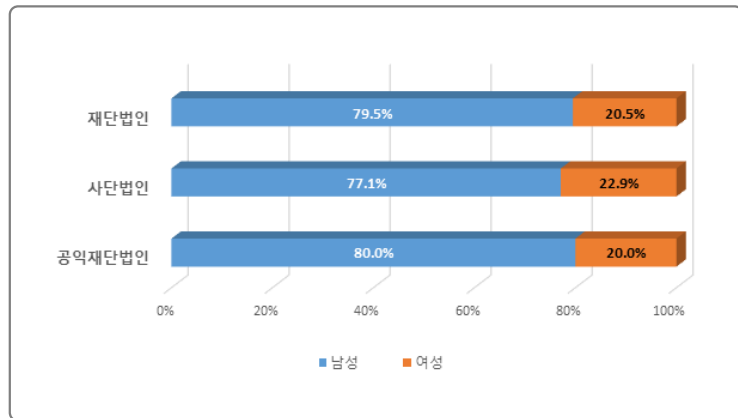
구분		법인 수	비율
합계		1,258	100.0%
소재지	수도권	1,145	91.0%
	서울특별시	1,054	83.8%
	인천광역시	9	0.7%
	경기도	82	6.5%
	비수도권	113	9.1%
	부산광역시	15	1.2%
	대구광역시	7	0.6%
	광주광역시	14	1.1%
	대전광역시	12	1.0%
	울산광역시	0	0.0%
	세종특별자치시	1	0.1%
	강원도	11	0.9%
	충청북도	7	0.6%
	충청남도	13	1.0%
	전라북도	9	0.7%
	전라남도	8	0.6%
	경상북도	7	0.6%
	경상남도	8	0.6%
	제주특별자치시	1	0.1%
형태	재단법인	195	15.5%
	사단법인	1,018	80.9%
	공익재단법인	45	3.6%
분야	문화예술	500	39.7%
	체육	103	8.2%
	관광	68	5.4%
	콘텐츠산업	257	20.4%
	기타	330	26.2%
연혁	1908~1980	100	7.9%
	1981~1990	92	7.3%
	1991~2000	267	21.2%
	2001~2010	549	43.6%
	2011~2019	250	19.9%

□ 조사 대상 법인의 대표자 성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조사에 응답한 전체 법인 중 대표자가 남성인 경우가 77.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대표자가 여성인 법인은 22.4%로 나타남
- 대표자 성별을 법인 형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성대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단법인(22.9%)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재단법인이 20.5%, 공익재단법인이 20.0%로 근사한 차이를 나타내며 차례로 높은 여성대표자 비율을 보임



[그림 51] 법인 전체 대표자 성비



[그림 52] 법인 형태별 대표자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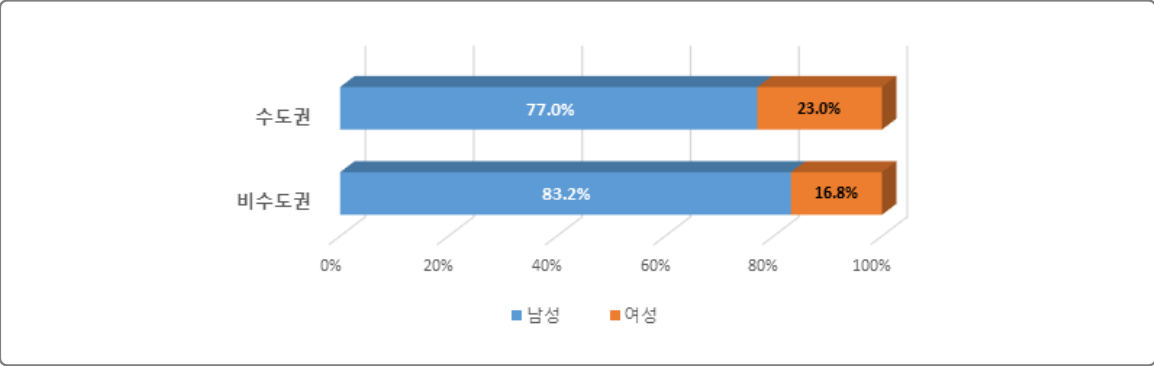
〈표 121〉 법인 형태별 대표자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대표자 성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1,258	976	77.6%	282	22.4%
재단법인	195	155	79.5%	40	20.5%
사단법인	1,018	785	77.1%	233	22.9%
공익재단법인	45	36	80.0%	9	20.0%

□ 소재지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보다 높음

○ 법인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표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여성대표자의 비율은 수도권에서 23.0%로, 비수도권 16.8%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53] 권역별 법인 대표자 성비

〈표 122〉 권역별 법인 대표자 성비

(단위: 명, %)

구분	대표자 성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1,258	976	77.6%	282	22.4%
수도권	1,145	882	77.0%	263	23.0%
비수도권	113	94	83.2%	19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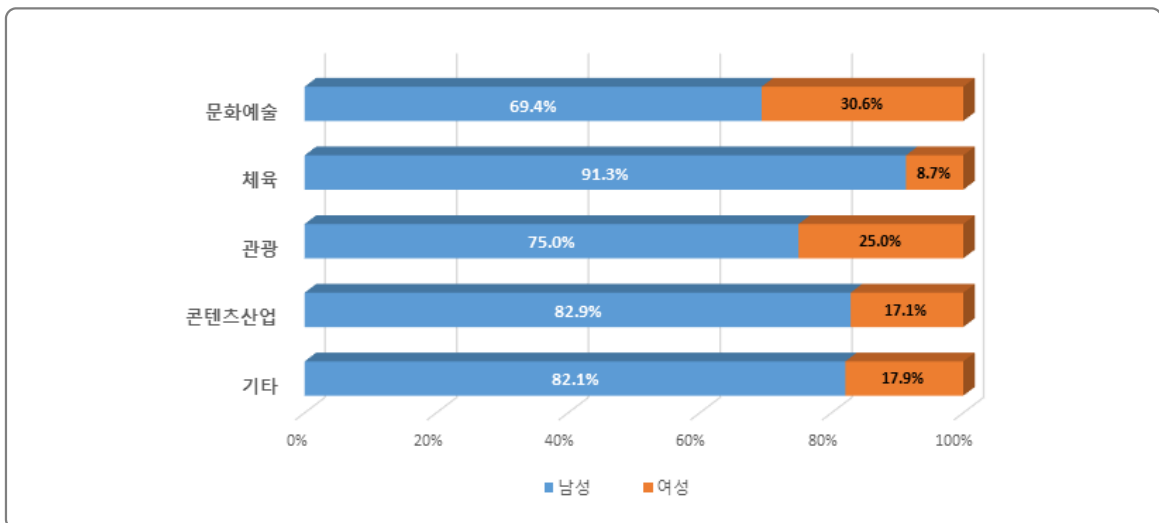
〈표 123〉 17개 광역시·도별 법인 대표자 성비

(단위: 명, %)

구분	대표자 성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1,258	976	77.6%	282	22.4%
서울특별시	1,054	804	76.3%	250	23.7%
부산광역시	15	12	80.0%	3	20.0%
대구광역시	7	4	57.1%	3	42.9%
인천광역시	9	8	88.9%	1	11.1%
광주광역시	14	13	92.9%	1	7.1%
대전광역시	12	10	83.3%	2	16.7%
울산광역시	0	0	0.0%	0	0.0%
세종특별자치시	1	0	0.0%	1	100.0%
경기도	82	70	85.4%	12	14.6%
강원도	11	8	72.7%	3	27.3%
충청북도	7	7	100.0%	.	.
충청남도	13	11	84.6%	2	15.4%
전라북도	9	8	88.9%	1	11.1%
전라남도	8	7	87.5%	1	12.5%
경상북도	7	6	85.7%	1	14.3%
경상남도	8	7	87.5%	1	12.5%
제주특별자치도	1	1	100.0%	0	0.0%

□ 문화·체육·관광분야 중 문화예술분야가 여성대표자 비율이 30.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분야별로는 문화예술분야 법인체에서 여성이 대표자인 경우가 30.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여성대표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전체의 여성대표자 비율이 22.4%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여성대표자의 비율이 높은 분야는 관광 25.0%, 기타 17.9%, 콘텐츠산업 17.1%, 체육 8.7% 등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4] 분야별 법인 대표자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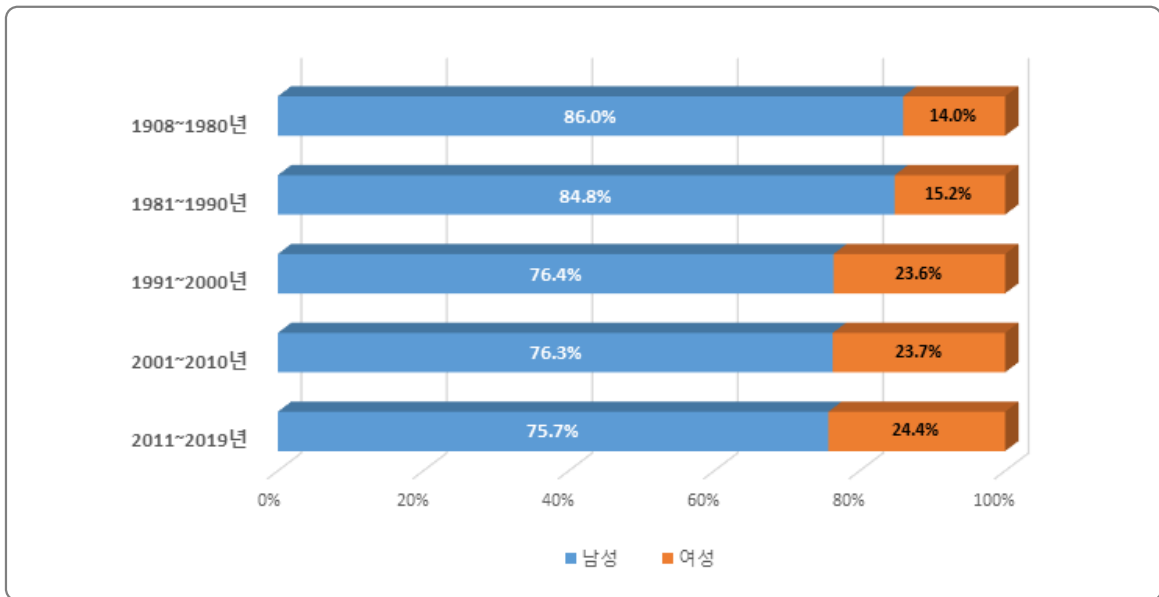
〈표 124〉 분야별 법인 대표자 성비

(단위: 명, %)

구분	대표자 성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1,258	976	77.6%	282	22.4%
문화예술	500	347	69.4%	153	30.6%
체육	103	94	91.3%	9	8.7%
관광	68	51	75.0%	17	25.0%
콘텐츠산업	257	213	82.9%	44	17.1%
기타	330	271	82.1%	59	17.9%

□ 80년대 이후 분야 전반에서 여성대표자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 법인등록시기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대표자 비율은 1980년 이전은 14.0%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며 2011년 이후는 평균 24.4%의 비율을 보임



[그림 55] 설립연도별 법인 대표자 성비

〈표 125〉 설립연도별 법인 대표자 성비

(단위: 명, %)

구분	대표자 성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1,258	976	77.6%	282	22.4%
1908~1980년	100	86	86.0%	14	14.0%
1981~1990년	92	78	84.8%	14	15.2%
1991~2000년	267	204	76.4%	63	23.6%
2001~2010년	549	419	76.3%	130	23.7%
2011~2019년	250	189	75.7%	61	24.4%

4.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사업 심의 심사위원 성비 분석

가. 일반현황

□ 조사 대상 사업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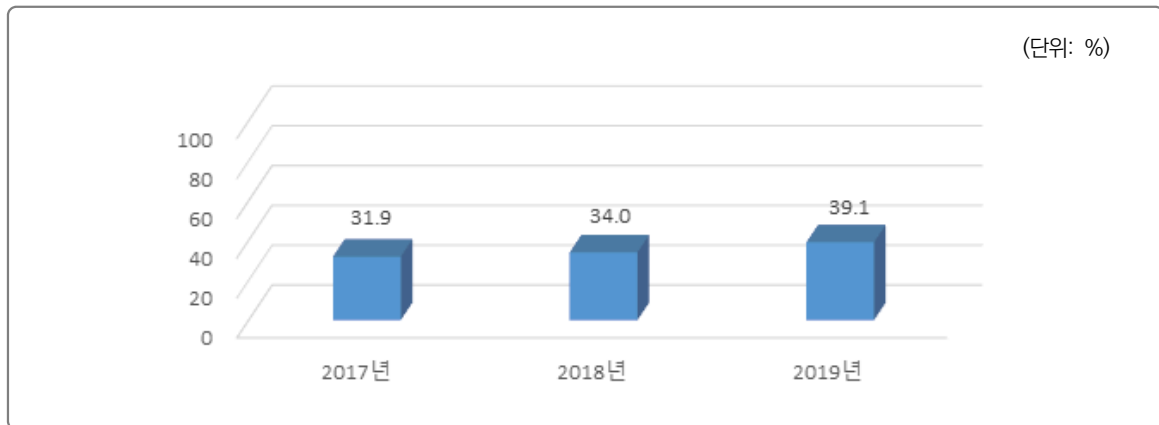
- 본 조사의 대상 사업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신진+기존 유형이 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원분야는 콘텐츠 22.3%, 지원유형은 자금 62.4%, 추진연차는 1~2년 33.8%, 예산은 1억 원~5억 원 29.3% 로 각 분류 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126〉 조사 대상 사업 일반현황

구분		사업 수	비율
전체		157	100.0%
지원대상	신진	25	15.9%
	기존	63	40.1%
	신진+기존	65	41.4%
	기타	4	2.5%
지원분야	공연	20	12.7%
	시각	12	7.6%
	영화	10	6.4%
	방송	9	5.7%
	애니메이션	15	9.6%
	출판	21	13.4%
	콘텐츠	35	22.3%
	복합	23	14.6%
	기타	12	7.6%
지원유형	자금	98	62.4%
	교육	13	8.3%
	교류	24	15.3%
	기타	22	14.0%
추진연차	1년 미만	6	3.8%
	1년 이상 2년 이하	53	33.8%
	3년 이상 5년 이하	48	30.6%
	6년 이상 9년 이하	29	18.5%
	10년 이상	21	13.4%
예산	미정	3	1.9%
	1억 원 미만	14	8.9%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6	29.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4	21.7%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9	12.1%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13	8.3%
	3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7	4.5%
	4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1.3%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5	9.6%
	100억 원 이상	4	2.5%

□ 심의위원단 내 여성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최근 3년간의 지원사업 별 심의위원의 성별 조사를 통해 심의위원단 중 여성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이 2017년도에는 31.9%, 2018년도에는 34.0%, 2019년도에는 39.1%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림 56] 연도별 여성 심의위원 평균 비율

〈표 127〉 연도별 여성 심의위원 평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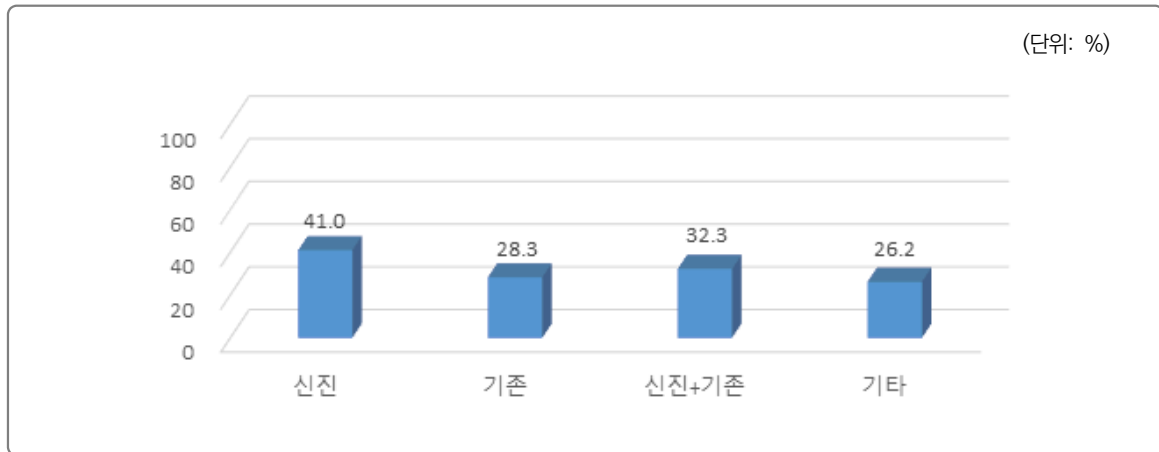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전체 사업 수	사업별 심의위원 수 (평균)	사업별 여성 심의위원 수 (평균)	사업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평균)
2019	134	9.54	3.77	39.1%
2018	117	10.37	3.99	34.0%
2017	101	12.14	3.82	31.9%

나. 지원대상

□ 신진 및 기타 지원대상의 경우 2019년에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증가, 기존과 신진+기존은 모두 감소

- 2019년 신진 보조사업 지원대상의 경우, 2019년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2018년 31.8% 대비 9.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신진 지원대상을 제외한 기존, 신진+기존, 기타 모든 집단에서 2019년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이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57] 2019 지원대상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표 128〉 지원대상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단위: 개, %)

구분	지원대상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전체	신진※	기존	신진+기존	기타※※
2019	157	41.0%	28.3%	32.3%	26.2%
2018	151	31.8%	31.8%	37.9%	25.2%
2017	98	46.1%	35.7%	39.8%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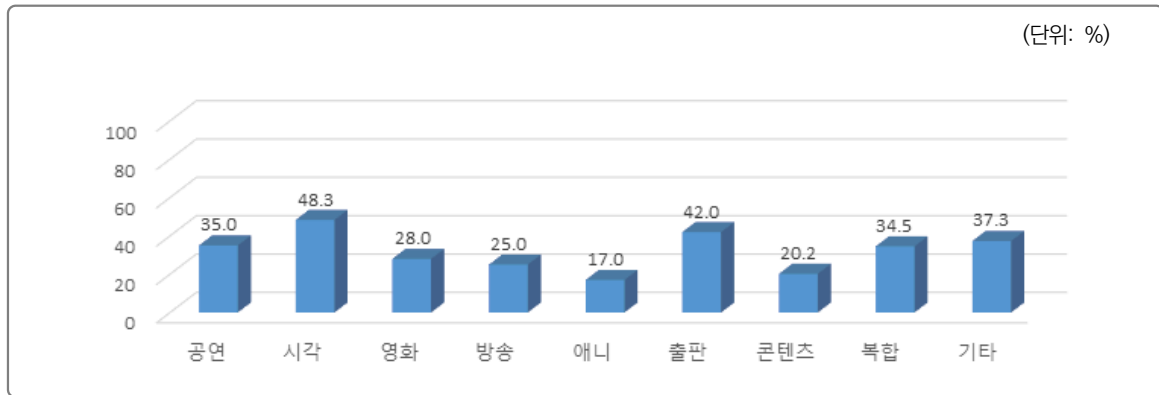
※신진: 신진, 차세대 포함

※※기타: 출판사, 개인+출판사, 중소출판사, 예비 및 관광벤처기업

다. 지원분야

□ 시각·출판·공연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높아짐

- 지원분야에 따라 살펴보면, 시각(48.3%), 출판(42.0%), 공연(35.0%) 등의 분야에서 타 분야 대비 높은 여성 심의위원 비율을 보였고, 애니(17.0%), 콘텐츠(20.2%), 방송(25.0%)에서는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타 분야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2019년 기준)
- 시각, 출판, 방송 분야에서는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2018년 대비 높아졌으나, 여타의 모든 분야에서는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함



[그림 58] 2019 지원분야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표 129〉 지원분야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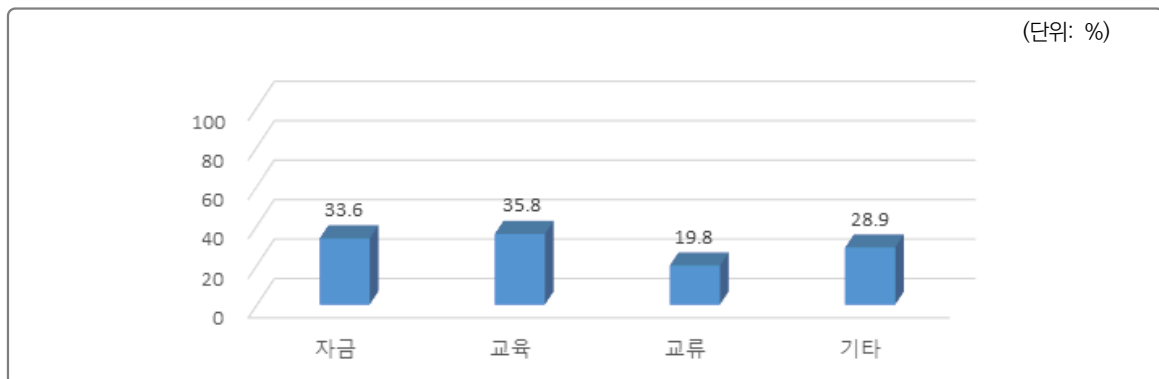
구분	지원분야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전체	공연	시각	영화	방송	애니	출판	콘텐츠	복합	기타
2019	157	35.0%	48.3%	28.0%	25.0%	17.0%	42.0%	20.2%	34.5%	37.3%
2018	151	46.2%	44.0%	43.3%	24.5%	17.5%	40.0%	15.3%	41.1%	37.5%
2017	98	49.3%	66.9%	48.6%	22.5%	21.9%	45.0%	24.3%	38.8%	51.7%

※ 공연: 공연, 연극, 무용 포함 / 시각: 시각, 시각예술, 전시 포함/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포함/ 출판: 출판, 문학, 인문 포함/ 콘텐츠: 콘텐츠, 상품개발, 음악, 게임 포함/기타: 행사, 교육, 패션, 체육, 전통·다원·일반예술 포함

라. 지원유형

□ 교육지원 형태의 보조 사업에서 심의위원의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가장 높음

- 교육지원 보조사업의 경우 2019년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이 35.8%로 네 가지 지원유형 중 가장 높았던 반면, 교류지원 사업의 경우 19.8%로 가장 낮았음



[그림 59] 2019 지원유형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표 130〉 지원유형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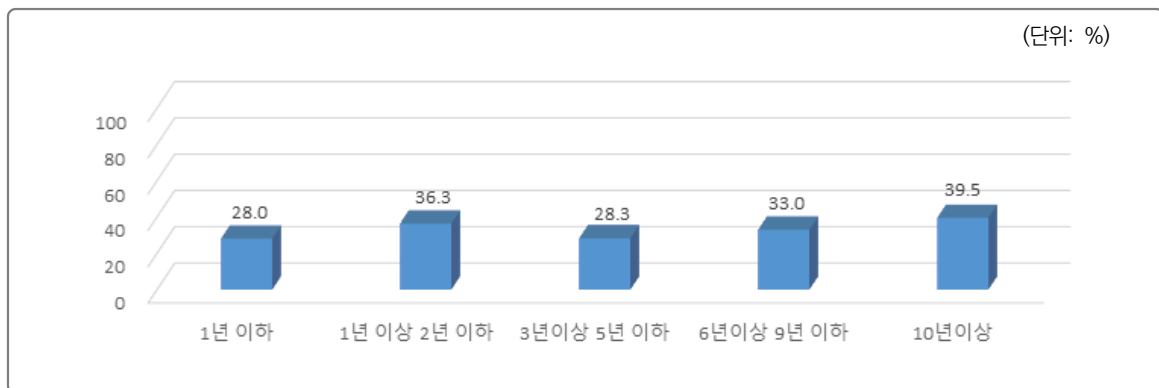
구분	지원유형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전체	자금	교육	교류	기타
2019	157	33.6%	35.8%	19.8%	28.9%
2018	151	36.5%	33.9%	30.3%	25.7%
2017	98	39.2%	46.3%	32.5%	41.1%

※ 자금 : 창작지원금, 원고료, 사업운영비, 도서구입 포함
 기타 : 전시, 연구, 공간, 공연, 플랫폼, 간접, 복합 포함)

마. 사업추진연차

□ 사업추진연차가 10년 이상으로 높은 경우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가장 높음

-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추진연차가 1년 이하인 경우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28.0%로 가장 낮았고, 반면 추진연차가 10년 이상인 경우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음



[그림 60] 2019 사업추진연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표 131〉 사업추진연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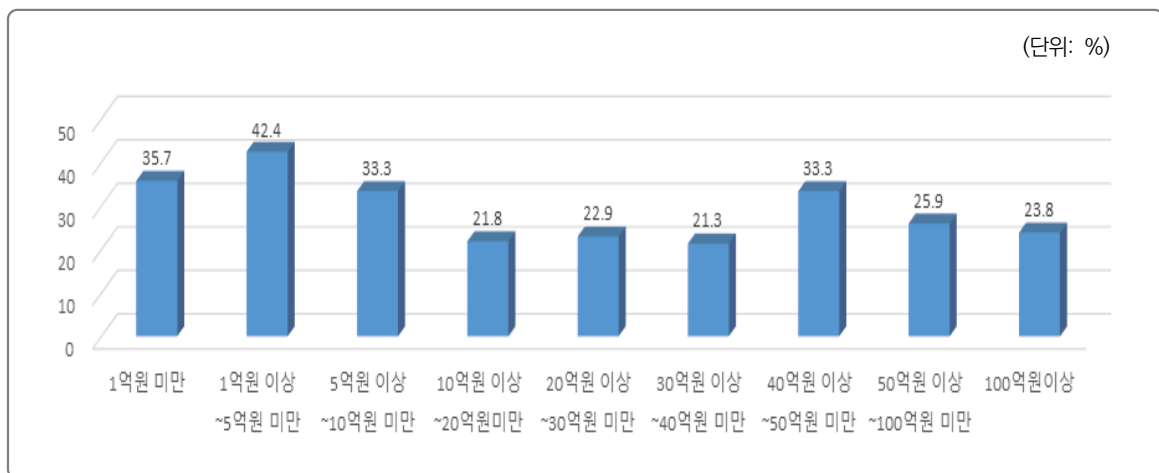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사업 추진연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전체	1년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3년이상 5년 이하	6년이상 9년 이하	10년이상
2019	157	28.0%	36.3%	28.3%	33.0%	39.5%
2018	151	36.0%	26.2%	32.2%	36.5%	42.0%
2017	98	40.0%	33.4%	43.5%	39.1%	41.3%

바. 사업예산

□ 여성 심의위원 비율은 10억 원 이상~40억 원 미만의 중간 영역대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임

- 2019년 기준 여성 심의위원 비율은 사업예산 1~5억 원 미만 규모에서 전체의 42.4%로 가장 높았고, 사업예산 1억 원 미만 규모에서 35.7%로 두 번째 높았음
- 여성 심의위원 비율은 사업예산이 1억 원부터 40억 원까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40~50억원 미만 집단에서 33.3%로 다시 높아짐



[그림 61] 2019 사업예산 규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표 132〉 사업예산 규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단위: 개, %)

구분	사업예산 규모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전체	1억 원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30억 미만	30억~40억 미만	4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억 이상
2019	157	34.6%	39.4%	37.4%	22.2%	23.4%	21.3%	33.3%	27.3%	23.8%
2018	151	42.8%	41.6%	35.2%	24.7%	25.9%	17.2%	42.9%	26.6%	37.9%
2017	98	52.4%	43.4%	40.2%	38.4%	22.9%	44.3%	0.05%	29.3%	20.5%

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지원사업 수혜자 성비⁷⁰⁾

□ 국고보조사업 심사위원의 성비 분석에 대한 참고자료로 대표적인 지원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공연, 시각예술 분야 지원 수혜자 성비를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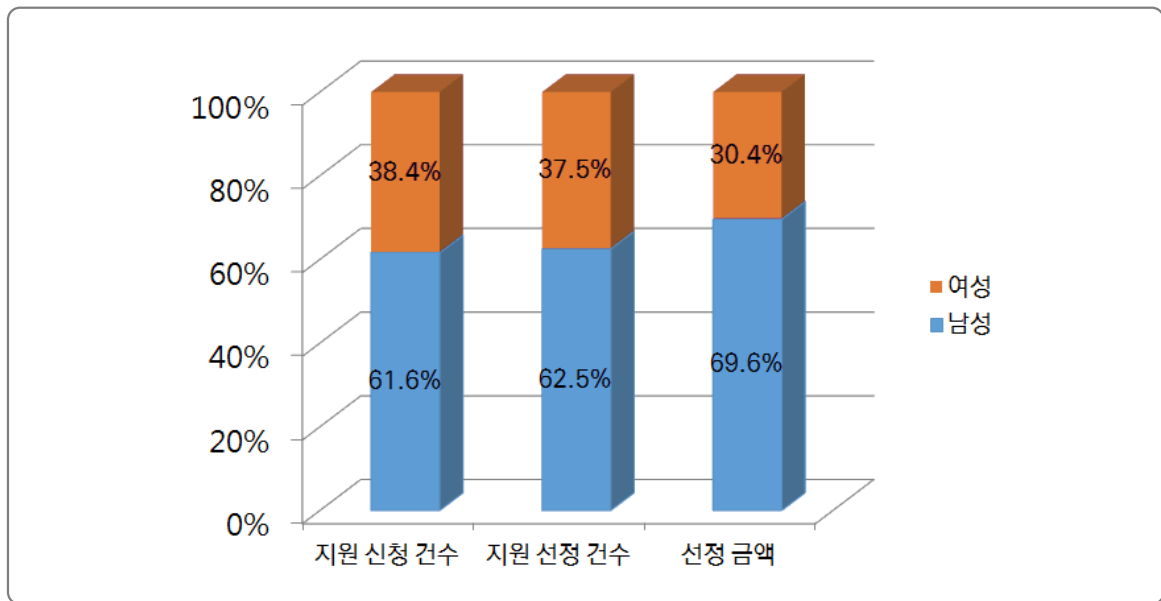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200억 원대 지원 예산을 활용⁷¹⁾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지원 주체임
- 2019년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은 4862건, 290억여 원 규모로 예술 창작지원, 국제교류 지원, 예술인력 육성, 문화예술향유사업 지원 총 네 개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짐
-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시각예술 분야 지원 사업은 총 971건에 대해 150억여 원 규모로 이루어짐
-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의 지원 사업 수혜자 성비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공연예술분야에서 지원 신청자의 성비와 선정된 수혜자의 성비는 모두 남성이 60%대로 여성에 비해 다수를 차지함

- 2016~2019년 아르코의 공연예술 지원 사업 지원자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지원자가 61.6%, 여성 지원자가 38.4%이며, 최종 선정된 수혜자 비율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남성이 62.5%, 여성이 37.5%를 기록함
- 또한 선정 금액의 배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전체 지원금의 69.6%, 여성은 30.4%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공연예술지원 대상 개인과 단체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개인 예술가 중 여성 비율은 58.5%인데 반해 단체의 성별은 37.7%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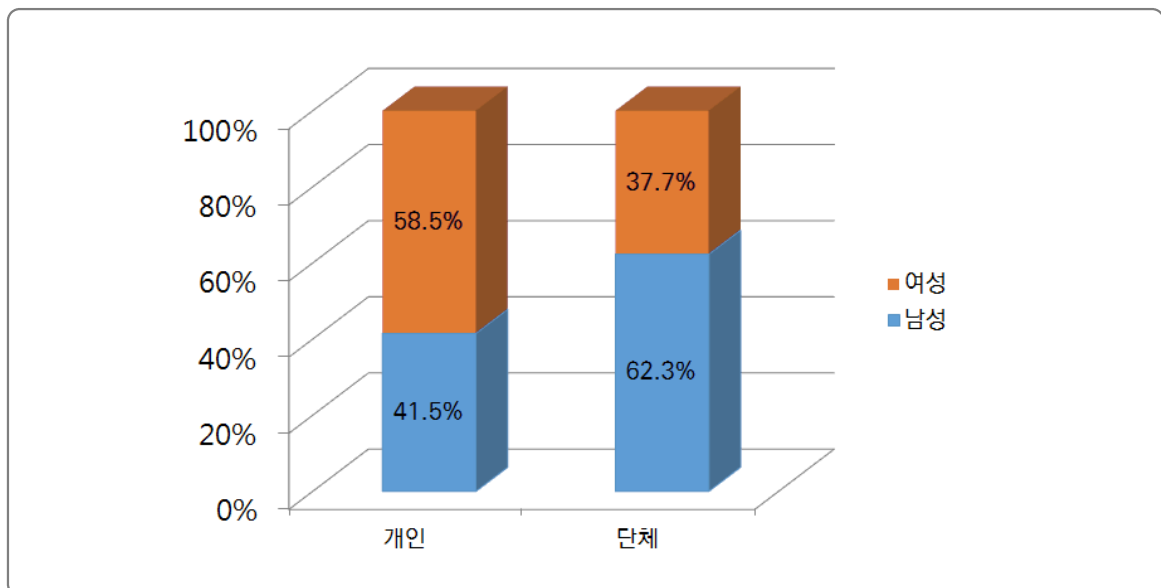
7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2차 오픈 테이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하였는가’』 자료집

71) 이민아(2018). “예술지원정책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쪽



[그림 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신청자·선정자 성별 현황(2016~2019)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2차 오픈 테이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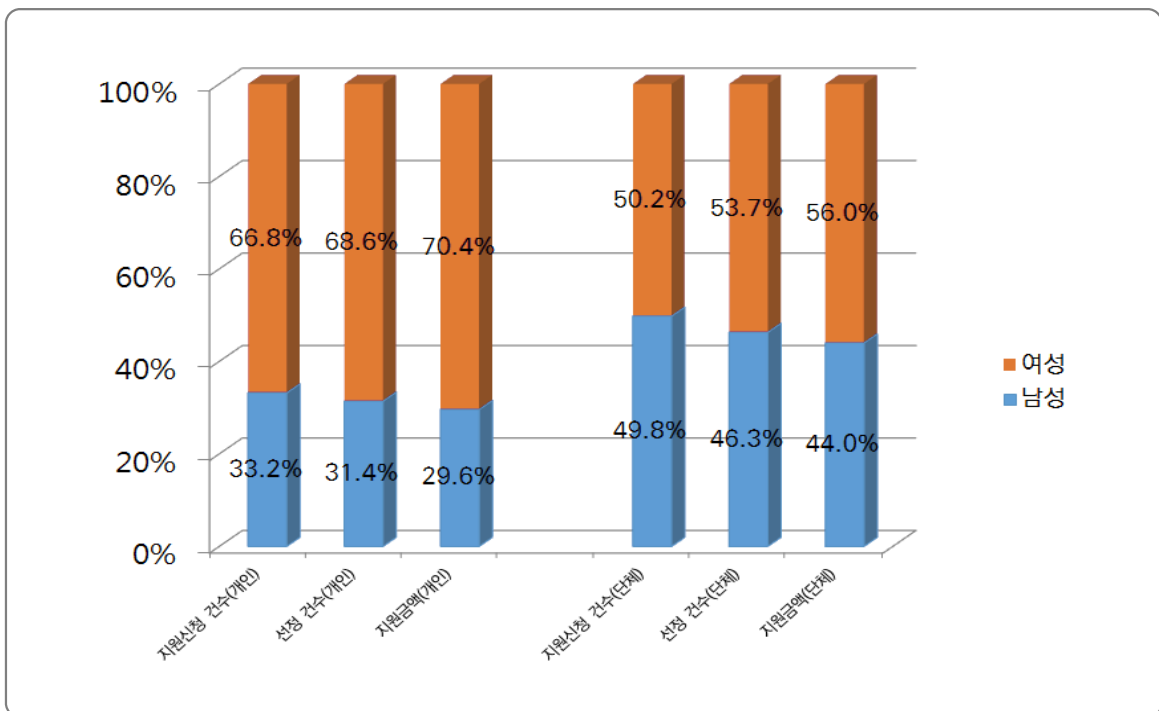


[그림 6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개인·단체 성별 현황(2019)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2차 오픈 테이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자료집

□ 시각예술분야 지원 신청자는 개인 단위에서는 여성이 66.8%, 단체 단위에서는 여성이 50.2% 수준이며 실제 선정된 수혜자 비율도 이와 비슷함

- 2016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르코의 시각예술 지원 사업 지원자 성별 구성비를 살펴 보면, 개인 단위에서는 남성이 33.2%, 여성이 66.8%이며, 단체 단위에서는 여성이 50.2%, 남성이 49.8%로 단체보다는 개인 단위에 여성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수혜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개인 단위에서는 여성이 68.6%, 남성이 31.4%였으며 여성이 전체 지원 금액의 70.5%를, 남성이 29.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단체 단위의 수혜자는 여성이 53.7%, 남성이 46.3%였으며, 수령 금액은 56.0%가 여성 수혜자에게, 44%가 남성 수혜자에게 배분 되는 것으로 드러남



[그림 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개인·단체 성별 현황(2019)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2차 오픈 테이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하였는가’』 자료집

제5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적 관점의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및 과제

제1절 성인지적 관점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DB 구축

1. 통계 DB 종류 및 내용의 다양화

□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분야의 세부산업별 성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전무한 실정임

- 문화예술 분야는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전반의 근무환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별 응답률을 표시하고 있지만, 세부산업별 성별 응답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문화산업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와 일부 세부산업 분야에서 발간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종사자들의 성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보고서의 결과 역시 임금 격차나 4대 보험 가입률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체육과 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통해 산업별 종사자의 성별 지표까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노동환경이나 종사자별 소득에 따른 성별 지표 등 세부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음
-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 걸친 성인지적 관점의 조사가 부재하며, 일부 분야의 경우 사회적 이슈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 인력의 성별 근무 환경에 대한 지표부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 조사, 성폭력 실태조사 등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을 다루는 통계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양성 평등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사자 업무 환경의 성별 격차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초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이는 예술인, 선수 등 산업 내 주요 인력에 대한 지표뿐만이 아닌 산업 전체 종사자에 관한 지표를 포함해야 함
- 한국 여성 전반의 고용 환경을 살펴보면, 20대 후반까지는 활발하던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30대를 기점으로 급락하는데, 이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의미함⁷²⁾. 본 연구결과 문화예술계 여성 인력 역시 비슷한 지표가 확인되었으나, 인과관계를 논의하기에 필요한 여성 복리후생제도 현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관한 지표 등이 부족함

72) 여성가족부(2016).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 조사 분석』

- 장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 등과 같은 다양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안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성폭력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함. 2017년 시행되었던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2019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등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권고하며, 관광분야 역시 산업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를 개발해야 함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통계 기준의 세분화 및 통일

□ 국가 통계 시스템의 세부 분류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 국가 통계는 산업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자료가 부족함. 특히 통계청 통계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추출한 데이터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 및 사업체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음
- 이는 현재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표준산업분류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산업을 타 산업과 분리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예를 들어, 문화예술산업의 하위 산업으로 분류되는 출판, 영상, 방송, 공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산업이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보다 큰 범주의 자료만 제공되어 세부 산업별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또한 예술, 문화, 체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육산업의 경우 교육 분야만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어려운 구조였음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해서는 표준산업분류 및 세부 분류가 국가 차원에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계되는 데이터 항목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분류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 인력의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2000년대 후반 이뤄진 성별 문화인력 통계 DB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력에 대한 국가 통계는 2016년 자료가 가장 최신이며, 전체 산업의 남성과 여성 비율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임
- 2019년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의 주도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등 여성에 대한 지표 자료가 2018년 미투 이후 꾸준히 공표되고 있으나, 현 국가통계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자료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
- 지난 2007년 본 연구원의 『여성문화인력 실태조사 및 DB 구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성별 문화인력 통계 DB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제 DB가 수립됨
- 하지만 2011년 이후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며, 기존 성별 문화인력 통계는 문화체육관광 부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문화센터’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10여 년 전 자료를 고시하고 있음
- 당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의 인력양성 과정, 노동시장 진입 과정,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의 고용특성, 문화전문인력 현황에 대한 지표를 구축해 두었음
- 기존 연구된 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해마다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일시적 차원의 여성 통계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 인력이 활용가능한 성별 통계 지표를 마련해야 함

〈표 133〉 기 구축된 성별 문화예술 문화산업인력 통계 DB 구조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인력양성	정규 교육과정	신입생 수 및 성별비율
		졸업생 수 및 성별비율
노동시장 진입	계열별 취업자 수	직업 및 분야별 취업자 수
	계열별 미취업현황	미취업자 수
	계열별 진학현황	상급학교 진학률
	계열별 전공일치	전공과 활동분야(직업 포함) 일치도
		전공과 직업 일치에 대한 만족도
	구직을 위한 교육	구직을 위한 별도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경험 유무
		별도의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받은 기관
	계열별 취업경로	성별, 전공별 취업경로
		평균 구직기간
		구직 시 애로사항
경제활동상태	계열별 경제활동	분야별 활동기간(경력)
		월평균 총 소득: 임금 + 프리랜서 활동 수입
		임금: 분야별 월평균 임금, 직급별 월평균 임금, 부가급부 유무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취업자의 고용특성	고용특성	사회보험 가입실태
		한 달 평균 근무일 수
		유급휴가 일수: 법정 유급휴가일수, 한 해 실제사용 일수
		직업이동 현황(분야별, 업무별)
		직업이동 사유
		직업이동 과정 중 실업상태 기간
		실업급여 수급 경험 여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구직과정, 직장 내외)
	고용환경	본인-직장의 인사관리에 있어 남녀 직원 간의 평등 정도
		동료-직장의 인사관리에 있어 남녀 직원 간의 평등 정도
		보직이나 승진시 남녀차별에 따른 가장 큰 불이익
		보육과 관련된 시설이나 지원체계 유무
		보육과 관련된 시설이나 지원체계 사용 유무
		직장생활과 보육이 병행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
	고용현황	연령별 고용현황(성별)
		교육수준별 고용현황(성별)
		기관종류별 고용현황(성별)
		활동분야별 고용현황(성별)
		향후 교류를 희망하는 활동분야
		활동영역별 고용현황/과거의 활동영역
		고용형태별 고용현황(성별)
		근로계약 유무 및 형태별 고용현황(성별)
		지역별 고용현황(성별)
		직무별 고용현황(성별)
		직급별 고용현황(성별)
		근무시간별 고용현황(성별): 하루 평균 근무시간, 추가 활동시간 및 자기계발시간, 순수 여가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유무별 고용현황(성별)
	성별고용확대	주 보육책임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모성관련 국가/지자체 보조금 수혜여부
문화전문인력	문화예술	분야별 문화전문인력, 지역별 문화전문인력 분포, 문화전문인력의 특성, 각 개인의 정보(출신지역, 학력, 거주지역, 연령, 결혼 유무)
	문화산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 성별 문화인력 통계 DB』, 연구요약 6쪽 참고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2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DB 구축 방법 및 시스템 보완

1. 생산 데이터의 분류 기준·범주 표준화 및 호환성 제고

□ 현재 통계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산업별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의 양성평등 수준을 분석 할 때에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 개편이 필요

- 고용노동통계 데이터 중 산업분류별 성별 데이터에 활용하는 산업분류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수준으로 세분화할 필요성 존재
- 예를 들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전체에 대한 성별 지표가 아닌 대분류인 ‘출판업(58)’ 내 중분류인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소분류인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5812)’ 내지 세분류인 ‘신문발행업(58121)’ 까지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한국산업표준분류 코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는 세부산업별 분류 코드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세분류 산업별 성별지표까지 확인가능할 때 현재의 지표가 가진 과대 대표, 중복데이터 발생의 문제를 없애고 보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성인지 환경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동향		2019년 05월			
세부항목	종사자_전체	근로자_상용	근로자_임시...	종사자_기타	
전체	912,032.0	745,846.0	102,855.0	63,329.0	
출판업	258,383.0	243,731.0	5,709.0	8,942.0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47,838.0	33,231.0	8,596.0	6,010.0	
방송업	29,353.0	27,802.0	231.0	1,321.0	
정보서비스업	49,128.0	46,253.0	1,553.0	1,321.0	
인쇄및기록물제작복제업	58,718.0	55,665.0	2,544.0	509.0	
장작,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6,801.0	70,160.0	21,376.0	5,266.0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220,657.0	132,715.0	49,160.0	38,782.0	
수상운송업	19,268.0	18,579.0	500.0	189.0	
항공운송업	36,528.0	36,049.0	478.0		
숙박업	95,358.0	81,661.0	12,708.0	989.0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15					
표	상세보기	1.1월	2.2월	3.3월	4.4월	5.5월	6.6월
표측1							
1.문화체육관광 산업		1,074,327.0	1,071,244.0	1,079,162.0	1,086,361.0	1,085,241.0	1,087,478.0
2.남성		449,745.0	448,994.0	454,514.0	458,548.0	459,111.0	460,292.0
3.여성		624,582.0	622,250.0	624,648.0	627,813.0	626,130.0	627,187.0

[그림 65] 현재 통계청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계 분류 수준

출처: 문화센터 사이트 내 문화체육관광분야 고용동향,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데이터,

2. 문화체육관광부·통계청·정보생산기관 및 단체 협업 제고

□ 문화·체육·관광 인력에 대한 성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계의 정기 조사 의무화

-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적 관점을 다루는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세부산업별로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는 분야가 많아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별 산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임
- 따라서 성별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분야별 실태조사를 보다 확대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를 다루는 실태조사를 2~3년 주기마다 진행하고, 해당 실태조사에 성인지적 관점의 질문을 담는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산업별·성별 분류가 이뤄진 국가 통계 데이터를 확보할 때 발생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 가장 최신의 정확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력의 성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 연구진은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제공 자료를 활용함
- 통계빅데이터센터의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접근성이 낮음. 일반 이용자에게는 센터 이용 날짜별로 이용료가 부과되며 데이터 이용자의 소속 및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에 차등이 있어 이런 절차를 거쳐 실제 자료를 확인하고 가공하여 반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적게는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됨
- 연구진 역시 자료 이용을 위해 자료 사전 이용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분석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주문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협의 과정이 복잡한 등의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체육·관광 산업 내 양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터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관을 불문한 다양한 주체들이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그림 66] 통계빅데이터 센터 이용 절차

출처: 통계빅데이터센터 사이트, <http://data.kostat.go.kr/sbchome/index.do>, 2019.10.29

□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통계청, 정보 생산 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기관의 협업 수준을 제고하고 정보 이용의 호환성을 개선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국책기관조차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원시자료를 확인 및 열람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를 방문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성을 해제하고 데이터가 궁금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함
- 통계청 데이터 활용 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잡한 절차를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 식별코드 등을 삭제하고 집계치 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정부 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 학술 연구 단체와 자료공유 MOU를 체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자료 이용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원활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성별 통계에 근거한 정책 연구 사업을 확대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

- 실제로 각 분야별 장르별 성별 통계를 활용하여 현재의 성인지 정책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이 요구됨
- 근로 관련 양성평등 정책의 핵심은 입직과 활동 과정에서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실제 전공자와 취업자의 성비가 비슷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 프리랜서가 70%인 문화예술계 내⁷³⁾에서 협·단체 고위직, 심사위원 등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입직자 성비에 비해 낮은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와 연구가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한편, 산업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남성이 다수인 산업(영화 등)과 여성이 다수인 산업(디자인 등) 등에 기계적인 양성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양성평등 근로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확한 산업별 통계가 필요함
- 경제활동 분야나 활동 방향은 사실상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받은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때문에 교육 단계에서부터 입직이나 근로 단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통계 지표가 마련되어야 함

□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뤄져야 함

-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보의 생산, 소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검증의 단계에서 통계의 질적 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통계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모니터링 시스템은 연구 과정 전후와 연계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과 더불어 내·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73)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제3절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평등 수준 측정 정례화

1.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ultural Gender Structure Index) 개발 및 적용

□ 문화체육관광 정책 환경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 지수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성평등지수, 지역 성평등지수 등이 개발되어 사용 중이며, 국제적으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와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주도로 국제 성평등 지수가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 이들 지표는 국가, 혹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집계된 포괄적인 형태의 지수로, 세부산업별 현황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산업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종사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문화 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ultural Gender Structure Index, CGSI)로 표현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활용한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ultural Gender Structure Index)를 보다 정교하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함

-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SI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여성비율/남성비율이라는 단순 수식만으로 성 격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향후 CGSI를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표구성 체계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 지수를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고용형태는 일반 산업에 비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보정 값을 활용하는 등 세부 조정안이 마련되어야 함

2.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GSI)를 바탕으로 한 성인지 정책 성과 평가

□ CGSI를 성인지 정책 효과 분석 및 평가 시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 문화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CGSI)는 성인지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가 됨
-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관 평가, 기업 및 단체의 경영 평가, 사업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등의 경우 성인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4절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차별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질적 연구 조사

1. 공공·협·단체의 성 불평등 구조 심층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 산업 종사 중 발생하는 성 불평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 이뤄진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분석(2005)』 등을 잇는 후속 연구가 재개되어야 함

- 기업 단위로 종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타 산업과 달리 프리랜서, 계약직 등 종사형태가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소속 협·단체 정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함
- 지난 2005년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예체능계의 높은 여학생 학위취득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의 연령대별 차이,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장르별 특성, 남녀차별에 대한 견해 등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진 바 있으나 관련 후속 연구는 미비한 상태
-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성 불평등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 조사 이후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 및 상담 분석보고서(2019)』, 『스포츠산업 성폭력 실태조사(2019)』 등을 바탕으로 한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확대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폭력, 성희롱 실태 조사는 직장 종사 여성과 여성 인구 전체에 대한 조사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
- 문화예술계나 체육 산업은 입직까지의 교육기간이 길고,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하는 순간 업계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신고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높아 타 직군 연구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실태조사와 통계 분석 연구 등을 바탕으로 산업 내부의 특징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는 심층 연구가 이뤄져야 함
- 특히 관광산업 분야는 전체 산업에 대한 인력현황보고서와 관광동향 보고서가 주를 이루며, 종사자 성별에 따른 영향 연구는 전무한 상태임. 영세사업자, 가족무급봉사자 등이 많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광산업 여성 종사자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관리, 감시 등에 관한 연구 필요

- 일반 기업과 달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인사 담당 기구나 감사 기구 등 독립적으로 징계 및 처벌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함. 피해자가 직접 형사 절차를 부담하지 않고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임
- 문제가 제기될 경우 업계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퇴출당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가해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한 관리·감시 방안 연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
- 또한 교육의 방향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에게 보다 적합한 형태로 구성, 전달되어야 함

2. 여성 문화 인력의 활동 기반 강화

□ 전문성을 갖춘 여성 문화인력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

- 2000년대 초중반에 시작한 여성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문화계 양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은 시기를 거듭하면서 변화해왔음⁷⁴⁾
- 처음 문화예술계 여성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을 시행한 2000년대에는 여성 문화 종합 실태 조사와 문화예술계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 여성문화예술 행사 및 예술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음
- 2018년 발표된 『문화비전 2030』에 따르면 최근 여성 인력에 관한 정책으로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 중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 구축⁷⁵⁾에 방점을 찍고 있음
- 정책의 연속성을 위하여 ① 여성 전문 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②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 양성평등, 인권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방점을 두는 것을 권고함

□ 산업 내 입직 경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유리천장을 제거하는 형태로 여성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최근 문화체육관광 분야 여성 종사자의 학력 수준, 경험 수준, 역량 등을 보았을 때 남성에 비해 역량이 낮다고 말할 수 없음. 보다 중요한 지점은 여성 종사자도 남성 종사자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 기회를 제공받고, 경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임
- 이를 위해 입직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용정보의 접근성을 성별 간 동등한 수준이 되게 하며, 공개채용의 형식을 장려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74) 문화관광부(2005),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 현황』

75)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 또한 유리천장으로 인해 여성 전문 인력이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협·단체 등에서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및 관련분야 인센티브 제도 등을 구축해야 함
- 의사결정기구 내의 여성 대표성은 유리천장의 제거와 동시에 이뤄질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양성평등·인권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온·오프라인에 구축

- 여성 인력의 양성이 여성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수준을 넘어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형태로 이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성평등 문화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온·오프라인 상에 개발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또한, 남성이 양성평등 이슈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양성평등 전문가에 남성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하며, 성 중립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표 134〉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안)

정책 방향	정책 과제
I. 성인지적 관점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DB 구축	1) 통계 DB 종류 및 내용의 다양화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통계 기준의 세분화 및 통일
II.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DB 구축 방법 및 시스템 수정 보완	1) 생산 데이터의 분류 기준·범주 표준화 및 호환성 제고 2) 문화체육관광부·통계청·정보생산기관 및 단체 협업 제고
III.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평등 수준 측정	1) 문화체육관광분야 (가칭)젠더구조지수 (CGSI) 개발 및 적용 2) (가칭)CGSI를 바탕으로 한 성인지 정책 성과 평가
VI.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차별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질적 연구 조사	1) 공공·협단체의 성 불평등 구조 심층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2) 여성 문화인력 활동 기반 강화 방안 제시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김미경(2015). “젠더질서의 변화와 ‘유연한 젠더레짐’: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고”, *사회사상과 문화*, 19권 4호.
- 김수아(2015). 『페미니즘 연구』(한국여성연구소).
- 김혜인(2018). “양성평등문화정책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 격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논총』, 32집 3호.
- 백승대·안도현(2017),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6(1).
- 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2018).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2030』
- 송철재(2019),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 일자리조사 결과”, 웹진 문화관광, 2019년 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민아(2018). “예술지원정책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 황은정(2018).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 자치구 내 성 주류화와 성 평등 의식 수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식·사명철(2010). “문화예술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 분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1): 4151-4160.
- Anker, R. (1997). “Theories of occupational segregation by sex: An overview”,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136
- Banks, M., & Milestone, K. (2011). “Individualization, gender and cultural work”. *Gender, Work & Organization*, Vol.18, issue 1
- Fraser, N., & Honneth, A.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 Hesmondhalgh, D., & Baker, S. (2015). “Sex, gender and work segregation in the cultural industries”, *The Sociological Review*, 63(2015)
- Miller, D.(2016). “Gender and the Artist Archetype: Understanding Gender Inequality in Artistic Careers”, *Sociology Compass* 10(2).
- Neff, G., E. Wissinger & S. Zukin(2005). “Entrepreneurial Labor among Cultural Producers: “Cool” Jobs in “Hot” Industries“, *Social Semiotics*, 15(3)
- Proctor-Thompson, S. B.(2014). “Feminist futures of cultural work? Creativity, gender and difference in the digital media sector”. *In Theorizing Cultural Work*, Routledge.

보고서

- 게임개발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2017). 『2016 게임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 관계부처 합동(2019).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9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교육부(2017). 『201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DB 연계 취업통계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2018). 『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실태 분석』,
- 문화관광부(2005).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2009 성별 문화인력 통계DBⅠ : 통계편.』
-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연예술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5). 『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광고산업 통계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 (2018.3.12.-6.19) 분석 보고서』 (연구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이수연)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 이행사항 점검 결과』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
- 여성가족부(2014).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윤소영)
- 영화진흥위원회(2019).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원(2019). 『2018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
- 유네스코(2018). 『문화다양성협약 글로벌리포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2차 오픈 테이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자료집』
- 한국스포츠개발원(2017). 『스포츠부문 일자리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2018 신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여성재단(2018). 『2018 성평등 문화정책 포럼 결과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Ⅱ)』 (연구책임: 안상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2018 한국의 성인지 통계』

-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2018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 ECONOMIST(2019). “The Glass Ceiling Index Report”
- OECD(2015). PISA(국제학업성취도)
- WEF(2018).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뉴스 및 신문기사

- 노컷뉴스(2019.03.15.), “장자연-승리·정준영, 10년 잇는 성착취 '카르텔'”
- 매일경제(2019.9.16.), 정부위원회 4곳 중 3곳 여성비율 40% 넘어
- Guardian(2018.2.20.). “See change: the battle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the art world.”
- Skillset(2010). “Women in the Creative Media Industries.”
- 대한체육회 체육포털 스포츠원(2017.08.04.). “‘양성평등과 젠더밸런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 인터넷 자료 및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201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 현황(2019)
- 인사혁신처 및 알리오 경영공시
- e-나라지표
- Inter-Parliamentary Union(2019). Percentage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OECD(2014~2018). Gender Wage Gap
- OECD(2018). OECD 2018 Employment Outlook
- 통계청(2010~2017). 콘텐츠산업 :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 통계빅데이터센터(2019), 종사자 DB
- 통계빅데이터센터(2019), 기업등록부 DB
-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2017) 성인지통계
- Culture/Action/Europe(2016). Gender Inequalities in the Cultural Sector
- Fard, J.F.(2017). Women outnumber men at art schools-so why isn't their work being shown in galleries once they graduate?, Bustle, 2017. 05.17

부록

1. 기관 대상 설문지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통계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통계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기관·협회 및 교육기관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파악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내의 성평등을 모색하여 향후 정책 및 현장 환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성인지 정책의 발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02-2669-9839)

이안전전략컨설팅 신지원 연구원(02-6929-1936)

[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개원연도	년	홈페이지 주소		
주소				
대표자명				
설립주체명				
설립주체 형태	① 공공기관 ② 협회 ③ 단체 ④ 국공립 시설 ⑤ 교육기관			
장르	① 문화예술 ② 문화산업 ③ 체육 ④ 관광			
응답자 정보	이름		부서	
	직위		연락처	

I. 기관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Q1. 2019년 5월 현재, 귀 기관/협·단체/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평균임금, 근속년수에 대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남	여	남	여
직원	명	명	명	명
상시 근로자 수	명	명	명	명
평균 임금*	원	원	원	원
평균 근속년수**	년	년	년	년

* 평균임금 : (남/여)의 '19년 5월 전체임금/(남/여)의 인원 수

** 평균 근속년수 : (남/여)의 '19년 5월 기준 전체 근속년수/(남/여)의 인원 수

Q2. 귀 기관/협·단체/시설의 직급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순서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표 추가 또는 변경 가능

직급구분	직제상 정원	현원		계
		남	여	
예) 임원	명	명	명	명
1급	명	명	명	명
2급	명	명	명	명
3급	명	명	명	명
4급	명	명	명	명
5급	명	명	명	명
무기계약직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Q3. 귀 기관/협·단체/시설의 2018년 신입직원의 성비 및 정규직 여부에 대해 응답 부탁드립니다.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남	여	남	여
신입직원 수	명	명	명	명

Ⅱ. 기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Q4. 다음의 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남녀 성비에 대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남	여
보직자 회의참여자	명	명
이사회 임원	명	명
안시위원회/징계위원회	명	명
노동/노사위원회	명	명

Ⅲ. 육아 복지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Q5. 2018년 1년 동안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했던 근로자의 비율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	여
2018년 근로자 수	명	명
신청자 수	명	명

Q6. 다음 중 귀 기관/협·단체/시설에서 지원하는 보육제도는 무엇인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육시설		출퇴근시간 조정		조기퇴근제	
	있음	없음	가능	불가능	임신 중	출산 후
응답						

§ 오랜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2. 설문조사 응답 기관 리스트

1	수원문화재단	28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	55	재단법인하남문화재단	82	(재)영주문화관광재단
2	한국영상자료원	29	재단법인동작문화재단	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3	(재)원주문화재단
3	(재)창원문화재단	30	재단법인마포문화재단	57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84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4	한국콘텐츠진흥원	31	문화체육관광부	58	한국언론진흥재단	8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재)달성문화재단	32	서울문화재단	59	세종학당재단	8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6	태권도진흥재단	33	(재)성남문화재단	60	한국저작권보호원	87	한국예술종합학교
7	(재)김해문화재단	34	성북문화재단	61	한국정책방송원	88	세종시문화재단
8	강릉문화재단	35	아시아문화원	62	한국체육대학교	89	완주문화재단
9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36	영상물등급위원회	63	한국체육산업개발(주)	90	목포문화재단
10	게임물관리위원회	37	영화진흥위원회	64	해외문화홍보원	91	영월문화재단
11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	38	예술의전당	65	재단법인행복북구문화재단	92	달서문화재단
12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39	재단법인용인문화재단	66	재단법인강북문화재단	93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3	국립국악원	40	재단법인은평문화재단	67	재단법인거제시문화예술재단	94	홍천문화재단
14	국립민속박물관	41	(재)의정부예술의전당	68	재단법인경주문화재단	95	화성문화재단
15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42	재단법인인천서구문화재단	69	(재)고양문화재단	96	한국문학번역원
16	국립중앙극장	43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70	국립국어원	9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7	국립중앙도서관	44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71	국립한글박물관	98	안양문화예술재단
18	국립중앙박물관	45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72	국립박물관문화재단	9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9	국립현대미술관	46	재단법인청송문화관광재단	73	국립국악중등학교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	재단법인국악방송	47	춘천시문화재단	74	군포문화재단	10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1	국제방송교류재단	48	충남문화재단	75	재단법인대구문화재단	102	재단법인금천문화재단
22	(재)당진문화재단	49	평창군문화예술재단	76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103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23	(재)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50	재단법인포항문화재단	7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4	대한장애인체육회	51	한국관광공사	7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5	대한체육회	5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79	부천문화재단		
26	(재)도봉문화재단	5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0	서초문화재단		
27	(재)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54	한국문화정보원	81	재단법인여주세종문화재단		

3. 문화체육관광분야 법인(협, 단체) 대표자 성비 조사

소재지		형태	
1	서울	1	재단법인
2	부산	2	사단법인
3	대구	3	공익재단법인
4	인천	분야	
5	광주	1	문화예술
6	대전	2	체육
7	울산	3	관광
8	세종	4	콘텐츠산업
9	경기	5	기타
10	강원	자본금	
11	충북	1	5억 원 미만
12	충남	2	10억 원 미만
13	전북	3	30억 원 미만
14	전남	4	50억 원 미만
15	경북	5	100억원 미만
16	경남	6	100억 원 이상
17	제주	성별	
		1	여성
		2	남성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	한국문화정보원	1	1	5	2002	1	1	-
2	국가와 문화	1	1	5	1998	-	2	-
3	아침편지문화재단	11	1	5	2004	3	2	-
4	우호문화재단(공익)	1	3	5	2003	-	2	-
5	화동문화재단(공익)	1	3	5	2007	6	2	-
6	GS칼텍스재단(공익)	1	3	5	2006	6	2	-
7	재단법인일우재단(공익)	1	3	5	1991	6	1	-
8	네이버문화재단	9	1	5	2005	3	2	-
9	벽산문화재단(공익)	1	3	5	2010	-	2	-
10	성안나 재단(공익)	1	3	5	2013	5	2	-
11	송강재단(공익)	1	3	5	2016	6	2	-
12	한국문화복지재단	6	1	5	2014	1	2	-
13	한국언어문화연구원	1	1	5	2001	1	2	-
14	한글재단	1	1	5	1995	1	2	-
15	한글학회	1	1	5	1908	1	2	-
16	한국어능력평가원	1	1	5	2011	1	1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7	문화엑스포	15	1	5	1996	6	2	-
18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5	1	5	2005	1	2	-
19	향남문화재단	14	1	5	2007	1	2	-
20	표암문화재단	15	1	5	2009	1	2	-
21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16	1	5	2005	1	2	-
2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	1	1	1987	1	2	-
23	가야문화연구원	1	1	1	1987	1	2	-
24	내일을여는역사재단	1	1	5	2006	1	2	-
25	대도문화재단	4	3	1	1989	-	2	-
26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	1	5	1982	-	2	-
27	서계문화재단	9	1	5	2004	1	2	-
28	우계문화재단	1	1	5	1987	1	2	-
29	청명문화재단	1	1	5	1998	-	2	-
30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1	1	5	2003	1	2	-
31	한국문화협회	1	3	5	1956	1	2	-
32	명원문화재단	1	1	1	1995	2	1	-
33	행복전통마을	15	1	1	2012	2	2	-
34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1	1	3	2014	2	2	-
35	풍석문화재단	1	1	1	2015	1	2	-
36	지역문화진흥원	1	1	1	2017	1	2	-
37	아시아미래재단	1	1	3	2003	2	2	-
38	한려공예예술재단	1	3	1	2003	1	2	-
39	한국사회발전문화재단	1	1	1	1990	-	2	-
40	어바인한국문화재단	1	1	1	2009	-	2	-
41	(재)국제건축문화교류재단	1	1	5	2012	-	2	-
42	한국문학진흥재단	1	1	5	1978	1	2	-
43	신영균예술문화재단	1	1	1	1981	3	2	-
44	파라다이스문화재단	1	1	1	1989	5	1	우경문화재단
45	대산문화재단(공익)	1	3	1	1992	6	2	-
46	한무숙재단	1	1	5	1993	-	2	-
47	방촌문화재단	5	1	1	1994	5	2	라인 문화재단
48	토지문화재단	10	3	1	1996	-	1	-
49	한국현대문학관	1	3	1	1996	-	2	-
50	일신문화재단(공익)	1	3	5	1989	3	2	-
51	한국예술종합학교발전재단(공익)	1	3	1	1992	-	2	-
52	세화예술문화재단	1	1	1	2009	5	1	선화예술문화재단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53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	1	1	2006	1	1	-
5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1	1	2012	1	2	-
55	삼익문화재단(공익)	1	3	1	2013	-	2	-
56	포스코 1퍼센트 나눔재단(공익)	1	3	1	2013	-	2	-
57	더 작은 재단	1	1	1	2014	3	2	-
58	윤이상평화재단	1	1	1	2005	-	2	-
59	한국연극인복지재단	1	1	1	2005	1	1	-
60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공익)	1	1	1	1977	6	2	-
61	CJ문화재단	1	1	1	2006	-	2	-
62	전문무용수지원센터	1	1	1	2007	-	1	-
63	재단법인차범석연극재단	1	1	1	2006	-	1	-
64	현대차정몽구재단	1	1	1	2007	6	2	-
65	국악방송	1	1	1	2000	1	1	-
66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1	1	1	2007	1	1	(구. 국악문화재단)
67	대원문화재단(공익)	1	3	1	2004	-	2	-
68	(재)국립발레단(공익)	1	3	1	2000	2	1	-
69	국립합창단(공익)	1	3	1	2000	1	2	-
70	국립오페라단(공익)	1	3	1	2000	1	2	-
71	서울예술단(공익)	1	3	1	1990	1	2	-
72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	1	1	2001	1	2	-
73	한국문화재단	1	1	1	2003	3	1	-
74	유진음악문화재단	5	1	1	1990	-	2	-
75	이해랑연극재단	1	1	1	1990	1	1	-
76	옥랑문화재단(공익)	1	3	1	1991	3	1	-
77	정동극장(공익)	1	3	1	1996	2	2	-
78	LG연암문화재단(공익)	1	3	1	1969	-	2	-
79	세화문화재단	1	1	1	2001	-	2	-
80	국립극장발전기금(공익)	1	3	1	2003	3	2	국립극장진흥재단
81	유니버설문화재단	1	1	1	2004	5	1	-
82	국립극단	1	1	1	2010	1	2	-
83	(재)국립현대무용단	1	1	1	2010	1	2	-
84	(재)뭇소리	9	1	1	-	-	2	-
85	(재)우란문화재단	1	1	1	2013	1	2	-
86	(재)어린이공연문화재단행복한아이	1	1	1	2014	-	2	-
87	정호국악문화재단	1	1	1	2014	-	2	-
88	수림문화재단	1	1	1	2009	6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89	프라임문화재단	1	1	1	2008	-	2	-
90	김세중기념사업회	1	1	1	1987	-	2	-
91	아산미술문화재단	14	1	1	1988	-	2	-
92	김수근문화재단	1	1	1	1988	-	2	-
93	석남미술문화재단	1	1	1	1989	-	2	-
94	환기재단(공익)	1	3	1	1989	5	1	-
95	월전미술문화재단	1	1	1	1989	-	2	-
96	동방연서회	1	1	1	1991	-	2	-
97	대유문화재단(공익)	9	3	1	1992	6	2	-
98	백송미술문화재단	1	1	1	1992	-	1	-
99	서보미술문화재단	1	1	1	1993	-	2	-
100	국민예술협회	1	2	1	1994	-	2	-
101	한솔문화재단(공익)	1	3	1	1995	4	1	-
102	광주비엔날레	5	1	1	1995	6	2	-
103	석주문화재단	1	1	1	1996	-	1	-
104	석은미술문화재단	1	1	1	2000	-	1	-
105	장욱진미술문화재단	9	1	1	1998	-	2	-
106	청암문화재단	1	1	1	1997	-	2	-
107	의재문화재단	5	1	1	1998	-	2	-
108	한국사진문화재단	1	1	1	1999	-	2	-
109	인주문화재단	1	1	1	2000	-	2	-
110	운보문화재단(공익)	11	3	1	2001	-	2	-
111	원곡문화재단	1	1	1	2002	-	2	-
112	가현문화재단	1	1	1	2002	1	1	한미문화예술재단
113	유영국미술문화재단	1	1	1	2004	3	1	-
114	설원량문화재단	1	1	1	2005	5	1	-
115	대림문화재단(공익)	6	3	1	1996	6	2	-
116	박건희문화재단	1	1	1	2001	-	2	-
117	성곡미술문화재단(공익)	1	3	1	1995	6	2	-
118	한원미술관	1	1	1	1993	3	2	-
119	백남준문화재단	1	1	1	2012	-	2	-
12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	1	1	2010	4	2	-
121	한국색채문화진흥재단	9	1	1	2006	-	2	-
122	목천 김정식 문화재단	1	1	5	2006	5	2	-
123	한국디자인연구재단	9	1	1	2011	-	2	-
124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1	1	1	2014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25	(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1	1	1	2013	1	2	-
126	(재)아트시지	1	1	1	2014	-	2	-
127	(재)아름다운 맵(MAP)	1	1	1	2014	-	1	-
128	행촌문화재단	14	1	1	2014	-	2	-
129	(재)금곡학술문화재단(공익)	1	3	5	2008	-	1	-
130	5.16민족상	1	1	5	1968	-	2	-
131	서재필기념회(공익)	1	3	5	2004	-	2	-
132	충현문화재단	9	1	5	2003	5	2	-
133	삼일문화재단	9	1	5	1966	6	2	-
134	책읽는사화문화재단	1	1	5	2008	1	2	-
135	(재)한국사회과학자료원	1	1	5	1983	6	2	-
136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1	1	5	2006	1	1	-
137	도서관문화재단씨앗	9	1	5	2007	6	2	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
138	우리도서관 재단	9	1	5	2011	3	2	행복한도서관재단
139	구정문화재단(공익)	12	3	1	1987	-	2	-
140	남농미술문화재단(공익)	14	3	5	1985	-	2	-
141	성보문화재단(공익)	1	3	1	1981	6	2	-
142	세연문화재단(공익)	11	3	5	1991	-	2	-
143	송암문화재단(공익)	1	3	1	1989	6	1	-
144	우호문화재단(공익)	1	3	1	2007	-	2	-
145	정일영-이태형박사기념사업회	1	1	1	1989	1	2	-
146	한빛문화재단(공익)	1	3	1	1992	6	1	-
147	청현문화장학재단	1	1	5	2011	-	1	-
148	(재)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1	1	1	2013	3	1	-
149	(재)문화창조융합센터	1	1	4	2015	-	2	-
150	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공익>	1	3	4	2006	-	2	-
151	한국영화인복지재단	1	1	4	1984	-	2	-
152	명필름문화재단	9	1	4	2012	-	2	-
153	게임문화재단	1	1	4	2008	1	2	-
154	(재)엔씨소프트문화재단	9	1	4	2012	-	1	-
155	(재)스마일게이트희망스튜디오	9	1	4	2012	-	2	-
156	게임인재단	9	1	4	2013	-	2	-
157	노래의섬(재단법인)	10	1	4	2001	5	1	-
158	한국음악산업진흥재단	1	1	4	2000	-	1	-
15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	1	4	2003	1	2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160	한류문화인진흥재단	1	1	4	2014	-	1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6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9	1	4	1998	1	2	-
162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1	1	5	1992	3	2	-
163	방일영문화재단	1	1	5	1993	-	1	-
164	삼성언론재단	1	1	5	1995	4	2	-
165	성곡언론문화재단	1	1	5	1965	-	2	-
166	유민문화재단	1	1	5	1999	5	2	-
167	정진기언론문화재단	1	1	4	1981	-	1	-
168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	1	1	5	2002	-	1	-
169	LG상남언론재단	1	1	5	1995	6	2	-
170	(재)OBS문화재단	9	1	4	2007	-	2	-
171	(재)SBS문화재단	1	1	4	1993	6	1	-
172	국제방송교류재단	1	1	4	1996	6	2	-
173	금성문화재단	1	1	5	1993	4	2	-
174	백봉제기념출판문화진흥재단	9	1	4	2001	-	2	-
175	출판도시문화재단	9	1	4	2003	6	2	-
176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1	1	4	1986	-	1	-
177	한국출판연구소	1	1	4	1986	3	2	-
178	(재)국민체력센터	1	1	2	2000	-	2	-
179	(재)케이스포츠	1	1	2	2016	6	2	-
180	(재)대한민국축구사랑나눔재단	1	1	2	2012	-	2	-
181	한국기원(정책과 소관)	1	1	2	1970	6	2	-
182	(재)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11	1	2	2016	-	2	-
183	스포츠안전재단	1	1	2	2010	2	2	-
184	서울평화상문화재단	1	1	5	1992	-	2	-
185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1	1	2	2008	-	2	-
186	제이에스파운데이션	9	1	2	2010	1	2	-
187	국제스포츠재단	1	1	2	2012	-	2	-
188	GKL사회공헌재단<공익>	1	3	5	2014	-	2	-
189	유엔더블유티오스텝파운데이션	1	1	3	2004	-	2	-
190	한국방문위원회	1	1	3	2008	-	2	-
191	인컴PR	1	1	5	1993	1	2	-
192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1	1	5	1948	-	2	-
193	대한불교천태종	11	1	5	1991	-	2	-
194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1	1	5	1954	-	2	-
195	대한불교관음종	1	1	5	1989	6	2	-
196	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	9	1	5	2007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97	대한불교진흥원	1	1	5	1975	4	2	-
198	만해사상실천선양회(재)	10	1	5	2002	-	2	-
199	은정불교문화진흥원	1	1	5	2002	5	2	-
200	한국에스.지.아이	1	1	5	2000	-	2	-
201	대한불교조계종선원수좌회	9	1	5	2012	-	2	-
202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NCCK)	1	1	5	1972	1	2	-
203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1	1	5	1971	1	2	-
204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1	1	5	1964	6	2	-
205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1	1	5	1963	-	2	통일재단
206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1	1	5	1969	-	2	-
20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1	1	5	1973	-	2	-
208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	1	1	5	1982	6	2	-
209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유지재단	1	1	5	2007	-	2	-
210	대한성서공회	1	1	5	1971	4	2	-
211	순복음선교회	1	1	5	1989	6	2	-
212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1	1	5	1924	-	1	-
213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5	1	5	1938	6	1	-
214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3	1	5	1938	6	2	-
215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2	1	5	1962	6	2	-
216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4	1	5	1962	6	2	-
217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6	1	5	1969	6	2	-
218	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9	1	5	2004	-	2	-
219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9	1	5	1967	-	2	-
220	춘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0	1	5	1955	-	1	-
221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10	1	5	1967	-	2	-
222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1	1	5	1961	-	2	-
223	전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3	1	5	1938	6	2	-
224	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7	1	5	1938	-	2	-
225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15	1	5	1977	-	2	-
226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6	1	5	1970	-	2	-
227	천주교군중교구유지재단	1	1	5	1990	-	2	-
228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1	1	5	1924	-	2	-
229	성균관	1	1	5	1963	-	1	-
230	원불교	13	1	5	1948	-	1	-
231	천도교유지재단	1	1	5	1954	-	2	-
232	대순진리회	1	1	5	1987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233	대종교유지재단	1	1	5	1958	-	2	-
234	국제마음훈련원	13	1	5	2012	2	2	-
235	한국문화복지협의회	1	2	1	1996	-	2	-
236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1	2	1	1998	-	2	-
237	우리문화사랑	1	2	1	2011	2	2	-
238	우리문화진흥회	13	2	1	1998	-	2	-
239	문화를 나누는사람들	1	2	1	1999	-	1	-
240	또하나의문화	1	2	1	1999	-	1	-
241	한빛문화기획자개발원	1	2	1	1999	-	2	-
242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1	2	1	2005	-	2	-
243	시민자치문화센터	1	2	5	2000	-	1	-
244	살기좋은나라아름다운손길	1	2	1	2001	-	2	-
245	함께하는문화마당	1	2	1	2002	-	2	-
246	열린세상국민문화운동본부	1	2	5	2003	-	2	-
247	한국문화정책연구소	1	2	5	2003	-	1	-
248	문화네트워크	1	2	5	2004	-	2	-
249	한국여가문화학회	1	2	5	2004	-	1	-
250	웰빙소사이어티	1	2	2	2004	-	2	-
251	시민문화회의	5	2	5	2005	-	2	-
252	한국문화인류학회	1	2	5	2005	-	1	-
253	중앙아시아학회	9	2	5	2007	-	2	-
254	문화문	1	2	1	2005	-	2	-
255	일과여가문화연구원	1	2	5	2005	-	2	-
256	문화사회연구소	1	2	5	2005	-	2	-
257	한국사회학회(공익)	1	3	1	1996	-	2	-
258	서동아트비전	13	2	1	2006	-	2	-
259	다문화열린사회	1	2	1	2006	-	2	-
260	문화미래 이프	1	2	1	2006	-	1	-
261	국경없는 마을	9	2	1	2006	-	2	-
262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연구원	1	2	1	2007	-	2	-
263	디엠제트문화포럼	1	2	3	2010	-	2	-
264	풀로엮은 집	1	2	1	2008	-	2	-
265	문화미래포럼	1	2	1	2008	-	2	-
266	한국문화비전	1	2	1	2008	-	2	-
267	문화예술연합	1	2	1	2008	-	2	-
268	한국문명교류연구소	1	2	1	2008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269	문화인재경영협회	1	2	1	2009	-	1	-
270	여성문화네트워크	1	2	1	2009	-	1	-
271	문화예술나눔	9	2	1	2009	-	2	-
272	나눔문화	1	2	5	2009	-	2	-
273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	1	2	5	2010	-	2	-
274	세로토닌 문화	1	2	1	2010	1	2	-
275	나라(독도)살리기 문화운동본부	1	2	1	2013	-	2	-
276	(사)다문화교류네트워크	1	2	1	2012	-	2	-
277	(사)한국문화정책학회	1	2	1	2012	-	2	-
278	더불어 꿈	1	2	5	2012	-	2	-
279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9	2	5	2013	-	2	-
280	독도문화협회	12	2	5	2014	-	2	-
281	이노비	1	2	5	2006	-	2	-
282	따뜻한 재단	1	1	5	2012	4	1	-
283	다문화연예예술총연합회	1	2	5	2013	-	2	-
284	한국이슬람문화협회	1	2	5	2015	-	2	-
285	사랑그리고문화나눔	1	2	1	2016	-	2	-
28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	2	5	1957	1	2	-
287	국어순화추진회	1	2	5	1985	-	2	-
288	국어정보학회	1	2	5	1990	-	2	-
289	한글문화연구회	1	2	5	1990	-	2	-
290	한국어문화	1	2	5	1991	-	2	-
291	온누리 한글 문자화 협의회	1	2	5	2001	-	2	-
292	국어고전문화원	1	2	5	2004	-	2	-
293	(사)국어생활연구원	1	2	5	2010	-	1	-
294	사단법인한글문화연대	1	2	5	2008	-	2	-
295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1	2	5	2011	-	2	-
296	한말글	1	2	5	2012	-	2	-
297	사단법인국립한글박물관후원회	1	2	1	2014	-	2	-
298	사단법인 한국공공통번역협회	1	2	5	2016	-	2	-
299	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	1	2	4	2010	-	2	-
300	한국꽃꽂이협회	1	2	5	1965	-	1	-
301	화랑묘보존회	12	2	5	1971	-	2	-
302	한국복식학회	1	2	5	1975	-	1	-
303	예지원	1	2	5	1977	-	2	-
304	담수회	3	2	5	1963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305	한국의상협회	1	2	5	1975	-	1	-
306	한민족윤리회의	1	2	5	1987	-	2	-
307	이초려기념사업회	12	2	5	1988	-	2	-
308	사계·신독재양생기념사업회	1	2	5	1991	-	2	-
309	한국추사체연구회	1	2	1	1991	-	2	-
310	고려역사선양회	1	2	5	1994	-	2	-
311	한국비림원	1	2	1	1997	4	2	-
312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1	2	5	1997	-	2	-
313	민족사바로찾기연구원	1	2	5	1997	-	2	-
314	함석헌기념사업회	1	2	5	1998	-	1	-
315	대한장기협회	1	2	5	1999	-	1	-
316	한복문화학회	1	2	5	1997	-	1	-
317	운석장면기념사업회	1	2	5	1999	-	2	-
318	동학무극사상연구회	1	2	5	2000	-	2	-
319	동방문화진흥회	1	2	5	2000	-	2	-
320	한국자연예술총연합회	9	2	5	2001	-	2	-
321	나눔문화연구소	1	2	5	1998	1	2	-
322	미래가족문화연합	1	2	1	2001	-	2	-
323	우리민족음식문화보존협의회	1	2	5	2001	-	2	-
324	한국난연합회	5	2	5	2001	-	2	-
325	민족정기회	1	2	4	2002	-	1	-
326	박약회	1	2	4	2003	1	2	-
327	한국역사문화연구원	1	2	5	2003	-	2	-
328	제정구기념사업회	1	2	5	2003	-	2	-
329	한국꽃예술학회	1	2	1	2004	-	1	-
330	슬로푸드한국위원회	1	2	5	2004	-	1	-
331	한문화진흥협회	1	2	1	2004	2	1	-
332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	9	2	5	2004	-	2	-
333	우리문화영토연구소	1	2	5	2005	-	2	-
334	한국연사랑모임	1	2	1	2005	-	2	-
335	한국구들문화보전협회	10	2	5	2005	-	2	-
336	대산신옹호기념사업회	1	2	5	2005	-	2	-
337	한국녹색문화진흥회	1	2	5	2005	-	2	-
338	한국고전머리협회	8	2	5	2005	-	1	-
339	한복단체총연합회	1	2	5	2005	-	1	-
340	한민족문화대로	1	2	1	2005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341	우리문화나눔	1	2	5	2006	-	2	-
342	함께여는세상	1	2	5	2006	-	1	-
343	한국전통한복문화원	1	2	5	2006	-	1	-
344	생명과평화의길	1	2	5	2006	-	2	-
345	2020희망의역사공동체	1	2	5	2006	-	2	-
346	한국한지공예협회	9	2	1	2006	-	1	-
347	민족문화살리기운동본부	1	2	5	2006	-	2	-
348	한국한지문화산업발전연합회	1	2	1	2006	-	1	-
349	한국궁중복식연구원	1	2	1	2006	-	1	-
350	한민족문화협회	1	2	1	2007	-	1	-
351	전국유림총연합회	1	2	5	2007	-	2	-
352	한국민속문화진흥협회	1	2	5	2008	-	2	-
353	한국토속문화진흥협회	1	2	5	2008	1	2	-
354	한국민속학회	1	2	5	2008	-	2	-
355	한국생활문화연구원	1	2	5	2008	-	2	-
356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1	2	5	2008	-	2	-
357	한국음식문화연구원	1	2	5	2008	-	2	-
358	(사)한국뿌리문화보존회	1	2	5	2009	-	2	-
359	(사)세계전통복식문화연구원	1	2	5	2010	-	1	-
360	(사)한국공동체문화연구소	1	2	5	2010	-	2	-
361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13	2	5	2011	-	2	-
362	회재이언적기념사업회	1	2	5	2011	-	2	-
363	(사)예장문화법인 허브	1	2	4	2011	-	2	-
364	선비정신과풍류문화 연구소	1	2	5	2011	-	2	-
365	장날	1	2	5	2012	-	1	-
366	(사)대한민국역사문화원	1	2	5	2012	-	1	-
367	(사)지역문화소통연구원	1	2	5	2012	-	2	-
368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1	2	5	2007	-	2	-
369	(사)대한사랑	1	2	5	2013	-	2	-
370	(사)한국민족문화연구원	1	2	1	2013	-	2	-
371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1	2	5	2012	-	1	-
372	인문학문화포럼	1	2	5	2012	-	2	-
373	한국문화기획학교	1	2	5	2013	-	1	-
374	장보고기념 사업회	1	2	5	2013	-	2	-
375	한국전통주 진흥학회	12	2	5	2013	-	2	-
376	대한무사회	3	2	5	2013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377	한국미용문화사연구협회	1	2	1	2013	-	1	-
378	한국전래놀이문화협회	1	2	1	2013	-	1	-
379	한국문화의집 협회	1	2	1	2005	-	2	-
380	대한명인회	5	2	1	2004	-	2	-
381	한국차문화협회	1	2	1	2014	-	1	-
382	이순신 포럼	1	2	5	2013	-	2	-
383	한국참종이문화협회	1	2	1	2014	-	2	-
384	한국천연염색연구회	4	2	1	2014	-	1	-
385	한국역술인협회	1	2	5	1992	-	2	-
386	한국자연지리협회	1	2	5	2015	-	2	-
387	한국효문화센터	9	2	1	2015	-	2	-
388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9	2	1	2017	-	2	-
389	세계전통문화놀이협회	14	2	1	2017	-	1	-
390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11	2	1	2017	-	2	-
391	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	1	2	5	2017	-	2	-
392	아시아태평양문화협회	1	2	5	1971	-	2	-
393	국제피플투피플한국본부	1	2	5	1972	-	1	-
394	한·일문화친선협회	1	2	1	1976	-	2	-
395	동북아문화연구원	1	2	1	1985	-	2	-
396	한국에스페란토협회	1	2	5	1986	-	2	-
397	한국대외문화협회	1	2	1	1990	-	2	-
398	한국현대중국연구회	1	2	1	1991	-	2	-
399	국제문화친선협회	1	2	1	1993	-	2	-
400	한·러문화교류협회	1	2	1	1995	-	1	-
401	한·러문화협회	1	2	1	1995	-	1	-
402	한·티베트문화연구원	3	2	1	1998	-	1	-
403	한·중여성교류협회	1	2	1	1999	-	2	-
404	우크라이나문화예술원	9	2	1	1999	-	2	-
405	세계예능교류협회	1	2	1	1999	-	2	-
406	한·중문화교류협회	1	2	1	2000	-	2	-
407	국제전통문화예술교류협회	1	2	1	2001	-	2	-
408	한일문화진흥협회	1	2	1	2001	-	2	-
409	한일문화교류협회	1	2	1	2002	-	2	-
410	세계평화미술대전조직위원회	1	2	1	2002	-	2	-
411	미래문화	1	2	1	2002	-	1	-
412	국제문화예술평화협회	1	2	1	2003	-	1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413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1	2	1	2003	-	2	-
414	한국노년문화교류협회	1	2	1	2003	-	2	-
415	한중사상문화연구소	5	2	1	2004	-	2	-
416	한국-아시아문화친선교류협회	1	2	1	2005	-	1	-
417	국제문화예술협회	1	2	1	2006	-	2	-
418	한외국인친선문화협회	1	2	1	2006	-	2	-
419	동방문화발전교류협회	1	2	1	2006	-	2	-
420	동북아비전21	4	2	1	2007	-	2	-
421	한국문화교류회	1	2	5	2007	-	1	-
422	한·중문화예술포럼	1	2	1	2007	-	2	-
423	한국통번역사협회	1	2	5	2007	-	2	-
424	아시아문화교류협회	1	2	1	2007	-	1	-
425	한중문화우호협회	1	2	1	2007	-	2	-
426	한국과세계문화교류협회	1	2	5	2008	-	1	-
427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	5	2	1	2008	-	2	-
428	인터아시아문화학회	1	2	5	2008	-	1	-
429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9	2	5	2008	3	2	-
430	중화국제문화교류협회	1	2	1	2009	-	2	-
431	한국문화예술교류협회	1	2	1	2009	-	2	-
432	고운국제교류사업회	1	2	1	2009	-	2	-
433	(사)서울공자아카데미	1	2	1	2009	-	2	-
434	(사)알타이문화포럼	1	2	1	2009	-	2	-
435	(사)국제통역번역협회	1	2	1	2011	-	2	-
436	한중문화관광미디어총연합회	1	2	1	2011	2	2	-
437	(사)아시아비즈니스문화교류협회	1	2	1	2012	-	2	-
438	(사)국제스트릿댄스협회	1	2	1	2012	-	2	-
439	(사)하얀코끼리	1	2	5	2012	-	2	-
440	(사)월드브릿지오브컬처	1	2	1	2012	-	1	-
441	(사)한중문화교류중심	1	2	5	2013	-	1	-
442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1	2	1	2013	-	1	-
443	(사)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1	2	5	2013	-	2	-
444	(사)국가브랜드진흥원	1	2	5	2013	1	2	-
445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1	2	1	1963	-	2	-
446	한국문인협회	1	2	5	1982	-	2	-
447	한국예술문화진흥회	6	2	1	1988	-	2	-
448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1	2	5	1989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449	어린이문화진흥회	1	2	5	1991	-	2	-
450	한국잡전예술인협회	1	2	5	1992	-	2	-
45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1	2	1	1993	-	2	-
452	한국작가회의	1	2	1	1996	-	1	-
453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1	2	1	1998	-	1	-
454	한국소설가협회	1	2	1	1999	-	2	-
455	시사랑문화인협의회	1	2	1	1999	-	2	-
456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1	2	1	2001	-	2	-
457	한국회극작가협회	1	2	1	2014	-	2	-
458	한국시인협회	1	2	1	2002	-	1	-
459	한국여성문화예술인총연합	1	2	1	2002	-	1	-
460	청소년어문진흥회	1	2	1	2015	-	2	-
461	국제펜클럽한국본부	1	2	1	2003	-	2	-
462	아시아문예진흥원	1	2	5	2005	-	1	-
463	이청준기념사업회	1	2	5	2015	-	2	-
464	한국현대시인협회	1	2	5	2005	-	1	-
465	실험예술가협회	1	2	1	2005	-	2	-
466	아시아문화네트워크	1	2	1	2005	-	2	-
467	조병화시인기념사업회	1	2	5	2006	1	2	-
468	구상선생기념사업회	1	2	5	2006	-	2	-
469	(사)세계문인협회	1	2	1	2007	-	1	-
470	한국예술경영학회	1	2	1	2006	-	2	-
471	한국메세나협회	1	2	1	1994	1	2	-
472	한국예술문화원	1	2	1	2012	-	2	-
473	국제문화예술친선협회	1	2	1	2012	-	2	-
474	아시아페이스페인팅협회	1	2	1	2013	-	1	-
475	월드휴먼케어	1	2	1	2014	-	1	-
476	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	1	2	1	2014	-	1	-
477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1	2	1	1993	1	2	-
478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1	2	1	1996	-	2	-
479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1	2	1	1999	-	1	-
480	우리들의 눈	1	2	1	2001	-	1	-
481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1	2	1	2002	-	2	-
482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1	2	1	2002	-	2	-
483	열린세상국민문화운동본부	1	2	5	2003	-	2	-
484	한국장애인문화협회	1	2	5	2003	1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485	빛소리 친구들	1	2	1	2006	-	2	-
486	한국장애인미술협회	1	2	1	2008	-	2	-
487	한국장애예술인협회	1	2	1	2009	-	1	-
488	한국장애인서예협회	1	2	1	2010	-	2	-
489	꿈톡음	1	2	1	2010	1	2	-
490	한국시각장애인공연예술단	1	2	1	2010	-	2	-
491	복지네트워크 유어웨이	1	2	5	2011	-	1	-
492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1	2	1	2013	-	1	-
493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1	2	1	2015	-	1	-
494	한국문학관협회	9	2	1	2017	-	2	-
495	한국국예협회	1	2	1	1962	-	2	-
496	한국음악협회	1	2	1	1962	-	2	-
497	한국연극협회	1	2	1	1963	-	2	-
498	한국공연기획제작가협회	1	2	1	1963	-	2	-
499	한국무용협회	1	2	1	1964	-	2	-
500	한국작곡가협회	1	2	1	1978	-	2	-
501	한국조명가협회	1	2	1	1982	-	2	-
502	국제문화예술협회한국위원회	1	2	1	1983	-	2	-
503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1	2	1	1985	-	1	-
504	국립중앙극장예술진흥회	1	2	1	1987	-	2	-
505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	1	2	1	1988	-	1	-
506	서울오페라단	1	2	1	1988	-	2	-
507	금강문화연구원	13	2	1	1989	3	2	-
508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1	2	1	1990	1	2	-
509	한국발레연구학회	1	2	1	1990	-	1	-
510	김자경오페라단	1	2	1	1991	5	1	-
511	세화예술협회	1	2	1	1991	-	1	-
512	서울팝스오케스트라	1	2	1	1991	1	2	-
513	아시아오페라단	1	2	1	1992	-	2	-
514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1	2	1	1992	-	2	-
515	국제음악애호가협회	1	2	1	1992	-	2	-
516	웃는돌	9	2	1	1993	-	1	-
517	동방문화예술교류협회	1	2	1	1993	-	2	-
518	대구필하모닉오케스트라	3	2	1	1994	-	2	-
519	무궁화예술단	16	2	1	1994	-	1	-
520	국제예술문화원	2	2	1	1994	-	1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521	가원국제음악문화회	1	2	1	1994	-	2	-
522	신세대문화예술교류단	1	2	1	1994	-	2	-
523	청소년문화개발원	1	2	1	1992	-	1	-
524	국제청소년문화협회	1	2	1	1980	-	2	-
525	한국청소년사랑회	12	2	1	1996	-	2	-
526	호남오페라단	13	2	1	1996	-	2	-
527	고려문화예술	1	2	1	1996	-	2	-
528	여의도예술문화	1	2	1	1996	-	2	-
529	한국공연예술원	1	2	1	1996	-	2	-
530	서울무용예술아카데미	1	2	1	1997	-	1	-
531	한국페스티벌앙상블	1	2	1	1997	-	2	-
532	비하우스첼로앙상블	1	2	1	1997	-	2	-
533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	2	1	1997	-	2	-
534	서울발레시어터	9	2	1	1998	1	1	-
535	미라클오브뮤직	1	2	1	1998	-	2	-
536	한국발레협회	1	2	1	1998	-	1	-
537	중앙무용문화연구원	1	2	1	1999	-	2	-
538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	1	2	1	1999	1	1	-
539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1	2	1	1999	-	2	-
540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	1	2	1	1999	-	1	-
541	대한무용학회	1	2	1	1999	-	1	-
542	영재문화예술진흥회	1	2	1	1999	-	2	-
543	글로리아오페라단	1	2	1	1999	-	1	-
544	아시아태평양아동청소년 공연예술 프로듀서 네트워크 한국본부	1	2	1	1999	-	2	-
545	불교음악협회	1	2	1	1999	-	2	-
546	연극배우협회	1	2	1	2000	-	2	-
547	아름다운 세상	1	2	1	2000	-	2	-
548	한국오페라단	1	2	1	2000	1	2	-
549	리얼춤연구원	1	2	1	2000	-	1	-
550	사단법인 코리언발레시어터	1	2	1	2000	-	1	-
551	서울그랜드오페라단	1	2	1	2000	-	2	-
552	삼보불교음악협회	1	2	1	2000	-	2	-
553	조승미발레단	1	2	1	2000	-	1	-
554	전국소공연장연합회	1	2	1	2000	-	2	-
555	서울뮤지컬진흥회	1	2	1	2001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556	세종예술음악협회	1	2	1	2001	-	2	-
557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16	2	1	2001	-	2	-
558	무대예술전문인협회	1	2	1	2001	-	2	-
559	음악사랑운동본부	1	2	1	2001	-	2	-
560	한국지휘자협회	1	2	1	2001	-	2	-
561	사단법인밀물예술진흥원	1	2	1	1984	-	2	-
562	한국분장예술인협회	1	2	1	2001	-	1	-
563	한국대중문화예술진흥회	1	2	1	2001	-	2	-
564	강원오페라단	1	2	1	2001	-	2	-
565	서울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1	2	1	2001	-	2	-
566	서울튜티앙상블	1	2	1	2001	-	1	-
567	철도지하철예술진흥연구원	1	2	1	2002	-	2	-
568	유라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	2	1	2002	-	2	-
569	뉴서울오페라단	1	2	1	2002	-	1	-
570	코리아태권도예술단	1	2	1	2002	-	2	-
571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1	2	1	2002	1	2	-
572	한국민족극운동협회	1	2	1	2002	-	2	-
573	서울바로크합주단	1	2	1	2003	-	2	-
574	한국미술협회	1	2	1	2003	-	1	-
575	한국합창조직위원회	2	2	1	2003	-	1	-
576	한국살사협회	5	2	1	2003	-	2	-
577	청소년수호천사문화예술진흥회	1	2	1	2004	1	2	-
578	한국교사연극협회	1	2	1	2004	-	2	-
579	최승희춤연구회	1	2	1	2004	-	2	-
580	한국민족음악가연합	1	2	1	2005	-	1	-
581	예모임	1	2	1	2005	-	1	-
582	피레미에필하모닉오케스트라	1	2	1	2005	-	2	-
583	사단법인 통일문화예술원	1	2	1	2005	1	1	-
584	한국합창총연합회	1	2	1	2005	-	2	-
585	한국델픽위원회	1	2	1	2005	-	2	-
586	사단법인한국현대무용협회	1	2	1	2005	-	1	-
587	한국뮤지컬협회	1	2	1	2006	-	2	-
588	한국여성작곡가회	1	2	1	2006	-	1	-
589	무용문화포럼	1	2	1	2006	-	1	-
590	한국비보이협회	1	2	1	2007	-	2	-
591	사단법인 우리춤협회	1	2	1	2007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592	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설명회	1	2	1	2008	-	2	-
593	(사)한국라인댄스협회	1	2	1	2008	-	1	-
594	한국아르헨티나땅고협회	1	2	1	2008	-	2	-
595	김백봉춤연구회	1	2	1	2008	-	2	-
596	대한민국오페라단협회	1	2	1	2008	-	1	-
597	예술산업 진흥회	1	2	1	2008	-	2	-
598	부암뮤직소사이어티	1	2	1	1997	-	2	-
599	한국국악협회	1	2	1	1961	1	2	-
600	대한시조협회	1	2	1	1990	1	2	-
601	국제아세아민속학회	1	2	1	2006	-	2	-
602	민족음악원	12	2	1	2007	-	2	-
603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1	2	1	2008	-	2	-
604	(사)지라니문화사업단	1	2	1	2008	1	2	-
605	(사)유니버설공연예술협회	1	2	1	2008	-	1	-
606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	1	2	1	2009	1	1	-
607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발전협의회	1	2	1	2009	-	2	-
608	문화예술교육협회	1	2	1	2007	1	2	-
609	대한하모니카협회	1	2	1	1965	-	2	-
610	한국시각장애인공연예술단	1	2	1	2010	-	2	-
611	한국소극장오페라연합회	1	2	1	2010	-	2	-
612	한국생활음악협회	12	2	1	2009	1	2	-
613	서울국제문화교류회	1	2	1	2010	-	2	-
614	(사)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1	2	1	1992	-	2	-
615	(사)대한실용무용총연맹	10	2	1	2010	-	2	-
616	(사)문화소사이어티	1	2	1	2010	-	2	-
617	(사)한국인형극협회	1	2	1	2010	-	1	-
618	(사)대한살사협회	9	2	1	2010	-	1	-
619	(사)서울국제문화교류회	1	2	1	2010	1	1	-
620	(사)한국소극장오페라연합회	1	2	1	2010	-	2	-
621	(사)페스티벌 봄	1	2	1	2010	-	1	-
622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1	2	1	2011	-	2	-
623	(사)월드하모니	1	2	1	2011	-	2	-
624	(사)나눔문화예술협회	1	2	1	2012	-	1	-
625	(사)한국기타문예원	9	2	1	2013	-	2	-
626	(사)한국문화예술지원협회	1	2	1	2009	6	2	-
627	한국관악문화예술원	9	2	1	2014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628	무대음향협회	1	2	1	2014	-	1	-
629	대한현악기제작자협회	1	2	1	2011	-	2	-
630	동편제 이선유 판소리 보존회	1	2	1	2015	-	1	-
631	한국민족춤협회	1	2	1	2014	-	1	-
632	한국전통춤협회	1	2	1	2017	-	2	-
633	한국프로사진협회	1	2	1	1958	-	2	-
634	한국미술협회	1	2	1	1962	-	2	-
635	한국사진작가협회	1	2	1	1963	-	1	-
636	한국청소년미술협회	1	2	1	1968	-	2	-
637	한국일요화가회	1	2	1	1977	-	2	-
638	현대미술관회	9	2	1	1981	-	2	-
639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1	2	1	1989	-	2	-
640	한국화랑협회	1	2	1	1991	-	1	-
641	한국서예협회	1	2	1	1993	-	2	-
642	한국서가협회	1	2	1	1993	-	2	-
643	목우회	1	2	1	1993	-	2	-
644	전국서화예술인협회	2	2	1	1994	-	1	-
645	국미회	1	2	1	1995	-	1	-
646	한국판화사진진흥협의회	1	2	1	1995	-	2	-
647	대한산업미술가협회	9	2	1	1996	-	2	-
648	동양서예연구회	2	2	1	1997	-	2	-
649	한가람회	1	2	1	1997	-	1	-
650	한국전업미술가협회	1	2	1	1998	-	2	-
651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	9	2	1	1998	-	1	-
652	한국서화협회	1	2	1	1998	-	1	-
653	한국서화작가협회	1	2	1	1998	-	2	-
654	민족사진가협회	1	2	1	1999	-	2	-
655	구상전	1	2	1	1999	-	2	-
656	민족미술인협회	1	2	1	2001	-	1	-
657	21C청년작가협회	9	2	1	2001	-	2	-
658	한국서각협회	1	2	1	2001	-	2	-
659	유여서법학회	1	2	1	2001	-	2	-
660	21세기 문화예술진흥회	1	2	1	2002	-	2	-
661	환경미술협회	1	2	1	2002	-	2	-
662	한국미술창작협회	1	2	1	2002	-	2	-
663	지구촌미술협회	1	2	1	2002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664	한국서도협회	1	2	1	2002	-	2	-
665	한국장식문화예술진흥협회	1	2	1	2003	-	2	-
666	한국문인화협회	1	2	1	2004	-	2	-
667	녹미술문화협회	1	2	1	2004	-	1	-
668	한국사립미술관협회	1	2	1	2005	-	1	-
669	갈물한글서회	1	2	1	2005	-	1	-
670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1	2	1	2005	-	2	-
671	미술인회의	1	2	1	2006	-	2	-
672	세계수채화연맹	1	2	1	2006	-	2	-
673	한국기초조형학회	1	2	1	2006	-	2	-
674	한국서예진흥협회	1	2	1	2007	-	2	-
675	한국민화작가협회	1	2	1	2007	-	2	-
676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	1	2	1	2008	1	2	한국미술정보연구소
677	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	1	2	1	2008	-	2	-
678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1	2	1	2009	-	1	-
679	예문와	1	2	1	2006	-	1	-
680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	1	2	1	2011	-	2	-
681	사진가 신낙균선생 기념사업회	1	2	1	2010	-	2	-
682	한국석조각예술협회	12	2	1	2012	-	1	-
683	대한민국 한지그림협회	1	2	1	2012	-	1	-
684	한국누드사진협회	1	2	1	2012	-	2	-
685	동양서예협회	1	2	1	2012	-	2	-
686	대한임상미술협회	1	2	1	2013	-	1	-
687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1	2	1	2005	-	2	-
688	한국건축가협회	1	2	5	1969	-	2	-
689	한국여성건축가협회	1	2	5	2006	-	1	-
690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2	2	5	2003	3	2	-
691	내일의 도시	1	2	1	2003	-	2	-
692	한국공공디자인학회	1	2	1	2006	1	2	-
693	문화도시연구소	1	2	1	2006	-	2	-
694	공간문화센터	1	2	1	2006	-	2	-
695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1	2	1	2007	-	1	-
696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1	2	1	2007	-	2	-
697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1	2	1	2007	1	1	-
698	한국공간디자인협회	5	2	1	2007	-	2	-
699	도시와문화공간	1	2	1	2007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700	대한전시대디자인학회	1	2	1	2009	-	2	-
701	한국공공디자인협회	1	2	1	2008	-	1	-
702	한국문화상품디자인협회	1	2	1	2008	-	1	-
703	민족건축인협의회	1	2	5	2008	-	2	-
704	스페이스코디네이터	1	2	1	2008	-	2	-
705	아시아아트앤디자인학회	1	2	1	2008	-	1	-
706	한국건축설계교수회	1	2	1	2008	-	2	-
707	한국간판문화진흥협회	1	2	1	2008	-	2	-
708	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1	2	1	2009	-	1	-
709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1	2	1	2009	-	1	-
7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	2	1	1993	-	2	-
711	한국디자이너협의회	9	2	1	1994	-	2	-
712	한국디자인문화학회	9	2	1	2006	-	2	-
713	한지개발원	10	2	1	2001	-	2	-
714	전통한지공예가협회	1	2	1	2001	-	1	-
715	한국공예·디자인협회	9	2	1	2001	-	1	-
716	한국공예사랑협회	1	2	1	2006	-	1	-
717	한국공예가협회	1	2	1	1995	-	2	-
718	한국자연염색공예디자인협회	3	2	1	1999	-	1	-
719	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1	2	1	2001	-	1	-
720	사단법인 한국퀼트연합	1	2	1	2008	-	1	-
721	평생교육공예협회	3	2	1	2009	-	1	-
722	공예예술교육협회	1	2	1	2009	-	1	-
723	한국도예협회	9	2	1	2010	-	2	-
724	도시가꿈	1	2	1	2009	-	1	-
725	디자인과음식문화	1	2	4	2010	-	2	-
726	디자인여성학회	1	2	5	2010	-	1	-
727	한국현대디자인협회	9	2	4	2010	-	2	-
728	한국가구학회	1	2	5	2010	-	1	-
729	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	1	2	4	2010	-	1	-
730	한국천연염색협회	14	2	4	2011	-	2	-
731	한국공간문화디자인연구원	1	2	4	2011	-	2	-
732	한국디자인교육연구학회	1	2	4	2011	-	2	-
733	공간력	1	2	5	2012	-	2	-
734	한국전통염색협회	16	2	1	2012	-	2	-
735	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	1	2	1	2012	-	1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736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1	2	1	2013	-	2	-
737	(사)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1	2	1	2013	-	2	-
738	종합공예교육인협회	1	2	1	2014	-	1	-
739	한국칠공예문화교류협회	1	2	1	2014	-	2	-
740	(사)한국시각문화예술협회	1	2	1	2013	-	2	-
741	(사)한국사진협회	1	2	1	2013	-	2	-
742	(사)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1	2	1	2014	-	1	-
743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1	2	5	2014	-	1	-
744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센터	2	2	1	2008	-	2	-
745	한국시각문화협회	1	2	1	2014	-	2	-
746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1	2	5	2015	-	2	-
747	(사)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	1	2	5	2015	-	2	-
748	(재)서울예술재단	1	1	1	2015	-	1	-
749	이시대의좋은소리	9	2	1	1995	-	1	-
750	한국사진교육학회	9	2	1	2017	-	1	-
751	한국문화의집협회	1	2	5	2005	-	2	-
752	한국연극치료협회	1	2	1	2005	-	1	-
753	한국예술교육학회	9	2	1	2005	-	2	-
754	한국문화교육협회(kcea)	1	2	1	2006	-	2	-
755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1	2	1	2006	1	2	-
756	창의사회만들기	1	2	1	2007	-	2	-
757	전국음악치료사협회	1	2	1	2011	-	2	-
758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1	2	1	2011	-	1	-
759	조세현의 희망프레임	1	2	1	2012	-	1	-
760	모드니문화예술교육연구소	1	2	1	2013	-	2	-
761	사랑의바이올린	1	2	1	2013	-	1	-
762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1	2	1	2013	-	2	-
763	맑은 물결	1	2	1	2015	-	2	-
764	충민공임경업장군송모회	1	2	5	1961	-	2	-
765	우리문화선양회	1	2	5	1965	-	2	-
766	현정회	1	2	5	1969	-	2	-
767	왕인박사현창협회	14	2	5	1974	-	2	-
768	울곡사상연구원	1	2	5	1977	-	2	-
769	국학원	12	2	5	1988	-	2	-
770	호국정신선양회	1	2	5	1989	-	1	-
771	의성허준기념사업회	1	2	5	1992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772	박정희대통령·육영수여사송모회	1	2	5	1992	-	2	-
773	포은사상연구원	1	2	5	1993	-	1	-
774	백촌한국학연구원	1	2	5	1997	-	2	-
775	송조회	4	2	5	1997	-	2	-
776	단군조선연구원	1	2	5	1997	-	1	-
77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10	2	5	2002	-	2	-
778	한국민족문화사업회	1	2	5	1999	-	2	-
779	사명당기념사업회	1	2	5	2000	-	2	-
780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1	2	5	2003	-	1	-
781	허임기념사업회	1	2	5	2005	-	2	-
782	한서남궁억선생기념사업회	1	2	5	2008	-	2	-
783	(사)한민족학세계화본부	1	2	5	2009	-	2	-
784	송강문화진흥원	1	2	5	2011	-	2	-
785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1	2	5	2010	-	2	-
786	(사)인문학 문화포럼	1	2	5	2012	-	2	-
787	전학창달회	1	2	5	2013	-	2	-
788	장보고기념사업회	1	2	5	2016	-	2	-
789	사랑의 책나누기운동본부	1	2	5	2000	-	2	-
790	(사)땡스기브	1	2	5	2014	1	2	-
791	(사)국민독서인지문화원	1	2	5	2011	-	1	-
792	(사)숲속의 책읽는 마을	9	2	5	2014	-	2	-
793	(사)퇴계학진흥회	1	2	5	2014	-	2	-
794	한국동양운명철학인협회	6	2	5	2015	-	2	-
795	동학농민혁명유족회	1	2	5	2019	-	2	-
796	한국도서관협회	1	2	5	1945	2	2	-
797	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	1	2	5	1997	1	2	좋은책읽기가족모임
798	한국의학도서관협회	1	2	5	2002	-	1	-
799	(사)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6	2	5	2003	-	2	-
800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1	2	5	2011	-	1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801	공공도서관협의회	1	2	5	2007	-	2	-
802	한국작은도서관협회	9	2	5	2008	-	2	한국사립작은 도서관협회
803	(사)한국사서협회	1	2	5	2012	-	1	-
804	(사)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1	2	5	2013	-	2	-
805	국립중앙박물관회	1	2	1	1981	-	2	-
806	한국박물관협회	1	2	1	1991	-	1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807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1	2	1	1999	-	2	-
808	국립민속박물관회	1	2	1	2001	-	1	-
809	자연사박물관연구협회	6	2	1	2001	-	2	-
81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	2	1	2005	-	2	-
811	한국사립박물관협회	10	2	1	2005	-	2	-
812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1	2	1	2006	-	2	-
813	아차산 고구려역사진흥회	1	2	5	2008	-	2	-
814	한국박물관학회	9	2	1	2011	-	1	-
815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1	2	4	2012	-	2	-
816	글로벌콘텐츠연구원	1	2	4	2007	-	2	-
817	문화콘텐츠경영전략연구원	1	2	4	2006	-	2	-
818	문화콘텐츠외법연구회	1	2	5	2006	-	1	-
819	문화콘텐츠투자기관협의회	1	2	4	2001	-	2	-
820	중앙문화산업연구원	1	2	4	2003	-	2	-
821	한국문화경영연구원	1	2	5	2004	-	2	-
822	한국문화경제학회	10	2	5	1997	-	2	-
823	한국문화미래산업진흥원	1	2	4	2010	-	1	-
824	한국문화산업마케팅진흥협회	1	2	4	2004	-	1	-
825	한국문화산업알앤디연구소	1	2	4	2010	-	2	-
826	한국문화산업포럼	1	2	5	2003	-	2	-
827	한국문화산업학회	15	2	5	2001	-	2	-
828	한국문화전략연구소	1	2	4	2007	-	2	-
829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1	2	4	2009	-	2	-
830	한국미술산업협회	1	2	4	2002	-	1	-
831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연구원	1	2	4	2006	-	2	-
832	한국이벤트연구소	1	2	5	2003	-	2	-
833	전국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협의회	2	2	5	2012	-	2	-
834	글로벌콘텐츠네트워크	1	2	4	2009	-	2	-
835	융합형콘텐츠산업포럼	1	2	4	2003	-	1	-
836	한국문화콘텐츠기술(CT)학회	1	2	4	2006	-	2	-
837	한국문화콘텐츠학회	1	2	4	2000	-	2	-
838	한국콘텐츠개발원	1	2	4	2009	-	1	-
839	콘텐츠경영학회	1	2	4	2015	1	2	-
840	한국폰트협회	1	2	4	2015	-	2	-
841	문화콘텐츠개발원	1	2	4	2003	-	1	-
842	문화탐험영상협회	1	2	4	2000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843	민족문화영상협회	1	2	4	2000	-	2	-
844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2	2	4	1996	-	2	-
845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9	2	4	2000	-	2	-
846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9	2	4	1997	-	2	-
847	비상업영화기구	1	2	4	2009	-	2	-
848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1	2	4	1998	-	2	-
849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회	1	2	4	2001	-	2	-
850	서울영상포럼	1	2	4	2001	-	2	-
851	스크린쿼터문화연대	1	2	4	2000	-	2	-
852	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	1	2	4	2008	-	2	-
853	여성영화인모임	1	2	4	2001	-	1	-
854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1	2	4	1999	-	2	영상기술학회
855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1	2	4	2011	-	2	-
856	영화인회의	1	2	4	2000	-	2	-
857	한국영상예술협회	9	2	4	2002	-	2	-
858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1	2	4	2005	-	2	-
859	한국독립영화협회	1	2	4	1999	1	2	-
860	한국디지털영상작가협회	1	2	4	2002	-	2	-
861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	2	4	1999	-	2	-
862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1	2	4	2002	-	1	-
863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1	2	4	1999	-	2	-
864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1	2	4	1994	-	2	-
865	한국애니메이션학회	1	2	4	2007	-	2	-
866	한국영사예술인협회	1	2	4	1964	-	2	-
867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1	2	4	1996	-	2	-
868	한국영상문화제작협회	1	2	4	1977	-	2	-
869	한국영상미디어협회	1	2	4	1999	-	2	-
870	한국영화배급협회	1	2	4	1999	-	2	한국영상산업협회
871	한국영상연구소	1	2	4	1991	-	2	-
872	한국영상예술인협회	1	2	4	2010	-	2	-
873	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	1	2	4	1990	-	2	-
874	한국영상학회	1	2	4	2010	-	2	-
875	한국영화감독협회	1	2	4	2000	-	2	-
876	한국영화교육학회	1	2	4	2010	-	2	-
877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1	2	4	2003	-	2	-
878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1	2	4	2004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879	한국영화배우협회	1	2	4	2003	-	2	-
880	한국영화인총연합회	1	2	4	1962	-	-	-
881	한국영화제작가협회	1	2	4	2004	-	1	-
882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1	2	4	2004	-	1	-
883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1	2	4	2003	-	2	-
884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1	2	4	2008	1	1	-
885	한국영화학회	1	2	4	2003	-	2	-
886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1	2	4	2009	-	2	-
887	한국영화음악협회	1	2	4	2012	-	2	-
888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	6	2	4	2012	-	1	-
889	영화로세상을아름답게	1	2	4	2012	-	1	-
890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1	2	4	2012	1	1	-
891	한국다큐멘터리학회	1	2	4	2012	-	1	-
892	한국영상위원회	1	2	4	2013	1	2	-
893	한국컴퓨터그래픽산업협의회	1	2	4	2009	-	2	-
894	한국리얼3D콘텐츠제작자협회	1	2	4	2010	-	2	-
895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1	2	4	2005	-	2	-
896	한국상영발전협회	1	2	4	2015	-	2	-
897	캐릭터디자이너협회	1	2	4	2001	-	2	-
898	마인드스포츠클림피아드	1	2	4	1999	-	2	-
899	부산게임협회	2	2	4	2003	-	2	-
900	온라인소비자연대	13	2	4	2004	-	2	-
901	콘텐츠경영연구소	1	2	4	2003	-	2	-
902	한국게임개발자협회	1	2	4	2003	-	1	-
903	한국게임마케팅포럼	1	2	4	2005	-	2	-
904	한국게임물유통협회	1	2	4	1999	-	2	-
905	한국게임벤처모임	1	2	4	2002	-	2	-
906	한국게임산업협회	1	2	4	2004	-	2	-
907	한국게임시나리오작가협회	1	2	4	2001	-	2	-
908	한국게임운영자협회	5	2	4	2007	-	2	-
909	한국게임학회	9	2	4	2001	-	2	-
910	한국게임협회	1	2	4	2000	-	1	-
911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	1	2	4	2007	-	2	-
912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1	2	4	2005	-	2	-
913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1	2	4	2001	-	2	-
914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1	2	4	1985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915	한국컴퓨터게임학회	1	2	4	1998	-	2	-
916	한국e-Sports협회	1	2	4	1999	-	2	-
917	국제교류연맹	1	2	4	2004	-	2	-
918	국제e스포츠연맹	2	2	4	2008	-	2	-
919	국제장애인e스포츠연맹	1	2	4	2012	-	2	-
920	청소년게임문화협의회	1	2	4	2012	-	2	-
921	게임개발자연대	1	2	4	2013	-	2	-
922	한국게임법학회	1	2	4	2014	-	2	-
923	한국청소년게임문화협의회	1	2	4	2017	-	2	-
924	노래문화협회전국연합회	1	2	4	2001	-	2	-
925	대한가수협회	1	2	4	2006	-	2	-
926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1	2	4	1997	-	2	-
927	대한민국음악문화진흥협회	1	2	4	2007	-	2	-
928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1	2	4	2010	-	2	-
929	대한민국심바람문화예술협회	4	2	4	2011	-	2	-
930	대한패션디자이너협회	1	2	4	1961	-	1	-
931	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1	2	4	2004	-	2	-
932	새노래운동중앙협의회	1	2	4	1973	-	2	-
933	새미디어진흥회	1	2	4	2001	-	2	-
934	색소폰나라협회	1	2	4	2011	-	2	-
935	서울패션아티스트협의회	1	2	4	1995	-	1	-
936	아시아예술교류협회	1	2	4	2004	-	1	-
937	아시아패션연합회한국협회	1	2	4	2007	-	1	-
938	외국인공연제작사협회	1	2	4	2000	-	2	-
939	음악DB진흥회	1	2	4	2002	-	2	-
940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1	2	4	2001	-	1	-
941	한국가요강사협회	1	2	4	2004	-	2	-
942	한국가요작가협회	1	2	4	1989	-	2	-
943	한국가창학회	1	2	4	2010	-	2	-
944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9	2	4	2004	-	1	-
945	한국대중음악애호가협회	1	2	4	2002	-	1	-
946	한국대중음악연구소	1	2	4	2003	-	2	-
947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1	2	4	2005	-	2	-
948	한국음향예술인협회	1	2	4	1999	-	2	-
949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1	2	4	1994	-	2	-
950	한국모델협회	1	2	4	1976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951	한국뮤직비디오협회	1	2	4	2002	-	2	-
952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	1	2	4	2010	-	1	-
953	한국연주자협회	1	2	4	2009	-	2	-
954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1	2	4	2007	-	2	-
955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1	2	4	1962	-	2	-
956	한국연예인봉사회	1	2	4	2002	-	2	-
957	한국연예제작자협회	1	2	4	1992	-	2	-
958	한국음반소매상협회	1	2	4	2001	-	2	-
959	한국음반제작자협회	1	2	4	2001	-	2	-
960	한국음악발전소	1	2	4	2012	-	2	-
961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1	2	4	2012	-	2	-
962	한국음악산업협회	1	2	4	1964	-	2	-
963	한국음악스튜디오협회	1	2	4	2001	-	2	-
964	한국음악콘텐츠협회	1	2	4	2008	-	2	-
965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1	2	4	2009	-	2	-
966	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	1	2	4	2010	-	2	-
967	한국재즈협회	1	2	4	2009	-	2	-
968	한국직장인밴드협회	1	2	4	2011	-	2	-
969	한국패션문화협회	15	2	4	1997	-	1	-
970	현대대중음악연구회	1	2	4	1999	-	1	-
971	아시아모델협회	1	2	4	2008	-	2	-
972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1	2	4	2003	-	2	-
973	아시아예술과학학회	2	2	4	2004	-	2	-
974	우리만화연대	1	2	4	1999	-	2	-
975	한국교양학습만화진흥협회	1	2	4	2001	-	2	-
976	한국만화가협회	1	2	4	1968	-	2	-
977	한국만화문화연구원	1	2	4	2002	-	2	-
978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1	2	4	1998	-	2	-
979	한국만화출판협회	1	2	4	2002	-	2	-
980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9	2	4	1983	-	1	-
981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9	2	4	2001	-	2	-
982	한국에듀테인먼트산업협회	1	2	4	2009	-	1	-
983	한국대중문화예술인단체총연합회	1	2	4	2012	-	1	-
984	한국힙합문화협회	9	2	4	2010	-	2	-
985	한국방송댄스협회	1	2	4	2013	-	1	-
986	세계한류학회	1	2	4	2013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987	세계가발패션 예술인협회	1	2	4	2013	-	1	-
988	그린패션교류협회	1	2	4	2013	-	2	-
989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조직위원회	2	2	4	2013	-	2	-
990	(사)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연예협회	1	2	4	2014	-	2	-
991	(사)한국실용음악작곡가 협회	1	2	4	2014	-	2	-
992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1	2	4	2014	-	2	-
993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1	2	4	2017	-	2	-
994	아시아모델페스티벌조직위원회	1	2	4	2017	-	2	-
995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1	2	4	2006	-	2	-
996	한국저작권법학회	1	2	4	2001	-	2	-
997	한중지적재산권학회	1	2	4	2008	-	2	-
998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1	2	4	2001	-	2	-
999	한국SW저작권협회	1	2	4	2000	-	2	-
1000	한국SW감정평가학회	6	2	4	2003	-	2	-
1001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9	2	4	2003	-	2	-
1002	저작권해외진흥협회	1	2	4	2017	-	2	-
1003	코드	1	2	4	2008	-	2	-
1004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1	2	4	1988	-	2	-
1005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1	2	4	2001	-	2	-
1006	한국복제전송 저작권협회	1	2	4	2000	-	2	-
1007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1	2	4	1988	-	2	-
1008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2	4	1964	-	1	-
1009	한국음악출판사협회	1	2	4	2000	-	1	-
1010	한국음반산업협회	1	2	4	2001	-	2	-
101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1	2	4	2003	-	2	-
1012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1	2	4	2012	-	2	-
1013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1	2	4	2014	-	1	-
1014	한국위키미디어협회	1	2	4	2015	-	2	-
101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1	2	4	1995	-	2	-
1016	한국잡지협회	1	2	4	1963	-	2	-
1017	한국전문신문협회	1	2	4	1965	-	2	-
1018	한국ABC협회	1	2	4	1989	-	2	-
1019	한국신문윤리위원회	1	2	4	1996	-	2	-
1020	한국신문협회	1	2	4	1957	-	2	-
1021	건전미디어시민연대	1	2	4	2009	-	2	-
1022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	2	4	1998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023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	2	4	2002	-	2	-
1024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1	2	4	2007	-	2	-
1025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1	2	4	2008	-	2	-
1026	한국블로그산업협회	1	2	4	2008	-	2	-
1027	세계한인언론인협회	1	2	5	2002	-	2	-
1028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	1	2	5	2010	-	2	-
1029	아시아기자협회	1	2	5	2004	-	2	-
1030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1	2	4	1996	-	2	-
1031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1	2	4	2006	-	2	-
1032	한국광고총연합회	1	2	4	2014	-	2	-
1033	한국광고산업협회	1	2	4	1987	-	2	-
1034	한국광고사진가협회	1	2	4	1988	-	2	-
1035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1	2	4	1987	-	2	-
1036	한국광고주협회	1	2	4	1988	-	2	-
1037	한국전광방송협회	1	2	4	1991	-	2	-
1038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	2	4	1996	-	2	-
1039	한국광고학회	1	2	4	1989	-	2	-
1040	한국광고홍보학회	1	2	4	1998	-	2	-
1041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2	2	4	2007	-	2	-
1042	한국크리에이티브광고원	1	2	4	2015	-	2	-
1043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16	2	4	1996	-	2	-
1044	미디어미래연구소	1	2	4	2004	-	2	-
1045	대한출판문화협회	1	2	5	1952	-	2	-
1046	한국서점조합연합회	1	2	5	1958	-	2	-
1047	대한인쇄문화협회	1	2	5	1973	-	2	-
1048	한국출판학회	1	2	5	1991	-	2	-
1049	한국전자출판협회	9	2	5	1999	-	2	-
1050	한국출판인회의	1	2	5	1998	-	1	-
1051	한국아동출판협회	9	2	5	2002	-	2	-
1052	출판유통진흥원	9	2	5	2003	-	2	-
1053	출판도시임주기업협의회	9	2	5	2007	-	2	-
1054	한국번역가협회	1	2	5	1971	-	1	-
1055	한국대학출판협회	1	2	5	1982	-	2	-
1056	한국중소출판협회	1	2	5	2014	-	2	-
1057	대한체조협회	1	2	2	1945	-	2	-
1058	대한스키협회	1	2	2	1990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059	대한볼링협회	1	2	2	1973	-	2	-
1060	대한수중핀수영협회	1	2	2	1997	-	1	-
1061	대한사격연맹	1	2	2	1997	-	2	-
1062	대한바둑협회	1	2	2	2005	-	2	-
1063	대한유도회	1	2	2	1997	-	2	-
1064	대한조정협회	1	2	2	1998	-	2	-
1065	대한수영연맹	1	2	2	1998	-	2	-
1066	대한카누연맹	1	2	2	1983	-	2	-
1067	대한자전거연맹	1	2	2	1998	-	2	-
1068	대한배드민턴협회	1	2	2	1998	-	2	-
1069	대한역도연맹	1	2	2	1998	-	2	-
1070	대한탁구협회	1	2	2	1999	-	2	-
1071	대한펜싱협회	1	2	2	1999	-	2	-
1072	대한빙상경기연맹	1	2	2	1999	-	2	-
1073	대한승마협회	1	2	2	1999	-	2	-
1074	대한정구협회	1	2	2	2000	-	2	-
1075	대한핸드볼협회	1	2	2	2000	-	2	-
1076	대한근대5종연맹	1	2	2	2000	-	2	-
1077	대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	1	2	2	2000	-	2	-
1078	대한아이스하키협회	1	2	2	2001	-	2	-
1079	대한력비협회	1	2	2	2001	-	2	-
1080	대한인라인롤러연맹	1	2	2	2002	-	2	-
1081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1	2	2	2002	-	1	-
1082	대한야구협회	1	2	2	2003	-	1	-
1083	대한보디빌딩협회	1	2	2	2003	-	2	-
1084	대한바이애슬론연맹	1	2	2	2004	-	2	-
1085	대한태권도협회	1	2	2	2004	-	2	-
1086	대한소프트볼협회	1	2	2	2005	-	2	-
1087	대한농구협회	1	2	2	2005	-	2	-
1088	대한축구협회	1	2	2	2005	-	2	-
1089	대한요트협회	1	2	2	2006	-	2	-
1090	대한배구협회	1	2	2	2007	-	2	-
1091	대한세팍타크로협회	1	2	2	2007	-	2	-
1092	대한검도회	1	2	2	1994	-	2	-
1093	대한골프협회	9	2	2	1966	-	2	-
1094	대한산악연맹	1	2	2	1966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095	대한복싱협회	1	2	2	2013	-	2	-
1096	대한테니스협회	1	2	2	1994	-	2	-
1097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1	2	2	2010	-	2	-
1098	대한우슈연맹	1	2	2	1990	-	2	-
1099	대한레슬링협회	1	2	2	2011	-	2	-
1100	대한육상경기연맹	1	2	2	2009	-	2	-
1101	대한씨름협회	1	2	2	1990	-	2	-
1102	대한하키협회	1	2	2	1957	-	2	-
1103	대한양궁협회	1	2	2	1983	-	1	-
1104	대한카바디협회	2	2	2	2016	-	2	-
1105	대한크리켓협회	4	2	2	2016	-	2	-
1106	대한민국줄넘기 협회	4	2	2	2006	-	2	-
1107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1	2	2	2015	-	2	-
1108	대한게이트볼협회	9	2	2	2016	-	2	-
1109	대한궁도협회	1	2	2	1954	-	2	-
1110	대한민국족구협회	1	2	2	2016	-	2	-
1111	대한파크골프협회	1	2	2	2016	-	2	-
1112	대한국학기공협회	1	2	2	2016	-	2	-
1113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16	2	2	2016	-	2	-
1114	대한피구연맹	9	2	2	2016	-	2	-
1115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9	2	2	2016	-	2	-
1116	대한루지경기연맹	1	2	2	2008	-	2	-
1117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1	2	2	2016	-	1	-
1118	대한컬링경기연맹	1	2	2	1994	-	2	-
1119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1	2	2	2016	-	2	-
1120	대한택견회	1	2	2	1991	-	2	-
1121	대한스쿼시연맹	1	2	2	1989	-	1	-
1122	대한라켓볼협회	1	2	2	2016	-	1	-
1123	대한카라테연맹	1	2	2	2017	-	2	-
1124	대한레저스포츠회	1	2	2	2007	-	2	-
1125	한국씨름연맹	1	2	2	1990	-	2	-
1126	대한당구연맹	1	2	2	1966	-	2	-
1127	한국골프장경영협회	9	2	2	1974	-	2	-
1128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1	2	2	1985	-	2	-
1129	한국스키장경영협회	1	2	2	1990	-	2	-
1130	한국볼링경영자협회	1	2	2	1990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131	한국골프연습장협회	1	2	2	1990	-	2	-
1132	한국체력단련장협회	1	2	2	1995	-	1	-
1133	케이비엘	1	2	2	1996	-	2	-
1134	대한승마경영자협회	9	2	2	1999	-	2	-
1135	한국야구위원회	1	2	2	1981	-	2	-
1136	한국대중골프장협회	1	2	2	2008	-	2	-
1137	한국배구연맹	1	2	2	2004	-	2	-
1138	한국여자농구연맹	1	2	2	1998	-	2	-
1139	한국프로축구연맹	1	2	2	2010	-	2	-
1140	한국프로골프협회	9	2	2	1968	-	2	-
1141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1	2	2	1991	-	1	-
1142	한국프로스프츠협회	1	2	2	2015	-	2	-
1143	세계태권도연맹	1	2	2	1973	-	2	-
1144	세계경찰태권도연맹	1	2	2	2009	-	2	-
1145	동아시아스포츠탈흥협회	1	2	2	2015	-	2	-
1146	스페셜올림픽코리아	1	2	2	2008	-	2	-
1147	한국휠체어농구연맹	1	2	2	2015	-	2	-
1148	한국농아인스포츠탈흥연맹	1	2	2	1982	-	2	-
1149	관광경영학회	1	2	3	2008	-	2	-
1150	관우회	1	2	3	1991	-	2	-
1151	밝은미소운동본부	1	2	3	2002	-	2	-
1152	국민여가관광진흥회	1	2	3	2008	-	2	-
1153	지속가능한관광사회적기업네트워크	1	2	3	2010	-	1	-
1154	한국관광개발연구원	1	2	3	1985	-	2	-
1155	한국관광학회	1	2	3	1995	-	1	-
1156	한국국제관광개발연구원	1	2	3	1998	-	2	-
1157	한국여행작가협회	1	2	3	2006	-	2	-
1158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1	2	3	2009	-	1	-
1159	한국관광개발원	1	2	3	2011	-	1	-
1160	상상나라연합	1	2	3	2013	-	2	-
1161	국제관광인포럼	1	2	3	2013	-	2	-
1162	(사)문화관광서비스포럼	1	2	3	2013	-	2	-
1163	(사)한국여행안전협회	1	2	3	2015	-	1	-
1164	고택문화보존회	15	2	3	2004	-	2	-
1165	아나기코리아비앤비	1	2	3	2001	-	1	-
1166	한국관광펜션업협회	1	2	3	2004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167	한국관광호텔전문경영인협회	1	2	3	1990	-	2	-
1168	한국관광호텔업협회	1	2	3	1996	-	2	-
1169	한국오토캠핑연맹	6	2	3	1986	-	1	-
1170	한국캠핑캐라배닝연맹	1	2	3	1994	-	2	-
1171	한국컨시어지협회	1	2	3	2005	-	2	-
1172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1	2	3	2007	-	2	-
1173	한국호텔관광학회	12	2	3	2007	-	1	-
1174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1	2	3	1998	-	2	-
1175	한옥체험업협회	12	2	3	2010	-	2	-
1176	한국우수숙박시설 경영자협회	1	2	3	2010	-	1	-
1177	한국이벤트협회	1	2	3	2010	-	2	-
1178	김찬삼세계여행문화협회	1	2	3	2009	-	1	-
1179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1	2	3	2003	-	1	-
1180	한국여행업협회	1	2	3	1991	-	2	-
1181	한국탐험협회	1	2	3	2000	-	2	-
1182	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	1	2	3	2010	-	2	-
1183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1	2	3	1995	-	2	-
1184	세계미식문화연구원	1	2	3	2001	-	1	-
1185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1	2	3	1964	-	1	-
1186	한국음식관광연구원	1	2	3	2008	-	2	-
1187	한국음식관광협회	1	2	3	2002	-	2	-
1188	사단법인비비비코리아	1	2	3	2003	-	2	-
1189	한국관광명품협회	1	2	3	2010	-	2	-
1190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9	2	3	1985	-	2	-
1191	대한캠핑연맹	1	2	3	2010	-	2	-
1192	한국여행서비스교육협회	1	2	3	2015	-	1	-
1193	한국의료관광협회	1	2	3	2008	-	2	-
1194	한국마이스협회	1	2	3	2003	-	2	-
1195	한중관광문화연구소	1	2	3	2003	-	2	-
1196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4	2	3	2017	-	2	-
1197	한방의료관광협회	1	2	3	2009	1	1	-
1198	한국관광교류문화재단	1	2	3	2010	-	2	-
1199	한국컨벤션학회	6	2	3	2011	-	2	-
1200	한국PCO협회	1	2	3	2011	-	1	-
1201	자연치유관광포럼	1	2	3	2013	-	2	-
1202	대한의료관광협의회	1	2	3	2013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203	한국교육여행협회	1	2	3	2013	.	2	.
1204	한국공연관광협회	1	2	3	2014	.	2	.
1205	한강길	1	2	3	2009	.	2	.
1206	한국의 길과 문화	1	2	3	2010	.	2	.
1207	한국슬로시티본부	1	2	3	2008	.	2	.
1208	지오파크	1	2	3	2010	.	2	.
1209	국민녹색관광포럼	1	2	3	2010	.	2	.
1210	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	1	2	3	2012	.	1	.
1211	한국PR학회	1	2	5	1997	.	2	.
1212	한국PR협회	1	2	5	1989	.	2	.
1213	한국이미지정책포럼	1	2	5	2004	.	2	.
1214	한국PR기업협회	1	2	5	2008	.	2	.
1215	한국정책홍보진흥회	1	2	5	2008	.	2	.
1216	한국홍보포럼	1	2	5	2009	.	2	.
1217	한국국제PR협회	1	2	5	2010	.	2	.
1218	한국정책홍보연구원	1	2	5	2014	1	2	.
1219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1	2	5	1997	.	2	.
1220	종교평화국제사업단	1	2	5	2008	.	2	.
1221	한국불교종단협의회	1	2	5	1989	.	2	.
1222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1	2	5	1995	.	2	.
1223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	2	5	1993	.	2	.
1224	날마다좋은날구(舊)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1	2	5	1993	.	2	.
1225	장경도량고려대장경연구소	1	2	5	1996	3	2	.
1226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1	2	5	1997	.	2	.
1227	대한불교청년회	1	2	5	2014	.	2	.
1228	국제불교협회	1	2	5	2009	.	2	.
1229	선도성찰나눔실천회	1	2	5	2009	.	2	.
1230	대불	1	2	5	2010	.	2	.
123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	2	5	1991	.	2	.
123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	2	5	1962	.	2	.
1233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1	2	5	1949	.	2	.
1234	한국민족종교협의회	1	2	5	1991	.	2	.
1235	겨레열살리기국민운동본부	1	2	5	2005	.	2	.
1236	한국서원연합회	1	2	5	2006	.	2	.
1237	원림문화진흥회	1	2	5	2010	.	2	.

ID	법인명	소재지	형태	분야	설립	자본금	대표자 성별	비고
1238	한국바른마음바른문화운동본부	1	2	5	2010	-	2	-
1239	한국YWCA연합회	1	2	5	2010	-	1	-
1240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	1	2	5	2010	-	2	-
1241	한국문화·의료선교협회	9	2	5	2011	-	2	-
1242	넷마블문화재단	1	1	4	2017	-	2	-
1243	한국예절문화원	1	2	1	2017	1	2	-
1244	노사학연구원	14	2	1	2017	-	2	-
1245	플라톤아카데미	1	3	5	2010	-	2	-
1246	예술로 함께	1	2	1	2017	-	2	-
1247	넥슨재단	1	1	4	2018	2	2	-
1248	대한킵복싱협회	9	2	2	2009	-	2	-
1249	대한민국농악연합회	9	2	1	2018	-	2	-
1250	한중패션산학협회	1	2	5	2018	-	2	-
1251	한국걷는길연합	16	2	3	2018	-	2	-
1252	한국브이알에이알 콘텐츠진흥협회	1	2	4	2018	-	2	-
1253	카카오 임팩트	9	1	4	2018	-	2	-
1254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1	2	1	2016	-	2	-
1255	사단법인 린덴바움	1	2	1	2018	-	1	-
1256	(사)한국난연합회	12	2	5	2018	-	2	-
1257	사단법인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9	2	4	2018	-	2	-
1258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	6	2	4	2000	-	2	-

4. 국고보조사업 심사위원 성비 조사 설문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 기본정보 및 심의위원 성비 조사]

제출기한	2019.00.00
제출방법	이메일 회신
담당자	000

응답자 정보				
기관:	부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

번호	사업명	지원사업 정보					심의위원(최종단계 심의위원)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유형	추진연차	2019예산 (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총원 (명)	여성인원 (명)	여성비율 (%)	총원 (명)	여성인원 (명)	여성비율 (%)	총원 (명)	여성인원 (명)	여성비율 (%)
예시	사업A	신진	출판	자금	3	10,000	5	1	20%	5	1	20%	5	1	20%
예시	사업B	신진+기존	공연	교육	1	4,000	0	0	-	0	0	-	4	2	50%
예시	사업C	기존	복합	공간	5	1,500,000	6	2	33%	6	2	33%	6	3	50%
예시	사업D	기존	체육	교류	1	8,000	0	0	-	0	0	-	5	1	20%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 선정심의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의 경우, 최종 심의 단계의 심의 위원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국고보조사업 심사위원 성비 조사 대상 기관 및 지원 사업 리스트

지원대상			[코드표]		여성 비율	
지원대상			추진연차		여성 비율	
1	신진		1	1년 이하	1	10% 미만
2	기존		2	1년 이상 2년 이하	2	10~20% 미만
3	신진+기존		3	3년이상 5년 이하	3	20~30% 미만
지원분야			4	6년이상 9년 이하	4	30~40% 미만
1	공연	연극,무용 포함	5	10년이상	5	40~50% 미만
2	시각	시각, 시각예술, 전시 포함	19년 예산		6	50~60%미만
3	영화	영화	1	1억원 미만	7	60~70% 미만
4	방송	방송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	70~80% 미만
5	애니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포함	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	80~90% 미만
6	출판	문학, 인문 포함	4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	90% 이상
7	콘텐츠	상품개발, 음악, 게임 포함	5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8	복합	복합	6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9	기타	행사, 교육, 패션, 체육, 전통예술 등	7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지원유형			8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	자금	창작지원금, 원고료, 사업운영비, 도서구입 포함	9	100억원 이상		
2	교육	교육지원				
3	교류	교류 네트워킹 지원				
4	기타	전시, 연구, 공간, 공연, 플랫폼, 간접, 복합 포함				

ID	분야	기관명	사업명	사업정보					심의위원 성비(최종단계 심의)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추진 연차	19년 예산 (만원)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1	체육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2	9	1	4	5	5	1	20.0	3	9	0	0.0	1
2	체육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동계스포츠 육성	2	9	4	3	5	35	4	11.4	2	39	4	10.3	2	32	5	15.6	2
3	체육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국제대회개최 지원	3	9	1	2	3	6	2	33.3	4
4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해외배급 선제물 제작지원사업	2	3	1	1	2	10	0	0.0	1	10	4	40.0	5	5	2	40.0	5
5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2	3	1	1	.	5	2	40.0	5	10	2	20.0	3
6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개발지원	2	3	1	2	2
7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기획개발 트리트먼트 개발지원	3	3	1	2	3
8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	1	3	1	2	2	5	2	40.0	5
9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사업화지원	2	3	1	2	3	5	4	80.0	9
10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영화 장편제작지원	2	3	1	1	4	5	1	20.0	3	5	2	40.0	5	5	2	40.0	5
11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지원	2	3	1	1	2	10	4	40.0	5	10	4	40.0	5	5	2	40.0	5
12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영화 중단편제작지원	2	3	1	2	2	5	4	80.0	9	5	3	60.0	7
13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영화 초기기획지원	2	3	1	1	2	5	2	40.0	5	5	2	40.0	5	5	2	40.0	5
14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기획사 사업개발비 지원	3	8	1	3	2	5	0	0.0	1	4	0	0.0	1	5	1	20.0	3
15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초기)	2	8	1	2	3	5	1	20.0	3	5	0	0.0	1
16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성숙기업)	2	8	1	2	4	5	0	0.0	1	5	0	0.0	1
17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 머천다이징(MD) 개발 및 유통 지원	3	8	1	3	3	8	1	12.5	2	11	5	45.5	5	5	2	40.0	5
18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 창업 지원	1	8	1	2	3	6	0	0.0	1
19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 취업 지원	1	8	3	3	2

ID	분야	기관명	사업명	사업정보					심의위원 성비(최종단계 심의)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추진 연차	19년 예산 (만원)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20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아트마켓	2	1	3	5	1	5	0	0.0	1	5	3	60.0	7	3	2	66.7	7
21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	1	1	5	1	6	4	66.7	7	7	3	42.9	5	9	5	55.6	6
22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3	1	1	5	8	15	6	40.0	5	13	7	53.8	6	19	9	47.4	5
23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	3	1	1	5	8	15	8	53.3	6	19	12	63.2	7	15	7	46.7	5
24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창작뮤지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3	1	1	3	6	7	0	0.0	1	8	0	0.0	1	11	6	54.5	6
25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1	2	1	2	2	-	-	-	-	-	-	-	-	-	-	-	-
26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3	2	1	3	3	9	3	33.3	4	3	1	33.3	4	3	2	66.7	7
27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3	2	1	4	2	15	10	66.7	7	10	4	40.0	5	9	5	55.6	6
28	문화예술	정동극장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1	2	1	3	2	3	2	66.7	7	6	4	66.7	7	3	2	66.7	7
29	문화예술	정동극장	한국미술담론활성화	3	2	1	3	2	-	-	-	-	-	-	-	-	-	-	-	-
30	체육	태권도진흥재단	2019 태권도 소재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3	7	4	2	3	-	-	-	-	-	-	-	-	-	-	-	-
31	체육	태권도진흥재단	2019 태권도 소재 연재 웹툰 제작 지원사업	3	5	1	2	2	-	-	-	-	-	-	-	-	-	-	-	-
32	문화예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획전시	3	2	4	5	2	-	-	-	-	5	3	60.0	7	5	3	60.0	7
33	문화예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공예디자인 상품개발	1	7	4	5	2	6	4	66.7	7	5	2	40.0	5	5	4	80.0	9
34	문화예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3	8	1	4	2	14	1	7.1	1	12	1	8.3	1	7	0	0.0	1
35	문화예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공예분야 해외 교류 및 전시	3	8	4	5	3	-	-	-	-	-	-	-	-	-	-	-	-
36	문화예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공예 매개인력 양성	3	9	2	2	2	-	-	-	-	-	-	-	-	4	3	75.0	8

ID	분야	기관명	사업명	사업정보					심의위원 성비(최종단계 심의)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추진 연차	19년 예산 (만원)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37	문화예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복문화주간_한복디자인 개발 공모전	3	8	1	4	3	5	4	80.0	9	12	11	91.7	10	9	8	88.9	9
38	문화예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복유통지원_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한복분야)	3	8	1	4	2	5	5	100.0	10	5	5	100.0	10				
39	관광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4	8	4	4	8	10	1	10.0	2	10	1	10.0	2	14	1	7.1	1
40	관광	한국관광공사	K-POP 콘서트 지원 공모사업	2	1	1	3	3	7	1	14.3	2	14	1	7.1	1	14	1	7.1	1
41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아르코문학창작기금	1	6	1	2	3					18	4	22.2	3	14	5	35.7	4
42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문예지발간지원	3	6	1	3	3	7	2	28.6	3	5	1	20.0	3	5	1	20.0	3
43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문학행사및연구지원	2	6	1	2	2					5	1	20.0	3	5	1	20.0	3
44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전시지원	1	2	4	3	2	6	3	50.0	6	5	2	40.0	5	5	3	60.0	7
45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전시사전연구지원	1	2	4	3	1	5	1	20.0	3	5	2	40.0	5	5	3	60.0	7
46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3	2	4	2	3	6	3	50.0	6	5	2	40.0	5	4	4	100.0	10
47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3	2	4	2	2	6	3	50.0	6	5	2	40.0	5	4	4	100.0	10
48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비평지원	3	2	3	3	1	6	3	50.0	6	5	2	40.0	5	5	3	60.0	7
49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3	1	1	3	1	7	4	57.1	6	7	2	28.6	3	7	2	28.6	3
50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3	8	1	2	1	28	8	28.6	3	20	10	50.0	6	15	11	73.3	8
51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3	9	1	4	9	12	4	33.3	4	20	9	45.0	5	20	8	40.0	5
52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대관료지원	3	1	1	4	9	34	14	41.2	5	36	21	58.3	6				
53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3	8	1	3	8	9	4	44.4	5	20	12	60.0	7	15	12	80.0	9
54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연극, 무용, 전통예술, 창작 뮤지컬)	2	1	1	3	1	20	5	25.0	3	20	10	50.0	6	20	10	50.0	6

ID	분야	기관명	사업명	사업정보					심의위원 성비(최종단계 심의)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추진 연차	19년 예산 (만원)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55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2	1	1	3	1	7	1	14.3	2	6	3	50.0	6	5	2	40.0	5
56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2	1	1	3	1	5	1	20.0	3	6	1	16.7	2	6	5	83.3	9
57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2	1	1	3	1	7	3	42.9	5	7	3	42.9	5	5	2	40.0	5
58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2	1	1	3	1	25	10	40.0	5	25	10	40.0	5	25	14	56.0	6
59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2	1	1	3	1	7	2	28.6	3	10	8	80.0	9	5	2	40.0	5
60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해외 레지던스지원	3	8	3	4	4	94	33	35.1	4	59	35	59.3	6	60	32	53.3	6
61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3	8	3	4	5	94	33	35.1	4	59	35	59.3	6	60	32	53.3	6
62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3	8	3	3	3	8	2	25.0	3					11	4	36.4	4
63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문학)	1	6	2	3	1	3	2	66.7	7	4	1	25.0	3	5	2	40.0	5
64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시각예술)	1	8	2	3	2	5	3	60.0	7	3	1	33.3	4	5	4	80.0	9
65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전통예술)	1	1	2	2										5	3	60.0	7
66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기획)	1	8	2	3	2	4	1	25.0	3	3	1	33.3	4	5	2	40.0	5
67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무대예술)	1	8	2	3	1	4	1	25.0	3	6	2	33.3	4	5	2	40.0	5
68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국제예술확산지원 (일반공모)	2	8	4	4	2	94	33	35.1	4	59	35	59.3	6	60	32	53.3	6
69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국제예술확산지원 (프로모션키트지원)	2	6	1	3	2	94	33	35.1	4	59	35	59.3	6	60	32	53.3	6
70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남북문화예술지원	3	8	3	2	2									6	2	33.3	4
71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2	2	1	2	2					5	2	40.0	5	5	2	40.0	5
72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2	1	1	5	5	5	2	40.0	5	6	4	66.7	7	15	6	40.0	5
73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발굴형)	2	6	1	3	3	5	3	60.0	7	10	3	30.0	4	5	3	60.0	7
74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청년예술형)	2	9	1	2	6									5	4	80.0	9
75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2	1	1	5	3	5	2	40.0	5	5	3	60.0	7	5	3	60.0	7

ID	분야	기관명	사업명	사업정보					심의위원 성비(최종단계 심의)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추진 연차	19년 예산 (만원)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76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2	7	1	5	5	5	2	40.0	5	5	2	40.0	5	15	6	40.0	5
77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2	9	1	5	6	5	3	60.0	7	5	2	40.0	5	15	7	46.7	5
78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2	9	1	2	4									5	2	40.0	5
79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2	9	1	5	4	5	3	60.0	7	5	3	60.0	7	5	3	60.0	7
80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발굴형)	2	9	1	4	8	7	3	42.9	5	10	5	50.0	6	20	10	50.0	6
81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해외진출지원	1	8	3	2	3									4	2	50.0	6
82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무용)	1	1	2	3	2	3	2	66.7	7	4	3	75.0	8	5	4	80.0	9
83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연극)	1	1	2	3	2	4	2	50.0	6	4	2	50.0	6	5	2	40.0	5
84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음악)	1	1	2	3	2	4	1	25.0	3	3	1	33.3	4	5	2	40.0	5
85	문화예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예술로	3	8	1	4	8	24	7	29.2	3	23	8	34.8	4	34	9	26.5	3
86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선정 보급	4	6	1	5	8	63	18	28.6	3	39	12	30.8	4				
87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4	6	1	5	4	5	2	40.0	5	5	2	40.0	5	5	3	60.0	7
88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수출용 출판 홍보자료 (초록·샘플) 지원 사업	3	6	1	4	3	7	5	71.4	8	3	3	100.0	10	3	2	66.7	7
89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수출용 출판 홍보자료 (포트폴리오) 지원 사업	3	6	1	4	3	4	2	50.0	6	4	2	50.0	6	3	3	100.0	10
90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저작권 수출 활성화 지원	3	6	1	2	2					6	4	66.7	7				
91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출판전문인력양성	3	6	2	3	2	13	2	15.4	2	11	5	45.5	5	4	2	50.0	6
92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전문인력양성 (출판아카데미)	3	6	2	3	2	10	1	10.0	2	10	1	10.0	2	10	1	10.0	2

ID	분야	기관명	사업명	사업정보					심의위원 성비(최종단계 심의)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추진 연차	19년 예산 (만원)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93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일자리창출지원	1	6	1	3	2	-	-	-	-	-	-	-	-	-	-	-	-
94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년 인문상상 프로젝트 지원	1	6	1	2	2	-	-	-	-	5	0	0.0	1	5	1	20.0	3
95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 지원)	3	6	1	3	2	5	1	20.0	3	5	3	60.0	7	5	2	40.0	5
96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오디오북 제작 지원)	3	6	1	2	2	-	-	-	-	-	-	-	-	5	2	40.0	5
97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3	6	1	2	2	-	-	-	-	5	2	40.0	5	5	1	20.0	3
98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지원)	3	6	1	4	3	5	1	20.0	3	5	2	40.0	5	5	1	20.0	3
99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4	6	1	2	3	-	-	-	-	10	2	20.0	3	11	6	54.5	6
100	문화예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해외도서전 위탁도서 수출 지원 사업	3	6	1	4	2	5	5	100.0	10	5	4	80.0	9	3	3	100.0	10
101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1	5	3	3	2	6	1	16.7	2	7	1	14.3	2	14	1	7.1	1
102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소재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3	7	1	3	8	7	2	28.6	3	8	0	0.0	1	7	3	42.9	5
103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투어 프로그램 개최 지원	3	7	3	2	2	-	-	-	-	-	-	-	-	7	2	28.6	3
104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_非다큐멘터리 부문	3	4	1	5	3	6	5	83.3	9	7	2	28.6	3	9	0	0.0	1
105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_다큐멘터리 부문	3	4	1	5	3	6	2	33.3	4	7	2	28.6	3	7	2	28.6	3

ID	분야	기관명	사업명	사업정보					심의위원 성비(최종단계 심의)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추진 연차	19년 예산 (만원)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106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공고	3	7	1	2	5	-	-	-	-	-	-	-	-	7	1	14.3	2
107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요맞춤형 해외마켓 참가지원	2	7	3	2	2	-	-	-	-	-	-	-	-	7	2	28.6	3
108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수출활성화 지원	3	7	3	4	4	6	0	0.0	1	7	0	0.0	1	7	2	28.6	3
109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3	7	1	5	8	6	1	16.7	2	7	0	0.0	1	12	1	8.3	1
110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케이드게임 활성화	3	7	3	4	3	6	1	16.7	2	7	1	14.3	2	7	2	28.6	3
111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스쿨 운영	3	7	2	2	5	-	-	-	-	-	-	-	-	-	-	-	-
112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	3	7	4	4	8	6	0	0.0	1	7	1	14.3	2	7	0	0.0	1
113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2	7	1	2	8	-	-	-	-	6	0	0.0	1	7	1	14.3	2
114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 지원	2	7	4	4	5	7	1	14.3	2	6	0	0.0	1	6	1	16.7	2
115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3	4	1	5	6	12	1	8.3	1	14	4	28.6	3	14	6	42.9	5
116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육성 지원	2	4	1	3	5	5	0	0.0	1	7	1	14.3	2	7	2	28.6	3
117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3	4	1	3	5	6	1	16.7	2	7	2	28.6	3	7	0	0.0	1
118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3	4	1	3	4	6	0	0.0	1	7	2	28.6	3	7	2	28.6	3
119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용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2	4	1	4	4	6	2	33.3	4	7	1	14.3	2	7	2	28.6	3
120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	2	4	1	5	4	-	-	-	-	-	-	-	-	-	-	-	-
121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상현실콘텐츠 제작 지원	3	4	1	2	8	-	-	-	-	-	-	-	-	-	-	-	-
122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콘텐츠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운영	1	7	4	2	4	-	-	-	-	7	0	0.0	1	-	-	-	-
123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콘텐츠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2	7	3	2	2	-	-	-	-	7	2	28.6	3	7	0	0.0	1
124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콘텐츠 해외 현지 유통 활성화 지원	2	7	3	2	2	-	-	-	-	7	2	28.6	3	-	-	-	-
125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상현실 콘텐츠 사업화 지원	2	7	3	2	3	-	-	-	-	7	2	28.6	3	-	-	-	-

ID	분야	기관명	사업명	사업정보					심의위원 성비(최종단계 심의)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추진 연차	19년 예산 (만원)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126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사업화 촉진	2	7	4	3	4	6	1	16.7	2	7	0	0.0	1	7	2	28.6	3
127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연구개발	2	7	1	3	9	34	7	20.6	3	14	5	35.7	4	28	6	21.4	3
128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거점 운영	2	7	3	1	7
129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컨퍼런스 등 정보교류 지원	2	7	3	2	2
130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2	7	1	5	9	8	0	0.0	1	8	1	12.5	2	8	0	0.0	1
131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운영	3	7	4	4	4	6	0	0.0	1	7	2	28.6	3	7	2	28.6	3
132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육성프로그램	1	7	1	3	6	6	1	16.7	2	7	0	0.0	1	7	3	42.9	5
133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조자산마당 운영 활성화	2	7	4	4	3	6	2	33.3	4	7	2	28.6	3	7	1	14.3	2
134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IP 협업 프로젝트 창작 지원	2	7	1	3	3	6	1	16.7	2	7	1	14.3	2	7	2	28.6	3
135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CKL스테이지 기획대관 프로그램	2	7	4	2	7	0	0.0	1	7	2	28.6	3
136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도약 프로그램	2	7	1	2	6	7	1	14.3	2
137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재도전 프로그램	2	7	4	2	5	7	0	0.0	1
138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진출 지원	2	7	3	2	5	7	1	14.3	2
139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3	7	2	4	8	7	1	14.3	2	7	0	0.0	1	7	0	0.0	1
140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창의체험스쿨 운영 지원	1	7	4	3	3	7	3	42.9	5	8	3	37.5	4	7	5	71.4	8
141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단편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3	5	1	4	3	6	0	0.0	1	7	1	14.3	2	7	4	57.1	6
142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확장성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3	5	1	2	3	7	0	0.0	1
143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산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3	5	1	5	7	6	2	33.3	4	7	3	42.9	5	7	0	0.0	1
144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애니메이션레벨업 제작 지원	2	5	1	3	8	5	1	20.0	3	7	2	28.6	3	7	4	57.1	6
145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차세대 플랫폼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3	5	1	2	4	6	1	16.7	2	7	0	0.0	1	7	0	0.0	1

ID	분야	기관명	사업명	사업정보					심의위원 성비(최종단계 심의)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추진 연차	19년 예산 (만원)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총원 (명)	여성 인원 (명)	여성 비율 (%)	비율 코드
146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 애니메이션 해외방영 지원	2	5	3	2	3	-	-	-	-	-	-	-	-	7	1	14.3	2
147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신규캐릭터 IP사업화 지원	2	5	1	2	3	-	-	-	-	-	-	-	-	7	1	14.3	2
148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IP 융복합 라이선싱 사업화 지원	2	5	1	2	8	-	-	-	-	-	-	-	-	7	0	0.0	1
149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 공모전 지원	2	5	3	3	2	6	0	0.0	1	7	0	0.0	1	7	0	0.0	1
150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 IP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	5	4	4	5	6	2	33.3	4	7	1	14.3	2	7	2	28.6	3
151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스토리 발굴 육성	1	5	1	4	4	6	1	16.7	2	7	2	28.6	3	7	1	14.3	2
152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 사업화 지원	2	5	1	4	4	6	1	16.7	2	7	1	14.3	2	7	4	57.1	6
153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3	5	3	2	4	-	-	-	-	-	-	-	-	7	4	57.1	6
154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플랫폼 활용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	3	7	4	2	6	-	-	-	-	-	-	-	-	7	2	28.6	3
155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전략시장 진출 유통 활성화	3	7	3	2	4	-	-	-	-	-	-	-	-	7	2	28.6	3
156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 브랜드 육성 지원	2	9	1	3	4	6	2	33.3	4	7	4	57.1	6	7	7	100.0	10
157	문화예술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이디어 기획 개발 지원	2	9	3	2	3	-	-	-	-	-	-	-	-	7	2	28.6	3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준호 (주)이안전략컨설팅 대표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주)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책임연구원

위촉연구원 : 변영건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학 석사 재학
김희정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
정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 석사
신한나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 석사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분석 연구

발행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일 2019년 11월

인쇄처 (주)더크리홍보